

광주선생안

- 무진주도독에서 광주광역시장까지(上) -

정인서 저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20

광주선생안

- 무진주도독에서 광주광역시장까지(上) -

정 인 서 저

본서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한국학 저술 출판 지원을 받아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고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간행한 것임.

서문

옛일을 기록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일이다. 특히 사람의 기록과 관련해서는 그 기록의 맞고 틀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현상적으로 드러난 내용만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 책은 역대 광주 수령들의 기록을 찾아내 광주에서의 활동을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함께 연구자의 개인적인 역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다행히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일성록》이 상당 부분 번역되어 있어 광주목사와 같은 수령의 임면에 관한 기본적인 기록들을 찾을 수 있었다. 추가로 위 DB에 있는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총간, 고전 원문 등은 물론 인터넷에서 인용할 수 있는 개인문집이나 비문 자료들을 찾아 공식 기록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선행 연구자들의 해제와 각주, 서지정보 등을 통해 인물의 개인적인 가족이나 지인 관계 등도 살필 수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등은 중요한 검색사이트로 활용했다. 이 같은 검색 기능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고 정리했다.

이 책은 1924년판 《광주읍지》의 기록과 2021년판 《광주향교지》의 기록을 기초로 자료를 찾아내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기록을 찾고 원고를 쓰면 쓸수록 데이터베이스의 글자 하나라도 틀림이 없는가, 원문의 한자를 제대로 확인했는가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료를 검색하고 찾아보는 과정에 기존 기록의 오류가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예컨대 신문(辛崙) 같은 경우 성을 《실록》에서는 신(辛), 《읍지》에서는 신(申)으로 표기했고, 신한(申瀚)의 경우는 이름을 《실록》에서는 한(瀚), 《읍지》에서는 한(漢)으로 기록했다. 이밖에도 본문에서 번역을 미뤄둔 어려운 한자들에 대한 해석이나 운문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하면 풀어서 기술하고 한자는 [] 안에 넣었다.

이 책의 제목은 《광주선생안》이지만 부제는 '무진주도독에서 광주광역시장까지'로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상·중·하 3권으로 묶을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역사에서 한 번도 광주 수령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이들을 추가로 발굴했다는 성과와 함께 앞으로도 노력을 더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라도 기록을 더 찾아내고 정리하는 과정은 다음 연구자들의 노력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고무되었다. 이번 집필 과정을 통해 그동안 알려진 광주의 수령에 관한 기록도 새롭게 수정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상권'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김헌창(金憲昌)과 김일(金鎰), 고려시대의 탁이위(卓理位), 이성(李晟), 김연(金暉), 이운길(李云吉), 김상(金賞), 황거중(黃居中), 김준(金準) 그리고 조선시대의 이민(李岷), 이숙야(李叔野), 전구생(全俱生), 최종리(崔宗理), 양기(梁岐), 오치선(吳致善), 유곡(柳穀), 김석(金碶), 이세정(李世貞), 이원성(李元成), 정순(鄭洵), 남효의(南孝義), 박수량(朴守良), 안수량(安秀良), 이거(李璅),

민철명(閔哲命), 이수준(李壽俊), 조익(趙翊) 등 소개되지 않았던 27명의 새로운 기록을 찾아내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원고 마감 5일 전까지 기록을 전혀 찾지 못했던 김수홍(金守弘)은 김우홍(金宇弘)의 오류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서경천(徐擎天)과 윤시형(尹時亨)은 《광주읍지》에 실린 이름 외에는 전혀 그 기록이 없었다. 이 두 사람은 한자 기록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다양한 방식으로 오래도록 찾는 데 힘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또한 기존 기록은 단순히 이름과 직위 정도만 소개됐으나 이를 인물사 중심으로 약술하였다. 이를 통해 광주 수령을 맡았던 인물에 대해 이해하며 어느 정도나마 그들의 행적을 알아보는 데 집중했다. 다만 집필 과정에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많이 의존하여 인물평가에서 의도치 않은 내용들도 있었다. 그 이면에는 당파 간 정쟁 상황에서 실록의 편찬자들이 의도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기록에 있는 내용을 옮겨 기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광주읍지》(1924)와 《광주향교지》(2021)에 기록된 이들 수령 가운데는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광주가 강등당하는 등 이름이 바뀌는 일로 인해 잘못 기술되거나 빠진 수령들도 있었다. 광산현으로 강등되었을 때의 수령을 목사로 표기했는가 하면, 해양현이나 화평부, 무진군 시절의 수령들은 아예 조사된 바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광주향교지》 기록도 일부 오류가 나타나면서 ‘광주목사’를 검색했을 때 번역문은 ‘光州牧使’로 되어 있었으나 원문에서는 ‘廣州牧使’인 경우도 2명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다. 따라서 《광주향교지》의 기록에는 모두 243명이지만 이렇게 2명이 광주(光州) 지역의 수령인 것처럼 잘못 기록된 사례를 제외하면 241명이 조선시대 광주 수령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필자가 찾아낸 수령들을 합친다면 훨씬 더 많아진다. 이처럼 기존 자료의 오류로 인해 이를 확인하고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자료의 한계에 직면해 힘든 과정을 보내기도 했다.

광주에 재임했던 수령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는 그들의 개인문집 외에 광주지역에 거주했던 인물들의 관련 문집이 많이 번역되거나 원문이라도 DB에 올라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활동한 수령들의 기록에 대해서는 광주권에서 활동한 이들의 문집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광주 수령들의 행적은 다양한 기록과의 도전이기 때문에 기록상의 사소한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광주선생안 - 무진주도독에서 광주광역시장까지》 ‘중권’과 ‘하권’을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정밀한 조사를 하고 상권에서 찾아내지 못한 수령들의 행적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 여름에
정인서

차례

서문 • 3

일러두기 • 12

제1부 | 광주와 수령 • 13

광주의 역사 • 14

광주읍호의 변동 • 21

수령의 의미와 역할 • 23

수령의 파견 • 27

수령의 역량과 과거 급제 • 30

수령의 임기 • 37

수령의 기록물 • 43

제2부 | 광주의 수령들 • 47

광주선생안의 활용 • 48

통일신라시대 • 51

1. 천훈(天訓, 650?~?), 재임 : 678~? • 52
2. 김헌창(金憲昌, 780?~822), 재임 : 813~814 • 54
3. 김양(金陽, 808~857), 재임 : 828~? • 56
4. 김일(金鎰, 900?~?), 재임 : 930?~? • 59

고려시대 • 62

1. 탁이위(卓理位, 1230?~?), 재임 : 1250?~? • 62
2. 이성(李晟, 1251~1325), 재임 : 1320?~? • 64
3. 김연(金暉, 1300?~1360?), 재임 : 1345?~? • 65
4. 이운길(李云吉, 1300?~1370?), 재임 : 1362?~? • 68
5. 김상(金賞, ?~1389), 재임 : 1370?~? • 69
6. 황거중(黃居中, ?~?), 재임 : 1380?~? • 73
7. 김준(金準, ?~?), 재임 : 1384?~? • 76
8. 이서(李舒, 1332~1410), 재임 : 1390~1392 • 76

조선시대 • 78

1. 유호(柳灝, ?~?), 재임 : 1392?~1396? • 79
2. 이민(李岷, 1360?~1420?), 재임 : 1400?~? • 81
3. 이숙야(李叔野, 1377~?), 재임 : 1410?~? • 83
4. 이각(李愨, ?~?), 재임 : ?~1415 • 84
5. 최부(崔府, 1370~1452), 재임 : ?~1417 • 86
6. 권담(權湛, ?~1423), 재임 : 1420?~1421 • 88
7. 김포(金苞, ?~?), 재임 : 1421~? • 90
8. 전구생(全俱生, ?~?), 재임 : 1422?~? • 90
9. 신보안(辛保安, ?~1428), 재임 : ?~1428 • 91
10. 최종리(崔宗理, ?~?), 재임 : 1433~? • 93
11. 양기(梁岐, ?~?), 재임 : 1435~1439 • 94
12. 오치선(吳致善, ?~?), 재임 : 1442~? • 95
13. 안철석(安哲石, ?~?), 재임 : 1450~?, • 98
14. 이다림(李多林, 1394~1468), 재임 : 1453~1455 • 102
15. 송휴명(宋休明, ?~?), 재임 : 1456~1457 • 104
16. 유곡(柳穀, 1415~1482), 재임 : ?~1461 • 105
17. 성순조(成順祖, 1418~1473), 재임 : 1466~1469 • 107
18. 이영구(李英壽, ?~?), 재임 : 1472~? • 108

19. 문수덕(文修德, ?~?), 재임 : 1475~1476 • 110
20. 김순보(金舜輔, ?~?), 재임 : 1479~1480 • 112
21. 설순조(薛順祖, 1427~1496), 재임 : 1480~? • 113
22. 윤탄(尹坦, ?~?), 재임 : ?~1482 • 116
23. 박미(朴楣, 1433~1491), 재임 : 1482~1485? • 118
24. 유양(柳壤, ?~?), 재임 : ?~1487 • 121
25. 권수평(權守平, 1461~1524), 재임 : 1488~? • 124
26. 김석(金錫, ?~?), 재임 : 1490?~? • 127
27. 신한(申漢, ?~?), 재임 : 1500?~? • 130
28. 이출(李茁, 1448~1528), 재임 : ?~1507 • 130
29. 이세징(李世貞, 1461~1522), 재임 : 1507~? • 132
30. 남울(南慄, 1452~?), 재임 : 1510~? • 133
31. 이원성(李元成, ?~?), 재임 : ?~1511? • 134
32. 정순(鄭洵, 1456~1527), 재임 : 1523~1524 • 135
33. 송흥(宋欽, 1459~1547), 재임 : 1524~1525 • 137
34. 양계벽(梁季璧, ?~?), 재임 : ?~1530? • 143
35. 남효의(南孝義, 1474~1551), 재임 : 1530 • 144
36. 장세필(張世弼, 1447~1552), 재임 : 1530~1531 • 147
37. 신한(申瀚, 1482~1543), 재임 : 1531~1536 • 148
38. 박우(朴祐, 1476~1547), 재임 : 1536~1537 • 150
39. 이만손(李萬孫, ?~?), 재임 : 1537 • 153
40. 이홍간(李弘幹, 1486~1546), 재임 : 1540~1543 • 154
41. 송순(宋純, 1493~1582), 재임 : 1543~1544 • 159
42. 박수량(朴守良, 1491~1554), 재임 : ?~1545 • 162
43. 안수량(安秀良, 1486~?), 재임 : 1545~? • 164
44. 조안국(趙安國, 1501~1573), 재임 : ?~1548 • 166
45. 이거(李璵, ?~?), 재임 : ?~1549? • 167
46. 김응두(金應斗, 1492~1552), 재임 : ?~1550 • 169
47. 임구령(林九齡, 1501~1562), 재임 : 1550~1552 • 170

48. 임봉(林鵬, 1486~1553), 재임 : 1552~1553 • 172
49. 오겸(吳謙, 1496~1582), 재임 : 1553~1555 • 175
50. 이희손(李希孫, 1497~1566), 재임 : 1555~1557 • 178
51. 박자방(朴自芳, ?~?), 재임 : 1557~? • 181
52. 황윤건(黃允騫, ?~?), 재임 : 1559 • 182
53. 이증영(李增榮, ?~1563), 재임 : 1559~1560 • 182
54. 유경심(柳景深, 1516~1571), 재임 : 1560~1562 • 184
55. 윤복(尹復, 1512~1577), 재임 : 1562~? • 187
56. 김적(金適, 1507~1579), 재임 : 1563~1564 • 189
57. 신륵(辛崑, 1504~1565), 재임 : 1564~1565 • 191
58. 최응룡(崔應龍, 1514~1580), 재임 : 1566~1567 • 193
59. 양응정(梁應鼎, 1519~1581), 재임 : 1568~1570 • 197
60. 이순형(李純亨, 1498~?), 재임 : 1570~1571 • 201
61. 윤행(尹行, 1508~1592), 재임 : 1571~? • 203
62. 임회(林薈, 1508~1573), 재임 : 1572~? • 205
63. 민철명(閔哲命, ?~?), 재임 : 1573? • 208
64. 곽규(郭規, 1521~1584), 재임 : 1573? • 209
65. 홍보(洪溥, 1521~?), 재임 : ?~1573 • 210
66. 임훈(林薰, 1500~1584), 재임 : 1573~1574 • 211
67. 성수익(成壽益, 1528~1598), 재임 : 1575~1577 • 214
68. 윤희길(尹希吉, 1534~?), 재임 : 1577~1580 • 219
69. 김우홍(金宇弘, 1522~1590), 재임 : 1580? • 220
70. 신응기(辛應基, 1530?~?), 재임 : 1580 • 222
71. 신응시(辛應時, 1532~1585), 재임 : 1580~1582 • 224
72. 이장영(李長榮, 1521~1589), 재임 : 1582~? • 228
73. 정염(丁焰, 1524~1609), 재임 : 1584~? • 231
74. 권덕여(權德輿, 1518~1591), 재임 : ?~1585 • 233
75. 안용(安容, 1522~1586), 재임 : 1585~? • 235
76. 김행(金行, 1532~1588), 재임 : 1586~1587 • 237

77. 김우굉(金宇宏, 1524~1590), 재임 : 1587~1589 • 239
78. 오운(吳漣, 1540~1617), 재임 : 1589~1590 • 242
79. 정윤우(丁允祐, 1539~1605), 재임 : 1591~1592 • 246
80. 권울(權慄, 1537~1599), 재임 : 1592 • 248
81. 장의현(張義賢, 1530~?), 재임 : 1593 • 252
82. 최철건(崔鐵堅, 1548~1618), 재임 : 1593~1596 • 254
83. 이정신(李廷臣, 1559~1627), 재임 : 1596~1598 • 256
84. 이상길(李尙吉, 1555~1637), 재임 : 1598~1602 • 259
85. 조익(趙翊, 1556~1613), 재임 : 1602 • 262
86. 여우길(呂祐吉, 1567~1632), 재임 : 1602~1603 • 264
87. 한수민(韓壽民, 1547~?), 재임 : 1604 • 266
88. 이집(李埵, 1565~?), 재임 : 1604 • 267
89. 이경함(李慶涵, 1553~1627), 재임 : 1604~1606 • 268
90. 정구(鄭逵, 1543~1620), 재임 : 1606 • 270
91. 조희보(趙希輔, 1553~1622), 재임 : 1606~1611 • 274
92. 서경천(徐擎天, ?~?), 재임 : 1540년대 • 276
93. 윤시형(尹時亨, ?~?), 재임 : 1550년대 • 276

참고문헌 • 279

부 록 • 283

일러두기

- 《광주읍지》 자료는 광주민속박물관(2003)의 1924년판 국역본과 영인본, 《광주향교지》는 광주향교의 2021년판을 참고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연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

제 1 부

광주와 수령

1. 광주의 역사

광주광역시에는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역사적 변화를 겪었다. 이 시기에 걸친 광주 역사를 가장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그리고 《광주시사》(1992)이다. 이 세 기록은 광주의 옛 지명과 행정구역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기록을 정리하고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¹

광주의 뿌리로 볼 수 있는 백제의 무진주(武珍州)는 1주15군 44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² 이들 군현 중에서 현재의 광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동구와 무등산 일대인 무진주와 광산구 북룡동 지역의 북룡현(卜龍縣), 광산구 운수동 지역의 수천현(水川縣)이 해당한다. 나머지 지역은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일부에 걸쳐 있으며, 그중에서도 나주, 순천, 여수, 광양, 담양, 고흥, 보성, 영암, 장성, 함평, 곡성, 구례, 화순, 강진,

-
- 1 《세종실록 지리지》 제151권 무진군 편과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5권 전라도 광산현 편, 그리고 《광주시사》(1997)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하에서는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 한다.
 - 2 《삼국사기》 권37 잡지6에 무진주의 군현으로 무진주(武珍州), 감평군(歙平郡), 나이군(奈已郡), 도무군(道武郡), 무시이군(武尸伊郡), 몰아혜군(勿阿兮郡), 발라군(發羅郡), 북홀군(伏忽郡), 분차군(分峯郡), 아차산군(阿次山郡), 욱내군(欲乃郡), 월나군(月奈郡), 이릉부리군(伊陵夫里郡), 인진도군(因珍島郡), 추자혜군(秋子兮郡), 파부리군(波夫里郡), 갈초현(葛草縣), 거지산현(居知山縣), 계천현(季川縣), 고록지현(古祿只縣), 고마미지현(古馬彌知縣), 고미현(古彌縣), 고서이현(古西伊縣), 고시이현(古尸伊縣), 과지현(菓支縣), 구사진혜현(丘斯珍兮縣), 구차례현(仇次禮縣), 굴내현(屈乃縣), 굴지현(屈支縣), 다지현(多只縣), 도계현(道階縣), 도산현(徒山縣), 돌산현(突山縣), 동로현(冬老縣), 동음현(冬音縣), 두부지현(豆夫只縣), 두힐현(豆昝縣), 둔지현(遁支縣), 마로현(馬老縣), 마사랑현(馬斯良縣), 매구리현(買仇里縣), 모랑부리현(毛良夫里縣), 미동부리현(未冬夫里縣), 반나부리현(半奈夫里縣), 북룡현(伏龍縣), 비사현(比史縣), 상로현(上老縣), 새금현(塞琴縣), 소비혜현(所非兮縣), 송미지현(松彌知縣), 수천현(水川縣), 실어산현(實於山縣), 아로곡현(阿老谷縣), 오차현(烏次縣), 원촌현(猿村縣), 울지현(栗支縣), 잉리아현(仍利阿縣), 조조례현(助助禮縣), 황술현(黃述縣) 등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23.5.15. 인용).

해남, 무안, 진도, 영광, 신안 등은 현재도 같은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무진주라는 이름이 기록상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498년(동성왕20)이다. 그때 왕이 탐라(耽羅)가 공물과 부세를 바치지 않는다고 하여 직접 정벌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으나 탐라가 사신을 보내 죄를 빌었으므로 그만두었다고 한다.³ 이 기록으로 보아 백제시대 때에 광주는 무진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 후에 광주는 여러 번의 이름 변경을 겪었다. 신라가 백제를 차지한 후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무진(武珍)·무주(武州)·광주(光州)·해양(海陽)·익주(翼州)·화평(化平)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이들 이름 가운데 일부는 광주지역에서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백제의 무진주(武珍州)는 일명 노지(奴只)라고 했다.⁴ 노지를 향찰로 읽을 때 노기가 된다.⁵ 전라도 지역의 어른들이 밭이나 강가에서 나온 채소나 과일을 ‘노지 채소’, ‘노지 과일’이라는 말을 하는 데 자연 습지에서 비롯되었다. 무들이라는 지명도 있는데 이는 백제 때 사용했던 ‘물들’이나 ‘무들’은 ‘무진’을 의미한다.⁶ 즉 물과 들을 말하는 것으로 영산강과 여러 지천의 물길이 넘나들어 습지가 많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의 어머니와 같은 무등산의 무등도 무들에서 유래했다.

3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제4, 동성왕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4 광주의 백제 당시의 지명이 ‘무진주’와 ‘노지’로 나타난다. 《삼국사기》 권37 지리4에 ‘노지’로 나온다. 노중국(1991)은 무진주는 통일신라 때의 명칭이 이 시기로 소급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견해를 냈다.

5 나무위키, 순우리말/지명, <https://namu.wiki/> (2022.8.15. 인용)

6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역사문화자원스토리텔링, 역사문화자원 1000, <http://gjstory.or.kr/> (2022.8.15. 인용)

□ 무진주의 이칭 ‘노지(奴只)’에 대하여⁷

《고려사》 권57에 기록된 무진주의 이칭 ‘奴只’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먼저 奴只의 ‘只’에 대해서라도 살펴 봤다. ‘只’의 현행 옥편에 기록된 한자음은 ‘지’로 나타난다. 하지만 옛 지명 자료에는 ‘기’로 나타난다. 이런 사례는 광주 태봉산에서 태실과 함께 수습되었던 지식에 기록된 조선 인조 때의 “王男大君阿只氏胎”에서의 ‘阿只’를 광주민속박물관 2층 전시실에 ‘아기씨’로 표기해 놓은 데서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권36, 지리3에 연기현(燕岐縣)은 본래 백제(百濟)의 두잉기현(豆仍只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燕岐縣本百濟豆仍只縣景德王改名今因之]라는 기록이 있다. 백제의 ‘豆仍只縣’이 ‘燕岐縣’으로 개칭되었다. 여기에서 ‘只’가 ‘岐’로 개칭되었는데 ‘岐’와 ‘只’는 음을 빌어 표기한 지명어다. 그러므로 백제와 신라시대에는 ‘岐’와 ‘只’가 ‘기’로 읽었음을 알려 준다. 이런 사실은 조선 인조 대에도 나타난다. 그런데도 국어학자가 아닌 다른 분야 연구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므로 ‘아기씨’를 ‘아지씨’로 읽은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 권36, 지리3에 유성현(儒城縣)은 본래 백제(百濟)의 노사기현(奴斯只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儒城縣本百濟奴斯只縣景德王改名今因之]라고 했다. 여기에서도 ‘只’는 ‘기’로 읽어야 할 것이다. 통일신라 경덕왕이 백제의 ‘奴斯只縣’을 ‘儒城縣’으로 개칭했다. ‘奴斯只’와 ‘儒城’을 비교하면 ‘奴斯’는 ‘儒’로 대응되어 개칭되었고, ‘只’는 ‘城’으로 대응되어 개칭되었다. 앞으로 ‘奴只’는 ‘儒城’과의 연계 속에 그 어원을 찾아 읽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7 이는 지명어를 연구하는 조강봉 전 동강대 교수와의 인터뷰(2023.6.14.) 내용이다.

신라가 백제를 차지한 뒤 통일신라 때인 678년(문무왕18) 4월에 아찬 천훈을 무진주도독으로 삼는다는 기록이 보이는데⁸ 이 무렵에 무진주⁹로 부르고 도독¹⁰을 파견하였다.¹¹ 문무왕 때에 9주를 설치하고 행정 장관으로서 도독을 파견하였다. 757년(경덕왕16)에 무주(武州)로 지명을 바꾸었는데 892년(진성여왕6)에 견훤(甄萱)이 무주를 습격하여 빼앗아 스스로 왕이 되고¹² 후백제(後百濟)¹³라 부르다가 완산주(完山州, 지금의 전주)로 도읍을 옮겼다.¹⁴

‘광주’라는 이름은 940년(고려 태조23)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¹⁵ 그러나 다른 기록에 따르면 신검의 아우인 ‘광주성주

- 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제7, 문무왕, 夏四月, 阿滄天訓爲武珍州都督.
- 9 무진주(武珍州)는 지금의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신라 9주(州)의 하나였다.
- 10 도독(都督)은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제6, 문무왕 3년 4월에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 대도독부로 삼고 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삼았다(夏四月, 大唐以我國爲雞林大都督府, 以王爲雞林州大都督)”라는 기록이 있고, 도독부는 통치 지역의 크기에 따라 대·중·하도독부로 구분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당나라가 초대 웅진도독으로 당나라 본국인인 좌위낭장 왕문도(王文度)를 임명하였는데 이는 백제부흥군에 대한 대비전략으로 웅진성의 장악을 통해 백제 고토를 통치하기 위해서였다. 박민경 (2021), “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 검토”, 이주사학회 24, pp.105~134.
- 11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제8 신문왕 6년(686) 2월에 발라주(發羅州)를 발라군(發羅郡)으로 삼고, 무진군(武珍郡)을 무진주(武珍州)로 삼았다고 전하고, 《삼국사기》 권36, 잡지 제5 지리3 무주조에 “무주는 본래 백제의 땅이었는데, 신문왕 6년에 무진주로 삼았다. 경덕왕이 무주로 고쳤다”라고 전한다. 두 기록에 따르면 문무왕 18년(678) 정월에 아찬 천훈을 무진주도독으로 삼았다고 하는 기록과는 ‘무진주’의 개칭 시기가 다르다. 신라본기와 지리지의 기록을 따르면 문무왕 18년(678) 4월에 발라군(나주)에 발라주를 설치하고, 신문왕 5년(685) 2월에 발라주를 발라군으로 삼고, 무진군을 무진주로 개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2022.8.16. 인용)
- 12 《삼국사기》 권50, 열전 제10, 견훤, 遂襲武珍州, 自王, 그러나 공공연하게 왕을 칭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猶不敢公然稱王, 自署爲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兼御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食邑二千戶.
- 13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제11, 진성왕, 六年, 完山賊甄萱, 擄州自稱後百濟, 武州東南郡縣降屬.; 《삼국사기》 권50, 열전 제10, 견훤, 900년. 遂自稱後百濟王, 設官分職, 是唐光化三季, 新羅孝恭王四季也.
- 14 《삼국사기》 권50, 열전 제10, 견훤, 今子敢不立都於完山, 以雪義慈宿憤乎.

용검¹⁶이 936년에 고려 태조에게 투항한 것으로 보아¹⁷ 광주라는 이름은 이미 후백제 건훤(甄萱) 때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광주라는 읍호가 무진주·무주 등의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 온 기록 등을 볼 때 940년에 광주로 칭했다는 기록은 여러 가지로 혼용되던 읍호를 ‘광주로 확정했다’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광주는 몇 차례의 승격과 강등을 반복했다. 995년(성종14)에는 광주자사(光州刺史)로 강등하여 절도사를 폐하고 안무사를 두었다가, 뒤에 또 해양현령관(海陽縣令官)으로 강등하였다. 1018년(현종9)에 8목을 정치하여 다시 광주목(光州牧)으로 승격했다. 1259년(고종46)에는 공신 김인준(金仁俊)의 외향이라 하여 지익주사(知翼州事)를 파견했다가 1310년(충선왕2)에 화평부(化平府)로 강등했다. 1362년(공민왕11)에는 혜묘(惠廟)의 휘자를 피하기 위해 ‘무(武)’를 고쳐 무진부(茂珍府)로 바꾸었다가 1374년(공민왕23)에 다시 광주목으로 승격했다.¹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광주목이라 불렀는데, 1429년(세종11) 광주사람 노흥준(盧興俊)이 광주목사 신보안(辛保安)을 때린 사건으로¹⁹ 1430년 4월 무진군(茂珍郡)으로 강등했다. 세종 당시에는 광주의 별호를 광산(光山), 또는 익양(翼陽)이라고 했다.

1451년(문종1) 광주목으로 읍호가 복구됐는데, 1487년 광주판관

15 《고려사》 권57, 지 제11, 지리2, 전라도 해양현 연혁.
 16 《동사강목》 제5하 44에는 양검은 강주도독(康州都督)이 되고, 용검은 무주도독(武州都督)이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용검도 ‘광주선생안’의 기록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17 《고려사》 권2, 세가 제2, 태조19년 9월, 神劔與其弟菁州城主良劔, 光州城主龍劔, 及文武官僚來降.
 18 《고려사》 권57, 지 제11, 지리2, 전라도 해양현 연혁.
 19 《세종실록》 세종 11년(1429) 11월 13일.

18 광주선생안 - 무진주도독에서 광주광역시장까지(上)

우윤공(禹允功)이 한밤중에 화살을 맞은 사건으로²⁰ 1489년(성종20) 광산현으로 다시 강등됐다. 1499년(연산군5) 5월 18일 광산현을 다시 광주목으로 승격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²¹ 1501년(연산군7)에 다시 광주로 복호시키고, 1624년(인조2) 광산현으로 다시 강등되었다가 1634년(인조12) 광주목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장희재(張希載)와 함께 무고의 옥으로 사형당한 설향(雪香)의 본관이라는 이유로 1701년(숙종27) 11월 6일 광주목에서 다시 광산현으로 강등되었다.²² 1757년(영조33) 광산현에서 다시 광주목으로 복구되었으나, 광주목 성내면 북문 내리에 살던 김인성(金齊成)이란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시해한 사건으로 1869년(고종6) 9월 23일 광주목에서 광산현으로 강등되었다.²³ 이번에는 2년여 만인 1871년(고종8) 광산현에서 다시 광주목으로 승격되었다. 이처럼 광주의 읍호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

1895년(고종32) 23부제 도입으로 나주부(羅州府) 산하 광주군으로 되었으나²⁴ 이듬해인 1896년 13도제의 실시로 23부가 폐지되어, 전라남·북도로 나누어지면서 광주가 전라남도의 도청소재지로 정해지고 관찰부가 설치되면서 전남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²⁵

20 《성종실록》 성종 18년(1487) 11월 13일,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이철권(李鐵堅)이 광주 판관(光州判官) 우윤공(禹允功)이 자신의 생질(甥姪)인데, 이달 초2일 밤2경에 관아로 돌아올 때, <누군가 쓴> 화살에 맞아 왼쪽 팔뚝을 다쳤다고 왕에게 아뢰었다.

21 《연산군일기》 연산군 5년(1499) 5월 18일.

22 《승정원일기》 숙종 27년(1701) 11월 6일, 吏批啓曰, 卽接義禁府移文, 則謀逆正(罪)人丑生, 胎生(於)京畿楊州牧. 淑正, 胎生於江原道春川地. 雪香, 胎生於全羅道光州牧. 五禮, 胎生於慶尙道昌寧縣. 所當依法例, 罷其守令, 降其邑號. 頃有廟堂定奪, 而守令則勿罷, 縣邑則勿革. 楊州, 乃陵寢所在. 春川, 卽兼防禦使, 例不得降號, 今亦依此施行. 光州牧, 則降號爲光山縣. 昌寧則依定式, 使之班次於諸縣之下, 何如. 傳曰, 允.

23 《승정원일기》 고종 6년(1869) 9월 23일, 義禁府啓曰, 弑母罪人齊成, 既已承服正刑矣. 依法典, 其妻妾子女爲奴婢, 破家瀆澤, 降邑號等事, 令各該司, 捧承傳舉行, 何如? 傳曰, 允.

24 《고종실록》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이렇듯 시대에 따라 읍호의 오르고 내림에 따른 변화를 보이면서 무진주(武珍州)→ 무주(武州)→ 광주(光州)→ 해양(海陽)→ 익주(翼州)→ 광주→ 화평(化平)→ 무진(茂珍)→ 광주→ 광산→ 광주의 순으로 변천을 거듭했다. 특히 조선시대에 광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승강이 반복되었다. 광주에 파견된 고을 수령들의 명칭도 함께 변화를 거듭하였다. 읍호도 광주→무진→광산→광주로 변화되었지만,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광주’라는 고을의 명칭은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행정 체계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축조된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광주읍성은 동서남북에 있는 성문을 잇는 십자형 도로가 있었고, 성벽 주변에는 해자가 있었다. 광주읍성 안에는 동헌과 객사 등 각종 통치 시설이 모여 있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신종교인 동학과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했다. 최제우의 동학은 전라도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졌으며, 동학농민운동 역시 전라도가 중심 활동지 중 하나였다. 기독교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를 개설하면서 전파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광주읍성의 북쪽에는 경양지(景陽池), 남쪽에는 태봉산(太峯山), 서쪽에는 유림수(柳林水), 동쪽에는 송일학교(崇日學校), 서양촌(西洋村), 수피아여학교(Speer女學校), 전라남도공립사범학교(全羅南道公立師範學校), 전라병영(全羅兵營), 경양역(景陽驛), 선암역(仙岩驛), 농업학교(農業學校), 전라남도관찰부공립소학교(全羅南道觀察府公立小學校), 근대식 의료기관인 환구당(還求堂), 성당 등이 있어 문화와 통신의 중심지였다.

25 《승정원일기》 고종 33년(1896) 6월 25일.

2. 광주읍호의 변동

읍호란 고을의 이름과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읍명(邑名)은 고을 이름을 말하고, 읍격(邑格)은 고을의 위격을 말한다. 읍호는 읍명이나 읍격으로 따로 쓰이기도 하고, 둘 다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며, 때로는 읍명과 읍격이 바뀌기도 했다.²⁶

읍호가 바뀌는 것은 고을의 행정 단위가 바뀌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인구나 토지의 변화와 같은 행정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고, 왕비나 역적의 고향 등 정치적이거나 비행정적인 요인도 그 동기로 작용하였다.²⁷ 읍호가 바뀌면 그곳 수령의 직위도 바뀌었으므로, 수령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왕실과 관련된 사건이나 인물이 읍호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왕비나 왕의 태실 등 왕실에 충성과 협력을 보인 고을은 읍호가 승급되어 명예를 얻었다. 다른 하나는 목사가 위해를 당하거나 반역의 주모자가 출신인 고을은 읍호가 강등되어 징계를 받았다. 조선시대 왕들은 이렇게 읍호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충성심을 강화하려고 했다.²⁸

조선시대에는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어길 때 가장 큰 죄인 강상죄(綱常罪)를 범한 것으로 간주했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오상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과 같은 도리를 말한다. 부모나 남편을 살해하거나 주인이나 수령을 죽인 자는 강상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사형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처자는 노비로 만들고 집은 부수어 버리고, 고을의 읍호를 강등시켰다. 이런 조치는 왕

26 임승표(1990), “조선시대 읍호승강에 관한 연구(상)”, 민족문화 13, p.208.

27 김덕진(2001), “광주목의 복호와 희경루의 건립”, 필문이선제선생기념사업회, pp.31~46.

28 임승표, 앞의 논문, pp.214~216.

실과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도덕과 질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광주도 이러한 읍호의 변화에 여러 번 휘말렸다. 조선시대에만 5번이나 군과 현으로 강등된 일이 있었다. 이것은 광주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 때문이었다. 1429년(세종11)에는 광주 사람 노흥준(盧興俊)이 광주목사 신보안(辛保安)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광주는 무진군으로 강등되었고, 전라감사와 도사, 감찰 등도 파직되었다. 1451년(문종 원년)에 광주목으로 복귀했으나, 그 후에도 1489년(성종 20)에 광주판관 우윤공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1624년(인조2)에 이괄의 난에 가담한 사건, 1701년(숙종27)에 장희재와 함께 무고한 죄로 처형당한 설향(雪香)의 관향이라는 이유, 1869년(고종6)에 김인성(金晉成)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등으로 인해 광산현으로 강등되었다. 이러한 광주의 읍호 변동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98년 백제 동성왕 20년 이전 무진주(武珍州)로 칭함

686년 신라 신문왕 6년 무진군을 무진주(武珍州)로 개칭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 무주(武州)로 개칭

892년 신라 진성왕 6년 견훤이 무진주에서 후백제를 세움

940년 고려 태조 23년 광주(光州)로 개칭

995년 고려 성종 14년 광주자사(光州刺史)로 강등

? 해양현령(海陽縣令)으로 강등

1259년 고려 고종 46년 지익주사(知翼州事, 일명 익주翼州)로 승격

? 광주목(光州牧)으로 승격

1310년 고려 충선왕 2년 화평부(化平府)로 강등

1362년 고려 공민왕 11년 무진부(茂珍府)로 개칭

1373년 고려 공민왕 22년 광주목으로 개칭

1393년 조선 태조 2년 나주·광주에 계수관(界首官)을 둠

1430년 세종 12년 무진군으로 강등

1451년 문종 1년 광주목으로 환원
 1474년 성종 5년 창평현(昌平縣)을 광주에 붙임
 1489년 성종 20년 광산현으로 강등
 1501년 연산군 7년 광주목으로 환원
 1624년 인조 2년 광산현으로 강등
 1634년 인조 12년 광주목으로 환원
 1701년 숙종 27년 광산현으로 강등
 1757년 영조 33년 광주목으로 환원
 1869년 고종 6년 광산현으로 강등
 1871년 고종 8년 광주목으로 환원
 1895년 고종 32년 나주부(羅州府) 산하 광주군으로 됨
 1896년 고종 33년 13도제의 실시로 23부가 폐지되고, 전라남·북도로
 나눔에 따라 광주가 전라남도의 행정 중심지가 됨

3. 수령의 의미와 역할

수령(守令)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통용되던 용어로, 중앙정부가 지방에 파견한 지방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즉 감사 이하의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부르는 데는 군과 현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태수(太守)와 현령(縣令)을 합치거나 줄여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면서 9주 5소경으로 지방 제도를 정비했다. 고려도 후삼국을 통일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양광도(楊廣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서해도(西海道), 교주도(交州道)의 5도와 북쪽 변경의 양계(兩界) 지방 제도를 정비했다.²⁹

29 《고려사》 권22, 세가 제22, 고종 12년 7월 9일, 秋七月 戊辰 以判司宰事李允誠爲西北面兵馬使, 大護軍琴輝爲東北面兵馬使, 郎將崔宗操爲慶尙道按察副使, 侍郎金得循爲楊廣道按察使, 郎將黃粹爲全羅道按察副使, 侍御史柳蕤爲西海道按察副使, 起居舍人白敦貢爲交州道按察副使.

조선도 건국 후에 8도 체제를 갖추었다.³⁰ 도 아래에는 다시 고을의 크기나 중요도에 따라 부, 목, 군,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했다. 즉 도는 상시로 지방관이 거주하며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라 중앙에서 안찰사(按察使) 등을 파견하여, 이들이 도 내 여러 주군을 순

회하며 감찰하는 방식으로 지방을 통제했다.

어느 시대나 왕조이건 지방의 통치를 위해 지방 조직을 정비하고 알맞은 수령을 보내어 왕을 대신하여 지배하고 관리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³¹ 지방관을 통한 상시적인 통치는 전국 주요 지역에 주목(州牧)·도호부(都護府) 등의 계수관(界首官)과 주현(主縣)을 두었다.³² 이들을 통해 지방을 관할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수령은 중앙정부의 뜻을 받들어 지방을 다스리는 책임을 갖고, 지방 행정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했다. 이를 위해 농사가 잘되도록 하고, 인구가 늘도록 하며, 학교를 늘리거나 백성들을 교육하고, 부역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등 지방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수령의 책임 아래 두었다. 이를 ‘수령칠사(守令七事)’라고 한다.³³ 흔히 소설책이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지역의 수령은 어느 직책을 갖든 ‘사또’ 또는 ‘원님’이라고도 불렀다. 수령을 도와 지방행정을 담당하던 향리(鄕吏)들로는 이·호·예·병·형·공의 6방에 소속된 향리들이 있었다.³⁴ 이들 가운데 이방이 가장 우

30 조선이 8도 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고려 말기의 지방관제 개혁에서 5도 양계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등 전국을 단일 조직으로 편성하는 행정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태종 때에 8감사제를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수진(2002), “지방통치체제”,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신편한국사》 제23권, pp.125~196. 국사편찬위원회.

31 《태조실록》 태조 1년(1392) 7월 28일 태조의 즉위 교서에 보면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책이니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고 “치적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은 발탁 등 용시키고,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천거한 사람[擧主]에게 죄가 미치게 할 것이다”라고 하여 능력 없는 사람을 함부로 천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2 이준희(1982), “조선 초기의 수령제도”, 역사교육 30~31 합집, pp.29~85.

33 《세종실록》 세종 1년(1419) 10월 16일 기사에 ‘수령칠사(守令七事)’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두머리였다.

수령은 지방의 행정뿐 아니라 재판관이나 군사관의 역할도 겸했다.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면 관아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수령은 재판을 통해 사정을 살핀 뒤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을 잘못 내려 중앙정부에 상소하는 일이 잦고 이로 인해 지역 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파직이나 체직당하는 일도 더러 일어났다.³⁵

수령은 지방의 군사를 관리하며 지역을 방어할 의무도 있었다. 북쪽에서는 호족들이 자주 침범했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약탈을 자행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감시를 잘하고 이들을 격퇴하는 일이 중요했다.³⁶ 이런 일에서 감시를 소홀히 해 침입을 당하거나 전투에서 패하면 역시 파직이나 체직, 심하면 국문을 받고 유배까지 가는 일도 있다.

수령은 목민관(牧民官)으로 불리기도 했다. 수령은 지방의 절대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민심을 잘 다스리는 일도 중요했다. 그는 군주의 분신(分身)으로 직접 백성들과 접하는 관리였다. 수령의 직무는 앞서 기술한 대로 조선왕조의 사회, 경제적인 토대가 되는 농업생산의 안정과 확충,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담세자인 인구의 확보, 원활한 세금 수취체계의 운영 그리고 행정기능과 사법, 군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고 할

34 《태종실록》 태종 6년(1406) 4월 1일, 수령(守令)과 향리(鄕吏)들이 즐겨 마음을 다해 완출(完恤)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엄격하게 규리(糾理)를 행하고, 아울러 각 감사의 수령관(首領官)에게 능히 깨우쳐 거행하지 못한 죄를 연좌하도록 했다.

35 《태종실록》 태종 5년(1405) 9월 6일, 의정부에서 각 년에 수판(受判)한 것으로 영구히 준수할 노비(奴婢) 결절(決折)의 조목 가운데 감사가 수령 중에서 송사를 결단하는 것이 기한을 지키고 마땅하게 하는 자를 뽑아서 고장(告狀)하여 나누어 보내고, 매일 결단한 수의 많고 적은 것을 추고(推考)하여 포폄(褒貶)하고, 도수(度數)를 아울러 기록하여 출척(黜陟)에 빙거(憑據)하며, 오결(誤決)한 자는 경중(京中)의 예(例)에 의하여 논죄하고, 감사가 추고하여 결절(決折)하도록 했다.

36 《세종실록》 세종 21년(1439) 11월 22일, 경상도 좌도 도절제사 이징옥(李澄玉)이 유사시(有事時)에는 각 고을 수령(守令)이 상·하번(上下番)을 물론 하고 다 거느리고 응적(應敵)하도록 비변책을 올리자 세종이 이를 병조에 내려보내도록 했다.

수 있다.³⁷

수령은 인접 군현과의 마찰을 최소화해 가며 향촌 내 여러 문제를 조정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군현의 처지를 대변하는 역할도 맡았다.³⁸ 지방 수령 한 사람의 잘못으로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거나 지방 호족들의 세력들이 확장되어 민란이나 반란이 일어나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수령은 시대와 왕조에 따라 지방 제도와 직위가 달랐다. 통일신라 때에는 전국을 9주로 구분하고 주 밑에 120군과 305현을 설치했다. 고려 시대까지는 지방관의 파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많지 않아 고려 초기에는 호족들의 자치에 맡겨져 있었으나,³⁹ 후기에는 5도와 양계로 구분하고 도호부사·목사·군수·현령 등으로 수령제를 정비했다. 조선 때에는 8도 체제를 갖추었으며 부윤·대도호부사·목사·도호부사·군수·현령·현감 등으로 수령제를 확립했다.

수령은 문과·무과·음과 등의 과거에 합격하거나 취재(取才)라는 특별 채용시험에 의해 선발되었다. 수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졌으며, 감사가 매년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포폄(褒貶) 또는 전최(殿最)라고 하는 승진과 강등이 결정되었다.

37 《태조실록》 태조 1년(1392) 9월 24일 기사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배극렴·조준 등이 22조목을 상언(上言)했는데 첫 번째가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이고, 농상(農桑)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人才)를 양성하고, 농상을 권장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할 것이고, 두 번째가 수령(守令)은 전야(田野)가 황폐되고 개간되는 것과 호구(戶口)가 증가하고 감소되는 것 등의 일로써 출척(黜陟)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

38 이선희(2005), “18세기 수령과 감사의 행정마찰과 처리방식 -《嘉林報草》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7, pp.85~111.

39 조선 초기 향촌정책의 방향은 훈척과 관직에 일차적인 세력 기반을 두고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재경 훈구 세력들은 경제소나 유향소와 같은 군읍(郡邑) 또는 향촌 자치기관을 관권 주도형으로 운영하려 한 데 반해, 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향촌에 둔 사람은 재지사족 주도형으로 운영하려 했기 때문에 그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병휴(1990), “朝鮮前期 中央權力과 鄉村勢力의 對應”, 국사관논총 제 12집, pp.103~132.

원재영(2018)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국왕과 지방의 감사 그리고 수령’이라는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행정운영 방식으로 지방을 지배했다. 그 과정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수령은 자율권을 가진 통치자로서 역할을 하는 존재라며, 최근 연구성과에서 나타난 수령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⁴⁰

조선시대 수령제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중앙정부의 군현 통치를 위한 수령제의 제도적인 정비, 그리고 이를 통한 지방 지배의 측면 등에 집중되면서 조선시대 수령제에 대한 제도사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후 치군(治郡)의 영역에서 수령의 업무와 실제 행정의 모습 등에 관한 관심이 모색되어 수령의 일기자료 발굴 및 지역별로 남아 있는 수령의 행정문서 등을 활용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수령제는 제도적인 운영은 물론 수령의 일상과 군현 내 향청이나 재지 세력과의 역할 관계, 업무상의 행정 내용과 갈등 등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윤곽이 그려졌다.

4. 수령의 파견

고려 성종 때인 983년(성종2)에 지방 행정관리로 목사(牧使)가 처음 등장하였다.⁴¹ 양주(楊州)·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진주(晋州)·상주(尙州)·전주(全州)·나주(羅州)·승주(昇州)·해주(海州)·황주(黃州) 등 12개 주에 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는데, 이것이 그 시초이다. 이전에는 지방에 상주하는 관원을 파견하지 못하고 임시 관원만 파견하였으나, 이때부터 중앙에서 상시로 머무는 지방

40 원재영(2018), “18세기 지방행정과 수령의 역할”, 한국사연구 182, p.298.

41 《고려사》 권3, 세가 제3, 성종 2년 2월 1일 二月 戊子 始置十二牧.

관을 파견하였다. 이후 목사를 비롯한 관원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할 수 있었고, 지방 교육을 담당할 관원도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는 지방 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 때 지방행정의 중심 지역으로 주(州)는 당시 기준으로 중대형 도시에 설치된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보통 '나주목사', '전주목사'처럼 행정구역 뒤에 직책을 붙이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수령을 칭하였다. 때로는 주에 목사가 아니라 군사적 성격을 띤 절도사(節度使)를 파견하였다.⁴² 이러한 12목은 995년(성종14)에 10도로 확정하였다.

11세기 초 현종 대에 지방제도를 개정하면서 절도사를 혁파하고 4도호부 8목 체제로 정비하였다. 4도호부는 군사적 방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8목은 지방 행정조직의 중심지로 역할을 맡았는데 목을 중심으로 도가 형성되었다.⁴³ 고려시대 지방관 보임의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거의 결원된 채 부사(副使)만이 파견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조선시대 각 읍은 중요도에 따라 유수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등으로 나누어졌는데 조정에서 파견된 수령이 다스렸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큰 지방도와 중요한 지역에 목을 두었는데 왕실과 관계가 있는 지역은 지역이 작더라도 목으로 승격시켰다. 그보다 작은 지역은 그 정도에 따라 부사, 군수, 현감 등을 파견하였다. 즉 수령들은 종2품의 부윤, 정3품의 목사, 종3품의 부사, 종4품의 군수, 종5품의 현령, 종6품의 현감에 이르기까지 부르는 호칭과 품계가 각각 달랐다.

정3품직의 고관을 목사로 파견한 지역은 경기도 3곳(여주·파주·양주), 충청도 4곳(충주·청주·공주·홍주), 전라도 4곳(나주·광주·제주·

42 《고려사》 권56, 지 제10, 지리1, 성종(成宗)이 또 주·부·군·현 및 관(關)·역(驛)·강(江)·포(浦)의 명칭을 고쳤으며, 마침내 경내(境內)를 나누어 10도(道)로 만들고, 12주(州)에 각각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다.

43 현종 9년(1018) 이후로는 12목 가운데 공주·승주·양주·해주가 제외된 8목제가 시행되었다.

능주), 경상도 3곳(상주·진주·성주), 강원도 1곳(원주), 황해도 2곳(황주·해주), 함경도 1곳(길주), 평안도 2곳(안주·정주) 등 모두 20개 목이었다. 단, 한성부의 장은 ‘판윤(判尹)’, 강화·개성·광주(경기)·수원·춘천부의 장은 ‘유수(留守)’라 했다.⁴⁴

조선시대 목사는 감사 예하의 수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호칭과 품계는 각각 다르지만, 왕권을 대리하여 지역을 담당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감사는 서열상 수령의 업무를 감시할 자격이 있고 평가는 가능할지라도 수령의 자치권에 간섭할 수 없었다. 군현에 있는 전임 고위 관료들도 군현 내에서는 수령의 권위를 침해할 수 없었다.⁴⁵

목사의 주요 업무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담당 지역에 대한 농상의 장려, 호구(戶口)의 확보 및 증강, 공부(貢賦)의 균등 징수, 교육의 진흥, 군정의 수비, 사송(詞訟)의 간명, 교활 간사한 버릇의 다스림 등 7가지 업무인 ‘수령칠사(守令七事)’를 말한다. 조선 전기 진관체제(鎭管體制)가 시행될 때는 각 진관의 책임자인 첨절제사를 겸직하였다.⁴⁶

44 오늘날로 따지면 판윤은 서울특별시장, 유수나 부윤은 인천과 같은 수도권의 광역시장, 목사는 비수도권의 광역시 또는 특별시 시장 격으로 보면 유사하다.

45 권기중(2020), “조선시대 전라도 수령의 출신 성분과 재임실태 -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4, pp.7~46.

46 《인조실록》 인조 5년(1627) 9월 24일, 우찬성 이귀(李貴)가 차자를 올린 내용 가운데 “조종조(祖宗朝)에서 진관 체제(鎭管體制)를 설치할 때에 어찌 무반들로만 수령으로 삼았겠습니까. 문관과 음관으로 차정한다 하더라도 각 고을에 중군 대장(中軍代將)이 있으니 이 중군 대장을 무인으로 차정한다면 병졸을 이끌고 전장에 나아갈 때는 각 도의 병사가 통솔하고 싸우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병졸들을 정선하지 못한 것, 병기를 정비하지 못한 것, 군량을 넉넉히 잇대지 못한 것, 훈련을 잘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수령을 문책해야 한다”며 청나라의 공격에 대한 방어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5. 수령의 역량과 과거 급제

조선시대에도는 목사라는 관직이 있었다. 목사는 과거에 급제하여 정3품에 이른 인물들이 맡았다. 과거란 조선시대에 관직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험이었다. 과거에는 문과, 무과, 생원·진사시, 잡과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목사는 문과에 응시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즉위 교서에서 과거를 통해 경학(經學)을 익히고 실천하는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발표 이후로 해석된다.⁴⁷ 박현순(2014)의 자료를 요약해 보면 조선의 과거에서 문과는 문한(文翰)과 교육을 담당할 문반 관료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경학은 물론 역사, 제도와 문물, 문장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정해진 형식에 맞춰 글을 짓는 자질이 필요했다.

문과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증광시(增廣試), 별시(別試), 정시(庭試), 알성시(闕省試), 식년시(式年試)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이 중에서 식년시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종합시험이었다. 식년시는 초장(初場), 중장(中場), 종장(終場)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태조는 즉위 교서에서 초장에서는 사서(四書)로부터 오경(五經)과 《통감(通鑑)》 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중장에서는 표문(表文)·장주(章奏)·고부(古賦)를, 종장에서는 책문(策問)으로 시험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⁴⁸ 각각의 시험에서는 강경(講經), 의의(疑義), 논(論), 부(賦), 표(表), 책문 등의 과목이 있었다.

강경(講經)과 의의(疑義)는 경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강경은 사서삼경 가운데 각각 한 장을 뽑아 본문의 현토(懸吐)

47 《태조실록》 태조 1년(1392) 7월 28일, 文武兩科, 不可偏廢。內而國學, 外而鄉校, 增置生徒, 敦加講勸, 養育人才。其科擧之法, 本以爲國取人。

48 《태조실록》 태조 1년(1392) 7월 28일, 이날 반포한 즉위 교서 세 번째 항목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를 겸한 암송, 글자와 문장의 뜻을 해석하는 구두시험을 치렀다.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바로 ‘불통(不通)’을 받게 된다. 의의는 ‘사서오경’에서 4~5개의 구절을 뽑아 그 구절 간의 관계와 그 의미를 논술하는 시험이었다. 사서오경을 통섭하지 않고서는 치를 수 없는 시험이었다.

논은 ‘사서오경’에서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시험이었다. 부는 고대의 유명한 시인들이 쓴 시를 모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시험이었다. 표는 왕이나 장관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서 정확하고 예쁜 글씨와 적절한 인사말과 청구사항을 담아야 하는 시험이었다. 책문은 왕이나 장관들이 내린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험이었다.

식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은 식년시 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을 제외한 형태였다. 증광시에는 강경, 별시에는 의의와 강경이 제외되었다. 정시·알성시에는 의의·강경과 논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으로 문제를 냈는데, 주로 부나 표를 출제하였다. 따라서 식년시 과거급제자가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김창현(1998)은 조선시대는 문치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고위 관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문과에 급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서 양반 지배층으로서의 권위와 가문의 지위, 경제적 기반 등을 형성하고 유지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과에 급제한다고 해서 바로 관직에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식년시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갑과, 을과, 병과로 나뉘어졌다. 갑과 3인은 바로 관직에 임명되었고, 나머지 을과와 병과 출신들은 임시 대기 직인 동지관으로 배정되어 다음 정기임용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통계적으로 보면 조선 초기 문과 급제자 1,799명 중 갑과가 10.9%인 197명, 을과가 23.5%인 422명, 병과가 65.6%인 1,180명이었다. 이 가운

데는 을과와 병과 급제 이전에 관직에 있었던 이는 약 30%로 과거 합격자의 40%가 초기에 관직 활동을 하고 있었다.

광주목사 출신으로서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도 많았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심연(沈演)이다. 심연은 1633년 광주현감으로 부임하였고, 그 후 광주목사로 승격되었다. 그는 식년시 갑과 2위로 급제하였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참판까지 올랐다.

그 외에도 을과로 급제한 권수평(權守平), 남울(南慄), 광규(郭趨) 등이 있으며, 병과로 급제한 이만손(李萬孫), 박자방(朴自芳), 박경신(朴慶新), 이순형(李純亨), 윤행(尹行), 윤희길(尹希吉), 안수량(安秀良) 등도 있다. 그리고 식년시 정과로 급제한 유곡(柳穀), 성순조(成順祖) 등도 있으며 식년시 합격자로만 표기된 박미(朴楣), 장세필(張世弼), 김적(金適) 등도 있다.

증광시에 합격했던 목사들로는 1566년에 광주현감인 최응룡(崔應龍)이 있으며, 그 외에도 신륵(辛崱), 홍명원(洪命元), 박유장(朴有章), 권준(權濬), 이후원(李厚源) 등이 있다.

조선시대 과거에 응시한 사람들은 자신의 키 높이만큼의 책을 외워야 한다고 할 만큼 어려웠다. 답안을 제출하는 때도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김창현(1998)은 1794년(정조18) 정시 때는 응시자 17,914명 중 63.6%인 11,402명이 답안을 제출했고, 1799년(정조23) 알성시 때에는 응시자 57,393명 중 21.9%인 12,593명이 답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시를 남기고 기록을 정리하며, 나름의 성리학에 대한 글을 남겨 학자나 선비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문집이나 기행문 등과 같은 기록에서 보면 대부분 혈연·지연·학연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환연(宦緣)도 매우 중요했

다.⁴⁹ 환연이란 관직에서 만난 동료나 선배, 후배 등과의 인연을 말한다. 이런 인연은 자신의 관직 생활이나 가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입신양명의 첫 관문인 과거 급제는 조선시대 양반가 젊은이들의 범접할 수 없는 꿈이었다. 그 관문을 통과한 인물들이 관직으로 가고 내직이나 외직을 맡게 된다. 이 정도의 실력이니 어디를 가든 시를 남기고 기록을 정리하며 나름의 성리학에 대한 글을 남겨 학자, 선비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목사 출신으로서 실학의 선구자이자 서학을 소개한 이수광(李睟光, 1563~1628)과 그의 동반자들인 조익(趙翊), 여우길(呂祐吉), 이흠(李訖), 이유달(李惟達), 이민구(李敏求)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선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호조·병조·형조 판서를 지냈으며 청백리로도 유명했다.

양응정(梁應鼎, 1519~1581)의 경우는 1567년 광주목사로 부임했다가 3년간 선정을 베풀고, 1570년 진주목사로 옮겼다. 이때 나중에 임진왜란 때 명장이 된 신립(申砮, 1546~1592) 장군을 만난다. 양응정이 당시 판관이던 신립을 훌륭한 재목으로 여겨 장차 국가에 크게 쓰일 인물이라면서 자기에게 학문을 배우도록 해 신립은 양응정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다. 그 후 신립은 대사간, 성균관대사성, 경주부윤 등을 역임하고, 1577년 이조참의로 임명되어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성균관대사성에 다시 임명되었다. 신립은 임진왜란 때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워 명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공헌하였다.⁵⁰

49 전경목(2015)은 ‘환연(宦緣)’이란 관리가 되기 위해 치렀던 과거 시험에서 어떤 관리가 시험관이 되고 어느 동료와 함께 급제했는가, 또 벼슬살이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동료와 함께 근무하면서 어떠한 관계망을 형성했느냐가 관리로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고 해석했다.

50 양승천(2017),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의 국방의식과 남북제승대책(南北制勝對策)”, 호남학 61, pp.193~222.

정윤우(丁允祐, 1539~1605)도 1570년 문과에 합격하여 당당히 문신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동방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은 장원했던 김대명(金大鳴)을 비롯하여 황섭(黃漣), 정여립(鄭汝立), 김홍민(金弘敏), 이성중(李誠中), 이민중(李敬中), 김복일(金復一) 등이다. 이들은 각각 호조참의, 병조참의, 형조참의, 예조참의, 사간원부사 등으로 임명되어 조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정여립은 정인홍(鄭仁弘)·최영경(崔永慶) 등과 함께 정파를 결성하여 광해군 시대에 큰 권력을 가졌다.

그런가 하면 관직에 있던 이들이 어느 날 유배를 가는 일도 허다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처럼 장기유배를 가는 이들은 현지의 지역사회에 ‘유배문화권’ 형성이라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기도 했다. 시문집을 내서 문학적인 성과를 드러내거나 역사서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나름의 연구를 통해 전문서적을 간행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종학(李種學, 1361~1392)⁵¹은 1389년 12월 8일 부친 이색(李穡, 1328~1396)과 함께 파직되어 전라도 平陽(순천의 별호)으로 유배를 떠나면서 개경에서 순천에 이를 때까지 도중에 지은 시와 순천 유배지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를 모은 <남행록(南行錄)>⁵²을 남겼다. 이는 이종학의 《인재유고(麟齋遺稿)》⁵³에 실려 있다. 이종학은 공민왕의 증손으로서 공민왕의 유품을 계승하려고 하였으나 공양왕과 대립하여 파직되

51 《태조실록》 태조 1년(1392) 8월 23일에 이종학의 졸기가 있다. 이색의 둘째 아들이다.

52 <남행록>은 이종학이 1389년(공양왕1) 권근(權近)·이승인(李崇仁)·하륜(河崙) 등과 함께 탄핵을 받아 순천(順天)으로 유배 가는 도중의 물상에 회포를 붙이고 유배지에서의 드러난 마음을 읊은 시들이다. 68제(題) 73수(首)로 되어 있다. <남행록>은 유배지 생활을 날마다 일기처럼 진솔하게 시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유배문학의 전형으로 언급할 만하다.

53 김기빈(1991), 한국문집총간 해제, 《인재유고》. 중종 14년(1519)에 5대손 이자(李紆, 1480~1533)가 이유청(李惟淸) 집에서 유고를 얻어 이를 1책으로 편집·고쳐서 베껴 썼다. 효종 1년(1650)에 10대손 이태연(李泰淵)이 노준명(盧峻命) 집에서 이자의 선사본(繕寫本)을 얻어 목판으로 처음 간행하였다.

었다. 그는 순천에서도 학문과 시문을 계속하였으며, 그의 시는 공민왕 시대의 문화와 정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담양의 면양정(俛仰亭)과 《면양집(俛仰集)》으로 유명한 송순(宋純, 1493~1582)은 1550년 3월 이조참판이 되었는데 이때 진복창(陳復昌), 이기(李芑) 등에게 논박당하여 충청도 서천으로 유배되고 곧 평안도 순천으로 이배되었다.⁵⁴ 송순은 유배지에서도 학문과 시문을 계속하였으며, 그가 건립한 면양정에서 많은 학자와 교류하였다. 그는 당시 사회와 정치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의 저서로는 《면양집》 외에도 《동국지리지》가 있다.

최응룡(崔應龍)은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유배지에서 저술한 《속몽구(續蒙求)》를 안동부사 시절에 인쇄하여 유희춘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미암집(眉巖集)》에 실려 있다.⁵⁵ 최응룡은 안동부사로 있으면서 안동학파를 주도하였으며, 그가 건립한 미암서원에서 많은 학자와 교류하였다. 그는 조선 후기 사상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이상길(李尙吉, 1556~1637)은 1602년(선조35) 정인홍(鄭仁弘)·최영경(崔永慶) 등을 정여립(鄭汝立)의 일당으로 몰아 추론한 죄로 유배됐다. 그의 저서로 《동천집(東川集)》이 있다.⁵⁶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이상길은 정여립과 대립하였으며, 그는 광해군의 폭정에 반대하였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학문과 시문을 계속하였으며, 그의 시는 성리학과 실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신의(李愼儀, 1551~1627)도 1617년에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

54 이 시기에 지은 작품들은 《면양집》 권3에 실려 있다.

55 《미암집》 권8, 일기, 1570년 8월 29일, 安東府使崔應龍. 印送續蒙求來.

56 《동천집》은 이상길의 시가와 산문을 엮은 4권 2책의 필사본이다. 1911년 9대손 두하(斗和)와 10대손 상서(尙書) 등이 유고를 모아 편집하였다.

대비를 윤패하는 등 광해군의 폭정에 항소를 올렸다가 1618년 회령으로 유배, 위리안치되었다가 가을에 흥양(고흥)으로 이배되었다. 문집으로 《석탄집(石灘集)》⁵⁷이 있으며, 유배지 흥양에서 지은 ‘사우가(四友歌)’ 등의 시조가 다수 전한다. 이신익은 광해군의 정권을 비판하였으며, 그는 유배지에서도 학문과 시문을 계속하였다. 그는 실학과 성리학을 비판하고,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고수하였다.

은사로 목사가 된 경우에 학문이 높다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임용되기도 하며, 과거에 합격한 이들도 영재들이라서 동양고전에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고, 시문에도 능해 목사들끼리, 혹은 다른 관직에 있는 인물들과 인맥이 형성된 그룹 안에서 글을 주고받았다.

목사가 중국에 사절단으로 파견되거나, 국내에서 직책을 이동하는 경우, 직위가 승격된다든지 할 때 이들의 동방이나 교유관계를 맺은 이들은 시문을 지어 보내 축하해 주는 풍습이 오늘날과는 판연히 다른 이채로운 장면으로 눈에 뜨인다. 오늘날 지방행정의 수장이 자신의 직책과 관련해서건, 아니면 학식을 다룬 문집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비교할 때 지역 수령들의 선비의식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인 관료가 사망하면 망자에 대한 만사나 묘갈명을 써서 애도를 표했고,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자기 문집에 그 만사나 묘갈명을 수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개인의 차원에서든 기록물로 남기는 풍습은 기록문화의 나라 조선의 모습을 엿보게 만든다. 이것 역시 선비정신의 발로라 할 것이다.

광주목사를 역임한 수령들도 나중에 하나같이 여러 권의 저술을 남기고 생애를 마쳤다. 아마도 당시 목사 이상의 관직에 있었던 고위 관리

57 이신익, 《석탄집》 5권2책 목판본으로 1644년 坡平 尹鳳九(1681~1767)의 서문과 1801년 恩津 宋煥箕(1728~1807)의 발문을 달아 1837년에 간행됐다.

들은 생애 동안 저술을 남기는 것이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당연지사였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학식에 밝고 저술을 남기는 것이 지배계급의 관리들에게는 응당한 일이었고, 자기표현의 양식이었다는 점이 크게 눈에 뜨인다.

일본은 칼로 백성을 다스리고, 조선은 붓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말에 부합하는 조선 관리들의 깊은 학식은 조선 5백 년을 지탱해온 힘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관리들이 저술을 남기는 조선시대의 학문 풍토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목사들이 저술을 남기는 것은 단지 자기표현과 학식 과시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회와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개혁적인 제안이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억울함과 부당함, 그리고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워온 인물들이다.

이들은 윤리와 도리를 중시하였으며, 성리학과 실학 등 다양한 사상 체계를 통해 자신들의 사상과 철학을 구축하였다. 이들은 중국과 명나라와의 관계와 문화적 교류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동양고전과 서양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호기심을 가졌다.

6. 수령의 임기

조선시대에 목사는 과거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내직과 외직 등을 지내면서 정3품에 이르러야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그래서 목사는 상당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이들만이 맡게 되었다. 실록에는 “병 들어서”, “노쇠하여 체직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읽으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목사의 직위는 대체로 보장된 자리이긴 하지만 감사나 암행어사의 보고에서 체직이나 파면을 상소하면 왕은 대부분 윤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자리에서 물러난 목사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관직에 복귀하는 것을 보면 엄격히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반대로 목사 재임 중에 목사의 부모가 상을 당하였거나 병중에 있을 때는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고 향리로 내려가 부모를 봉양하거나 병구완을 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예 부모가 거주하는 고을 가까운 곳에 직위를 얻어 부임하는 이도 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효도 앞에서는 서슬 퍼런 권력의 자리도 내놓았다. 부모의 삼년상을 마치거나 병이 치료되고 나면 다시 관직에 복귀했다.

이런 행동은 조선시대의 삼강오륜이라는 이념에 따른 것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가 관직의 권력보다 우선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특별한 인사 관례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은 박수량(朴守良, 1491~1554)의 행장(行狀)을 적었는데 그의 지극한 효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가 담양에 있을 적에 모친이 이질 병에 걸려 중태에 이르자, 몸소 탕약을 달이며 옷에 띠를 풀지 않고 수십 일을 지냈고, 대변이 단 지 쓴 지 맛까지 보아가며 병의 차도를 알아보았으니, 그의 효성은 참으로 지극했다. 공(公)의 효성에 이질이 나아졌다. 그 후 모친상을 당하자 예법을 빠짐없이 지킨 공(公)은 한 걸음도 시묘 막 밖을 나가지 않았고 상복을 벗고서도 슬픔이 오히려 더했다. 모친의 혼백을 모시고 만형의 뒤를 따랐고 초하루 보름날 또는 제사를 모실 때는 정성과 공경을 다 했다. 전라감사 재직 시에는 직접 시묘 막을 찾아가 묘소 주위를 살피는데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심지어는 왕이 관직에 임명해도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는 예도 있다. 왕의 명을 물리치는 것이다. 또 근무 도중에 정치적 문제가 불리하게 돌아가면 병을 핑계로 관직을 그만두는 예도 있었다. 과거시험 합격자 말고도 음서제로 추천받아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조선시대의 관직 임면에 관련하여 더 많은 자료는 기존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⁵⁸

고을 수령인 목사들은 때로 외적의 침입에 당해서는 백성을 징발하는 군직을 겸할 때도 있다. 말하자면 목사라는 고을의 수령은 왕을 대신하는 군사적 권력기관인 셈이다.

목사로 오는 정3품 가운데는 당상관(堂上官)이라는 고위 관료도 여럿 있었다. 김순남(1996)은 당상관이 조선시대의 정무직과 비슷한 직책으로, 왕과 함께 국가의 대사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 보았다. 당상관은 인사고과에서 근무일을 계산하지 않고 왕의 특지(特旨)로 승진하며, 문무 관료에 대한 천거권, 본직 외에도 여러 관서의 제조, 영사와 판사 등의 겸직, 당하관 관료들에 대한 인사고과권 등의 중요 권한을 독점하였다.

또한, 당상관은 퇴직 후에도 봉조하(奉朝賀) 등으로 임명되어 녹봉을 받고 국가의 공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자손에 대한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당상관 가운데서도 2품 이상은 퇴직한 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는 권한, 3대를 추증하는 권한, 시호를 받는 권한, 신도

58 권기중(2018), “조선시대 전라도 수령의 품계와 재임기간”, 태동고전연구 41, pp.7~36.; 김기욱(2001), “조선 지방행정구역과 지방관료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공공관리학보 15(1), pp.15~39.; 김철(2015), “조선전기 관료의 임기제: 주요 내용 및 운영실태”, 지방정부연구 28(4), pp.171~188.; 원창애(2009), “조선시대 문과 중시 급제자 연구”, 역사와 실학 39, pp.89~134.; 이준희(1982), “조선초기의 수령제도”, 역사교육 30-31합집, pp.29~58.; 이주희(2006), “조선초기 인사정책을 통해서 본 군신관계”, 동양정치사상사 5(2), pp.223~244.; 전광섭(2016), “조선중기 외관 포명사례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3), pp.1~22.; 조성택, 최연택(2010),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변화 연구: 음서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7, pp.1~22.

비를 세울 수 있는 권한 등의 특권이 있었다.

수령의 임기는 세종 이전까지는 30개월이었지만 1425년(세종7) 이후에는 60개월이었다(권기중, 2020). 광주목사로 오는 수령들은 대개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임기를 못 채우고 떠난 그 후의 경로를 짚어 보아도 어느 한 직책에 장기적으로 재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직책으로 자주 옮겨 다니거나 승격하여 직위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외직도 1년에 두세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러 행정을 파악하고 고을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정해진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자주 일어나는 직책 이동이 과연 관직 수행에 효율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광주읍지》에는 고을 수령으로 신라시대 도독(都督) 2명, 고려시대 목사(牧使) 1명, 조선시대는 1880년까지 재임했던 남호원(南鎬元)에 이르기까지 194명의 목사 또는 현감의 이름을 기록했다. 권기중(2020)의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광주목사로 온 수령이 모두 213명이었다. 《광주향교지》에는 조선시대를 1905년까지로 보고 목사와 현감, 군수를 모두 241명으로 정리했다.⁵⁹ 이처럼 조선시대 수령의 숫자가 다른 경우는 《광주향교지》에서는 부임하지 않은 수령도 목록에 기록하였고, 조선시대를 어디까지 정의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광주선생안》을 쓰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조사한 신라 시기부터 1905년까지 부임한 광주의 수령은 모두 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⁶⁰ 신라시대 4명, 고려시대 8명, 조선시대는 일제강점기를 포함해서 288

59 《광주향교지》는 243명으로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 광주(廣州)목사를 광주(光州)목사로 오기한 2명을 제외하면 241명으로 보아야 한다.

60 현재까지 조사하여 밝혀진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광주 수령은 부임 여부와 상관없이 제수받은 경우는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고 있다. 《광주선생안》 하권까지 작성되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 숫자는 가감될 수 있음을 밝힌다.

명이다. 이 중에는 역시 부임하지 않은 예도 있다.

수령들의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광주의 수령으로 있다가 여러 이유로 자리에서 떠난 뒤 다음 수령이 오는 기간이 상당히 떨어진 예도 있어 아마도 기록에 빠진 수령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4년 정도 광주에 머물며 지방행정을 책임졌다. 이들의 부임 당시 직위는 음사 당하관, 문과 당하관, 문과 당상관, 문과 통정대부 등의 순이었다.

권기중(2020)의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28개 군현의 수령 6,425명을 분석한 결과 수령들의 재임기간은 평균 19개월이라고 했다.⁶¹ 또 재임기간은 군현의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며, 19세기에는 그 이전보다 2년 이상 재임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목사·부사·군수는 19세기에 들어서 12~23개월 근무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현령·현감은 24개월보다 더 오래 수령으로 재임했다고 밝혔다.

광주 수령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광주읍지》의 기록은 목사의 명단이 빠지거나 순서가 뒤바뀌거나 오류나 착오가 있고 이름이 다른 예도 있었다. 제수 날짜와 부임 날짜는 다르므로 연말에 제수되는 경우 그다음 해에 부임하는 때도 있다. 아니면 아예 부임 연도를 잘못 적은 예도 있었다.

《광주읍지》의 경우처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는 빠진 수령이 없는 것일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살펴보면 실록의 기록에는 없는데 다른 문집이나 묘비명 등에 수령으로 재임한 기록을 적어놓은 경우가 있어 충분히 기록되지 않은 수령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61 권기중(2020)은 수령의 재임기간을 추정하기 힘든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는 재임기간을 추정하여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수령들의 기록을 취합해 보면 광주목사로 부임해 온 인물들의 자세한 행적 내용을 알기는 어렵고, 드물게 치적을 쌓아 고을 주민들이 공덕비를 세웠다는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같은 ‘기록의 나라 조선’이지만 고을 수령의 재임 중의 행적 사항을 확인해 보고자 할 때는 상세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아쉬웠다.

이 책에서는 많은 고문집을 통해 광주의 수령들과의 관계, 일화 등을 소개하거나 서로 주고받은 시나, 누정 등에 걸려 있는 시와 차운시, 만사, 묘갈명 등에 일부 나타난 기록을 찾아 보완하기도 했으나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어 보인다.

‘광주목사’ 자리는 수령들이 크게 선호하는 직책은 아니었다. 간혹 광주목사로 부임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목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상당수가 좌천, 한직으로 받아들였다. 물산이 풍부하고 인심이 좋은 지역이긴 하나 중앙정부(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달을 꿈꾸는 수령들에게는 입신양명의 가도에 다소 불만족이었던가 싶다.

광주목사의 경우에서 한 가지 두드러져 보이는 사실은 목사로 재임 중 파직되거나 귀양을 가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관직에 복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반 출신들끼리 서로 묵인하거나 사면하는 관료제도의 풍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평판이 나쁘거나 행정을 잘못 하여 고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 해임되거나 유배갔을 때도 그 인물이 다른 고을의 수령이나 중앙 관직으로 복귀하는 일이 잦았다.

이로 미루어 신상필벌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역모로 장기 유배나 사약을 받는 것과 같은 왕권에 도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을 수령으로서 어지간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파직을 받은 경우에도 ‘한번 관직은 영원한 관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 수령의 기록물

수령은 지방행정관으로서 기록하는 일이 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⁶² 지방행정의 모든 사안과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면 그것이 지방관으로서의 치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령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기 때문에 시문을 작성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는 일이 많다. 그런 전문적인 일을 기록하는가 하면, 일상 생활의 소품과 감상도 일기에 담아두는 예도 있다. 어떤 이는 일기를 쓰면서 매일 시를 한 편씩 쓰기도 했다.

지도군수를 지낸 오횡묵(吳弘默)이 지방수령으로서 남긴 기록은 오늘날 그 지역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오횡묵이 다녔던 길을 따라가 보는 동호회가 생겨날 정도로 그의 기록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횡묵의 주요 저서로는 《지도총쇄록(智島叢鎖錄)》을 비롯하여 《채원집(菑園集)》·《정선총쇄록(旌善叢鎖錄)》·《자인총쇄록(慈仁叢鎖錄)》·《함안총쇄록(咸安叢鎖錄)》·《고성총쇄록(固城叢鎖錄)》·《여재촬요(輿載撮要)》 등이 있다.

특히 오횡묵의 총쇄록은 소소하고 자잘한 사실들을 모두 기록한다는 뜻으로 지방 수령으로 지낼 때마다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지방행정의 전반에 관한 소상한 내용을 신변일기 차원이 아닌 기록 형식으로 작성했다. 지도군수일 때는 부임길의 여정, 향촌 사회의 조직과 운영, 도서지역의 현황, 포구와 나루터에 관한 기록, 민속 관행, 역점을 두었던 치적 등에 관하여 기록했다. 특히 오횡묵은 관내를 순시할 때마다 반드시 서당에 들러 훈장과 학동을 만나 격려하고 즉석에서 시문을 짓

62 《정조실록》 즉위년(1776) 7월 21일, 정조는 “빈 장부만 잡다하게 기록한다고 하니, 이는 수령의 책임이다[徒煩虛簿, 此守令之責也]”라고 지적한 바 있다.

는 행사를 벌이고 백지를 상품으로 주는 등 흥학을 장려하였다.

지난 2020년 무려 67년 동안 일기를 썼던 경상도 선산 출신의 무관 노상추(盧尙樞, 1746~1829)의 일기가 번역되어 세상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노상추 일기는 18세부터 84세까지 67년 동안 매일 쓴 조선시대 최장(最長) 일기이다. 또 노상추의 아버지 노철(盧潛, 1721~1772)이 34년간 기록한 '선고일기'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최근 12권 분량의 《국역 노상추일기》를 완간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열람할 수 있다.⁶³ 《노상추일기》는 조선 후기 양반의 삶과 사회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자료의 보고(寶庫)로 평가된다.

노상추는 비주류의 한계를 일찍 깨닫고 집안의 경제를 이끌기 위해 23세 때 무과로 진로를 변경했으나, 35세 때에야 간신히 급제할 수 있었다. 그 뒤에도 4년 동안 관직을 얻지 못했고 말단 무관직을 전전한 뒤 47세가 돼서야 활쓰기 솜씨가 정조 임금의 눈에 들어 정3품 선전관에 오를 수 있었다. 이후 삭주부사와 홍주영장, 가덕진절제사, 궁궐 수비를 책임지는 금군장 등을 맡았다. 이를 통해 과거 급제자도 바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역대 광주목사들의 인물 행적을 집대성하면서 고을의 행정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으나 자료의 한계에 머문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런데도 앞서 말한 송시, 공덕비, 묘갈명, 그리고 서신 등을 통해 일부 광주목사들의 자취를 짚어 볼 수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최근의 여러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싶은 광주목사들의 행적이나 그의 인품, 문학적 성과 등이 밝혀지고 있다.

6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국역 노상추일기》. (2022.9.15. 인용)

신응시(辛應時, 1532~1585)의 경우 시 창작의 시간적 배경이 대부분 선조 연간 즉, 호남어사, 전라감사, 광주목사로 있을 때였다(권혁명, 2012). 광주가 어떤 수령들에 의해서 어떻게 다스려졌는가는 우리의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광주라고 하는 지역의 정체성 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한 왕조사의 역사 전개가 이루어졌고, 그런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른바 백성의 역사를 다룬 민중사적인 역사 전개는 대부분 반란, 역모에 가까운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다. 광주목사들의 면면도 역시 목사의 가문과 직위 변경, 교유 관계, 저술 활동, 인맥이라는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시와 편지를 주고받음, 그리고 저명한 유학자들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는 등 구태여 말한다면 문·사·철의 활동을 한 인물들이다. 그런 점에서 당대의 유력한 선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을 백성들의 역사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선정을 베푼 목사가 떠날 때 그의 공을 기려 공덕비를 세우거나 유임을 중앙에 탄원하는 반응이 기록된 정도다.

목사의 직위와 행정, 정치에 관해서는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잘 다루고 있다. 정약용은 목사를 왕명의 대행자이자 국왕에 비견되는 지역 단위의 통치자로서 수령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수령이 처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지방행정의 운영방안을 제시했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송양섭, 2016).

정약용은 수령이 도덕적 원칙론자가 아닌 행정조직의 도구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실무적·정치적 역량을 두루 갖춘 목민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수령이란 모름지기 왕화(王化)를 온전히 하고 국왕에 비견되는 경천(敬天)의 규범을 행하는 한편 수양과 공부의 수기(修己)와 주변에 대

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제가(齊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목민관으로서 공적인 지위를 잃지 않도록 요구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즉, 수령은 자신의 도덕과 학문을 닦아야 하며, 주변의 부패와 탐욕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관청과 향리를 잘 관리해야 하며, 상사와 백성에게 존경받아야 한다. 또 도덕적 자기 규율과 철저한 업무 파악을 하여 부정 부패나 탐학의 유혹에 빠지거나 업무상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한다. 상사인 관찰사에 대해서는 그 명령을 존중하되 독자적인 행정의 책임자로서 의연히 대처할 것이며, 군현 행정의 실무에 대한 철저한 파악으로 향리와 행정조직을 장악해야 한다고 했다.

정약용은 향리의 처지와 실무자의 역할을 중시하여 사소한 실수는 눈감아주되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영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여론을 중시하되 지역사회의 사족층을 교화의 협력자로 삼도록 했다. 군현 내에서 오랫동안 관행한 이른바 ‘읍례(邑例)’에 대해서는 ‘절용(節用)’과 ‘양입위출(量入爲出)’을 원칙으로 하여 명분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면밀한 검토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개혁하기를 바랐다. 정약용은 이렇게 수령이 지방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목민관으로서의 이상적인 모습과 역할을 그려냈다.

제 2 부

광주의 수령들

1. 광주선생안의 활용

광주에서 읍선생을 지낸 지역 수령들의 행적을 찾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 번도 광주지역 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읍선생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벌인 일이 없었다. 다만 1879년판을 1990년에 번역한 《광주읍지》와 1924년판을 번역하여 2003년에 발행한 《광주읍지》가 그동안의 성과였다.⁶⁴ 또 광주향교에서 지난 2021년에 《광주향교지》를 발행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광주 수령들의 기록을 일부 재정비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⁶⁵

이 책은 현감과 목사, 군수, 시장 등 광주 수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광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도시 광주다운 콘텐츠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광주읍지》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서로서 광주 수령들의 인물 행적이나 문학작 성과 등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다. 《광주향교지》는 광주향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을 정리하고 해설한 것으로 광주 수령들의 관직과 학문, 문학 등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기록의 일부가 광주 수령을 빠뜨리거나 경기도 광주목사를 ‘한글지명’이 같아 잘못 가져온 예도 있었다.

이 책도 그런 우려를 범할까 두렵다. 그렇지만 그동안 알려진 광주의 수령에 관한 기록을 새롭게 정리하는 가운데 잘못된 기록들을 수정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까지 밝혀낸 300여 명의 광주 수령들 가운데 이번에 105명을 정리하여 상권으로 묶었다. 그러나 광주 수령들의 행적이 당시 백성들과의 접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힐 수

64 광주직할시(1990), 《광주읍지》, 광주고전국역총서(사학1); 광주민속박물관(2003), 《국역광주읍지》 광주 관련 국역 고서 제1집. 이하 이 자료를 인용할 때는 《광주읍지》로 표기함.

65 2021년판 《광주향교지》를 인용할 때는 《광주향교지》라고 표기함.

있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 수령에 대한 기록은 광주의 지역사를 한국사에 위치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한편으로 이러한 자료의 집대성은 광주의 역사 이해와 복원, 문화콘텐츠 표현에 적잖은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의 회경루(喜慶樓) 복원사업을 들 수 있다.

회경루는 조선시대에 광주읍성 안에 세워진 공공건물로서 목사가 백성들과 소통하거나 의병들이 모여 의논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 광주는 1430년 읍호가 무진군으로 강등되었다가 1451년에 광주목으로 회복되었다. 이때 광주현감으로 왔던 안철석(安哲石)은 광주목사로 승격되고, 사라졌던 공북루를 1450년에 시작하여 마침 복원하였는데 이 두 가지 일을 기뻐하는 의미에서 회경루(喜慶樓)라고 이름을 지었다. 신숙주(申叔舟)가 남긴 ‘회경루기’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다.⁶⁶

喜慶樓記： 光。全羅巨邑也。舊有樓在州治之北。曰拱北。毀已久。今太守竹山安公哲石。蒞州未踰年。政成事多暇。集州之父老而問之曰。邑之不可無遊觀之所。古也。州當一道之衝。使客蜂午。而湮鬱幽蔽。無以宣暢。將何以圖之。咸曰。高明爽塏。無過拱北舊址。於是鳩材經營。增益舊制。不數月而功告成。以間計者。南北五。東西四。宏敞壯麗。甲於東方。東臨大路。西俯脩篁。鑿池其北。種以芰荷。又作射場於東。以爲觀德之所。賓主始有登臨休息之樂。此太守之志。而邑人成之也。歲庚戌。以邑人有不慧者。降爲茂珍郡。事出曖昧。上而山川鬼神。下有鄉曲老幼。抱屈莫能白者有年。上之元年辛未夏。鄉人順城君諱。前中樞李公孟珍。田公興。右參贊安公崇善。史曹判書權公孟孫。仁順府尹金公聽。前同知中樞院事柳公孟聞。藝文提學李公先齊等謀曰。上嗣登太寶。誕布維新之

66 신숙주(1645), 《보한재집(保閑齋集)》 권14. 記.

澤。猶恐一物有不獲其所。況吾州之久屈乎。遂帥州父老人吏。具列上請。上特命復其舊號。爲光州牧。報至而樓適成。父老咸集。致慶于太守。而請以喜慶名樓。以志一州人之喜慶。太守曰諾。又以叔舟在鄉籍之末。命爲之記。夫物之成毀有數。事之興廢有時。若其事與物期。數與時會者。有非人力之所及也。州在百濟。爲武珍州都督府。入新羅爲武州。高麗太祖改爲光州。成宗降爲海陽縣。高宗復陞爲州。忠宣王朝。爲化平府。恭愍王復爲光州牧。至我朝。降而又陞。一陞一降。興廢相因。而亦莫不各有其時。況斯樓之作。起於久毀之餘。而其成也若與期而會者。其必有數存乎其間矣。州以無等爲鎮。是爲南州巨嶽。儲精降祥。生我諸公。又得我賢太守。以有今日。其因廢而興。因毀而成者。豈特一樓也而已哉。一州也而已哉。景泰二年辛未冬十又二月。中直大夫。集賢殿直提學，知製教，世子右輔德兼春秋館記注官，知承文院事。高陽申叔舟泛翁。記。

희경루가 1866년에 소실된 이후 희경루 복원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와 희경루를 원래의 장소에 복원할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남구 구동 광주공원 일원에 정면 5칸, 측면 4칸, 팔작지붕, 중층 누각 형태의 복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해 2023년에 완공했다. 이렇게 복원한 희경루는 과거와 현재의 광주를 연결하는 역사적인 공간으로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당시 이선제(李先齊, 1390~1453)가 광주목사인 안철석과 함께 향풍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광주향약을 시행하였다. 광주는 다른 지역보다 향약이 먼저 시작되었다. 세종 연간에 김문발(金文發)이 실시했던 기록들까지 포함한다면 광주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중요한 지역의 문화콘텐츠 자원이 아닐 수 없다. 향약은 백성들의 생활 상태와 사회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더욱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의 광주제일고 인근에 있었던 절양루를 복원하는 일이다. 절양루는 임진왜란 때 의병의 집결지였으며 병자호란 때에도 의병청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의향 광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절양루는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고 보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건물이다.

《광주선생안》은 광주의 지역사는 물론이고 위에서 예를 든 문화재 복원사업 같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표현의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단순한 광주 수령들의 행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귀중한 역사 탐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선생안》을 쓰기 위해 정리한 수령들의 기록은 표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이 표는 아직 미완성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중·하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광주 수령들의 기록을 더 찾아내길 기대한다. 최종적으로 하권에 광주 수령의 전체적인 표를 완성할 예정이다.

통일신라시대

(676~935년)

통일신라시대에 광주에 파견된 수령은 《광주읍지》에는 천훈(天訓)과 김양(金陽) 두 사람뿐이었으나, 다른 문헌을 통해 김헌창(金憲昌)과 김일(金鎰) 등 두 사람을 더 찾아낼 수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옛 무진주도독으로 파견된 통일신라의 왕족들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광주를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파견된 연도를 보면 천훈은 678년, 김헌창은 813년, 김양은 830년 그리고 김일은 930년 무렵에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들 4명 외에 더 파견되었을 것이나 기록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

1. 천훈(天訓, 650?~?), 재임 : 678~?

천훈(天訓)은 누구일까? 이름으로 보면 참으로 비범한 인물 같다. 천훈은 문헌상으로 볼 때 광주의 수령으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다. 《광주읍지》 등에 따르면 천훈은 도독(都督)⁶⁷이라는 관직에 임명되었다. 그가 도독으로 임명된 시기는 678년(신라 문무왕18) 여름 4월이었으며, 이는 《동사강목》 제4하에 ‘아찬 천훈을 무진주도독(武珍州都督)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⁸

아찬(阿漚)은 신라의 골품제에 따른 17관등 중에서도 6등급에 해당하는 벼슬이었고, 아척간(阿尺干)이라고도 불렸다. 천훈은 이러한 아찬의 관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광주의 옛 이름인 무진주의 지방 총독관인 도독에 임명된 것이다. 천훈의 출신이나 성격, 업적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의 이름만으로도 헤아려 볼 때 천훈은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권세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⁶⁹ 상당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의 이름이 권위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신라 문무왕 18년에 아찬으로서 나와 도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⁷⁰ 《동국여지지》 광주목 편⁷¹과 《삼국사

67 주의 장관. 주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관장하였다. 도독이란 명칭은 당(唐)의 도독제(都督制)에서 차용한 것이다. 신라에서는 주의 장관을 중고기에는 군주(軍主)라고 하였고, 통일기 전후에는 총관(總管)으로 고쳤다가, 통일 이후인 원성왕(元聖王) 원년(785)에 도독(都督)으로 개칭하였다. 정구복 외(1998), 《역주 삼국사기》 4 주석 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585~586.

68 윤남한(1977), 안정복(1712~1791)의 《동사강목(東史綱目)》 해제에 따르면 이 책은 안정복이 45세(1756) 때 시작하여 48세 때 일단 완성되었다가 다시 산삭(刪削) 수보(修補)되었고, 67세 때에 최종본이 되었으나 이것을 다시 교정하여 72세(1783) 때에 완성한 것이다.

69 대종교의 경전으로 일컬어지는 《삼일신고(三一神誥)》 제1장에 ‘천훈(天訓)’ 편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곧 ‘우주’를 가리킨다. 이를 살필 때 총독관으로 온 천훈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권위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광산현, 新羅文武王十八年以阿漚出爲都督.

기》 권7 신라본기⁷²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천훈은 그의 직급으로 살펴보면 신라의 중요한 관료였으며, 그가 도독으로 임명된 것은 무진주 지역에서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 그가 도독으로 임명된 시기는 신라가 군사적으로 취약해졌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의 임명은 신라의 군사력 강화와 안보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독(都督)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서 사용된 관직으로, 도(都)를 다스리는 지방행정관과 군사지휘관을 겸임하는 지방 총독관이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도(都)가 한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담당하는 행정구역이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행정관이 도독으로 임명되어, 지방행정과 군사지휘의 책임을 모두 맡았다.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진군(武珍郡)은 문무왕 18년 이전부터 주(州)로 되어 있었다. 문무왕은 통일신라 제30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661년에서 681년까지 약 20년이다. 무열왕이 660년 당나라 연합군과 함께 백제의 도성인 사비성(泗沘城,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을 함락하였다. 661년(무열왕8) 2월에 백제의 부흥군이 사비성을 다시 공격하자 진왕(眞王)은 왕명을 받고 잡찬(迺漣) 상주장군(上州將軍) 문충(文忠)을 지원하여 백제 유민을 격퇴하였다. 이후 신라가 671년(문무왕 11)에 사비성에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했을 때 아찬 진왕(眞王)을 도독에 임명함으로써⁷³ 백제 고지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문무왕은 체제 정비작업을 위해 675년에 백사(百司)⁷⁴와 주군(州郡)의 동인(銅印)을 제작, 반포하였다. 문무왕 때 9주 장관의 이름으로 도독이 사용되었던 것을 보면 광주가 통일신라의 통치영역에 있어서 매

71 《동국여지지》 권5상 전라도 광주목, 新羅 天訓. 文武王十八年以阿漣出爲武州都督.

7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제7, 678년 4월, 夏四月, 阿漣天訓爲武珍州都督.

7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제7, 671년 7월 26일, 置所夫里州, 以阿漣眞王爲都督.

74 이는 모든 관사를 통칭하는 말이다.

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⁵ 즉 광주가 신라 9주의 한 곳이니 그때나 지금이나 호남지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9주는 신라 경계 안에 3주를 설치하여 왕성(王城) 동북쪽 당은포로(唐恩浦路)를 상주(尙州), 왕성 남쪽을 양주(良州), 서쪽을 강주(康州)라고 하였다. 옛 백제국 경계 안에 3주를 설치하여 백제의 옛 성 북쪽의 웅진구(熊津口)를 웅주(熊州), 서남쪽을 전주(全州), 남쪽을 무주(武州)라고 하였다. 옛 고구려 남쪽 경계 안에 3주를 설치하였으니, 서쪽으로 부터 첫째를 한주(漢州), 다음 동쪽을 삭주(朔州), 또 다음 동쪽을 명주(溟州)라고 하였다. 9주가 관할하는 군현이 무려 450개였다.⁷⁶

천훈 도독에 대한 개인 신상은 전혀 알려진 기록이 없다. 그런데 무진주의 명칭은 686년 2월에 성립됐다는 기록은 있다. 이는 발라주(發羅州)를 군(郡)으로 삼고 무진군(武珍郡)을 주(州)로 삼았다고 한 내용이다.⁷⁷ 따라서 그 이전의 ‘무진주’는 후세 기록자들이 편의상 ‘무진주’로 적었을 수 있다.

2. 김헌창(金憲昌, 780?~822), 재임 : 813~814

이찬(伊飡) 김헌창(金憲昌)은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의 후손으로 원성왕(元聖王)과 왕위를 다툰 명주군왕(溟州郡王) 김주원(金周元)의 아들이다.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국(長安國)을 세웠다.

신라 헌덕왕(憲德王) 때에 김헌창은 무진주(武珍州) 도독(都督)으로 임명되었다. 《광주읍지》에는 그의 도독 부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면

75 이문기(1990), “통일신라의 지방관제 연구”, 국사관논총 20, pp.1~35.

76 우리역사넷, “지방 제도의 정비 -9주 5소경”, 국사편찬위원회.

77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제8, 신문왕 6년 2월, 發羅州為郡, 武校勘珍郡為州.

《삼국사기》에는 813년 정월에 신라 경위(京位) 17관등 중 제2등인 이찬(伊漘) 김현창을 무진주도독으로 임명했다고 기록했다.⁷⁸

《삼국사기》에는 807년(애장왕8) 1월에 이찬 김현창을 시중(侍中)으로 삼았다는 기사도 있는데,⁷⁹ 이기백(1974)은 이 인물은 김현창이 아니라 원성왕의 삼남 김예영(金禮英)의 장남 김헌정(金憲貞)이라고 주장했다.⁸⁰ 그의 근거는 김현창이 813년에 무진주도독으로 강등되었다가 814년에 다시 시중이 되는 것은⁸¹ 이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현창은 816년에 시중에서 청주(淸州) 도독으로 밀려났다가⁸² 821년(헌덕왕13)에 웅천주(熊川州)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822년 3월에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켜⁸³ 국호를 장안(長安), 연호를 경운(慶雲)이라 하고, 무진·금정·사벌·서원·국원·금관 등 여러 주를 점령했다.⁸⁴ 그는 공주목(公州牧) 북쪽에 있는 공산성(公山城)을 본거지로 삼았는데, 이 성은 백제시대의 옛 성이었다.⁸⁵ 왕이 군사를 보내 반란군을 공격했는데 속리산·성산(星山)에서 연달아 이기고, 여러 군대가 웅진으로 진격해, 10일 만에 성을 함락하려 하자 김현창은 자살하고 남은 진압되었다.⁸⁶

78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5년, 五年, 春正月, 以伊漘憲昌爲武珍州都督.

79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애장왕 8년, 八年, 春正月, 伊漘金憲昌[一作貞].爲侍中.

80 이기백(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p.177.

81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6년, 秋八月, 京都風霧如夜. 武珍州都督憲昌入爲侍中.

82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8년, 八年, 春正月, 侍中憲昌出爲菁州都督.

8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경상도, 진주목, 新羅憲德王十三年, 憲昌自菁州都督移鎮熊川叛.

84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4년, 三月, 熊川州都督憲昌, 以父周元不得爲王反叛, 國號長安, 建元慶雲元年. 虜武珍·完山·菁·沙伐四州都督, 國原·西原·金官仕臣及諸郡縣守令, 以爲己屬.

85 공주 공산성(公州 公山城)은 사적 제12호로,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성이다. 해발고도는 110m이다. 산을 따라 성을 쌓았는데, 동쪽과 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북쪽은 금강에 임하였다.

86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4년, 衛恭·悽凌合張雄軍, 攻三年山城, 克之. 進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신라는 822년에 강릉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던 명주국(溟州國)을 멸망시켰다. 선덕왕(善德王)이 아들 없이 죽자, 태종의 손자 김주원을 추대하려 했으나 강물이 불어나서 취임하지 못하자 원성왕을 세웠다. 김주원은 명주로 물러가서 살았고, 원성왕은 김주원을 명주군왕으로 봉하고 양양·삼척·평해·울진 등을 식읍(食邑)으로 주었다고 한다.⁸⁷

김헌창의 아들 김범문(金梵文, ?~825)은 825년 1월에 고달산(高達山, 여주시 북내면 혜목산)의 도적 수신(壽神)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북한산주(北漢山州)에 도성을 세우려 했으나, 총명(聰明)이 군사를 이끌고 진격해 와 사로잡혀 참형되었다.⁸⁸ 총명은 825년에 북한산주 도독이 되었다.⁸⁹

3. 김양(金陽, 808~857), 재임 : 828~?

신라의 김양(金陽)은 제42대 흥덕왕(興德王, 재위 826~836) 때 무진주도독(武珍州都督)으로 파견되어 광주의 통치자가 되었다. 《광주읍지》에는 김양이 흥덕왕 때 부임하였다고 기록했다. 828년 말에 광주에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강목》 828년(흥덕왕3) 겨울 12월 편에는 김양의 ‘자는 위흔(魏昕)이요, …… 젊어서부터 영걸답더니 고성군(高城郡) 태수가 되었고,

兵俗離山，擊賊兵滅之，均貞等與賊戰星山滅之。諸軍共到熊津，與賊大戰，斬獲不可勝計。憲昌僅以身免，入城固守，諸軍圍攻浹旬，城將陷。憲昌知不免自死，從者斷首與身各藏。

87 김헌창은 태종 무열왕계로 원성왕(元聖王)과의 왕위 경쟁에서 밀려나 명주군왕이 된 김주원(金周元)의 아들이다.

88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7년, 十七年, 春正月, 憲昌子梵文與高達山賊壽神等百餘人, 同謀叛, 欲立都於平壤, 攻北漢山州, 都督聰明率兵, 捕殺之 [平壤今楊州也]

89 《동국여지지》 권1, 경도, 한성부, 聰明. 憲德王十七年, 爲北漢山都督. 憲昌子梵文與高達山賊壽神等百餘人謀叛, 欲立都於北漢山州, 聰明率兵捕殺之。

얼마 안 있어 중원(中原, 현재의 충주 지방)의 대윤(大尹)에 임명되었다가 곧 무주 도독으로 전임되었다. 부임하는 곳마다 정치를 잘한다는 칭찬이 있었다'라고 기록했다.⁹⁰

《동국여지지》명환(名宦) 신라 편에는 '흥덕왕 3년에 중원 대윤이 되었는데, 재능과 슬기로우미이 출중하고 실행하는 데 과감하여 정사(政事)에 탁월한 공적이 있었다'라고 했다.⁹¹

《삼국사기》권44 '김양열전(金陽列傳)'에 따르면 김양은 제29대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의 9대손이며 조부인 소판⁹² 김종기(金宗基)가 명주군왕(明州郡王)에 습봉(襲封)되었고, 부친인 파진찬((武珍州)⁹³ 김정여(金貞茹)는 처음으로 조정에 나와 상대등(上大等)이 되었다.⁹⁴

제41대 헌덕왕(憲德王) 14년(822) 3월에 조부 김종기와 형제 항렬(恒列)인 김헌창(金憲昌)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그 일당이 모두 살해되었으나, 김종기의 집안은 피해당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연좌되어 처벌받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처벌받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흥덕왕 때 김양은 고성군 태수와 중원소경(中原小京) 대윤(大尹)을 거쳐 828년에 무주 도독의 자리를 맡았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광주의 책임자로 파견된 것이다. 김양은 김헌창·김흔(金昕) 등과 함께 무열왕계 사람이다. 이들은 귀족 연립적인 신라 하대의 성격을 뚜렷하게

90 안정복(1712~1791), 《동사강목(東史綱目)》 권5상, 12월, 이때 고성군 태수가 된 뒤 중원 대윤을 거쳐 무주 도독이 되었으므로 830년 이후 광주에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91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권3, 충청도, 興德王三年, 爲中原大尹. 英傑果斷, 爲政卓有聲績.

92 일명 잡판(逆判)·소판(蘇判)이라 하는데 17관등 중의 제3관등으로 진골만이 받을 수 있다.

93 일명 해찬(海滄)·해간(海干)·파미간(破彌干)이라 하는데 17관등 중의 제4관등으로 진골만이 받을 수 있다.

94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양, 가계. 金陽, 字魏昕, 太宗大王九世孫也. 曾祖周元伊滄, 祖宗基蘇判, 考貞茹波珍滄. 皆以世家爲將相.

만들 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는데, 원성왕계 왕실에 도전해 반란을 주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836년 12월에 흥덕왕이 죽자 김양은 김균정(金均貞)을 왕으로 옹립하였으나 김제룡(金悌隆)에게 패배하고 경주 북쪽인 한기(漢岐) 방면으로 달아났다. 제43대 희강왕(熙康王) 3년(838) 1월에 김명(金明)이 희강왕을 죽게 하고 왕위에 오르자, 같은 해 2월에 김양은 병사를 모집하여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金祐徵)이 있는 청해진(靑海鎭)으로 갔다. 제44대 민애왕(閔哀王) 2년(839) 1월에 김양의 지휘 아래 김우징, 장보고와 함께 출병하여 민애왕을 죽이고 같은 해 4월에 김우징을 제45대 신무왕(神武王)으로 옹립하였다.⁹⁵

이어 7월에 신무왕이 죽은 뒤 제46대 문성왕(文聖王)이 즉위하자 김양은 시중(侍中)과 병부령(兵部令)을 역임하며 증용되었다. 또한 '헌안대왕(憲安大王, 822~861)이 즉위(857)하기 전에 단월(檀越, 불교신도)인 계(季) 서발한(舒發韓) 위흔과 함께 남북상(南北相)으로 있었는데, 멀리서(마곡 보철화상, 麻谷寶徹和尚) 제자의 예를 행하여 차와 향을 예물로 바치며 매달 거르는 때가 없게 하였다'라는 기록도 있다.⁹⁶

이때 남북상은 탐본(榻本)의 원주(原註)에 '각각 남상(南相)과 북상(北相)의 관직에 거하였으니, 좌상(左相)과 우상(右相)이라는 말과 같다 [各居其官 猶左右相]' 라고 하였다. 따라서 김양은 신라 관제의 3등급이면서 좌상이나 우상의 즉위에 있었으므로 상당한 고위직으로 보인다.

최부(崔溥, 1454~1504)의 《표해록(漂海錄)》을 보면 중국의 소흥부

95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경상도, 경주부, 金陽. 太宗王九世孫. 興德王薨, 無嗣, 王之堂弟均貞與堂弟之子悌隆爭立. 陽奉均貞爲王, 入積板宮, 悌隆之黨金明等來圍之, 殺均貞, 陽號天誓心. 及金明弑悌隆自立, 陽募集兵士, 入靑海鎭, 見均貞之子祐徵. 祐徵與謀舉事, 討金明殺之, 奉迎祐徵卽位, 是爲神武王.

96 최치원, 《고운집》 권2, 비(碑), 최국술본(崔國述本), 無染和尚碑銘 竝序.: 최치원, '보령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위흔은 김양의 자이다.

(紹興府)에 도착하여 총독비에서 도지휘첨사(總督備倭署都指揮僉事) 황종(黃宗), 순시해도 부사(巡視海道副使) 오문원(吳文元), 포정사령 수 우참의(布政司令守右參議) 진담(陳潭)이 ‘당신이 만약 조선인이라면 당신의 나라 역대 연혁과 도읍·산천·인물·속상(俗尙)·사전(祀典)·상제(喪制)·호구(戶口)·병제(兵制)·전부(錢布)·관상(冠裳)의 제도를 자세히 써오면 여러 역사에 옳고 그른 것을 살펴보아 시비를 상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때 최부가 대답하는 내용 중에 ‘인물은 신라의 김유신, 김양, 최치원, 설총이 있고 백제의 계백, 고구려의 을지문덕, 고려의 최충, 강감찬, 조충, 김취려, 우탁, 정몽주, 그리고 우리 조선은 일일이 셀 수 없다’⁹⁷라고 하는 등 신라의 인물로 김양을 들어 설명했다. 김양의 위상을 어렵해 볼 수 있는 자료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김양묘(金陽墓)는 태종왕릉(太宗王陵)에 배장(陪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⁹⁸ 김양이 왕족 가운데 꽤 뛰어났고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김일(金鎰, 900?~?), 재임 : 930?~?

신라의 김일(金鎰)은 무주(武州) 도독(都督)을 역임했다. 《광주읍지》에는 김일에 관한 기록은 없다. 최치원(857~?)의 《고운집(孤雲集)》에 ‘무염화상비명 병서(無染和尚碑銘 竝序)’를 보면 ‘보살계(菩薩戒) 제자인 무주 도독 소판(蘇判) 김일은 … 왕족 출신’이라고 했다.⁹⁹ 즉 신라

97 최부, 《錦南先生漂海錄》 권1, 2월 4일, 人物則新羅金庾信, 金陽, 崔致遠, 薛聰, 百濟階伯, 高句麗乙支文德, 高麗崔沖, 姜邯贊, 趙冲, 金就礪, 禹倬, 鄭夢周. 我朝鮮不可歷數.

9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상도, 경주부, 金陽墓, 陪葬太宗王陵. 태종 무열왕릉과 김하나를 사이에 두고 김인문묘와 나란히 있는데 김인문묘보다 약간 작다.

99 최치원, 《고운집》 권2, 비(碑), 無染和尚碑銘: 菩薩戒弟子武州都督蘇判[新羅五品爵中第五秩鎰, … 皆王孫也.

17관등 중의 3등급이다.¹⁰⁰ 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김일은 930년 전후에 무주 도독으로 재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일은 세간에 흔히 마의태자(麻衣太子)로 알려진 사람이다.¹⁰¹ 마의태자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재위 927~935)의 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서(史書)에는 마의태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김일은 신라 역사에 비중 있는 인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에 가면 마의태자와 관련된 지명들이 있다. 마의태자가 옥새를 숨겼다고 전하는 옥새바위, 마의태자가 수레를 타고 넘었다는 고개인 김부리 어귀의 수거너머 등이다. 이밖에도 맹장군(孟長君)의 이름을 딴 맹개골, 군량미(軍糧米)를 저장했다는 군량리, 국권 회복을 뜻하는 다물 등도 있다.¹⁰²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따르면 ‘김부리’는 신라 김부대왕이 피난하였던 지역이라고 처음으로 밝혀 김부대왕동(金傅大王洞)이라고 이름하였다 한다.¹⁰³ 이는 《인제군읍지》(1901)에도 실려 있다.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 비각을 ‘김부대왕각’이라 부르며 해마다 제사를 지내왔다. 대왕각(大王閣) 안에는 신라

100 일명 잡판(逆判)·소판(蘇判)이라 하는데 17관등 중의 제3관등으로 진골만이 받을 수 있다.

101 《삼국유사》 권2, 기이 편, 김부대왕(金傅大王) 조에는 ‘왕태자(王太子)’라고 되어 있다. ‘마의 초식(麻衣草食)’하며 일생을 마쳤다는 데에서 ‘마의태자(麻衣太子)’라고 부른다. 김부대왕 조에 의하면 경순왕의 막내아들도 화엄사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이름을 범공(梵空)이라 하였으며 법수사(法水寺)와 해인사(海印寺)에서 살았다.

102 인제군 문화관광, <http://tour.inje.go.kr/tour>. 인제군은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사업으로 인제군 김부대왕로 2390 일대를 ‘마의태자권역’으로 지정하고 마의태자권역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행치령 정상에 ‘마의태자 노래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103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 편 5, 논사류 1, “김부대왕(金傅大王)에 대한 변증설”(고전간행회본 권60), 김부는 신라 경순왕을 말한다고 했다.

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태자라는 인물이 신(神)으로 모셔져 있다. 대왕각의 위패에는 원래 ‘신라경순왕제일자지신위(新羅敬順王第一子之神位)’라 적혔었다고 한다. 1940년대 이후 김씨 일문(一門)의 마의태자 후손들이 ‘김일’이라는 이름을 추가하여 ‘신라경순대왕태자김공일지신위(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鎰之神位)’로 바꾸어 새겼다.¹⁰⁴

1785년 개성에서 우연히 발견된 ‘김은열 묘지명(金殷烈墓誌銘)’에 나오는 경순왕 제1자라는 김일은 이 당시의 관등이 소판이다. 이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는 890년에서 897년 사이에 최치원이 찬술한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保寧城主寺址浪慧和尚塔碑)’에 등장하는 왕손인 무주 도독 소판 김일이다.¹⁰⁵ 하지만 해당 금석문이 지어진 시기는 890년에서 897년으로 경순왕이 태어난 897년보다 앞선다. 김일 도독이 경순왕 제1자인 마의태자인지는 불분명하다.

세간에 알려진 마의태자를 무주 도독으로 본다면 김양(金陽)과 김일(金鎰)은 약 100년의 차이를 두고 무주 도독으로 파견된 왕손이다. 이처럼 왕손 출신들이 광주 책임자로 파견된 것은 그만큼 광주를 통일신라의 중요한 관할 지역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순왕의 제1자이든 아니든 신라의 비중있는 인물이 광주의 도독으로 부임했던 사례를 볼 때 광주의 위상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김일에 관한 더 이상의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꾸준히 신라 왕족들이 광주를 통치하기 위한 도독을 파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104 마의태자용소마을, <https://akdml21c.modoo.at/>

105 최치원,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菩薩戒弟子武州都督蘇判鎰 … 王孫蘇判鎰.

고려시대

(918~1392년)

고려시대에 광주의 수령이 된 이들은 문헌상으로 모두 8명을 찾을 수 있었다. 《광주읍지》에는 이서(李舒) 한 명뿐이었으나 7명을 더 찾았다.

광주의 옛 지명 가운데 해양(海陽), 화평(和平), 무진(茂珍) 등이 있었다. 이번 작업을 통해 탁이위(卓理位), 이성(李晟), 김연(金暉), 김상(金賞), 이운길(李云吉), 황거중(黃居中), 김준(金準) 등 7명의 수령을 찾아내 기록했다.

앞으로 지역사를 정리하는 데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 많은 문헌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광주의 수령과 인물들을 더 찾아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 탁이위(卓理位, 1230?~?), 재임 : 1250?~?

고려 고종(재위 1213~1259) 때 광산탁씨의 탁이위(卓理位)는 지방 행정 구역인 해양현(海陽縣)을 맡아 다스리는 지해양현사(知海陽縣事)의 벼슬을 지냈다.¹⁰⁶ 그러나 《광주읍지》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광주는 995년(성종14)부터 1259년(고종46)까지 264년 동안 해양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광주목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므로 탁이위가 해양현을 맡았던 시기는 1250년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현사는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현을 맡아 다스리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를 말한다.¹⁰⁷ 곧 판현사(判縣事)·지현사(知縣事)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판현

106 탁이위가 지해양현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탁광무(卓光茂, 1330~1410)의 《경령정집》의 ‘광산탁씨세계’에 나온다. ‘광산탁씨세계’를 보면 탁이위는 시조 탁이업으로부터 6세인 탁란의 아들이며, 좌사의대부, 성균좌주를 지낸 탁광무는 탁란의 사촌 형인 탁영의 아들인 탁문위의 장남으로 8세이다.

107 당시 지방관의 녹봉은 현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달랐는데, 고려 문종(재위 1046~1083) 때 해양현령의 녹봉은 26석 10두였다. 《고려사》 권80, 지 제34, 식회3, 녹봉, 문종 때 정한 지방관의 녹봉은 지서경유수사가 270석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동경유수사 223석부터

사는 정3품으로 병마절제사가 겸하였다. 4품 이상의 관원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지현사라 하였다.¹⁰⁸

탁이위의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자는 치도(稚道)이다. 그의 조부는 국학진사(國學進士) 탁윤성(卓允成), 부친은 시랑(侍郎)을 지낸 탁난(卓蘭)이며, 고려 제23대 고종 때부터 제25대 충렬왕 때의 문신이었다. 그의 동생은 탁진위(卓進位)이다. 탁이위의 선계는 한나라 광무제(光武帝) 때 태부(太傅)가 되고, 포덕후(布德侯)에 봉해진 탁무(卓茂, BC 53~28)라고 광산탁씨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탁사정(卓思政)으로 1009년(목종 12) 증랑장을 거쳐 급사중(給事中)이 되었고, 1010년(현종1) 거란의 2차 침입 때 동북계도순검사가 되어 서경(西京)에서 증랑장 지채문(智蔡文, ?~1026)과 함께 거란군을 격파하였다. 1011년 어사중승(御史中丞)을 거쳐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에 올랐다.

광산탁씨는 고려 선종(宣宗, 1049~1094) 때 한림학사를 지낸 탁지엽(卓之葉)을 시조로 하는 성씨이다. 자는 옥립(玉立), 호는 학포(學圃)이다. 탁지엽은 태사(太師)의 벼슬을 지낸 후 광산군에 봉해졌으며, 문성(文成)이란 시호를 제수받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라도 무진군(茂珍郡)의 토성(土姓)으로 탁(卓)·이(李)·김(金)·채(蔡)·노(盧)·장(張)·정(鄭)·박(朴)·진(陳)·허(許)·반(潘)·성(成)·승(承) 13성이 기록되어 있다. 탁씨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광주의 명문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광산탁씨는 명문 세족으로 대를 이어 번성하였다.

개성 법조는 13석 5두까지 받았다.

108 세조 12년(1466)에 현령(縣令)으로 고쳤다. 지현(知縣), 지관(知官), 지사(知事)로도 부른다.

2. 이성(李晟, 1251~1325), 재임 : 1320?~?

이성(李晟)은 담양 출신으로 고려 말기인 충숙왕 7년(1320) 전후에 화평부사(化平府使)를 지냈다. 즉 광주의 수령이었다. 《광주읍지》에는 이성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고려사절요》 권24와 《동사강목》 제13하의 기록을 보면 자세히 나온다.¹⁰⁹

1310년(충선왕2)에 화평(化平)으로 강등되었고, 화평은 1362년(공민왕11)까지 52년간 사용된 옛 지명이다. 따라서 광주는 이성이 재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화평’이라 불렀다고 할 수 있다.

이성은 20세에 문과에 합격하고 온수감무(溫水監務)를 거쳐 수원사록(水原司錄)을 역임했으며, 임기가 끝나자 죽계(竹溪)의 시골집으로 들어가서 벼슬을 그만두고 경서(經書)를 연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성격이 소박하고 겸손했으며, 어릴 때부터 공부에 열중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사람이 소박하고 사치하지 않았다. 그의 학문은 높이가 평가받아 ‘오경사(五經筓, 五經에 능통한 사람)’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다양한 문헌을 연구하는 데 힘썼고, 많은 제자가 배우기를 바라며 문전에 모였다.

그러던 중 천거를 받아 국자박사(國子博士)로 임명되었고, 합문지후(閣門祗候)를 거쳐 59세에 좌사보(左司補)가 되어 서성(西省)에 입직했다. 내서사인(內書舍人), 전의부령 예문응교(典儀副令 藝文應教), 선부 의랑(選部議郎), 민부전서(民部典書), 성균궐주(成均祭酒) 등 여러 벼슬을 거쳤다.

그는 서성(西省)에 입직하였을 때 대학자들이 송별연을 베풀어주자, ‘귀전영(歸田詠)’이라는 시를 지었다.¹¹⁰ 이 시에서 ‘죽계’는 담양을 가

109 《고려사》 열전 권22: 《고려사절요》 권24, 충숙왕(忠肅王) 12년 3월, 이성의 줄기: 《동사강목》 제13하 ‘을축년 충숙왕 12년’.

110 《고려사》 권109, 李晟: 藥砌清風欺我老. 竹溪明月誘吾情. 昨宵已決歸田計. 雪盡江南匹馬行.

리키는데, 담양은 죽녹원과 관방천이 유명하고, 또한 담양군 봉산면 성산 앞을 흐르는 죽계천(竹溪川)¹¹¹이라는 강이 흐르는 곳이다. 담양은 대나무가 많아서 ‘죽계’라는 말을 자주 썼다.

이성은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는 고향인 담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藥砌清風欺我老 약초밭의 맑은 바람 내 늙음을 가려주고
竹溪明月誘吾情 대숲과 시내 밝은 달은 내 정을 유혹하네
昨宵已決歸田計 어젯밤에 이미 고향으로 돌아갈 일 정했거니
雪盡江南匹馬行 눈 녹으면 남쪽으로 홀로 말 타고 내려가리

이런 시를 남긴 이성은 화평부사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1325년 3월에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아들은 없었다.¹¹²

3. 김연(金暉, 1300?~1360?), 재임 : 1345?~?

김연(金暉)은 고려 충목왕(忠穆王, 재위 1344~1348) 때 화평부사로 재임했다. 화평은 광주의 고려 때 행정지역명으로 1310년(충선왕2) 강등되어 1362년(공민왕11)까지 사용됐다. 그런데 《광주읍지》에는 김연에 관한 기록이 없다.

김연의 자세한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고려사》에 약간의 기록이 있다. 김연의 본관은 의성, 호는 회옹(晦翁)이다. 일명 김연(金翥)으

111 죽계천의 다른 이름이 송강 정철의 호가 된 ‘송강(松江)’이다. 성철용(2019), “가사(歌辭)의 고향 담양 Photo 에세이”, 2019.12.15. 한국수필작가회, <https://cafe.daum.net/esay.or.kr> (2023.5.28. 인용)

112 《고려사》 권109, 열전 권22, 제신(諸臣), 이성(李晟). 忠肅元年弃官南歸加民部典書致仕. 後爲化平府使未幾又辭.

로도 부른다. 고려 충목왕 때인 1344년에 지평(持平)을 지내고¹¹³ 일파를 이루었다. 따라서 1345년을 전후하여 화평부사로 부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의 부친인 보문각 직제학을 지낸 이곡(李穀, 1298~1351)의 《가정집(稼亭集)》¹¹⁴에도 벗이라 부르는 김연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이곡이 쓴 ‘화평부에 부임하는 김회옹(金晦翁)을 전송한 시의 서문’이라는 글이 전한다.¹¹⁵ 이 글 중에 “나의 벗 회옹이 광주로 가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예전 광주에 임명된 자들은 전임 관원이 임소에서 죽었기 때문에 피험(避嫌)해서 면직되는 경우가 많았다. 회옹도 필시 그곳에 부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연은 “아, 광주는 축축하거나 메마른 땅[瘴氣]이 없으니까 내가 머무를 수 있고, 백성이 비록 억세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원래 갖추어진 법조문이 있으니 내가 다스릴 수 있겠다. 또 향리와 거리도 가까우니 내가 어찌 가는 것을 꺼리겠는가. 그리고 봉급이 비록 박하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태창(太倉)¹¹⁶에서 쌀을 사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천하 고금에 오래 살지 못한 자들은 모두 광주에서 벼슬살이를 한 자들이었던가? 벼슬길에서 현달한 자들은 또 모두 광주에 임명되었을 때 부임하지 않은 자들이었던가?”라고 말하였다.

이곡은 김연의 이 말에 대해 “이처럼 현명하며 재능이 있는 인재가

113 《고려사》 권37, 세가 권37, 충목왕(忠穆王) 즉위년 6월, 乙卯 置書筵.

114 초간본은 이곡의 아들 이색(李穡)이 편집하고, 사위 박상충(朴尙衷)이 금산에서 1364년(공민왕14)에 간행하였는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사이에 병화로 소실되자, 1422년(세종4)에 그의 후손인 이종선(李種善)이 강원감사 유사눌(柳思訥)에게 중간하게 하였다.

115 이곡, 《가정집》 稼亭先生文集 권10, 序, 送金晦翁赴化平府序; 《동문선》 권13에도 실려 있다.

116 고려시대에 곡식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계속해서 부임하게 되면 광주가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곡이 김연에게 쓴 시를 보면 매우 친한 친구였음을 보여준다.

井邑蕭條異舊時 우리 동네 예전과 달리 쓸쓸하기만 한데
送人作郡謾吟詩 원님 친구 전송하며 시만 괜히 읊조리네
興來飲酒寧無偶 흥이 일면 술 마실 짝이 어찌 없으리오
我有同年不甚癡 그다지 어리석지 않은 나의 동년이 있느니

이곡은 친구인 김연이 광주로 떠나니 자신이 살던 동네가 쓸쓸해진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술 마실 짝’은 바로 김연을 말한다. 광주에 있는 김연이 불현듯 생각나면 찾아가서 언제든지 술 한잔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균궐주(成均祭酒)를 지낸 이달충(李達衷, 1309~1384)도 ‘김회옹이 남으로 갈 때 지어 준 촌중사시가[金晦翁南歸作村中四時歌以贈]’를 불렀다.¹¹⁷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래하여 남쪽에서 자리를 맡아지내도 별 탈 없이 즐겁게 보내며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위로했다. 이달충은 고려 충숙왕~우왕 때의 문신이다. 정당문학을 지낸 이천(李蘊, ?~1349)의 아들로 유학에 정통하였고, 밀직제학(密直提學)을 지낼 때 공석에서 신돈(辛旽, ?~1371)을 비판하여 파면되었다가 신돈이 실각한 후 계림부윤으로 복직했다.

이곡과 이달충의 나이와 이곡의 《가정집》 발간 시기, 화평부사의 직책 등을 고려한다면 김연의 생몰연도는 1300~1370년 무렵 정도로 추정된다.

117 이달충, 《제정집(霽亭集)》 권1, 시(詩).

4. 이운길(李云吉, 1300?~1370?), 재임 : 1362?~?

이운길(李云吉)은 《광주읍지》에는 기록이 없으나 1362년 이후에 무진부사(茂珍府使)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무진은 1362년(공민왕11)부터 1374년(공민왕23)까지 12년간 광주의 옛 이름이다. 이운길 무진부사의 광주 재임 때의 행적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이운길의 가문에 관한 기록과 같은 주변 자료를 통해 헤아려 볼 수 있었다.

모계(茅溪) 이명배(李命培, 1672~1736)의 《모계집(茅溪集)》 '직제학어공유사(直提學魚公遺事)'에 이운길에 관한 간단한 기사가 나온다. 즉, 면곡(綿谷) 어변갑(魚變甲, 1381~1435)의 부친은 대구현령(大邱縣令)을 지낸 월정(月亭) 어연(魚淵, 1345~1429)이고, 모친은 함안이씨 무진부사 이운길의 딸이라는 기록이다.¹¹⁸ 이운길 무진부사는 어연의 외할아버지이다. 이명배는 이현일(李玄逸)의 문인으로 이재(李裁), 김상정(金尙鼎), 권중도(權重道), 안명하(安命夏) 등과 교유했다.

이운길의 고손자가 되는 이의형(李義亨, 1442~1495)은 어변갑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함중어씨 집안의 외척(外裔)이 된다.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에 있었던 어변갑과 어효침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조선 후기의 곤의서원(昆義書院), 다른 이름으로는 면곡서원(綿谷書院)이 1738년(영조14)에 함중어씨와 함안이씨의 문중 서원으로 건립되었다. 어연을 중심으로 그의 아들 어변갑과 손자 구천(龜川) 어효침(魚孝瞻, 1405~1475)을 비롯하여 무진부사를 역임한 이운길, 남원부사를 역임한 이의형(李義亨, 1442~1495)을 함께 제향했다.

함중어씨의 문중 서원으로서 성격을 가진 곤의서원에서 함안이씨 인물들을 제향한 것은 함안이씨가 조선 후기 고성지역의 유력한 양반 세

118 이명배, 《모계집(茅溪集)》권6, 전(傳), 직제학어공유사(直提學魚公遺事) : 考諱淵。贈嘉善大夫兵曹參判。行奉訓郎大丘縣令。妣咸安郡李氏。茂珍府使云吉之女。贈貞夫人。

력이었기 때문이다. 이의형과 다섯 아들이 진주 가좌촌에서 고성 오방산 아래 마암면 신리에 세거한 이래로 고성 인근에서 살았으며, 고손자인 이달(李達)은 임진왜란 당시 창의하여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양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 후기 들어 벼슬이 어려웠던 함중어씨들은 명성이 높았던 조상의 권위와 지역의 유력 사족인 함안이씨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향촌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곤의서원을 설립했다. 결국 함중어씨는 함안이씨를 서원 건립 및 운영에 동참하도록 이운길, 이의형을 함께 제향했다고 볼 수 있다. 나이에 따라 이운길, 어연, 어변갑, 어효침, 이의형 순으로 제향하였다. 두 가문의 인물을 함께 제향함으로써 위차 시비 등도 피하고 두 가문의 위상도 현실에 맞춰 균형을 이룬 것이다.

1844년(헌종10) 고성군 마암면에 함안이씨가 위계서원(葦溪書院)을 건립하면서 곤의서원에 대한 함안이씨들의 관심이 줄어들었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곤의서원은 훼손된 후 복설하지 못했다. 위계서원에서는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인형·이의형·이익인(李翊仁)·이현(李顯)·이응성(李應星)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위계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 훼손되었다가 1백여년 만인 1963년에 다시 세웠다. 이곳은 복원 후 이운길의 위패는 모시지 않고 있다. 1983년 경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5. 김상(金尙, ?~1389), 재임 : 1370?~?

《동국여지지》 전라도 광주목 편에는 고려 공민왕 때에 김상이 두 물줄기가 교류하는 지역에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지부김상(知府金尙)’이라는 기록이 나온다.¹¹⁹ 《광주읍지》에는 김상에 관한 기록이 없다.

공민왕의 재위 기간이 1351년에서 1374년이었고, ‘지부(知府)’는 광

주가 1362년부터 1373년까지 무진부로 강등됐던 사실을 보면, 김상(金賞)은 1370년을 전후하여 광주의 수령으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²⁰

김신중(2010)은 김상의 광주 수령 재임기간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고려사》의 말년 행적 가운데 1387년 11월 전라도 조전원수(우왕13), 1388년 5월 위화도회군 참여, 1389년 진주절제사(공양왕1) 등의 기록을 근간으로 광주목의 지위를 회복한 1373년부터 1387년 사이에 김상이 광주 수령으로 재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²¹

《동문선》과 《목은고》의 ‘석서정기(石犀亭記)’¹²²에 따르면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¹²³은 “이 정자에 오르는 자는 그 이름을 고증하고 뜻을 생각하면, 반드시 수령에게 경의가 일어날 것이다. 수령의 이름은 상(賞)이며, 재부(宰府)의 지인(知印)과 헌사(憲司)의 장령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방행정에 있어 청렴하고 능력 있는 행정가로 이름이 있다”라고 적었다. 석서정(石犀亭)은 바로 광주의 수령인 김상이 세운

119 유형원이 1656년대에 완성한 《동국여지지》 전라도 광주목, 고적, 石犀亭。在州南二里。州治三方皆大山，獨北面平遠。南山二水合流，則成大川，每夏霖雨，破屋宅，翳田廬。高麗恭愍王時，知府金賞就二水交衝之地，積石爲堤，使水小西而北流，作亭於水之故道，分引狀流，繞亭四面如壁水之制。亭之前後，累土爲嶼，樹花木凡二所，浮橋而出入。有李穡記。今廢，有遺址。

120 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고적 편, 1478년 서거정의 《동문선》 권75 기문 편, 이색(1333~1368)의 《목은고》 권5 기문 편에는 ‘牧使金侯’이라고 하여 김상이 목사라고 적고 있다. 반면 더 뒤늦게 1656년에 나온 유형원의 《동국여지지》에서는 김상을 목사라 기록하지 않고 ‘지부김상(知府金賞)’이라고 적었다. 따라서 김상이 무진부사로 부임해 광주목으로 회복되면서 광주목사를 했는지의 여부, 무진부사였지만 이색이 글을 써주면서 ‘목사’라고 높여 불러준 것인지의 여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121 김신중(2010), “광주 석서정의 명칭 및 기문 연구”, 호남문화연구 47, pp.1~23.

122 《동문선》 권75, 기(記); 《목은고》 목은문고 권5, 기(記).

123 이색은 1355년 공민왕(재위 1351~1374)의 개혁정치가 본격화되자 왕의 측근 세력으로 활약했고, 1365년 신돈이 등장하고 개혁정치가 본격화되면서 그는 교육·과거 제도 개혁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1371년 신돈이 제거되고 이어 공민왕이 즉자 그의 정치활동은 침체기를 맞았다. 그 후 우왕(재위 1374~1388) 때인 1375년 정당문학(政堂文學)과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역임했고 우왕의 사부가 되었다.

것이라고 기록했다.

위구르에서 왔던 설천용(契天用)이 남쪽을 유람할 적에 광주에 들러¹²⁴ 이 정자 위에서 노닌 느낌을 김상에게 이야기했다. 김상은 그에게 서울로 돌아가면 당대 최고의 문인인 이색에게 이 정자의 이름과 기문을 청해 달라는 서신을 전해주도록 부탁했다.¹²⁵

이색은 중앙에 있다가 외직으로 나간 김상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글을 써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석서정기’이다. “이 정자를 지은 것이 수재를 막기 위함이지 … 놀고 관람함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석서(石犀)’라는 이름을 지은 경위를 말했다.

《고려사절요》에 장령 김상의 이름이 등장한다.¹²⁶ 김상은 이인임의 집안 조카이다. 이인임(李仁任, 1312~1388)과 지윤(池淵, ?~1377)을 이간질하려는 글이 이인임의 집 대문에 붙은 일이 있는데 지윤은 이 글씨가 김상의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김상의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려사절요》에는 왜적이 함양과 진주를 침범하니, 1389년 7월 절제사 김상이 가서 구원하였으나 패하여 죽었다¹²⁷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동사강목》 권17상에도 있다.

조선 개국 이후 1393년(태조2) 7월 이성계는 김상에게 위화도회군 때 ‘이해(利害)를 알아서 순리에 따르고 도리에 어김이 없었던’ 공으로 비록 죽은 뒤이지만 3등 공신으로 녹봉을 내렸다.¹²⁸

124 위구르인 설천용이 언제 광주에 왔는지의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단지 이색의 ‘석서정기’와 석서정기를 소개하는 그 후의 기록에만 등장한다.

125 《목은고》 목은문고 권5, 기(記). 回鶴契天用之南游也。得至其上。既還京。以牧使金侯之書。求名與記。

126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3년(1377) 2월. 淵曰, “此掌令金賞所書也.” 賞卽仁任族姪也.

127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원년(1389) 7월, 倭寇咸陽。晉州節制使金賞往救之, 敗績而死.

128 《태조실록》 태조 2년(1393) 7월 22일, 晉州牧使金賞、開城尹李伯等, 三等功臣崔暉之例, 褒賞之典, 有司舉行. 이에 앞서 1390년 4월 9일 《고려사》권45, 세가, 공양왕 2년 편에 김상에 대해 “이미 몸은 죽었지만, 공은 잊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동문선(東文選)》에 권흥(權興)¹²⁹이 ‘난리를 피해 성으로 들어와 김상 목사에게[避寇入城上牧伯金賞]’라는 시를 남겼다.¹³⁰ 김상이 광주 수령으로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인다.

世故終難料 세상 일은 종내 알 수가 없는 것
 人心各不同 사람의 마음도 각각 다 같지 않네
 兢兢常履薄 조심스러이 살얼음을 밟듯이 하였고
 咄咄但書空 한탄하며 한갓 허공에다 글자를 썼네
 相鳥猶求友 새를 보니 오히려 벗을 부르고
 聞蛙似爲公 개구리 소리를 들으니 공사를 위하는 것 같도다
 仰天時大笑 하늘을 우리러 한 번 크게 웃어 보노니
 吾道豈長窮 우리의 도가 어찌 길이 궁하랴

김상은 조선의 실학자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의 외가의 뿌리였다는 기록도 있다.¹³¹ 이는 이익이 ‘외가 7대 조고비의 분묘를 개수한 기문[姓七世祖考妣墳塋改修記]’에 ‘광정대부(匡靖大夫) 목사 김상(金賞)’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익의 7대 조고인 청연공 창선대부 이숙의의 부인 언양김씨의 고조인 것이다.¹³²

129 권흥은 1340년대 무렵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아들은 사간공 권삼(權參, 1364~1436), 손자는 충청감사, 행지중추원사를 지낸 화산부원군 습재(習齋) 권극화(權克和)이다. 권극화는 1439년(세종21) 전라관찰사 재임 당시에 ‘서석규봉기(瑞石圭峯記)’를 지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무등산 유람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130 《동문선》 권10, 오언율시.

131 《성호전집》 권53, 기(記): ‘외가 7대 조고비의 분묘를 개수한 기문[外姓七世祖考妣墳塋改修記]’에 따르면 성호 이익의 7대 조고비가 창선대부(彰善大夫) 청연수(淸淵守) 이숙의(李淑義)와 신인(愼人) 언양김씨(彦陽金氏)이다. 이 언양김씨의 고조를 광정대부(匡靖大夫) 목사 김상(金賞)이라고 적고 있어 언양김씨가 김상의 뿌리임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다.

132 愼人考宣務郎通禮門通贊淙, 祖刑曹都官正郎季甫, 曾祖通政躍, 高祖匡靖大夫牧使賞, 卽侍中威烈公就礪之後.

또 진주목사 때 패전하여 나라를 위하여 죽었다¹³³며 상당히 긴 문장을 할애하여 먼 친척 관계인 외가의 뿌리까지 언급했다. 이는 김상과의 혈연관계를 강조하여 문중의 위상을 높이려 했던 것이거나, 이익이 김상을 펴 존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석서정은 ‘고을의 남쪽 2리에 있었다’라며 고적(古跡)으로 소개되고 있다.¹³⁴ 석서정과 관련해서 많은 시인 묵객들이 글을 남겼다. 1522년 ‘척간유생도기(擲奸儒生到記)’를 가필했다고 해서 탄핵을 받아 광주에 유배 왔던 민제인(閔齊仁, 1493~1549)도 그의 글을 모은 《입암집(立巖集)》에 ‘석서정 옛터에 올라[登石犀亭故墟]’라는 시가 있다.¹³⁵

석서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제작된 1530년 이전에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고 하겠다. 이로 보아 석서정의 존립 기간은 채 140년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석서정은 지난 2006년 광주천 정화사업을 벌이면서 광주공원 앞 광주미디어아프플랫폼(GMAP)이 있는 광주천변에 상징적으로 복원한 것이다.

6. 황거중(黃居中, ?~?), 재임 : 1380?~?

황거중(黃居中)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 광주목사’로 용안의 역사를 감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¹³⁶ 용안현은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일대에 있던 옛 고을이다.

133 按麗史廢王昌元年秋，倭寇咸陽，晉州牧使金某戰敗，死於王事。

13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3, 전라도 고적 편.

135 민제인, 《입암집》 권3, 칠언사운.

13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전라도 용안현 편, 越八月農務既閑，命知古阜郡事鄭渾，前光州牧使黃居中，前判事盧元明，前古阜郡事鄭士雲督龍安之役。

권근(權近, 1352~1409)의 시문집 《양촌집(陽村集)》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용안성 조전기(龍安城漕轉記)’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전 광주목사 황거중’에게 명하여 용안의 역사를 감독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¹³⁷ 이성계의 위화도회군 이전이므로 고려 때인 1380년대에 목사를 지낸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읍지》에는 황거중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지 않다.

황거중의 본관은 우주(紆州, 지금의 전북 완주), 자는 경덕(敬德), 호는 사가(四佳)이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부친은 고려의 문하평리를 지낸 황문용(黃文用)이며, 모친은 덕수장씨(德水張氏)로 현령 장혁(張翮)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글 짓는 데 능하고, 경서를 해석함에 남달리 뛰어났다고 한다.¹³⁸

송치규(宋釋圭, 1759~1838)¹³⁹의 《강재집(剛齋集)》에 황거중이 이성계의 황산전투에 종사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을 때 조선의 개국 원훈이 되어 정당문학이 되었다고 했다. 평소 유학에 심취했던 그는 사찰의 난립과 과도한 승려 등 사원경제와 각종 불교행사의 폐단, 불교도의 타락을 바로 잡기 위해 건의했다는 내용도 있다.¹⁴⁰

황거중은 경학에 뛰어난 젊은 선비들을 뽑아 지방에 배치하고 백성들을 교도해야 한다며 주(州)와 군(郡)에 교수와 훈도를 둘 것을 건의하

137 권근, 《양촌집》 권11, 기류(記類); 越秋八月, 農務既閑, 命知古阜郡事鄭渾, 前光州牧使黃居中, 前判事盧元明, 前古阜郡事鄭士雲, 督龍安之役.

138 황거중의 고종사촌이 지금주(知錦州) 심인립(沈仁立)의 아들인 전주 출신 심효생(沈孝生, 1349~1398)이라는 점에서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139 송치규(宋釋圭)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 자는 기옥(奇玉), 호는 강재(剛齋)이며 본관은 은진(恩津)으로 송시열의 6대손이다. 72세가 되던 1830년(순조30)에 왕의 간곡한 부름을 받아 세손의 시강원찬선(侍講院贊善)을 거쳐 대사헌을 지냈고, 이듬해 이조참판이 되었다가 1838년(헌종4) 80세의 수직(壽職)으로 정헌대부에 가자되었다. 그리고 그해 2월 10일 숙환으로 정침(正寢)에서 세상을 하직하였다.

140 송치규, 《강재집》 권5, 서(序), 사가 황공 유적 서(四佳黃公遺蹟序).

여 허락받았다. 조선이 배불승유를 국책으로 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1395년(태조4) 원종공신의 칭호를 받았다. 조선 개국 원종공신으로 전서(典書)를 지냈는데 두 번의 왕자 난을 잘 비켜 장수했고, 벼슬이 올라 호조판서에 제수됐으나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사양하고 고향인 우주(완주)로 낙향했다. 황거중은 낙향 후 학교를 세우고 후학 지도에만 전념했다. 나라에서는 그가 죽자 우리나라 황씨 문중에서 첫 번째이며, 장수황씨 황희 부자를 빼면 유일하게 영의정을 추증하고, 공신록에 올려 생전의 공로를 기렸다. 그의 묘는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에 있다.

황거중은 1842년(현종8)에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구암리에 있는 구암서원(龜巖書院)에 주벽으로 모셔져 있다. 행은(杏隱) 황응청(黃應淸, 1524~1605), 기암(畸庵) 정홍명(鄭弘溟), 동계(棟溪) 황극효(黃克孝), 겸암(謙庵) 정복환(鄭福煥, 1736~1790) 등이 배향되었다.¹⁴¹

《조선환여승람》 김제 편에 황거중이 들어 있다.¹⁴²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송사집(松沙集)》에 고려 때의 명신으로 소개했다.¹⁴³ 황거중의 저서로는 《사가유고(四佳遺稿)》가 있다.¹⁴⁴

141 구암서원은 1827년(순조27)에 건립되었다가 1868년(고종5) 철폐된 후 1902년 지금의 자리에 단을 설치하여 중건하였고, 1967년 단이 있던 자리에 사당을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42 통영문화원(1999), 《조선환여승람》 명신 편.

143 기우만(1931), 《송사집》 권24, 신도비명, 자헌대부호조판서증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 부령의정시문숙사가선생황공신도비명(資憲大夫戶曹判書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諡文肅四佳先生黃公神道碑銘).

144 후손 황재황(黃載瑄)·황대년(黃大年)·황대철(黃大喆) 등이 1919년 김제 구암서원에서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1832년(순조32) 송치규(宋稚圭)의 서문, 권말에 이석연(李奭淵)·대철의 발문이 있다. 시 17수, 서(書) 1편, 부록으로 공신록권·신도비명·묘표음기·완성고지(完成古志)·가장유첩(家狀遺牒) 등 저자와 관련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7. 김준(金準, ?~?), 재임 : 1384?~?

김준(金準)은 《광주읍지》에 기록이 없다. 그러나 《고려사절요》에 고려 우왕 10년(1384) 11월에 왜적이 동북현(同福縣)을 침략하니, 도순문사 윤유린(尹有麟), 광주목사 김준(金準), 장흥부사 유종(柳宗)이 적과 싸워 9급을 베었다는 기록이 있다.¹⁴⁵

따라서 1384년을 전후하여 왜적이 화순 동북을 침략했을 때 김준이 광주목사로 있으면서 다른 수령들과 함께 적들을 물리쳤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윤유린(?~1390)은 1382년(우왕8) 4월 밀직부사로서 전라도도순문사가 되었고, 1384년 9월 동지밀직(同知密直)으로 다시 전라도도순문사가 되어, 여러 차례 왜구를 격파하여 큰 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우왕은 그해 12월 왜구 방어에 공을 치하하여 호군(護軍) 송계성(宋繼性)을 보내 술을 하사하였다.¹⁴⁶

8. 이서(李舒, 1332~1410), 재임 : 1390~1392

이서(李舒)는 《고려사》에 1390년(공양왕2) 윤4월 9일 우사의(右司議)로서 좌전되어 광주목사로 파견되었다¹⁴⁷고 나온다. 《광주읍지》에는 ‘공민왕 1년 좌사간으로 오다’¹⁴⁸라고 했는데 ‘공양왕’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31대 공민왕은 재위 기간이 1351년에서 1374

145 《고려사절요》 권32 / 辛禡[三]: 倭, 寇同福縣都巡問使尹有麟, 光州牧使 金準, 長興府使 柳宗, 與戰斬九級. : 《고려사》 권135/ 세가/ 열전 권 제48.

146 광주목사 김준(金準)과 장흥부사 유종(柳宗)의 구체적인 기록을 찾지 못했다. 다만 영의정을 지낸 유순(柳海, 1441~1517)의 조부가 유종으로 한성부판관을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147 《고려사》 권45, 공양왕 2년, 左遷右司議李舒, 爲光州牧使.(1390.4.9): 《호남읍지》(1895)에는 이관(李館)으로 나오지만 오류로 보인다.

148 《광주읍지》 ‘恭愍王一年以左司諫來’.

년까지로 공민왕 1년이면 1351년이기 때문이다.

이서의 좌천 이유는 1390년에 우사의(정4품)로 세자 시학이 되었는데 왕이 장단(長湍)에 행하려 할 때 이서가 잘못을 고쳐야 한다며 그만 두게 하였다. 이 때문에 좌천되어 광주목사를 지내고 1392년(공양왕4)에 좌우상시가 되었다.¹⁴⁹

《태종실록》에 따르면 이서의 본관은 홍주(洪州), 자는 양백(陽伯) 또는 맹양(孟陽), 호는 당옹(戇翁)·송강(松岡),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고려 고종 때 문하시중을 지낸 이연수(李延壽, ?~1227)의 6세손이며, 부친은 연경궁제학(延慶宮提學) 이기종(李起宗)이다.¹⁵⁰

홍주를 본관으로 한 것은 아버지 때부터이다. 1357년(공민왕6) 문과에 급제해 여러 벼슬을 거쳐 군부좌랑에 올랐으나, 세상이 어지럽고 정치가 문란해지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둔하였다.

1376년(우왕2) 우헌납에 임명되었으나 노부모의 봉양을 이유로 거절했다. 부모상을 당하여 6년간 여모살이를 하였는데, 1388년 내부소윤(內府少尹)에 임명되었으나 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국가에서는 이서의 효행을 높이 기리기 위해 정문을 세워 주었다.

이해 겨울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자 초야에 묻힌 재능 있는 선비로 이서를 선발해 내서사인에 제수하였다. 1390년 광주목사가 되었고, 1392년(태조1) 이성계 추대에 참여해,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어 안평군(安平君)에 봉해지고 형조전서에 제수되었다. 1394년 사헌부대사헌이 되고, 1396년 신덕왕후(神德王后)가 죽자 3년간 정릉(貞陵)을 지키는 일을 맡았고, 1398년 참찬문하부사에 올랐다.

그해 왕자의 난 때 상심해 함흥에 가 있던 태조를 승려인 설오(雪悟)

149 고혜령(1991), “高麗 士大夫와 元 制科”, 국사관논총 24, 국사편찬위원회, pp.180~214.

150 《태종실록》 태종 10년(1410) 9월 9일, ‘안평부원군 이서의 줄기’에 상세한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와 함께 안주에 나가 맞이하여 귀경하게 했다. 1400년 태종이 즉위하자 문하시랑 찬성사에 이어 우정승으로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졌다. 이 해 고명사(誥命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이어 의정부의 최고 관직인 영의정부사가 되었다. 1402년(태종2) 사임했으나, 1404년 다시 우정승이 되었다.

이듬해 75세의 고령으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다가 다시 영의정에 올랐고, 기로소에 들어간 뒤 만년을 향리에서 보내다가 79세에 세상을 떠났다. 고려 말 조선 초의 관리로 시류에 역행하지 않고 순탄하게 일생을 보낸 셈이다.

조선시대

(1392~1611년)

조선시대의 광주 수령은 《광주읍지》와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이들 기록에도 빠진 내용이 더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또한 수령의 임면에 관한 내용이 읍지와 실록 그리고 문집, 묘비명 등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부임 여부에 관계없이 고문헌의 문집과 같은 각종 기록에서 광주의 수령으로 제수된 모든 이들을 수록했다. 《광주읍지》와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기록을 찾지 못한 경우는 이번 <상권>의 93명 가운데 고전이나 문집, 묘비명 등에서 무려 19명이나 추가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김수홍(金守弘)의 경우 김우홍(金宇弘)의 오류였다는 내용을 원고 마감 5일 전에 한 문집에서 유일하게 발견했다.

이를 보면 앞으로도 세세하고 꾸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유호(柳灝, ?~?), 재임 : 1392?~1396?

유호(柳灝)는 《광주읍지》에는 기록이 없고, 《광주향교지》에는 이름이 올라 있다. 《태조실록》에 “전 광주목사 유호를 경사에 파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¹⁵¹

유호의 광주목사 재임기간은 알 수 없지만 다른 기록을 종합해 볼 때 1397년 8월 이전에 광주목사로 재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인지 조선 초인지는 불분명하다. 유호를 경사에 파견하는 일원으로 발탁한 것은 태조 이성계가 유호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경사’는 한 나라의 도읍을 말하는데 당시 명나라 수도를 지칭한다.

한편 유척기(兪拓基, 1691~1767)의 《지수재집(知守齋集)》에는 유호목사의 부인이 기계유씨(杞溪兪氏)라고 했다.¹⁵² 기계유씨의 시조는 통일신라 때 아찬을 역임한 유삼재(兪三宰)이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일족이 경기도 남부지방으로 이주하면서 벼슬에 뜻을 두게 되어 좌복야(左僕射) 유득선(兪得善), 판도판서(版圖判書) 유선(兪僊), 판도판서(版圖判書) 유승계(兪承桂)와 그의 4명의 아들까지 4대가 대를 이어 기계유씨(杞溪兪氏)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또 유선은 4남 3녀를 낳았는데 장녀는 주언신(周彦臣), 둘째 딸은 송희옥(宋希玉)¹⁵³ 그리고 셋째 딸은 유호목사와 결혼했다¹⁵⁴는 내용이 나온다. 이 기록으로 보면 유호목사는 고려 말 광주목사로 부임해 조선 개국 때까지 재임했을 가능성이 크다.

1403년(태종3)에 우정승 성석린(成石璘) 등이 중국에 들어갈 때 예

151 《태조실록》 태조 6년(1397) 8월14일, 遣前光州牧使柳灝如京師.

152 유척기, 《지수재집》 권10, 묘지(墓誌), 十二世祖考版圖判書府君墓誌.

153 《고려사》에 따르면 송희옥은 공민왕 12년(1363) 11월 두 번째 공신록훈에 기해년(1359) 겨울 11월에 흥건적을 격퇴하였던 공적을 기록했는데 전 대호군(大護軍)으로 왕안덕(王安德)·공인귀(孔仁貴)·고여의(高如意) 등과 이름이 함께 올라 있다.

154 유척기, 《지수재집》 권10, 묘지(墓誌), 十二世祖考版圖判書府君墓誌: 三女婿長周彦臣. 次宋希玉. 次柳灝牧使.

부(禮部)에 올리는 글 한 통을 보내면서 “홍무 30년(1397) 8월 18일에, 같은 해 11월 초5일의 천추절에 하례하기 위하여 판전의시사 유호와 압물인(押物人) 정안지(鄭安止, ?~1421)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다.¹⁵⁵ 태종은 여기에 덧붙여 10여 명이 아직 명나라에 머물러 있다며 이들의 생존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¹⁵⁶ 이 기록으로 보아 유호는 천추절 하례를 위해 판전의시사로 파견되었는데 6년째 명나라에 발이 묶여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1396년 6월 11일 명나라의 상보사승(尙寶司丞) 우우(牛牛)와 내사(內使)인 왕예(王禮)·송패라(宋孛羅)·양첩목아(楊帖木兒) 등이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을 잡아 오라는 명을 받고 조선에 온 적이 있다.

1397년 12월 18일 유호는 천추사로 명나라에 있으면서 타각부 최호(崔浩)를 본국으로 보내 예부상서 정기(鄭沂)의 글을 전달했다. 그것은 “표·전문(表箋文) 안의 글자를 쓴 것이 비웃어 놀리고 모독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조공의 시기가 있을 때라도 다시 표·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명나라 측의 글이었다.¹⁵⁷

1398년 5월 14일엔 억류당한 사신 조서(曹庶)의 공초장 내용 중에 “황태손 전하의 11월 천추절에 우리의 왕께서는 어찌되었건 예물을 진헌하면서 ‘반드시 계본(啓本)을 올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의논하고 헤아려서 몇몇 소리가 같은 글자를 찾아 그 안에 써넣고서, 중국에 이를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수재가 있는지 보자’라고 하였다. 각 사람이 들은

155 《태종실록》 태종 3년(1403) 9월 9일, 洪武三十年八月十八日, 爲賀當年十一月初五日千秋節, 差判典儀寺事柳灝, 押物鄭安止.

156 《태종실록》 태종 3년(1403) 9월 9일, 今將各人姓名及原差事因, 開具于後, 伏望奏聞, 行移各處官司, 詢其死生, 其有生存者, 許還本國, 其已死亡者, 知其死亡之日, 令其妻子行祭, 以慰孤兒寡婦之望. 爲此合行具呈, 伏乞照驗施行.

157 《태조실록》 태조 6년(1397) 12월 18일, 千秋使柳灝, 打角夫崔浩齎禮部尙書鄭沂書以來

대로 상의하여 황태손 전하의 천추절 진하 계본 안에 일부러 ‘천추절사(千秋節使)’라는 글자를 써서 희롱하고 모욕하였다.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 유호(柳灝)·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 정안지(鄭安止)·타각부(打角夫) 최호(崔浩)를 파견하여 이를 가지고 경사로 가게 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올해 12월 19일에 원래 유호를 수행하여 경사에 갔던 타각부 최호가 예부의 문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계본을 찬술한 자를 보내 오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¹⁵⁸ 이로 보아 유호는 꽤 지식과 재치와 재능이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진다.

1398년 6월 3일 태조는 전 판전객시사 정연(鄭連)을 보내어 성균궐주 공부(孔俯)·예조정랑 윤수(尹須)·전 예조정랑 윤규(尹珪) 등을 압송하여 경사로 보내고, 명의 예부시랑 장병(張炳)에게 서신을 회답했다. 내용은 “유호가 가져가 올린 계본은 비록 조서(曹庶)가 쓴 것이지만, 다만 구본(舊本)의 글자 모양에 따라 써서 올렸을 뿐이고, 근년에 마땅히 회피해야만 될 글자 모양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틀리게 된 것이니, 어찌 감히 고의로 업신여기는 글자를 적어 두었겠습니까?”¹⁵⁹라고 슬쩍 핑계를 댔다.

2. 이민(李岷, 1360?~1420?), 재임 : 1400?~?

이민(李岷)이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지냈다는 기록은 서거정·양성지 등이 편찬하여 1478년에 간행된 《동문선(東文選)》의 비명에 실려 있다.¹⁶⁰

158 《신역태조실록》 태조 7년(1398) 5월 14일, 如今殿下十一月千秋, … 差判典儀寺事柳灝 … 有原根差同柳灝赴京打角夫崔浩齋禮部文書回還, 要作寫啓本的人來回話.

159 《태조실록》 태조 7년(1398) 6월 3일, 柳灝齋進啓本, 雖曹庶所寫, 只依舊本, 字樣寫進, 未知近年有合回避字樣, 以致差誤, 豈敢故安謊侮字樣!

160 서거정·양성지, 《동문선》 권120, 비명(碑銘) 권근, ‘유명조선국 추증추충직질 수문병의 보조공신 특진보국승록대부 문하우정승 판도평의사사사 병조사 수문전대학사 영예문

1403년 가을 8월에 쓴 권근의 이 비명에는 “이 시중(李侍中)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이민(李岷)이라고 하며, 광주목사(光州牧使)의 벼슬에 있다”¹⁶¹는 내용이다. 이민의 본관은 고성(固城)이며 조부는 문하시중(門下侍中) 이암(李巖), 부친은 검교시중(檢校侍中) 이승(李崇)이다. 이승에게 아들은 이민(李敏)·이치(李峙)·이흘(李屹)이 있다.¹⁶² 여기에서 이민(李岷)과 이민(李敏)은 동일 인물로 보인다.

이민의 행장이 조선 태조의 죽마지우인 도응(都膺)의 《팔거세고(八莒世稿)》 권1 부록에 있다. 여기에 참판인 봉곡(蓬谷) 정개보(鄭介保)의 장인으로 나온다. 정개보의 본관은 해주이며 1408년(태종8) 식년시에 급제하였으며 주서사인제학(注書舍人提學)을 지냈다. 부친은 정강(鄭崗)이다. 외조부는 이시중(李時中)이며, 장인은 이민(李岷)이라고 했다.¹⁶³

조선 개국과 함께 모든 주현의 수령들을 교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유호(柳灝)가 고려 말 조선 초에 광주목사를 지내고, 이민이 1392년 조선 개국 이후에 1400년을 전후하여 광주목사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춘추관사 서원백 시 문간공 행 광록대부 형부상서 집현전학사 이공 신도비명 병서(有明朝鮮國追贈推忠直節守文秉義輔祚功臣特進輔國崇祿大夫門下右政丞判都評議使司事兵曹事修文殿大學士領藝文春秋館事西原伯諡文簡公行光祿大夫刑部尚書集賢殿學士李公神道碑銘 并序).

161 李侍中生男曰岷光州牧使, 여기에서 이시중은 안정공(安靖公) 이승(李崇, 1326~1394)을 말한다.

162 《태조실록》 태조 3년(1394) 12월 16일, 그러나 이승의 아들에 관한 기록은 조금씩 다르다. 권근(權近 1352~1409)의 《양촌집(陽村集)》 권38 비명류(碑銘類)에는 장남 민(岷)은 광주목사(光州牧使)이며, 차남 인(麟)은 사재소감(司宰少監)이며, 3남 치(峙)는 연안부사(延安府使)이다. 그리고 1969년에 세워진 안정공제단비(安靖公祭壇碑)에 따르면 4남을 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장남 민(岷)은 한성판윤(漢城判尹), 차남 인(麟)은 사재감정(司宰監正), 3남 치(峙)는 부사(府使), 4남 연수(延壽)는 목사(牧使)이다. 고성이씨열전 10, 이승(李崇), <https://blog.naver.com/juamhistory>

163 도응(都膺), 《팔거세고(八莒世稿)》 권1 부록, 대구, 성주도씨청송당공파사회와공후회수회.

3. 이숙야(李叔野, 1377~?), 재임 : 1410?~?

이숙야(李叔野)는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에 광주목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¹⁶⁴ 《광주읍지》에는 이숙야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는 이색의 손자이며 1410년대에 부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숙야는 조선 태종(재위 1400~1418)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산이다. 그는 고려의 충신 문정공(文靖公) 이색의 둘째 아들인 침서밀직사사 인재(麟齋) 이종학(李種學, 1361~1392)¹⁶⁵의 6남 1녀 중 장남으로 광주목사라 했다.

《태조실록》 1392년 8월 23일 이종학의 졸기에 이종학은 손흥종(孫興宗)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그때 나이가 32세이다. 이숙야는 여섯 아들 가운데 장남으로 당시 어린 나이여서 관직이 적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⁶⁶ 이숙야는 33세 때인 1409년 6월 사헌부 집의, 7월 봉사령(奉常令)을 제수받았다. 더 이상의 실록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¹⁶⁷

서거정(徐居正)을 비롯하여 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 등이 편찬한 《동문선(東文選)》¹⁶⁸과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164 이색, 《목은집》, 이색의 손자인 이맹균(李孟均, 1371~1440)이 '선덕(宣德) 8년(1433) 8월'에 쓴 비음기(碑陰記) 내용 중에 '光州牧使'라고 했다. 仲男簽書密直司事諱種學。娶門下侍中李春富之女。生六男一女。長叔野。光州牧使。 따라서 1433년 이전에 이숙야가 광주목사를 지냈다고 볼 수 있다.

165 이종학의 《인재유고(麟齋遺稿)》는 <남행록(南行錄)>, <관동록(關東錄)>, <남천상산록(南遷常山錄)>, <부록(附錄)>, <발(跋)>로 구성되어 있다. <남행록>은 공양왕 때 순천으로 유배 가는 도중에 지은 글들을 모은 것으로 《인재유고》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66 《태조실록》 태조 1년(1392) 8월 23일, 興宗遣人, 追至茂村驛, 乘夜縊之, 年三十二。子六人 叔野, 叔畦, 叔當, 叔畝, 叔福, 叔時。

167 이숙야의 아들은 이축(李蓄, 1402~1473)으로 황해감사를 지냈다. 그 아들은 이훈(李埴, 1429~1481)으로 좌참찬(左參贊)을 지냈고, 안소공(安昭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168 서거정 외, 《동문선》 권129, 묘지명, 有明朝鮮國推忠翊戴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興寧府院君諡良度安公墓誌銘 并序; 윤회(尹淮)가 쓴 글로 집현전대학사 안경공(安景恭, 1347~1421)의 아들인 승정대부 호조판서 보문각 대제학 안순(安純, 1371~1440)의 셋째 아들인 응무사 호군 중추원경력 안송신(安崇信)이 광주목사(光州牧使) 이숙야(李叔野)의 장녀에게 장가들어 1남 4녀를 두었다고 했다.

《죽계지(竹溪誌)》,¹⁶⁹ 남수문(南秀文, 1408~1442)의 《경재유고(敬齋遺稿)》¹⁷⁰ 그리고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의 《북헌집(北軒集)》¹⁷¹에도 이숙야가 광주목사였다는 기록이 있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송자대전(宋子大全)》에 실린 ‘광주목사이공묘표(光州牧使李公墓表)’에는 광주목사 이숙야의 가족 내력이 쓰여 있다.¹⁷²

4. 이각(李愨, ?~?), 재임 : ?~1415

이각(李愨)은 《금성일기(錦城日記)》¹⁷³에 광주목사였다는 기록이 있다. 1415년 9월 12일 나주목 판관으로 광주목사 이각이 낙점되어 나주에 왔다고 했다. 《광주읍지》에는 이각에 관한 기록이 없으나 《광주항교지》에는 올라 있다. 따라서 1415년 8월까지의 광주목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1395년(태조4) 군용점고사 이계수가 말하길, 전라감사 조박(趙璞, 1356~1408)이 농사철이라 군용 점고(軍容點考)

169 주세붕, 《죽계지(竹溪志)》 권1 안씨행록, 《동문선》의 윤희(尹淮)가 쓴 글을 실어 같은 내용이다.

170 남수문, 《경재유고(敬齋遺稿)》 권1, 묘지명, 崇祿大夫判中樞院事修文殿大提學兼判戶曹事仍令致仕諡靖肅安公墓誌銘; 안순(安純, 1371~1440)의 묘지명으로 ‘次曰崇信。朝散大夫。仁順府少尹。後公一年病逝。… 少尹娶光州牧使李叔野之女。生一男四女。’

171 김춘택, 《북헌집(北軒集)》 권20, 外王父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李府君行狀.

172 송시열,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98, 光州牧使李公墓表: 本朝開運。選進麗世大家子賢俊者。公末藉文譜。歷敷臺省。官止州牧。配奉氏同葬焉。今十代孫按使秀彥。追立墓石。而世遠未得其詳。然公韓山人。上以稼, 牧, 麟三先生。爲考若祖曾。下則監司諱蕃。參贊諱墳。議政諱惟清。又其子若孫曾。而其後益以蕃昌。名公賢宰前後相望。公之承先裕後之德可徵也。夫公以麟齋遺戒。不赴公車。不然則亦將承籍先業。克煥王猷。而僅乃州郡而局焉。惜矣。然出入華貫。已致著白。益有光耀。則人謂韓山之李多賢者。眞無虛語也。嗚呼。在彼在此。夙夜終譽。固公之賢。而覆巢有全。迪簡在僚者。益有感於聖朝之忠厚也。

173 이 책은 1358년(공민왕7)에서 1481년(성종12)까지, 나주에 부임한 관원들의 기록을 적어놓은 관원일기이다.

를 아무 이유 없이 할 수 없다고 했고, 변방에 대한 보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하여 태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때 순군 제공(巡軍提控) 이각이 파견되어 조박을 공주에 안치했다¹⁷⁴는 기록에서 이각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1405년(태종5) 태종이 제주의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진휼하도록 경승부소윤 이각을 파견했다.¹⁷⁵ 또 1406년(태종6) 태종 이후 호군(護軍) 이상이 모여 군사(軍事)를 의논하던 호군방을 둘 때 이각은 장무(掌務)가 되는¹⁷⁶ 등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

이각은 1407년 대호군(大護軍), 1408년 동북면경차관(東北面敬差官)을 지냈고, 1411년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로 있을 때는 뇌물수수 등에 휘말렸다.¹⁷⁷ 그리고 광주목사와 나주판관을 거쳐 다시 중앙 정계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1418년 참의로 있으면서 군사 일을 상왕인 태종에게 묻지 않은 일로 의금부에 간혀 국문을 당했다.¹⁷⁸ 이로 인해 무장(지금의 전북 고창)으로 귀양을 갔다가 사면을 받았다.¹⁷⁹ 이는 《대동야승》¹⁸⁰ 과 《연려실기술》¹⁸¹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174 《태조실록》 태조 4년(1395) 2월 19일.

175 《태종실록》 태종 5년(1405) 12월 27일.

176 《태종실록》 태종 6년(1406) 9월 29일, 호군방(護軍房)을 두고, 황상(黃象)을 방주(房主)로, 이각(李愨)을 장무(掌務)로 삼았다.

177 《태종실록》 태종 11년(1411) 윤12월.

178 《세종실록》 세종 즉위년(1418) 8월 26일, 이는 강상인(姜尙仁)이 태종의 병권친장책(兵權親掌策)에 저촉되어 처단된 사건을 말한다.

179 《세종실록》 세종 즉위년(1418) 9월 3일과 14일에 형조판서 김여지(金汝知)·대사헌 허지(許遲)·좌사간 최관(崔關) 등이 합동하여 연이어 상소하여 결국 무장으로 귀양 갔으나, 12월 26일에 태종은 “이각은 이미 공사(供辭)에 관련되지 않았으니, 지금 마땅히 사면할 것”이라고 해 풀려난 적이 있다.

180 《대동야승》, 동각잡기 상(東閣雜記上), 본조선원보록(本朝璿源寶錄).

181 《연려실기술》 권3, 세종조 고사본말, ‘강상인(姜尙仁)의 옥사’.

5. 최부(崔府, 1370~1452), 재임 : ?~1417

최부(崔府)는 《광주읍지》에 기록이 없으나 《광주향교지》에는 올라 있다. 1417년(태종17) “전라감사 정경(鄭耕, 1370~1421)이 병마도절제사 마천목(馬天牧)의 영(營)¹⁸²에 이르렀더니, 광주목사 최부와 순성현령(順城縣令) 김중성(金仲誠, 1378~1450) 등이 자리에 참여하여 앉게 되었다”¹⁸³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부는 1417년 무렵에 광주목사로 있었다.

최부의 본관은 전주, 자는 수지(受之), 시호는 정간(靖簡)이다. 고려 말 생원·진사시에 입격하고 성균관학유가 되었다. 조선 개국 후 예문춘추관의 수찬관이 되었다. 고과 때마다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 임기를 다 마치기 전에 태종의 어필로 특별히 승정원 동부대언을 제수하였다. 사람됨이 편안하고 조용하며 맑게 닦아 음주와 장기와 바둑[博奕]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다.¹⁸⁴

1405년 의정부사인이 되었다. 이 시기 사간원에서 최부를 탄핵한 일이 있었다. 그 이유는 임금이 수레를 타고 오는 때에 의정부에서 미처 이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¹⁸⁵ 이에 대해 태종은 “천도를 당하여 공무가 한창 바쁘는데, 사인을 탄핵하여 의정부가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지 않아서, 공무가 폐하고 풀리게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라고 오히려 되묻고 하룻밤만 외방에 나가서 자고 오는 일이라 신하들을 거느리지

182 마천목(馬天牧, 1358~1431)은 장흥 출신으로 《태종실록》 태종 12년(1412) 5월 3일 전라도병마도절제사로 제수되었다. 1416년 도총제로 개수되었다가 1417년에는 전라도병마도절제사로서 있었다. 이 해에 광주에 있던 병영을 강진으로 옮겨 새로운 군영과 군비를 정비하려고 힘썼다.

183 《태종실록》 태종 17년(1417) 4월 25일, 순성 현령(順城縣令) 김중성(金仲誠)을 파직한 사건에 나온다.

184 《단종실록》 단종 즉위년(1452) 6월 10일, 공조판서 최부의 졸기.

185 《태종실록》 태종 5년(1405) 9월 11일.

않은 것이라고 하여 오히려 사간원 관리를 힐문하였다.

최부는 1406년 사헌부집의를 지내고, 근검하고 청렴하며 강직하여 매번 고과에서 우등을 받아 태종의 총애를 받았고, 광주목사로 있다가 1417년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부름을 받았다.¹⁸⁶ 이때 태종은 “대언의 직임은 출납을 관장하고, 가까이 좌우에 있는 신하이니, 다른 관직에 비할 것이 아니다. 금후로는 외방에 있으면서 제수받은 자는 마땅히 역마(駟)를 타고 서울로 부임하게 하라”라고 했다.

이에 앞서 외관으로 조정의 직무를 제수받은 자는 모두 말을 주어 서울로 부임하게 했었는데, 이 무렵 역로(驛路)가 점차 없어지면서 말을 제공하던 것을 금지하여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

1421년 경기감사, 1422년 인수부윤(仁壽府尹)이 되고 1423년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로 전(箋)을 받들고 명나라로 떠났다가 북경에서 돌아왔다.¹⁸⁷ 이어 1425년(세종7) 예조참판, 황해도감사 겸 병마도절제사,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전라감사를 거쳐 1427년 경상도감사, 총제, 1428년 형조참판, 대사헌, 경창부윤(慶昌府尹), 강원도감사, 1430년 한성부윤, 예조참판, 황해감사로 제수되는 등 《세종실록》을 보면 한 해에 직책이 3~4번씩 바뀌는 일이 있었다.¹⁸⁸

1440년 나이가 70세가 넘어 사직하기를 청했으나 세종이 윤택하지 않아 의정부 좌참찬, 이조판서로 보임을 맡았고,¹⁸⁹ 1443년 다시 공조판서로서 경기전봉안사가 되어 전라도 지방을 순회하고 돌아왔다. 이

186 《태종실록》 태종 17년(1417) 6월 16일, 崔府同副代言, … 府自光州被召. 최부가 광주목사로 있다가 동부대언으로 제수된 일이다.

187 《세종실록》 세종 5년(1423) 4월 24일과 8월 9일.

188 《세종실록》 세종 7년(1425) 1월 11일, 6월 26일, 7월 5일; 세종 9년(1427) 1월 3일, 3월 20일; 세종 10년(1428) 1월 25일, 2월 7일, 7월 12일, 10월 9일; 세종 12년(1430) 2월 7일, 4월 3일, 4월 26일, 11월 9일 등에 그 직에 있었거나 제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189 《세종실록》 세종 22년(1440) 3월 20일, 5월 3일, 8월 12일.

때 하삼도 지방에 눈 피해를 보아 작황이 좋지 못하여 토지등급[田品]을 확정하기가 어려우니 경차관을 파견하고, 등급 확정을 다음 해 가을까지 미룰 것을 상소했다.¹⁹⁰ 1447년 늪고 병든 것을 이유로 사직했고 83세 때인 1452년 6월 공조판서로 졸하였다.¹⁹¹

6. 권담(權湛. ?~1423), 재임 : 1420?~1421

권담(權湛)은 《광주읍지》에 광주목사로 재임했다는 그의 인명만 나온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목사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¹⁹² 다른 기록에서는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1421년 ‘권담을 전주부윤으로, 김포(金苞)를 판광주목사(判光州牧使)로’라는 기록으로 볼 때¹⁹³ 1419년에 황해감사이던 권담이 어느 때인가 광주목사로 왔다가 전주부윤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포가 광주목사로 동시에 옮겨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였지만, 광주에서 목사로 재임했다는 실록이나 문집, 묘표, 행장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권담의 본관은 안동, 호는 괴정(槐亭),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문신이다. 국재(菊齋) 권부(權溥)의 증손이며, 조부는 찬성사를 지낸 현복군(玄福君) 권염(權廉), 부친은 개성윤 권호(權鎬)이다. 권담의 딸이 예빈시윤(禮賓寺尹) 양구주(梁九疇)와 결혼했는데, 그의 둘째 아들이 늘재(訥齋) 양성지(梁誠之, 1415~1482)이므로 권담의 외손자가 된다.¹⁹⁴

1374년(공민왕23) 공민왕 시역사건에 연루된 홍륜(洪倫)과 최만생

190 《세종실록》 세종 25년(1443) 1월 11일, 11월 3일.

191 《단종실록》 단종 즉위년(1452) 6월 10일, 공조판서 최부의 졸기.

19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광산현 편, 명환에 나온다.

193 《세종실록》 세종 3년(1421) 8월 17일.

194 김기빈(1992), 양성지 《늘재집(訥齋集)》 해제.

(崔萬生) 일당 가운데 권진(權璿, ?~1374)의 일족이라 하여 한때 원주에 유배되었다.¹⁹⁵ 이 당시 권담의 나이를 알 수는 없으나 유배는 성년¹⁹⁶이 되어야 갈 수 있으므로 고려 말 당시 권담의 나이는 15세에서 2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담은 1380년(우왕6)에 문과 경신방 동진사(同進士) 33명 가운데 8위로 입격했다. 1389년 사헌부장령이 되어 우왕을 옹립한 변안열(邊安烈)의 죄를 논할 때 안주(安州)로 파견되어 이에 가담한 이경도(李庚道)를 국문하는 일을 맡았다.¹⁹⁷ 1390년 남원부사가 되고 이듬해 간관이 되었다. ‘이초의 옥(1390)’에 연루되어 간관 진의귀(陳義貴)·정습인(鄭習仁)·맹사성(孟思誠) 등과 함께 유배되었다.

또 권담은 1399년(정종1) 문하부에서 변정도감사(辨定都監使)¹⁹⁸ 전조생(田祖生)이 잘못 판결하였다고 탄핵하고 상소하여 처벌하기를 청했는데, 사헌부에서 사실 조사를 해보니 전조생의 판결이 옳았다며 도리어 권담을 강릉에 유배했다.¹⁹⁹ 권담은 곧 사면되고 다시 중용되어, 1402년(태종2) 우사간대부, 1405년 경기감사, 1412년 판공주목사, 1419년(세종1) 황해감사, 1421년 전주부윤 등을 두루 역임했다. 저서로 《괴정집(槐亭集)》이 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는다.²⁰⁰

19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담.

196 《문공가례(文公家禮)》나 《사례편람(四禮便覽)》의 기록에 따르면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관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예서(禮書)》에도 ‘二十而冠 三十而有室’이라 하여 남자는 20세 사이에 관례를 하게 되어있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10세가 지나면 벌써 혼인하게 되어 관례도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김기부(2016), “전통 성년례”, 아시아민족조형학보 17, pp.31~47.

197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1년(1390), 경오 2년.

198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을 말한다. 사(使)는 변정도감의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199 《정종실록》 정종 1년(1399) 2월 15일, 이때 권담은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로 있었다.

200 경와(敬窩) 김휴(金休, 1597~1638)의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 670여 권 가운데 목록이 있다.

7. 김포(金苞, ?~?), 재임 : 1421~?

김포(金苞)는 《광주읍지》에는 기록이 없으나 《광주향교지》에 올라 있다. 1421년(세종3) 판광주목사(判光州牧使)에 제수되었다.²⁰¹

김포의 본관은 영산(영동), 자는 기(芑)이다. 부인은 반남박씨이다. 족보에는 안성처치사, 행광주목사, 문판삼사사로 기록했다. 아들은 김훈(金渾)과 김순(金淳)이 있다.

읍취헌(挹翠軒) 박은(朴聞, 1479~1504)은 김포의 매부이며, 여덕윤(余德潤)은 김포의 사위이다.²⁰² 이런 인척 관계로 1420년 5월 7일 박은이 여덕윤을 봉훈대부(奉訓大夫)에서 조봉대부(朝奉大夫) 황해도경력(經歷)을 시키려 했다. 그런데 임금의 재가한 서류를 받들고 편전에 들어가서 어보를 찍을 때 지신사(知申事) 원숙(元肅, ?~1425)이 세종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세종이 “그것은 너무 뛰었다”라면서 통선랑도사(通善郎都事)로 직을 바꾸었다.

원숙은 본래부터 박은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여덕윤의 일을 이처럼 세종에게 보고하여 일이 틀어지자, 박은은 이 일로 인해 원숙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한다.

8. 전구생(全俱生, ?~?), 재임 : 1422?~?

전구생(全俱生)의 자는 성태(聖泰), 호는 석천(石泉)이다.²⁰³ 전구생은 광주목사를, 아들인 전자명(全自明)은 상주목사를 지냈다. 《광주지》

201 《세종실록》 세종 3년(1421) 8월 17일, … 金苞判光州牧使 ….

202 《세종실록》 세종 2년(1420) 5월 7일, 是政, 朴崙以余德潤爲朝奉大夫黃海道經歷, 已通諭, 德潤乃出, 知申事元肅奉批判, 詣便殿安印啓曰: “余德潤由奉訓超陞爲朝奉經歷。” 上以爲過越, 乃命爲通善郎都事. 德潤, 崙姊夫, 金苞女婿也. 肅與崙本不協, 故啓德潤事, 崙由此尤疾之.

203 성씨뉴스닷컴, 전구생, <http://www.sungssi.co.kr/>

에 보면 전구생은 태종 때 음관으로 벼슬에 나아가 광주목사로서 치적을 쌓았다.²⁰⁴

천안전씨 문중에서 전구생과 전자명을 기리고자 1884년 전구생과 전자명 부자의 묘소가 있는 입구인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 산10-1 장동마을에 송모재(崇慕齋)라는 사우를 세웠다.²⁰⁵

9. 신보안(辛保安, ?~1428), 재임 : ?~1428

신보안(辛保安)이 광주목사였다는 기록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 올라 있다. 《세종실록》에 보면 김종서(金宗瑞, 1383~1453)가 광주목사 신보안과 기생 소매(小梅)의 간통 사건의 조사를 건의했다는 내용이 있다.²⁰⁶

광주목사 신보안이 고을 기생 소매와 간통하여, 그의 서방 전 호군 노흥준(盧興俊)이 그 기생을 결박하고, 신보안을 능욕하였다고 지금 암행찰방(暗行察訪) 윤형(尹炯)이 그 사건의 내용을 갖추어 보고해 왔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오라, 들은즉, 노흥준이 질투 끝에 신보안을 때려서 그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처자도 역시 그 상황을 알고 있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아마 신보안이 장오죄(贓汚罪)를 범한 바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해 감히 보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림(士林)들이 이를 듣고 개탄한 지가 이미 오래였는데, 이제 노흥준을 국문하여 이미 그 단서를 잡았사오니, 마땅히 규명하여 다스려서 대중의 의견에 맞도록 하소서.

204 광주향교(1964), 《광주지》, p.179. 태종은 1400년 12월부터 1422년 6월까지 재위했다. 따라서 1422년 무렵 부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5 디지털광주문화대전, 송모재, <http://www.grandculture.net/>

206 《세종실록》 세종 11년(1429) 11월 13일.

이 내용은 광주 사람 전 호군 노홍준의 첩이었던 기생 소매와의 문제로 인하여 광주목사 신보안이 노홍준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는 보고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광주목은 이듬해에 무진군(茂珍郡)으로 강등당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다.²⁰⁷ 《광주읍지》에는 “읍인의 변을 만나 현으로 강등하였다”라고 기록했다.

이태진(1972)은 이 사건에서 처음 국문 때는 광주목의 관리들이 모두 두 사람의 죄를 덮어 숨기려 했지만 일단 정죄되고 강등의 조치까지 내려지자 그들의 집과 가족들을 강제로 출향시키는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이는 지역의 명예와 체면에 관련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광주에 거주하던 사류(士類)들이 관권에 굴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²⁰⁸

손계영(2018)은 분재기의 뒷부분에 분재 주체와 상속받은 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광주목사 신보안’의 기록이 있다고 하였다.²⁰⁹ 분재 주체인 재주(財主) 항목에 ‘모 통정대부 광주목사 신보안 처 영인 정씨(母通政大夫光州牧使辛保安妻令人鄭氏)’라고 기록했고, 그 아래 정씨의 도서(圖畧)를 찍었다. 이에 따르면 신보안의 본관은 영월, 부인은 초계(草溪)정씨로 판서 정사척(鄭士倜)의 딸이다. 아들은 예원군수와 의정부행부사,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신사봉(辛斯鳳)과 어모장군 신사구(辛斯龜) 등이 있다.

신보안은 1397년 중랑장, 1406년 평안도 지자주사(知慈州事, 지금의 평안남도 순천)를 지냈고, 1410년 동북면경차관으로 있을 때 그때 받은 인신(印信)을 복명한 뒤 녀 달이 지나도록 관에 바치지 않아 지방으로 유배당한 일이 있었다.²¹⁰ 1413년 한성소윤, 1419년 판선공감사,

207 《세종실록》 세종 12년(1430) 3월 26일, 신보안은 1428년 7월 22일 죽었다.

208 이태진(1972),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운동(상)”, 진단학보 34, pp.5~34.

209 손계영(2018), “1434년 辛保安 妻 鄭氏 分財記 연구”, 영남학 66, pp.181~215.

그리고 영광태수를 지내다가 통정대부 광주목사로 왔다.

한편 신보안이 영광군수로 있을 때 그곳의 사족(士族)인 청주한씨 한이(韓彝)와 친하게 지낸 인연으로 둘째 아들 신사귀를 한이(韓彝)의 사위로 장가들게 하였다. 이로 인해 신사귀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전남 영광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고 전한다.²¹¹

10. 최종리(崔宗理, ?~?), 재임 : 1433~?

최종리(崔宗理)는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없다. 실록에는 1433년(세종15) 지무진군사(知茂珍郡事)로 제수되었다는 내용이 있다.²¹²

세종은 최종리가 지무진군사로 제수받아 하직 인사차 찾았을 때 불러 말하기를, “네가 두 번째 수령을 지내게 되어 백성을 대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모를 수 있으니,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 받아서 서민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고 형벌을 삼가고 백성을 사랑하라”라고 하였다.

당시 광주목은 1430년 무진군으로 강등된 이후였다. 이후 광주의 수령으로 군사(郡事)가 파견되었는데 고려시대와 세종 때 있었던 직제로 군의 수령을 말한다.²¹³

210 《태종실록》 태종 10년(1410) 4월 28일, 命前豐海道經歷辛保安外方付處。司憲府啓：保安曾爲東北面敬差官，所受印信，復命之後，歷四朔不納官，準律應杖八十。故有是命。

211 정승호(2022), “백암공(栢巖公) 정의번(鄭宜藩)의 부인 영월신씨”, 블로그 뿌리를 찾아서, <https://blog.naver.com/kula89> (2022.9.8. 인용)

212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 윤8월 3일, 知茂珍郡事崔宗理辭, 上引見曰：汝再經守令, 其於臨民之事, 靡不周知, 體予至懷, 勿使黎庶飢餓, 慎刑字民. 이 기록에 따르면 1428년 8월부터 1433년 8월까지 약 5년간 광주 수령을 알 수 없다.

213 이는 판군사(判郡事)와 지군사(知郡事)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판군사의 품계는 정3품.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가 겸하였다. 3품 이하의 관원으로 임명할 때는 지군사라 하였다. 1466년(세조12)에 군수(郡守)로 고쳤다. 지관(知官). 지군(知郡). 지군수(知郡守). 지사(知事) 등으로 불린다.

최종리는 1418년 지평, 1430년 인순부소윤(仁順府少尹)으로 있었다. 세종은 1430년 5월 최종리를 경기도에 파견하여 굶주리는 백성이 있고 없는 것과 구제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 하는 것을 찾아 묻도록 하고,²¹⁴ 1431년 5월에도 강원도에 보내어 사람들의 궁핍하여 떠돌아다니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다.²¹⁵

1432년 12월에는 예빈시윤(禮賓寺尹) 최종리 등이 영접도감(迎接都監)의 관리로서 엄격하게 단속하지 못하여 잡인이 드나들며 금지된 물건을 사고 팔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의금부에 간험했는데, 의금부가 장 80대를 청했으나 세종은 2등씩 감하도록 했다.

11. 양기(梁岐, ?~?), 재임 : 1435~1439

양기(梁岐)는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없다. 실록에는 1435년(세종17) 지무진군사(知茂珍郡事)로 제수되었다는 내용이 있다.²¹⁶

양기가 세종에게 부임 인사하러 갔을 때 세종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근년에 벼농사가 잘 안되어서 백성들이 많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 구제에 힘써 아사(餓死)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형벌을 삼가서, 내가 위임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양기는 무진군사로 부임 이후 3년쯤 되었을 때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가 탄핵을 받은 일이 생겼다. 1438년 사간원에서 “《육전》에, ‘동반 6품과 서반 4품 이상은 3년마다 한 차례씩 시임(時任)과 산직(散職)을 불구

214 《세종실록》 세종 12년(1430) 5월 13일.

215 《세종실록》 세종 13년(1431) 5월 12일.

216 《세종실록》 세종 17년 을묘(1435) 2월 10일, 知茂珍郡事梁岐…等辭, 引見曰 比年禾穀不登, 民多飢饉, 其務賑恤, 無使餓殍。且勸農桑, 慎刑罰, 以副委任之意。

하고, 원전 과목(元典科目)의 예에 따라 과마다 한 사람씩 천거하되, 만일 사정에 따라 잘못 거용(擧用)하여 탐오(貪汚)한 짓으로 정사를 어지럽히고 백성에게 해가 미치게 한 자가 있으면, 율에 따라 죄를 매겨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천거하면서 보증(保舉)이 없더라도 혹 구전 별좌(口傳別坐)라든가, 혹 관작에 제수된 자가 만약 탐오한 짓으로 불법한 일에 걸리면, 죄가 천거해 준 자에게까지 미치는 규례에 따라서 천거를 맡은 자도 죄 준다'라고 하였다면서 양기가 장죄(贓罪)²¹⁷를 범했으니, 그를 추천한 자와 그때 선거를 맡았던 자를 아울러 탄핵하여 죄를 주소서"라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²¹⁸

그로부터 1년 뒤인 1439년(세종21)에는 의금부에서 "지무진군사 양기가 감사하던 전곡을 도둑질하여 자기가 가져간 장물이 15관(貫) 2백 39문(文)이옵고 다른 장물도 1백 37관 9백 7문이오니, 청하건대, 율에 의하여 참형에 처하옵소서"라고 소를 올렸다.²¹⁹

세종은 양기에 대해 1등을 감하게 하고, 결장(決杖) 1백 대에 낙인을 찍고[刺字]²²⁰ 동래진(東萊鎭)으로 귀양 보내도록 조치했다. 양기의 재임기간은 약 4년에 이른다.

12. 오치선(吳致善, ?~?), 재임 : 1442~?

오치선(吳致善)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고지》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없다. 실록에는 1442년(세종24) 지무진군사(知茂珍郡事)에 제수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오치선이 무진군사로 부임을 앞두고 세종에게 하직

217 벼슬아치가 부정하게 뇌물을 받거나 관유물을 사사로이 취하고, 직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죄.

218 《세종실록》 세종 20년(1438) 2월 5일.

219 《세종실록》 세종 21년(1439) 2월 19일.

220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흠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던 형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세종과 오치선이 나는 대화의 기록이 있다.²²¹

오치선의 본관은 함양이며 호는 수심재(修心齋)이다. 조부는 오방식(吳邦植), 부친은 오상덕(吳尙德)이다. 오치선은 황희(黃喜)의 누이의 아들로 황희가 유배를 갔을 때 태종과 세종에게 황희의 근황을 보고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논산으로 편입된 연무읍 고내리 효죽동 출신으로 보인다. 이곳을 솟대배기[마을]라 하는데 태종 때 오치선이 과거에 급제하여 솟대를 세우게 되어 마을 명칭도 솟대배기 또는 효죽, 효죽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오치선은 1413년 봉례랑이 되었는데 이는 김덕생(金德生) 장군의 사위였기 때문에 얻은 혜택이었다.²²² 김덕생은 일찍이 태종의 잠저(潛邸) 생활 때 보좌하였으며, 1395년 이방원을 따라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잡는데 공로가 있었다. 김덕생은 아들 없이 두 딸만 남긴 채 일찍 죽었다.²²³

오치선은 1418년 사헌부감찰을 지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에 따르면 그해 겨울에 태인현감으로 부임하여 옛 객관의 서쪽 지세를 살피고, 1419년 가을에 후청(後廳)·동서침(東西寢)·남청(南廳)·동서행랑(東西行廊)을 세웠다.²²⁴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9에는 남원현감으로 있을 때 세웠던 봉서루(鳳棲樓)가 황폐해졌다고 기록했다.²²⁵ 또 권40에는 구례현감으로 와서 객관 동쪽에 봉서루(鳳栖樓)를 세웠다고 했다.²²⁶ 화순 능주에도 봉서

221 《세종실록》 세종 24년(1442) 7월 27일.

222 《태종실록》, 태종 13년(1413) 11월 10일.

223 박홍갑(2023), “벼슬이 탐나거든 호랑이를 잡아라”, 2023.1.27., <https://blog.naver.com/juamhistory/222996259191> (2023.5.30. 인용)

22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전라도 태인현.

22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9, 전라도 남원도호부.

22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전라도 구례현.

루²²⁷가 있는데 당시 현감이었던 오치선이 객관 동쪽에 세웠다고 하여 간 곳마다 봉서루를 세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 것 같다.

1430년에는 전라도사로 있었다. 오치선이 전라도사 수령관으로 있을 당시에 광주 사람인 전 만호(萬戶) 노흥준(盧興俊)이 목사 신보안(辛保安)을 시기하여 구타한 죄에 대하여 형조정랑 정길흥(鄭吉興)과 감찰 이인손(李仁孫) 등이 오치선이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으니, 죄로 장 80대를 쳐야 한다고 했으나 세종은 다만 관직만 파면케 하고, 광주 목(光州牧)을 강등하여 무진군(茂珍郡)으로 하였으며, 계수관(界首官)을 장흥부(長興府)로 옮기라고 하였다.²²⁸

1431년 세종이 수차(水車)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 서령(署令)이던 오치선을 충청도와 전라도로 보냈다. 이는 세종이 “수차의 설치는 원래 한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받들어 행하는 관리가 모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자갈땅에 설치하여 쓰지 못하게 되니 심히 부당하다. 위로는 중국으로부터 아래로는 왜국(倭國)에까지 모두 수차의 이익을 받는데, 어찌 우리나라에서만 행하지 못한단 말인가.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잊지 못하는 것은 급하게 백성들에게 이익을 보게 하려고 함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시키고야 말 것이니 꼭 이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각 도에 나누어 보내도록 하라”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²²⁹ 이로 보아 오치선은 농사에 필요한 수차 제작과 같은 물리과학적인 역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31년 판서 안순(安純)이 “지금 왜수차(倭水車)와 오치선이 만든 수차(水車)를 물에 부딪쳐서 시험해 보니, 왜수차는 눈에 물을 대는 데 쓸

22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전라도 능성현.

228 《세종실록》 세종 12년(1430) 3월 26일.

229 《세종실록》 세종 13년(1431) 5월 17일.

수 있고, 오치선이 만든 수차는 우물물을 끌어 올리는 데는 쓸 수 있다”라고 보고했다.²³⁰ 1437년 2월에는 세종이 호군 오치선에게 명하여 자격수차(自激水車)를 근교에 설치하여 이를 시험하게 하였다.²³¹

1440년 3월 18일 세종이 호패법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할 때 도승지 김돈(金墩)이 “고부군수(古阜郡守)로 있는 오치선이 유량하는 사람을 용납해 숨긴 자는 온 집(全家)을 (평안북도 자성 지역의) 여연(閔延)으로 입거(入居)시키자”라고 했다면서 인구가 날로 많아지는데, 군액(軍額)은 늘지 않는 것은 백성이 많이 숨어 빠지는 까닭이라며, 군현(郡縣)의 원래 소속된 호(戶)에 군(軍) 1백을 더 늘리고, 군현마다 차례로 더하면 호적에 빠진 집이 다 나타나서, 일 없는 백성(閑民)이 모두 부역에 종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세종은 “유량하는 것을 금지해 막고 군액(軍額)을 증가시킬 방안을 의논하여 아뢰라”라고 했다.²³²

1455년에는 소윤으로 있던 오치선이 아우 오치행(吳致行)과 함께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²³³ 벼슬이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13. 안철석(安哲石, ?~?), 재임 : 1450~?,

안철석(安哲石)은 《광주읍지》에 광주목 복호와 함께 광주목사로 승격되고 희경루(喜慶樓)가 완성되었다고 했다. 1450년 무진

230 《세종실록》 세종 13년(1431) 10월 30일.

231 《세종실록》 세종 19년(1437) 2월 24일, 일련의 기록으로 볼 때 오치선은 수차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수차(水車)는 주로 수리 관계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전통 수차는 발로 밟아 돌리는 물레방아였다. 왜수차(倭水車)는 종래의 족답식보다 훨씬 효율적이어서 자격수차(自激水車)라고 불리었고, 세종은 그 모형을 만들어 각 도에 보내어 수차를 많이 만들게 하였다.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보급하기에 힘쓴 이 자격수차란 통칭을 말하는 것이다.

232 앞뒤 상황으로 보면 오치선은 고부군수(지금의 부안군)를 맡다가 1442년 지무진군사를 제수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233 《세조실록》 세조 1년(1455) 12월 27일.

군사(茂珍郡事)에 임명된²³⁴ 이후 1451년에 무진군이 광주목으로 복호되면서 광주목사가 되었다. 광주목으로 변경된 것은 이선제, 이개 등이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²³⁵

《문종실록》에는 전라도 무진군 경재소의 순성군 이개, 좌의정 황보인 등이 다음과 같이 소를 올려 무진군에서 광주목으로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³⁶

“신 등의 본관인 무진군은 옛 신라 때에 도독부를 두어 구주(九州)의 수(數)에 들었고, 고려에 들어와서는 광주목이 되었다가 뒤에 화평부가 되고 또다시 광주목이 되었으니, 토지의 광대함과 인물의 번창함이 서남 여러 주의 으뜸으로서 실로 전라도의 한 도회소인데, 예전에 목사 신보안이 죽임을 당한 일로 인하여 군으로 강등되니, 일찍이 상언하였으나, 마침내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주장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시어 크고 넓은 은혜를 펴므로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다 조칙[渙汗]의 은택을 입으나, 본군(本郡)은 한 사람의 애매한 일 때문에 억울함을 참아 온 지 20여 년 오래되었으니, 깊이 통민합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옛 호칭으로 회복하도록 허가하여 새롭게 바뀔 길을 열어 주소서”하고, 본군의 유향 품관(留鄕

234 《세종실록》 세종 32년(1450) 2월 14일, 安哲石, 俱以嫡孫, 繼祖母死, 而哲石服喪百日後釋服, 拜茂珍郡事.

235 1451년(문종 원년) 여름에 순성군 이개(李誾, ?~1462), 전 중추 이맹진(李孟珍, 1374~1456), 전흥(田興, 1376~1457), 우참찬 안승선(安崇善, 1392~1452), 이조판서 권맹손(權孟孫, 1390~1456), 인순부윤 김청(金聽, ?~1462), 전 동지중추원사 유맹문(柳孟聞), 예문제학 이선제(李先齊, 1390~1453) 등이 논의하였다. 필문 이선제가 중심이 된다. 김희태, “회경루,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다(咸喜相慶)”, 호남학산책 문화재 28.

236 《문종실록》 문종 1년(1451) 6월 7일, 全羅道 茂珍郡京在所順城君 誾, 左議政皇甫仁等 上言: “臣等本貫茂珍郡, 昔新羅時, 置都督府, 列於九州之數, 入高麗, 爲光州牧, 後爲化平府, 又復爲光州牧, 土地之廣, 人物之繁, 冠西南諸州, 實全羅一都會也. 昔因牧使辛保安致死事, 降號爲郡, 嘗上言陳訴, 竟未得申理. 主上新登寶位, 誕布鴻恩, 一國臣民, 皆得蒙渙汗之澤, 而本郡緣一人曖昧之事, 含忍鬱抑, 至二十餘年之久, 深可痛悶. 伏望, 許復舊號, 以開更新之路. 本郡留鄕品官及人吏等, 亦皆上言, 并下吏曹. 本曹與政府同議啓:” 以盧興俊一人所犯, 而降號者, 至廿餘年, 懲惡已久. 請復爲光州牧. 從之.

品官) 및 인리(人吏) 등도 또한 모두 소를 올리니, 아울러서 이조(吏曹)에 내렸다. 이조가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노흥준(盧興俊) 한 사람이 범한 일 때문에 강등한 지 20여 년이 되었으니, 악을 징계함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청컨대 광주목으로 회복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안철석의 호는 죽산(竹山)이다. 안철석은 1451년(문종1)에 이선제(李先齊, 1399~1484)와 함께 향풍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광주향약을 실시하였다. 당시 이선제는 예문제학(藝文提學)으로 있었다. 광주는 다른 지역보다 향약이 먼저 시작되었다.

세종 연간에 김문발(金文發, 1359~1418)이 향약을 실시했고, 광주향안은 이선제와 안철석이 조목을 제정하고 인원을 30명으로 선정했다. 향안의 서문은 1516년(중종11)에 놀재(訥齋) 박상(朴祥, 1474~1530)이 썼다.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남긴 ‘희경루기(1451)’에 안철석이 부임한 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관유(觀遊)할 장소가 없어 지역 부로(父老)들과 논의한 뒤 공북(拱北)의 옛터에 지었다고 나온다. 이 누각을 짓는 사이에 광주목으로 복호되면서 완공되자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다[咸喜相慶]”라는 뜻을 담아 희경루로 명명하였다고 한다.²³⁷

광산은 전라도의 거읍(巨邑)이다. 옛날에는 누각이 이 고을 치소의 북쪽에 있었는데, 이름을 공북루(拱北樓)라 했었으나 허물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번에 태수 죽산 안철석이 부임하여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사를 다스리는 바쁜 가운데 틈을 내어 고을의 부로들을 모아 놓고 물었다. ‘고을에 유람할 장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이오. 더욱이 광산은 이 도의 요충지로 사객(使

237 신숙주, 《보한재집(保閑齋集)》 권14, 기(記).

客)이 벌 모이듯 하는데, 막히고 답답하고 깊고 가려져서 시원하게 해줄 길이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모든 부로가 말하기를, '높고 밝고 시원스러운 땅으로는 공북루의 옛터만 한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재목을 모아다가 집을 짓되 옛 건물보다 더 크게 지었는데, 몇 달이 안 되어 완성되었다. 그 칸수를 세어 보면 남북이 5칸이고, 동서가 4칸이니, 넓고 훌륭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이었다. 동쪽으로는 큰길에 닿았고 서쪽으로는 긴 대밭을 굽어보며, 북쪽에는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동쪽에는 사장(射場)을 만들어 덕을 보[歡德]는 장소로 삼으니, 손님과 주인이 이제야 비로소 올라 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이는 태수의 뜻을 고을의 백성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경술년에 이 고을 사람 중에 미련한 자가 있어 강등되어 무진군이 되었다. 사건은 애매한 데서 생겨서 위로 산천 귀신으로부터 아래로 향곡(鄉曲)의 노소에 이르기까지 모두 억울함을 참고 말하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임금 원년 신미년 여름에 비로소 이 고을 사람 이선제 등이 꺾어져 말하기를, '상감께서 대통을 이어 등극하사 유신(維新)의 은택을 베푸시는데, 하나라도 알맞은 자리를 얻지 못할까 염려하시거든, 하물며 우리 주의 오래도록 억울한 것이겠는가' 하고, 드디어 이 고을의 부로와 관리들을 이끌고 함께 상소를 올려 간청했다.

그리하여 상감께서 특별히 옛 칭호로 회복하도록 명하시어 광주목이 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마침 이 누각마저 낙성되자, 부로들은 모두 모여 태수에게 치하를 드리고 희경루라 이름을 짓자고 요청하니, 이는 고을 모든 사람의 기쁜 경사를 뜻하는 것이다. 태수가 좋다고 하고 또 이 신숙주가 이 고을 사람이라 하여 나에게 기문 지을 것을 명했다.

대저 물건이 성취되고 허물어짐에는 운수가 있고 일이 흥하고 폐함에도 때가 있으나, 그 물건과 일에 있어서 시기와 운수가 물건에 합치되는 것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광주는 백제 때는 무진주도독부가 되었고, 신라에 들어와서는 무주가 되었으며, 고려 태조 때는 광주로 고쳐

졌고, 성종 때에는 해양현이 되었다가 고종 때 다시 광주로 승격되었고, 충선왕 때에는 화평부가 되었으며 공민왕 때 다시 광주목이 되었다. 조선왕조 때 와서도 강등되었다가 또 승격되었다.

한번 승격되고 한번 강등되어 흥하고 폐하는 것이 잇달았는데, 역시 각기 그때가 있었다. 하물며 이 누각을 지음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허물어져 있다가 기공하여 낙성하였으니, 그 시기와 만남이 반드시 운수가 있었다. 광주는 무등산을 진산으로 삼았으니, 이 산은 남방의 거악(巨嶽)으로 정기를 모으고 길상(吉祥)을 내려 우리의 모든 위안을 낳았고 또 우리의 어진 태수를 얻었으니, 오늘에 이르러 폐했던 것이 흥하고 허물어졌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어찌 한갓 이 누각 뿐이겠는가.

신숙주가 쓴 ‘희경루기(喜慶樓記)’에서 ‘동방에서 제일가는 누(樓)’라 표현할 정도로 웅장했던 희경루는 1533년 소실됐다, 1534년 신축된 뒤 또다시 1866년 완전히 사라졌다. 광주광역시는 이런 역사를 가진 희경루를 원래의 장소에 중건할 수는 없었지만, 남구 구동 광주공원 일원에 정면 5칸, 측면 4칸, 팔작지붕, 중층누각 형태의 중건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해왔다.

철저한 고증을 위해 1540년대인 명종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 보물 ‘희경루 방회도’를 바탕으로 중건을 추진해 2022년 6월 23일 상량식 ‘전라도 천년 기념 희경루 중건 상량고유제’를 가진 데 이어, 2023년 9월 20일 완공, 준공식을 가졌다.

14. 이다림(李多林, 1394~1468), 재임 : 1453~1455

이다림(李多林)은 《광주읍지》에 광주목사 관련 부임 기록이 없지만 《광주향교지》에는 올라 있다. 광주목사에서 전농판사(典農判事)가 되

었을 때, 그 관직의 차례가 오기 전에 맡게 되었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²³⁸

이다림의 본관은 가평으로 가평이씨의 논산 중시조이다. 조부는 고려 때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낸 이춘계(李椿桂), 부친은 도평의사사를 지낸 이침(李沉)이다. 이다림은 여산송씨(1393~1474)와의 사이에서 2남 6녀를 두었다.²³⁹ 여산송씨의 부친은 지금주사(知錦州事) 송리(宋理)이다. 여산송씨는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친정 부근인 연산(漣山) 청동(靑銅)에 전답을 마련하여 이다림이 낙향한 뒤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고, 그곳은 오늘날 가평이씨 세거지(世居地)가 되었다.

이다림의 장남 이윤손(李允孫, ?~1467)이 1455년 서계(西界)의 진장(鎭將)이 되어 나갔을 때 세조가 특별히 이다림에게 경관직(京官職)을 제수하여 그 마음을 위로했다고 한다.²⁴⁰ 차남 이형손(李亨孫, 1418~1496)은 세조 때의 원종공신이며 이시애의 난에 공을 세워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녹훈되었고 증 병조판서와 가평군(嘉平君)으로 봉해졌다.²⁴¹

이다림은 1412년 무과 갑과에 급제한 뒤 40여 년간 해안 지방에 출몰하는 왜구를 소탕하고 대마도 징벌과 북방 변경에 침범하는 여진족 방어에 전공을 세웠다. 1451년(문종1)에 함경도 부령부(富寧府) 도호부사 겸 병마첨절제사일 때 문종이 유시를 내려 함길도의 방어에 노력하고 군사훈련을 철저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²⁴²

238 《세조실록》 세조 1년(1455) 8월 21일, 光州牧使李多林爲典農判事, … 皆未滿秩而遞, 臣恐祖宗六期之法, 自此廢矣。請皆改正。

239 이다림의 사위는 민발(閔發), 최환보(崔桓輔), 신희렴(申希廉), 정인형(鄭仁炯), 김조원(金調元), 배형(裴亨)이다. 디지털논산문화대전, 이다림 (2023.4.12. 인용)

240 《세조실록》 세조 1년(1455) 8월 21일.

241 디지털논산문화대전, <http://nonsan.grandculture.net/nonsan/toc/GC02001362> 이다림 (2023.4.12. 인용)

1453년 광주목사, 1455년(세종1) 전농판사, 1456년에 첨지중추원사가 되고, 이어 동지중추원사·오위도총부부총관이 되었다. 이다림의 묘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409에 있다.

15. 송휴명(宋休明, ?~?), 재임 : 1456~1457

송휴명(宋休明)은 《광주읍지》에 기록이 없으나 《광주향교지》에는 올라 있다. 송휴명이 광주목사였다는 최초의 기록은 1457년 세조 때 등장한다. 광주목사로 중국에 대한 하례 전문(箋文)의 격식이 어긋났으므로 사헌부에 명하여 허물을 캐묻고 따져보라는 내용에서다.²⁴³

그러나 5개월 뒤에 윤(尹)으로 있던 송휴명이 원종공신 3등 녹훈을 받았다는 기록²⁴⁴이 있는 것으로 보아 1457년에는 광주목사에서 떠난 것으로 보인다. 1459년의 이정(李禎)의 ‘좌익원종공신녹권(佐翼原從功臣錄券)’에도 3등 공신에 ‘윤 송휴명(尹宋休明)’의 이름이 들어 있다.²⁴⁵

송휴명이 광주목사 시절에 《역대병요(歷代兵要)》를 13권 13책의 목판으로 간행했다.²⁴⁶ 송휴명은 1456년(세조2) 전라감사 이석형(李石亨), 전라도사 조매(趙枚) 등과 함께 《역대병요》를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규장각도서에 전하는 책이다. 《역대병요》는 1450년(세종32) 세종이 정인지 등에게 명해 중국의 《황제택록(黃帝涿鹿)》에서 시작해 태조 이성계의 전적까지 역대의 전쟁과 그것에 대한 선유(先儒)

242 《문종실록》 문종 1년(1451) 6월 9일.

243 《세조실록》 세조 3년(1457) 3월 9일, 全羅道觀察使宋處寬、處置使李行儉、全州府尹卞孝文、羅州牧使金恕、光州牧使宋休明、忠清道觀察使李重·節制使鄭種、公州牧使咸禹治、洪州牧使李明晨、淸州牧使李英耆、平安道觀察使金連枝·都節制使李允孫、江陵府使李師曾、賀中宮箋違格、命司憲府劾之。

244 《세조실록》 세조 3년(1457) 8월 12일, … 尹宋休明… 錄三等。

245 박성종(2006), ‘李禎佐翼原從功臣錄券’ 《朝鮮初期 古文書 史讀文 譯註》, pp.291~306.

24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역대병요.

들의 평을 집성한 책이다.²⁴⁷

1456년(세조2)에는 왕명으로 내용이 너무 번거롭게 많다고 하며, 원본을 간략히 줄여 무신들에게 교육할 것을 명하였다. 광주목사 송휴명은 국방을 담당한 무신들의 전쟁사를 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말미에는 간행을 지휘한 이석형·조매·송휴명과 잘못된 글자나 내용을 바로잡은 조호지(曹好智), 교정을 담당한 김백공(金伯恭)·맹눌(孟訥)·노미(盧美) 등의 관직과 이름을 수록하고, 각수(刻手) 대선사지선(大禪師智禪) 등 실제 작업을 한 인물 24명의 이름을 실었으며 간기(刊記)를 밝혔다.

1464년 행부령도호부사와 부령절제사를 지냈다,

16. 유곡(柳穀, 1415~1482), 재임 : ?~1461

유곡(柳穀)의 광주목사 부임 기록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는 없다. 다만 전라감사 함우치(咸禹治, 1408~1479)가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문종의 딸 경혜공주의 남편인 정종이 유배지인 광주에서 망발하는 사건을 일으켰을 때 당시 광주목사가 유곡이었다는 기록이 나온다.²⁴⁸

유곡은 당시 유배 중이던 정종이 자신은 해탈한 성불(成佛)이라고 주장하며 고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등의 망발을 하고, 만남이 금지된 외부의 그의 지인들과 소통하는 등 죄악이 깊음에도 이를 바로 체포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다는 죄목으로 국문을 받았다. 정종의 죄를 논하는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맡은 유곡은 대명률에 따라 죽임을 당할 처지

247 《세종실록》 세종 32년(1450) 2월 22일, 이는 세종이 평화로울 때 위태로울 때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과거에 군졸을 사용하던 사적을 모아 내도록 한 책이다. 又謂安不忘危, 嚴立選用將卒之制, 集古今用兵事跡, 質以武經, 名曰《歷代兵要》。

248 《세조실록》 세조 7년(1461) 7월 26일, 全羅道都觀察使咸禹治馳啓: 光州安置鄭綜~牧使柳穀略不禁防, 請竝令攸司囚鞫. 命義禁府鎮撫李蕃拿致掠, 穀又性坦事于人等。

에 있었으나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나서서 그를 변호했다.²⁴⁹

신숙주는 자신이 고을의 수령이 되어서 정종을 붙잡아 두는 것을 소홀히 하여, 돌아다니게 하였으니 죄가 크지만 본래 죄에 미치는 다른 사정이 없고, 또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으니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세조는 유곡은 사리를 아는 조정의 관원으로서 업무를 게을리하여 정종을 검거하지 않은 죄가 사형에 합당하지만 특별히 죽음을 면하게 하고, 춘천으로 유배를 보내 가족은 춘천의 관노로 영속시키도록 했다.²⁵⁰ 다행히 7년 후 예종의 특명으로 유곡은 사면과 동시에 고신(告身)을 돌려받았다.²⁵¹

유곡의 본관은 문화, 자는 치원(致遠)이며 호는 독락(獨樂)이다. 조부는 가선대부 목사를 지낸 류형(柳衡), 부친은 제릉직장(齊陵直長)을 지낸 류중지(柳中之), 모친은 의성현령을 지낸 곽중(郭棕)의 딸이다. 형은 전한(典翰)을 지낸 류식(柳軾)이다. 유곡의 부인은 풍양조씨(豐壤趙氏) 장령 조겸지(趙謙之)의 딸이다. 2남 3녀를 두어 장남 류희가(柳希軻)는 진사, 차남 류희철(柳希轍, 1453~1514)은 조선 전기 청백리이다. 사위는 현감 광주(光州) 김오(金沔), 의성 김택중(金澤中), 생원 삭녕 최철권(崔哲拳)이다.

유곡은 1441년(세종23) 식년시 문과에서 정과 7위로 급제하였고, 좌랑과 정랑 등을 거치는 동안 공적이 높았다. 1455년(세조1)에 세조의 원종공신 3등에 녹훈되는 등 공로를 쌓은 바 있다.

유곡은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벼슬에 뜻을 그만두고 충청도 임천(林

249 《세조실록》 세조 7년(1461) 10월 20일.

250 위의 책.

251 《예종실록》 예종 즉위년(1468) 9월 7일.

川)으로 은거하였다. 거처에 독락정(獨樂亭)을 짓고 지역 고을에 조언을 해주며 살았다. 1482년(성종13) 윤8월 25일에 졸하니 향년 68세이다. 문화류씨대중회 누리집에서는 유곡(류곡)을 광주공(光州公)으로 표기하고 있다.²⁵² 이는 광주목사가 마지막 직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7. 성순조(成順祖, 1418~1473), 재임 : 1466~1469

성순조(成順祖)의 광주목사 재임 기록은 《광주읍지》에 없다. 하지만 《광주향교지》에는 기록이 올라 있다.²⁵³

성순조는 1466년에 광주목사로 부임하여 3년 동안 있으면서 무등산과 월출산에 출몰하던 도적들을 잡는 데 공헌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의 세 아들인 의정부 사인 성숙(成淑, ?~?)과 시강원 필선 성준(成俊, 1436~1504), 성균전적 성건(成健, 1439~1495) 등이 소를 올렸는데, 부친이 광주목사로 있으면서 도적들을 소탕하고 해산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계속 비밀이 새 나가고 있어, 감사와 절도사와 더불어 군사를 파견하여 체포해 주라고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다.²⁵⁴

성순조의 본관은 창녕, 자는 자효(子孝), 호는 도옹(陶翁)이다. 태조 때 동지중추원사 성엄(成揜, 1375~1434)의 아들이며 대사성을 지낸 김약항(金若恒)의 외손자이다. 개국공신이며 동지총제전라도처치사를 역임한 전주이씨 이란(李蘭)의 딸이 부인이다.

1453년(단종1)에 성순조는 한성부 판관으로 있으면서 가까이 지낸 불우현(不憂軒) 정극인(丁克仁, 1401~1481)에게 식년시 문과에 응시하도록 권유해 정과(丁科) 13위에 급제하도록 한 바 있다.²⁵⁵ 이때 정극

252 문화류씨대중회, <http://moonhwaryu.co.kr/> (2023.4.12. 인용)

253 《세조실록》 세조 12년(1466) 8월 17일, 成順祖行光州牧使.

254 《예종실록》 예종 1년(1469) 5월 2일.

인의 나이 53세였다.

1459년 지사간원사, 1460년 원종공신 3등에 녹훈되었고 1461년 첨지중추원사와 승례문 수장을 역임했고, 1466년 광주목사로 왔다가 1469년 이조참의, 1471년 강원감사, 1472년 가선대부 형조참판 등을 거쳤다.

성현(成愰, 1439~1504)의 《허백당문집》에는 1483년에 강원감사로 부임한 후 기존의 강원도 감사 선생안에서 증조 성석연(成石琿, 1403), 그 동생인 성석용(成石瑿, 1396), 조부 성엄(成揜, 1419), 숙부 성순조(成順祖, 1471)가 이미 강원감사를 지냈던 것을 보고 자신의 가문이 번성함을 기리는 의미에서 《강원도 감사 선생안》 발문을 쓴 바 있다.²⁵⁶

《관동지(關東誌)》에 ‘방백제명록(方伯題名錄)’이 있는데 성석린(成石璘, 1338~1423) 조항에 후임 감사로 부임한 성엄(1419), 성순조(1471), 성현(1483), 성세창(1522), 성순(1562) 등 5명의 창녕성씨 자손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해 놓았다.²⁵⁷

18. 이영구(李英壽, ?~?), 재임 : 1472~?

이영구(李英壽)는 《광주읍지》에 1509년인 ‘중종 기사(己巳)년’에 광주목사로 부임했다고 적혀있으나 오기인 듯하다. 실록에 따르면 성종 때인 1472년(壬辰)에 통정대부 행광주목사로 제수되었다.²⁵⁸ 《신증동

255 정극인, 《불우현집》 부록, 不憂軒家狀草.

256 성현, 《허백당문집》 권9 題跋, 題江原道監司先生案後.

257 강원도,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고문서센터(2007), 《관동지(關東誌)》 권1(1830), 觀察使 成石璘(성석린) 永樂癸未 子 揜(엄)永樂己亥以監司來 孫順祖(순조)成化辛卯以監司來 曾孫 愰(현)成化癸卯以監司來 玄孫世昌(세창)嘉靖壬午以監司來 五代孫詢(순)嘉靖壬戌以監司來 十 三代孫天柱崇禎癸未以監司來.

258 《성종실록》 성종 3년(1472) 2월 1일, 李英壽通政行光州牧使.

국여지승람》광산현 편에는 이영구가 나이가 많다고 사직하려 하자, 광주에서 상소하여 유임해 주기를 청했으므로 특별히 가선대부로 승진시켰다는 기록이 있다.²⁵⁹

이영구는 세종 때 생원시에 입격한 뒤 1432년(세종14) 식년시에 동진사(同進士) 1등으로 급제했다. 집현전 교리로 재직 하던 1445년에는 세자의 명을 받아 양전(量田)을 시험하는 공을 세웠고, 광주판관(廣州判官)으로 있을 때인 1450년 4월에 국법을 어긴 승려 설정(雪正)과 도명(道明)을 체포하는 일 때문에 군사를 내어 몹시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탄핵받았다. 그러나 곧 7월에 사헌부지평으로 영전하였고, 문종의 특명으로 관리 봉급을 보관 관리하는 광흥창에 파견되어 감찰업무를 수행하였다.

1451년 평안도도사로 백성들에 대한 진휼을 극진히 하였으나, 박이창(朴以昌, ?~1451)이 북경(北京)으로 갈 때 양곡(糧穀)을 지나치게 많이 주어 이를 수송하던 군마(軍馬)들이 압록강(鴨綠江)에서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1452년에는 남원부사, 1455년에 원종공신 3등에 녹훈되었고, 1457년에 청주목사, 1462년에는 행공주목사 등을 거쳤다.

특히 직산현감 등 각 임지의 수령이 되었을 때 고을마다 신망이 높고 정사를 잘 돌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동국여지》에 이영구는 직산현감이나 청주목사일 때 청렴하고 신중하며 직무를 부지런히 하여 은혜로운 정사가 행해져서 백성에게 혜택이 미쳤다고 했다.²⁶⁰ 공주목사일 때는 나라에서 남자들에게 시키는 노동을 경감해 주고 과세를 고르게 매기는 등 백성들을 성심껏 보살피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의 청렴함과 지조에 감복하였다고 기록했다.²⁶¹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동국

25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광산현.

260 《동국여지》 권3, 충청도 좌도 청주진, 직산현; 청주목.

여지지》와 비슷한 내용의 기록이 실려 있다.²⁶²

그 이후 충청도 진잠(鎭岑, 현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으로 퇴거하여 살고 있던 중 성종(成宗, 재위 1470~1495)의 부름을 받아 새로이 관직에 나갔다.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행광주목사로 파견되었고, 관직에서 사퇴한 후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차되었다.

19. 문수덕(文修德, ?~?), 재임 : 1475~1476

문수덕(文修德)은 《광주읍지》에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광주향교지》에는 기록이 올라 있다. 실록에 따르면 1475년에서 1476년 사이에 광주목사로 재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수덕이 광주목사로 재임하고 있는 당시에 종실녀(宗室女) 이씨와 사노와의 사이에 있었던 간통 사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국문한 일이 논란이 되었다는 기록들이 나타난다.²⁶³ 문수덕은 이 일로 1475년 12월 추국당하기도 했으나, 이듬해 1월 사면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문수덕의 본관은 남평이지만 한성에서 거주했다. 1447년(세종29) 식년시 생원 3등 34위를 했다. 조부는 1428년 지평을 지낸 문승조(文

261 《동국여지지》 권3, 충청도 우도 공주진, 공주목.

26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청주목; 권16 직산현; 권17 공주목.

263 《성종실록》 성종 6년(1475) 12월 22일부터 성종 22년(1491) 11월 4일까지 16개의 기사가 올라 있을 정도로 큰 쟁점이 되었다.; 이 기록과 함께 위키백과의 ‘현주 이구지(縣主 李仇之, ?~1489)’를 종합하면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의 8번째 서녀인 이구지가 권덕영과 결혼한 이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남편의 종 천례(天禮, ?~1488)와 간통하여 딸인 준비(准非)를 낳은 뒤, 그 딸을 시집보냈다. 천례와의 연애는 불문율로 붙여졌으나 이구지 또는 천례가 자신의 딸이 왕실의 후손이라고 발설한 것이 알려지면서 왕명으로 사형당했다.

承祚), 부친은 홍문관교리를 지낸 문송수(文松壽)²⁶⁴이다. 예조좌랑을 지낸 진양하씨 좌랑공 성재(誠齋) 하제명(河悌明, 1407~1457)의 큰사위이다.

문수덕은 세조 때 원종공신 3등에 녹훈되었다.²⁶⁵ 변정원사의(辨定院司議)를 지내다가 종사관으로 임명되어 1466년 중국을 다녀왔다. 상의원첨정(尙衣院僉正)일 때 중국 사신의 청에 따라 세조로부터 1자급을 올려 받았고,²⁶⁶ 불경을 베껴 만드는 데 참여했다며 당상관을 제수 받는²⁶⁷ 등 앞길이 밝았다. 그러나 당상관이 된 것에 대해 대사헌 양성지(梁誠之) 등이 상소하여 이는 폐단이라며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등 조정의 논란거리가 되었다.²⁶⁸

1481년 승정원(承政院)에서 행사용(行司勇) 문수덕을 결송당상관(決訟堂上官)으로 돌려보내자, 성종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고의 인재를 투입해야 한다며 단송도감(斷訟都監) 제도를 도입해 그 자리에 제수했다.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점필재집》에 문수덕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만사를 쓴 것으로 보아²⁶⁹ 문수덕이나 그의 부친 문송수와 가까운 지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64 본명은 문송자(文松子)로 세종 17년(1435) 문과 식년시 을과 3위[探花]를 했다. 1440년 종부시직장을 지낼 때까지 문송자였던 것으로 나타나 그 이후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22년(1440) 4월 17일.

265 《세조실록》 세조 1년(1455) 12월 27일.

266 《세조실록》 세조 14년(1468) 7월 2일.

267 《예종실록》 예종 즉위년(1468) 12월 13일.

268 《예종실록》 예종 1년(1469) 2월 6일, 2월 11일.

269 김종직, 《점필재집》 권6, 文僉知 修德 母氏挽.

20. 김순보(金舜輔, ?~?), 재임 : 1479~1480

김순보(金舜輔)는 《광주읍지》에는 광주목사 부임에 관한 기록이 없다. 하지만 《광주향교지》에는 올라 있다. 김순보는 1479년(성종10)에 통정대부 행광주목사에 제수됐다.²⁷⁰

1467년(세조13) 의주판관으로 있을 때 도적들을 쫓아 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무관 출신으로 보인다.²⁷¹ 당시 도적들이 두 곳으로 나누어 은둔할 정도로 세력이 강해서 더는 추격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창살(槍殺)을 입은 사람이 48명, 말이 80필, 소는 3두(頭)가 피해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김순보는 의주목사 우공(禹貢, 1415~1473)과 함께 도적 떼의 정탐을 이유로 압록강을 건너 대창산(大昌山) 밑에 도적들이 은둔 중인 지역에서 사냥하다가 도적 떼를 만나 사람과 가축이 많이 죽고 약탈당했다는 죄로 국문을 받았다.²⁷² 세조는 한 달여가 지나 김순보를 석방하고 함길도로 보내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도록 했다.²⁷³ 함길도 지역은 오랑캐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다.

1470년 개성부와 황해도 등지에 도적 떼가 성행하자 김순보는 최형손(崔亨孫)·한숙륜(韓叔倫)과 함께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특별히 경차관으로 파견되었다. 1472년에는 포도부장이 되고, 여러 공로가 인정되어 성종으로부터 안장을 갖춘 말 1필을 하사받았다.

1475년 고령 침절제사일 때 품계가 1자급 올랐고, 1479년 광주목사를 거쳐 1482년 6월 통정대부가 되어 지금의 평안북도 창성군인 창성

270 《성종실록》 성종 10년(1479) 7월 4일, 以金永濡爲嘉善同知中樞府事, 成浚通政守全羅道觀察使, 金舜輔通政行光州牧使。

271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 5월 7일.

272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 5월 27일.

273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 6월 25일.

도호부사로 자리를 옮겼다. 1483년 수원부사, 1484년 안주목사로 제수되었지만 어머니의 나이와 병세를 이유로 다른 자리로 옮겼다가 1486년 충주목사 등을 지냈다.

김순보는 성종 때에는 상당한 대우를 받아 승급도 하고, 잘못을 저질러 죄과에 대한 처벌 등 논의가 있었지만 성종이 이를 용서해 주는 등²⁷⁴ 무난하게 관직을 수행하곤 했다.

21. 설순조(薛順祖, 1427~1496), 재임 : 1480~?

설순조(薛順祖)는 《광주읍지》에 첨지중추부사로 부임하여 객사를 증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480년(성종11) 54세의 나이 때 광주목사에 재임하고 있었다.²⁷⁵

광주목사를 지낼 때 객사를 증수한 내용이 성현(成俔, 1439~1504)이 쓴 ‘광주객사동헌기(光州客舍東軒記)’에 있다.²⁷⁶ 광주의 객사인 광산관(光山館)에 당시 써 붙인 기문에서 증수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²⁷⁷

지금 설순조는 첨지중추부사로서 지방에 나와 주목(州牧)이 되고 최영(崔榮)은 그의 보좌²⁷⁸가 되어, 정치가 화평하고 송사가 잘 다스려

274 《성종실록》 성종 10년(1479) 2월 28일, 성종 19년(1488) 5월 26일.

275 《성종실록》 성종 24년(1493) 7월 24일.

276 《허백당문집》 권3, 기(記), 光州客舍東軒記, 이 기문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光山縣 宮室에도 실려 있다. 성현은 이 기문에서 자신은 광산김씨의 후예로서 최영의 요청에 따라 글을 쓴다고 했다. 성현의 조모가 광산김씨로, 광산군(光山君) 김약항(金若恒, ?~1397)의 딸이다.

277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 宮室, 客館.

278 최영은 1479년(성종10) 1월 24일 진주판관으로 있다가 광주로 온 것으로 보인다. 성종 3년(1472) 1월 24일.

지며, 시절이 태평하고 농사가 풍년 들어서, 재해를 만난 만물들이 따뜻한 어머니를 만난 듯, 시들고 병든 백성들이 소생하여 숨 쉬게 되어서 모든 퇴폐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사방에는 근심이 없어졌다. 드디어 사람들이 서로 께하여 말하기를, ‘광산(光山)은 도회지 중에서 큰 읍내가 되었으므로 사신의 행렬이 왕래가 잦아서 끊이지 않고, 인물의 풍부함이 나누나 전주와 맞먹는다. 그런데 동헌의 규모가 협소하고 또 앞으로 세월이 오래되면 허물어질 염려가 있으니, 여찌 다시 고쳐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별로 께함도 없이 동의하여 며칠 안 되어 준공하였는데, 새기고 깎고 한 것이 지극히 교묘하고, 짓고 만든 것이 지극히 커서, 비록 찌는 듯한 더위나 진저리 나는 장마 때에도 손님이 와서 침울한 괴로움을 잊게 되었고, 비록 손님들이 모여들어 붐비게 되어도 각기 거처할 곳을 얻어 법도를 잃지 않게 되었다. 이런 뒤에야 이 고을과 걸맞게 되었다.

설순조의 본관은 순창이다. 자는 창봉(昌胤), 호는 삼지거사(三知居士)이다. 부친은 설세훈(薛世纁)이고 형은 설계조(薛繼祖, ?~1467)이다.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좌익원종공신에 책록되어 1455년(세조 1) 부사직으로 있으면서 원종공신 2등을 녹훈받았다.²⁷⁹

1473년 통정대부 제주목사, 1483년 부산진 첨절제사일 때 글을 올려 나이가 들었다며 벼슬을 사양했으나 성종은 더욱 힘쓰라고 하였다. 이때 설순조는 57세였다. 1485년 절충장군 부산포 첨절제사, 1486년 상주목사, 1490년 성주목사 등으로 제수되었다.

그런데 1493년 설순조가 김해부사로 제수되자 대사헌 성현 등이 설순조의 자격을 의심하여 “본래 재능과 덕망이 없고 수령을 지낸 고을에

279 《세조실록》 세조 1년(1455) 12월 27일, 그러나 경주 순창실씨 내에서는 “좌익원종 2등 공신에 책록되었으나 뿌리치고 벼슬을 버리고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향으로 돌아와 자호(自號)를 삼지거사(三知居士)로 삼고 삼지당(三知堂)을 짓고 은둔했다”라고 말한다. 지금 삼지당은 현존하지 않는다. 디지털순창문화대전. (2023. 5. 31. 인용)

명성과 공적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했는데 광주목사와 성주목사로 있을 때 고과에서 하등을 맞아 파면당한 일을 언급했다. 성현은 설순조의 당시 나이를 67세라고 하면서 5고(五考) 안에 반드시 70세가 찰 것이니, 법으로 헤아리더라도 김해부사로 제수할 수 없다²⁸⁰고 했다.

이날 조정에서는 설순조의 김해부사 제수를 놓고 상당히 긴 논란이 있기까지 했다. 결국 성종은 설순조를 개차하도록 명했다.²⁸¹ 그러나 3일 뒤에 이조판서 홍귀달(洪貴達) 등이 설순조의 사람됨을 말하면서 “학술(學術)은 여유가 있고 성품이 맑고 대쪽 같아 번거롭지 아니하고, 여러 번 큰 고을의 수령을 거치면서 자못 성적이 있었으므로, 김해를 감당할 만한데, 대간이 이를 논박하여 개차하도록 명한 것은 아마도 잘못이 있는 듯하다”라고 하자 성종은 “현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70에 이제 이르니 개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²⁸²

이에 대해 설순조는 자신의 임직을 놓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지자, 그간의 공적을 적은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청했다. 성종은 “설순조는 비록 나이 늙었을지라도 귀가 어둡지 아니하니, 외직에 보임할 수 있다”²⁸³면서 이듬해 행황주목사(行黃州牧使)로 제수했다. 이때 설순조는 68세였다. 당시에 설순조의 황주목사 제수를 놓고 다시 조정에 논란이 있었다. 나이도 연로하고 고과도 좋지 않아 외방인 황주를 다루는 데는 어렵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하지만 성종은 조정에도 연로한 이들이 있는 것처럼 설순조도 가능하다며 사헌부 장령 신건(辛鍵)의 반대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²⁸⁴

280 《성종실록》 성종 24년(1493) 7월 24일, 설순조가 광주목사일 때 ‘광주객사동헌기’를 써준 성현이 왜 갑자기 그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였는지 알 길이 없으나 무엇이 서운했던 것은 아닌지 추정이 가능하다.

281 《성종실록》 성종 24년(1493) 7월 24일.

282 《성종실록》 성종 24년(1493) 7월 27일.

283 《성종실록》 성종 24년(1493) 8월 15일, 順祖雖年老, 耳不重聽, 可補外任.

송병순(宋秉珣, 1839~1912)이 설순조를 기린 '황주목사설공묘표'를 보면 성종 9년(1478)에 광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이를 사양하며 부임하지 않다가 나중에 다시 제수 받은 것으로 보인다.²⁸⁵

22. 윤탄(尹坦, ?~?), 재임 : ?~1482

윤탄(尹坦)은 《광주읍지》에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없다. 하지만 《광주향교지》에는 올라 있다. 1482년(성종13) 지평 구속손(丘夙孫, 1430~1484)이 광주목사 윤탄을 중앙 관직으로 바꾸어 제수한 일은 불가하다고 했고, 다음날에도 사간원 헌납 이종윤(李從允, 1431~1494)이 윤탄을 외관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²⁸⁶ 이 기록으로 보면 이전부터 광주목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하겠다.

당시에 성종은 윤탄이 스스로 광주에 전장(田莊)이 있으므로 오해를 받을까 염려한다고 해서 바꾸도록 한 것이라 했다. 오히려 성종은 “광주는 토지가 풍요하고 백성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에 사람들이 모두 가고자 하는데, 윤탄이 무엇 때문에 꺼리겠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윤탄을 옹호해 주었다.

윤탄의 본관은 파평, 자는 탕보(蕩甫), 시호는 정호공(丁胡公)이다. 성종의 세 번째 왕비인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숙부이다. 부친은 첨지중추부사 윤삼산(尹三山)이고, 모친은 좌의정 이원(李原)의 딸이며, 부인은 감사 이효장(李孝長)의 딸이다. 아들은 윤형로(尹衡老)와 윤상로(尹

284 《성종실록》 성종 25년(1494) 9월 11일.

285 송병순, 《心石齋集》 권27, 묘표, 黃州牧使薛公(順祖)墓表. 묘표에는 '戊戌除光州牧不就'이라고 했다. 설순조는 성종 4년(1473) 제주목사에 제수되었을 때도 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옥천에 머물러 누워 있었다는 기록이 또한 있다. [擢除濟州牧。公以疾固辭。退臥于玉川。]

286 《성종실록》 성종 13년(1482) 2월 8일, 今以光州牧使尹坦, 換京職. 坦若於光州有田莊, 則宜換他邑, 何必京職; 2월 9일, 可用之人尹坦亦當於外官換差.

商老)가 있다.

문음으로 벼슬길에 올라 천녕현감을 지내고 1469년 분예빈시, 1470년 오위부사과, 1472년 선전관, 1479년 예빈시제거(禮賓寺提擧) 등을 지냈다. 1488년(성종19) 통례원 좌통례를 거쳐 정3품 통정대부 공조참의에 승진하였다. 1489년 동부승지에 발탁되고, 이어 우부승지,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형조참의를 지냈다. 1491년 통정대부 우부승지, 1492년 가선대부 한성부 우윤, 가선대부 충청감사에 올랐다.

이때 대간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윤탄은 “성격이 사납고 허황되며 재주와 식견이 없어 감사로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여러 차례 탄핵하고, 윤탄도 사직하기를 청했지만²⁸⁷ 성종의 옹호로 결국 부임하게 되었다.²⁸⁸ 이후로도 윤탄에 대한 탄핵이 잇따랐지만, 왕비의 집안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성종의 옹호가 반복되었다.²⁸⁹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었을 때도 성종이 정현왕후의 숙부라 하여 사면했고, 1519년 조광조 등이 주도한 위훈삭제에 따라 공신직이 박탈되었다가 조광조가 몰락하자 공신직을 회복했다. 그는 왕실의 외척으로 장기간 재상으로 있었지만 학식이 짧아 별다른 치적을 남기지 못했다고 한다. 영성군(鈴城君)이라는 군호를 받았다.

이런 기록으로 살펴보면 윤탄은 광주목사로 재직 중일 때도 별다른

287 《성종실록》 성종 23년(1492) 12월 22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288 《성종실록》 성종 24년(1493) 1월 10일.

289 《성종실록》 성종 24년(1493) 11월 5일에는 윤탄이 탄핵에 따른 형식적인 사직장을 제출하자 사관이 논평하기를 “대간이 탄핵하여도 효력이 없었다. 그런데 이에 이르러 또 탄핵을 받게 되자 관례대로 그 직임을 사양해 본 것이었다. 그러나 임금에 그 사람됨이 이 지경에 이른 줄 알지 못하고, 또한 왕비 집안의 지친(至親)이라고 하여 그 사직장을 윤택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12월 11일에는 윤탄이 충청감사의 직위로서 목천현감 임완(林緩)과 청양현감 정숙선(鄭叔善)의 파직을 청하자 또한 사관이 논평하기를 “윤탄은 충청도를 살핀다면서 날마다 주색을 일삼고 음란한 짓을 스스로 자행하였는데, 그 자신이 이와 같으니 그 험뜯어 벼슬을 빼앗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업적을 남기지 않았고, 지역의 올곧은 선비들과도 가까운 교유를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윤탄이 광주목사로 있었던 시기에 광주에 자리했던 인물들로는 지봉 박수지, 양심당 이시원, 청심당 이조원, 성심당 이형원, 양암 이복선, 금남 최부 등이 활동했고, 갑자사화 때는 탁경 최형한이 지역의 명망 있는 젊은 선비로 있었는데, 그들의 기록에서 윤탄의 이름은 찾기 어려웠다.

23. 박미(朴楣, 1433~1491), 재임 : 1482~1485?

박미(朴楣)는 《광주읍지》에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없으나 《광주향교지》에는 올라 있다. 《성종실록》에 박미는 이천부사를 그만두고 광주목사가 되었다고 한다.²⁹⁰ 1477년 이천부사에 부임했고, 이후에 광주목사에 부임한 적이 있다는 1488년의 기록으로 볼 때 그 시기는 1482년을 전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희맹의 광주목사로 떠나는 박미에 대한 전승시를 고려할 때 1482년에 부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박미의 본관은 밀양, 자는 자침(子瞻), 호는 존성재(存誠齋)이다. 박강생(朴剛生)의 증손으로, 조부는 전지교정감정자 박절문(朴切問)이고, 부친은 밀산군(密山君) 묵재(默齋) 박중손(朴仲孫, 1412~1466)이며 모친은 공조정랑 문승조(文承祚)의 딸이다. 박미의 부인 진산강씨(晉山姜氏, 1437~1509)는 둔녕부(敦寧府) 지사(知事) 강석덕(姜碩德)의 딸이다. 진산강씨에 대해서는 신용개(申用溉, 1463~1519)의 ‘박부사(의

290 《성종실록》 성종 19년(1488) 11월 11일에 보면 박미는 이천부사로 가기 위해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했다. 이때 성종으로부터 “수령(守令)의 일은 칠사(七事)에 불과하니, 그대들은 나의 뜻을 체득하여 취렴(聚斂)하지 말고 민생(民生)을 편안케 하라”라고 당부받은 바 있다. 성종 8년(1477) 2월 6일; 그런데 “사람마다 수령(守令)이 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연고를 칭탁하고 면하기를 꾀하는 법’을 세웠는데, 전번에 박미가 이천 부사를 사면하고 다시 광주목사(光州牧使)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영) 모 강씨 묘지명²⁹¹과 강혼(姜渾, 1464~1519)의 ‘숙부인 강씨 묘갈 명’²⁹² 등이 있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박미의 아들은 병조참의를 지낸 박의영(朴義榮, 1456~1519), 성균관사예를 지낸 박광영(朴光榮), 그리고 사간원헌납을 지낸 박증영(朴增榮) 등이 있다. 허균(許筠, 1569~1618)이 쓴 ‘박미의 세 아들이 겪은 관로의 행운과 불행’이란 글에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한 내용이 있다.²⁹³

박미는 단종 때 가을에 보는 과거에서 동생 박건(朴楸, 1434~1509)과 함께 1453년 문과 초시인 관시(館試)에 합격하였다.²⁹⁴ 1458년(세조4) 직장(直長)으로 있으면서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이듬해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²⁹⁵

1465년 경기도사, 1473년 군자감정으로 있으면서 《동문선》 찬집관이 되었고, 1477년 이천부사를 거쳤다. 그리고 통정대부 동부승지, 좌부승지, 예조참의를 1489년 한 해에 두루 거쳤다. 사후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291 신용개, 《이요정집(二樂亭集)》 권10. 朴府使(義榮)母姜氏墓誌銘.

292 강혼, 《목계일고(木溪逸稿)》, 木溪先生逸稿卷之一, 丘墓文, 淑夫人姜氏墓碣銘.

293 허균, 《성소부부고(惺所覆韻稿)》 권24, 설부3, 朴楸之三子官路通塞; 참의 박미는 아들이 셋이었다. 그중 소영(召榮)과 증영(增榮)은 모두 일찍 과거에 올라서 함께 이조 낭관이 되니 당대의 자랑거리였다. 그런데 맏이인 광영(光榮)은 그러저럭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40세의 나이로 박사 제자(博士弟子)로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나무랐고, 공도 스스로 곤혹스럽게 여겼다. 그 후 두 동생은 잇달아 죽었고, 공은 늦게야 과거에 올라서 청환과 요직을 두루 거쳐 벼슬이 참판에 이르고 봉군(封君)되었으며 76세에 죽었다. 그의 자손도 연달아서 과거에 올랐고, 재상 벼슬이 끊어지지 않았다. 사람의 운명이란 이러해서 이르고 늦음, 통하고 막힘을 가지고 한탄할 일이 아니다.

294 《단종실록》 단종 1년(1453) 9월 26일, 朴仲孫子楸, 楸, 皆中館試矣; 박중손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맏아들 박건(朴楸)은 부평 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이고, 차남 박미(朴楸)는 한성 서윤(漢城庶尹)이며, 3남 박건(朴楸)은 승정원 우승지이다. 둘째와 막내가 모두 문학에 역량이 있어 과거에 급제하여 선대의 유업을 성취하였다. 《國朝人物考》 권12, 경재(卿宰).

295 《세조실록》 세조 5년(1459) 2월 20일.

사숙재(私淑齋)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광주목사로 나가는 매제 자첨(子瞻)을 전송함’이라는 시를 박미에게 주었다. 애민정신을 담은 내용으로 특히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바른 수령이 되길 바라고 있다.²⁹⁶ 박미는 강희맹의 매제이다.

김종직(金宗直, 1431~1492)도 ‘광주목사 박미를 보내다’라는 시를 남겼다.²⁹⁷ 박미 목사가 떠남을 아쉬워하면서도 어디에 가서든 조정을 위해 일해 달라고 하고 있다. 시에 나오는 ‘해양’은 광주의 옛 이름이고 서석산은 오늘의 무등산이다.

應爲遐萌輟鸞班 응당 먼 곳 백성을 위해 조정 반열 떠났으리니
 一麾休恨出江關 한 깃대로 강관 나가는 것을 한하지 마소
 海陽舊壤雄南服 해양의 옛 땅은 남쪽 지방서 가장 웅대하고
 瑞石高標冠象山 서석산의 높은 표치는 못 산의 으뜸이로세
 曠度不教廉吏謫 넓은 도량은 청렴한 관리를 나무라지 않을 게고
 良辰宜賞舞腰彎 좋은 때엔 의당 춤추는 허리 굽은 걸 감상하리
 問今尙有甄家俗 묻노니 지금도 견훤의 집 풍속이 있다던가
 赤子龍蛇亦甚難 적자와 용사로 다스리긴 또한 매우 어려우리

왜 김종직이 이 글을 썼을까. 나이는 두 살이 많긴 하지만 두 살 차이는 당시에 학문으로 교류하는 사이라면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김종직이 박미보다 늦은 1459년 3월 식년시 대과에 도전했을 때 시험관 6명 중의 한 사람이 박미의 아버지 박중손이었기에 만들어졌다. 이에 앞서 박중손은 1456년 2월 식년시에서도 김종직의 형 김종석이 대과에 응시할 때 시관으로 참여했던 바 있었다.

296 강희맹, 《사숙재집(私淑齋集)》 권3, 送妹婿子瞻出牧光州.

297 김종직, 《점필재집(佔畢齋集)》 시집 권16, 送光州朴牧使帽.

박중손이 그들의 시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일이 없더라도 과거 시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관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시험에서 급제한 이들은 시관들과의 인연을 후일에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계 상례였다.

박미는 1491년(성종22) 세상을 떠나니 향년 59세이다. 1469년 통훈대부 행 사첨시부정으로 있으면서 《세조실록》의 찬수관 중 한 명이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하였고, 《동문선》에 시문(詩文)이 실려 전한다.

24. 유양(柳壤, ?~?), 재임 : ?~1487

유양(柳壤)은 《광주읍지》에 광주목사로 재임했다는 기록이 없으나 《광주향교지》에는 올라 있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유양은 1487년(성종18) 광주목사로 재임 중이었다.²⁹⁸

유양은 명문가인 진주유씨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과 품성을 갖춘 인물이었다. 유양은 성종의 신임을 받아 광주에 부임했으나, 그의 인생은 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 사건은 광주 판관 우윤공(禹允功)이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팔뚝을 맞은 것이었다.²⁹⁹ 조정에서는 유양이 곧바로 범인 색출에 나서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광주목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유양을 신문하였다.

사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우윤공은 그다지 청렴한 관원은 아니었고 여기저기서 민원을 많이 일으킨 인물이었다. 그래서 유양도 그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인 체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우윤공은 의정부 좌찬성 이철견(李鐵堅)의 조카로 이를 믿고 권

298 《성종실록》 성종 18년(1487) 11월 14일.

299 《성종실록》 성종 18년(1487) 11월 13일.

세를 부리기도 했다. 우윤공이 화살 맞은 사건으로 인해 2년 뒤 1489년에 광주목은 광산현으로 강등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당시 전라감사인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이 남긴 시에도 이런 사실을 던지지 암시하고 있다. 그 시의 제목은 ‘광주 사람이 그곳 판관 우윤공을 쏘아서 팔뚝을 맞았는데, 윤공은 화순으로 달아났다’이다.³⁰⁰

또 서울 도봉산 둘레길을 걷다 보면 진주유씨 묘역이 나오는데³⁰¹ 김종직이 밀양도호부사 유양에게 주는 시를 비로 세웠다. 일(一)은 ‘광주목사 유양이 판관의 화살 맞은 사건으로 재차 형신을 받고 지금 남평현으로 옮겨져 수감되어 있으므로 시 두 수를 부치다’이고,³⁰² 이(二)는 ‘금산에 도착하여 밀양도호부사 유양에게 주다’라는 시이다.³⁰³

(一)

莫向春風賦式微 봄바람을 향하여 쇠락함을 보이지 마소
江梅如雪柳依依 강가의 매화는 눈송이 같고 버들은 무성하니
明朝千畝吹幽雅 내일 아침 밭두둑에서 피리를 연주하거든
應逐金雞一笑歸 응당 사면령 받고 한번 웃으며 돌아가리

春光淡蕩酒須賒 봄 경치 화창하니 술이나 사서 마셔야지
世事參差莫畫蛇 고르지 못한 세상일에 서두를 것 없으라
一段吟魂好收拾 한 조각 시 생각을 좋아하여 거두다가
蘭舟將泛漢江波 목란의 배를 장차 한강 물결에 띄우자꾸나

300 김종직, 《점필재집》 시집 권21, 시, 光州人射其判官禹允功中臂允功奔和順.

301 진주유씨 묘역 입구에 2000년에 새로 세운 유양(柳壤)의 신도비가 있다.

302 김종직, 《점필재집》 권22, 시, 光州柳牧使壤以判官中箭事再被刑訊今移繫南平縣寄詩二首.

303 김종직, 《점필재집》 권15, 시, 到金山.奉寄密陽柳府使壤.

(二)

東南雄麗是吾州 동남에서 웅려한 곳이 바로 우리 고을인데
 太守風流更絕儔 태수의 풍류는 다시 무리 중에 뛰어나네
 野外綠蕪揚子宅 들 밖의 푸른 풀은 양웅(揚雄)의 집이요
 江頭明月仲宣樓 강가의 밝은 달은 중선(仲宣)의 누각이로다

妓圍脫略因賙給 기위를 간략히 함은 나누어 주기 위함이요
 酒令深嚴爲唱酬 주령을 엄하게 한 것은 창수하기 위함일세
 逐食崎人空戀泣 먹을 것 좇는 못난 사람은 사모하여 우노니
 三年恩澤洽松楸 삼 년 동안의 은택이 내 고향에 흡족하였네

유양의 본관은 진주, 자는 지유(之柔)이다. 부친은 부지돈녕부사를 역임한 유자해(柳子偕)이고, 모친은 청송심씨 청천부원군 심온(沈溫)의 넷째 딸로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의 동생이다. 부인은 정충의 조카인 정즙(鄭楫)의 둘째 딸인 청주정씨이다. 아들은 영의정을 지낸 청천부원군(菁川府院君) 유순정(柳順汀, 1459~1512)이다.

유양은 아버지 유자해와 함께 세조의 즉위 과정에 참여해 1455년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고, 1464년 경상도 채금별감, 무주현령을 지냈으며, 1465년 서천군사 등을 역임했다. 성종 때에는 1471년 예빈시정으로 활동한 뒤 1474년 담양부사 등의 지방관직을 역임했다.

사헌부지평 성세명(成世明, 1447~1510)은 전 광주목사 유양이 ‘우윤공 사건’과 관련하여 별로 잘못된 단서가 없는데 한갓 정해진 규칙[事目]에만 따라 심문하고 벌을 주었으며 또 오래 가두었으니,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성종에게 올렸다.³⁰⁴

304 《성종실록》 성종 19년(1488) 윤1월 9일, 前光州牧使柳壤別無違端，徒據事目而刑訊且久囚，未便。

사숙재(私淑齋)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의 ‘봄 죽순이 땅을 뚫고 나오는 그림을 그리고 그 왼쪽에다 시를 써서 종제 담양군수 유양에게 줌’이라는 시가 있다.³⁰⁵ 강희맹의 매제가 광주목사를 지낸 박미(朴楣, 1433~1491)이다. 유양의 생몰연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강희맹의 종제라는 점과 박미의 생몰연도, 아들의 출생연도를 볼 때 1420년대 출생으로 추정된다.

정곤수(鄭崐壽, 1538~1602)는 청주정씨를 아내로 맞이한 광주목사 유양과 그 아들 청천부원군 유순정을 소개한 글을 썼다.³⁰⁶ 글의 내용은 조선 개국공신 1등에 녹훈된 문민공(文愍公) 정충(鄭攄, 1358~1397) 이래 급제와 공훈은 가문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는 집안의 유물[舊物]이라는 것이다.

25. 권수평(權守平, 1461~1524), 재임 : 1488~?

권수평(權守平)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 기록에 올라 있다. 권수평은 성현(成俔, 1439~1504)의 기문에 따르면 1488년에 광주향교를 중건하였고, 1489년에 광주목이 광산현이 되면서 현감으로 강등하였다. 이로 보아 권수평은 1488년(성종19) 초에 광주목사로 부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임 목사인 유양(柳壤)이 1487년 11월에 우윤공의 화살 맞은 사건으로 체직되었기 때문이다.

기대승의 ‘광주향교중수기’에 따르면 권수평은 1488년(戊申)에 병부시

305 강희맹, 《사숙재집(私淑齋集)》 권4, 作春筍發蟄圖題其左贈從弟柳潭陽壤.

306 정곤수, 《백곡집(栢谷集)》 권1, 說, 復舊物說: 吾先祖復齋文愍公嘗魁至正丙辰科。旣策勳。封西原君。公之第三弟春谷翼景公以議政封清城府院君。而仲弟摠制諱拯之子曰楫。魁永樂癸卯科。斯爲善述。而不幸早世。官至集賢殿修撰。無子。有二女。長適宗室鳳城君德。次適光州牧使柳壤。柳之子曰順汀。魁成化丁未科。位領相。以元勳封菁川府院君。諡文定。其受外家之傳者至矣。(하략)

랑으로 있다가 외직으로 나와서 이곳을 맡아 광주향교를 신축했다.³⁰⁷ 성현의 ‘광산향교중수기’에도 수해로 현감 권수평이 옮겨 세웠다³⁰⁸라고 했다. 광주향교는 원래 장원봉 밑에 있다가 사람들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일이 잦아 성안(동문안)으로 옮겼는데 다시 서2리 지금의 자리로 권수평 현감이 이긴했다고 한다.³⁰⁹

권수평은 향교의 재정을 위해 출연도 했다. 권수평의 향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모범적 사례가 되어 정약용은 그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³¹⁰

권수평이 광산현감이 되었다. 학교가 전에는 성중(城中)에 있었는데 지대가 낮고 좁은 데다 건물이 퇴락하였으므로 권수평은 성 서쪽 2리쯤 되는 곳에 자리를 정하여 예에 맞게 학교를 세우고, 학교 앞에 있는 백성의 전지 몇 경(頃)을 공금으로 사서 논과 채소밭을 만들기도 하고 하인들의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백성의 전지를 사서 받은 학교로 넣고 받은 사마재에 넣었다. 또 면포 백 필과 벼 백석, 콩 20석을 내어 학생들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였다. 또 사서오경·제자·운서 등을 준비하여 서가에 간직하니, 유풍(儒風)이 크게 진작되고 유학의

307 기대승, 《고봉집(高峯集)》 권2, 光州鄉校重修記, 弘治戊申年間. 斯文權公守平. 以兵部侍郎. 出守于茲. 治民御史. 皆得其當. 綜事經務. 舉無不宜焉. 舊校在城中. 湫隘傾圯. 殆不可居. 乃買田卜地. 遷而新之. 在州治之西三里而近.

308 성현, 《허백당집》 권4, 기, 光山鄉校重修記, 學校舊在城中, 湫隘頽墜. 縣監招父老而進之, ‘先聖之居不稱, 盍圖而新之’ 咸曰: ‘惟命.’ 遂卜地於城西二里許, 庶民駢闐, 如子趨父事, 不數月而功役告訖.

309 유형원, 《동국여지지》 권5상, 전라도 광주목, 학교, 在州西二里. 舊在城內, 縣監權守平移構于此.

310 정약용, 《목민심서》 예전(禮典) 6조, 제4조 흥학(興學), 修葺堂廡. 照管米廩. 廣置書籍. 亦賢牧之所致意也.; 權守平爲光山縣監. 學校舊在城中. 湫隘頽墜. 守平卜地於城西二里. 建學如禮. 校前有民田數頃. 公出財買之. 或治爲水田. 或爲菜圃. 或爲僕隸之家. 又買民田. 半入於學. 半入於司馬齋. 又以綿布百匹. 租穀百石. 黃豆廿石. 充學生之用. 又備四書, 五經, 諸子, 韻書. 皮而藏之. 由是儒風大振. 文教益明.

가르침이 더욱 밝아지게 되었다.

권수평은 유학자로 광주에 부임한 이후 고을의 폐단을 없애고 적체된 옥사를 처리하면서 민생을 살폈다. 특히 성안에 있던 향교의 부흥에 노력하는 등 교육과 교화에 앞장섰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성현의 광산학기(光山學記) 내용이 있다.³¹¹ 성현에게 권수평의 치적을 기록한 ‘광산학기’를 부탁한 박이온(朴以溫, 1461~1524)은 성현의 이종사촌 동생이다.³¹²

1500년 11월 표제(表弟) 상사(上舍) 박이온(朴以溫)이 와서 ‘광산학기(光山學記)’를 써 달라고 한다.

그 내용은 현감 권수평이 부임해 온 이래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사랑하고 길러 병든 백성들이 은혜를 흡족하게 입었으니, 고을의 피폐한 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옥에는 갇힌 사람이 없었으며, 교활한 관리가 그 간교한 꾀를 부리지 못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편안하여서 한 지아비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동리가 평안하여 도적이 없었고, 정치가 공정하고 송사(訟事)가 없어져서 장부와 문서가 적어졌다. 매양 공무를 보는 틈을 타서 친히 유생(儒生)들을 이끌고 경학(經學)을 담론하여 이끌어 주고 깨우쳐 주며,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모

31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향교 항목에 있다. 在縣西二里。舊在城內，縣監權守平移構于此。〔新增〕 成倪記：“歲在商橫黃鍾之月，表弟上舍朴以溫來求《光山學記》，曰：‘縣監權君守平莅治以來，心勞撫字，恩洽凋瘵。邑之弊者盡祛，獄之滯者無留，黠吏無所售其術，黎庶安而無一夫不得其所。閭里晏然，盜賊不起，政和訟息，簿書罕少。每於公務之暇，親引儒生，談論經學，提撕誘掖，咸得其宜。學校舊在城中，湫隘頽墜。縣監招父老而進之，曰：「先聖之居不稱，盍圖而新之？」」咸曰：「惟命。」遂卜地於城西二里許。庶民駢闐如子趨父事，不數月而役告竣。

312 《咸陽朴氏世譜》，1850년 족보에 따르면 박이온은 함양박씨(咸陽朴氏)의 시조 박선(朴善)의 12세인 조부 박선(朴鮮)이 나주에서 광주로 옮겨고, 부친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 박숙선(朴叔善)이다.

두 합당했다.

학교가 전에는 성안에 있었는데, 낮고 습하고 좁고 퇴락하여 허물어졌었다. 현감이 부로(父老)들을 불러들여 말하기를, '선성(先聖)의 거소(居所)로는 맞지 않는데 어찌 새로 지을 것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니, 모든 부로가 '좋습니다' 했다. 그리하여 성의 서쪽 2리쯤에 터를 잡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모든 현민들이 줄을 이어 모여들기를 마치 자식이 아버이를 좇아 일하는 것같이 하여 몇 달 만에 일이 끝났다.

권수평의 본관은 안동, 자는 정숙(正叔)이다. 부친은 정주목사와 수상주목사를 지낸 권우(權虞)이다. 1465년 식년시 생원 3등 35위, 진사 3등 47위에 입격하였다. 1483년(성종14) 문과 식년시 을과 3위에 급제하였다.

《연산군일기》를 보면 권수평이 병조정랑으로서 유생들에게 벌한 것을 비방하고 여론을 채택하도록 상소를 올린 기사가 보인다. 연산군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종을 위해 불교식 재(齋)를 올리려 하자 유생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서자 연산군은 이들의 처벌을 명했다. 이를 비판하는 상소였는데 연산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³¹³ 이후로 권수평의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26. 김석(金礪, ?~?), 재임 : 1490?~?

김석(金礪)이 광주목사 또는 광산현감으로 지냈다는 기록은 《광주읍지》나 《광주향교지》에 없다. 다만 《증종실록》에 광산현감이었다는 기록이 단 한 번 나온다.³¹⁴

313 《연산군일기》 연산군 1년(1495) 2월 1일.

박원종이 또 성종 때 김석의 일을 인용하여 아뢰었는데, 이는 더욱 대신으로서 말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김석은 비록 발명(發明)하였지만 성종께서 종시 청반(淸班)에 끼워 주지 않아, 마침내 광산현감(光山縣監)으로 죽었습니다.

광주가 광산현으로 강등당한 것은 성종 때인 1489년이고 1501년(연산군7)에 광주목으로 복호되었다. 김석이 광산현감이었던 시기는 성종의 재위 기간을 고려하면 1490년(성종21)부터 1494년(성종25)까지 5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석이 '청반'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 청반은 조선시대 때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시키던 규장각, 홍문관, 선전관청 등의 벼슬이다. 그렇다면 김석은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김석의 본관은 광산이며 자는 가지(可支)이다.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따르면 1474년(성종5) 생원시 1등 5인 가운데 5위에 광주에 사는 유학 김석(金礪)의 이름이 나온다.³¹⁵ 또 1476년(성종17) 식년시 병과 7위에 광산 출신으로 나온다. 예조정랑을 지냈다. 부친은 봉정대부 평양서윤 김순성(金順誠, 1429~1481)이다.

김석의 아들은 김세우(金世愚, 1486~1522)로 적성현감을 지냈다. 김세우는 1513년(중종8)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했다. 김세우는 전적(典籍)을 역임하였으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료들의 시기를 받아 적성현감으로 나갔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어려움과 민원을 잘 해결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동국여지승람》도 김세우는 유일하게 적성현의 명관으로 적고 있다.³¹⁶

314 《중종실록》 중종 4년(1509) 10월 16일, 元宗又引成宗朝金礪之事而啓之, 此尤非大臣之所當言也. 礪雖發明, 成宗終不齒於淸班, 竟死於光山縣監.

315 네이버블로그 일상, <https://blog.naver.com/glss2/222621953837>, 1474년 사마방목 생원. (2022.9.20. 인용)

한때 김석은 평양부서윤 안선(安璿, 1440~1498)과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었다. 김석은 어머니의 상례 동안에 기녀를 간음한 죄로 추국당한 적이 있는데, 이는 안선이 무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되어 이 일로 안선이 파직되었다.³¹⁷ 안선은 의금부에서 김석이 자신의 5촌인 안관후(安寬厚)의 노비를 죽인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무고하였다고 밝혔다.³¹⁸ 이후 이창신(李昌臣), 권유(權瑠), 윤민(尹愨) 등은 안선의 옹호에 나섰는데 ‘계획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다’라거나, ‘김석의 살인은 명백하다’라는 등으로 변호하였다. 하지만 성종은 안선을 조정에 부르는 것을 반대하였다.³¹⁹

이 일은 1487년(성종18) 김석이 의금부에 간혀 국문을 당하면서 자신은 무고하다는 상소를 올렸다. 결국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일이므로 추론하여 죄를 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사관은 김석이 상중에 간통했을 것이라고 기록했다.³²⁰

3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9516 (2023.4.12. 인용)

317 《성종실록》 성종 9년(1478) 11월 3일, 성종 18년(1467) 11월 10일, 성종 18년(1467) 11월 18일, 성종 19년(1468) 1월 13일, 성종 19년(1468) 2월 20일.

318 《성종실록》 성종 19년(1468) 2월 13일.

319 《성종실록》 성종 19년(1468) 2월 21일, 성종 22년(1471) 9월 26일.

320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석이 그 형(兄) 김하(金訶)·김거(金覿)와 더불어 상중(喪中)을 무릅쓰고 기생을 간통한 것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널리 전파되었었다. 세속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모상(母喪)을 당하면 소상(小祥) 뒤에는 흑립(黑笠)을 쓰는데, 김석 등만이 백립(白笠)을 썼었다. 어떤 유생이 밤에 그 집 문(門)에 쓰기를, ‘그 갓[笠]은 검게 하더라도 마땅히 그 마음은 회개 하라’ 하였다. 이곳에 사는 생원 허규(許揆)의 계집종[婢]이 음률(音律)을 해득(解得)하였는데, 김거와 김석이 서로 간통하였다. 허규가 그 계집종을 꾸짖기를, ‘형제가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서로 간통하느냐?’ 라고 말하고, 그 사람됨을 더럽게 여기어 그 계집종에게 다시 간통하지 못하게 금(禁)하였으나, 그치지 않았다” 하였다. 성종 18년(1487) 11월 18일.

27. 신한(申漢, ?~?), 재임 : 1500?~?

신한(申漢)은 《광주읍지》에 연산군 7년(1501)에 목사로 승격했다고 기록했다.³²¹ 그렇다면 이전 광산현 시절에 현감으로 있다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무렵은 연산군 재위 기간(1496~1506)인데 《연산군일기》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광주읍지》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연산군 7년(1501)’에 목으로 승격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일부 기록에서는 신한(申漢)은 신한(申瀚, 1482~1543)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7. 신한(申瀚)> 편에 기술되었다.

28. 이줄(李茁, 1448~1528), 재임 : ?~1507

이줄(李茁)은 《광주읍지》에 광주목사에 관한 기록이 없지만 《광주향교지》에는 올라 있다. 이줄은 연산군 말기에 광주목사로 부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506년 증중반정 때 이줄이 동참하기를 미적거린 일이 있어 ‘광주목사 이줄’의 죄를 추국하자는 내용이 있다.³²² 이때까지 광주목사로 재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줄에 대한 추국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달 뒤 증중은 “이줄을 원종공신록에 올리라고 명을 내렸다”³²³라고 한다. 이 기록으로 보아 증중은 그를 외척이라는 이유로 두둔하여 추국하지 않았던 것

321 弘治辛酉燕山七年陞爲牧.

322 이줄이 광주목사로 언제 부임했는지에 대해 실록의 기록은 없으나 증중반정 전후의 기록에서 광주목사로 재임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증중실록》 증중 2년(1507) 5월 13일.

323 《증중실록》 증중 2년(1507) 6월 17일, 좌의정 박원종(朴元宗), 우의정 유순정(柳順汀), 좌찬성 박안성(朴安性), 우찬성 송일(宋軾), 좌참찬 이손(李蓀), 우참찬 이즙(李諶)이 왕비 책봉을 건의하니 윤여필의 딸을 왕비로 삼을 것을 명하는 자리에서 좌의정 등이 한 말이다. 頃者命李茁, 錄原從功臣.

으로 보인다.³²⁴

이줄의 본관은 고성으로 자는 백아(伯牙)이다. 증조부는 이원(李原), 조부는 이질(李埴), 부친은 이칙(李則)이다. 이줄은 음사(蔭仕)로 관직에 나아가 무과에 급제했다. 1490년 도총부도사, 1491년 강원도 경차관과 공조정랑을 지냈다.

1508년 홍문관 부제학 이세인(李世仁) 등은 이줄이 사관과 언관을 물리치고 임금과 혼자 만난 일을 자랑하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임금이 계시는 편전의 앞문[閣門]으로 은밀히 다니면서 혼자 찾아가 임금에게 말을 건네는 일은 조정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법대로 추국해야 한다고 했으나 중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³²⁵ 이 문제는 1509년까지 약 7개월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513년 중종은 남포(藍浦)에 귀양 간 이줄을 경기(京畿)로 옮기도록 했다. 이줄이 임금의 외척이었으므로 이줄의 어머니가 소를 올린 데 따른 것이었다.³²⁶ 그 뒤로도 이줄은 스스로 외척이라는 배경을 내세워 유배 중에도 제 맘대로 돌아다니는 물의를 일으키자 1515년 3월과 4월에도 연달아 이줄을 탄핵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³²⁷

324 이줄은 성종의 장인인 윤호의 외사촌 아들이다.

325 《중종실록》 중종 3년(1508) 12월 7~8일, 중종이 이처럼 이줄을 챙기는 것은 중종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알던 사이이고 또 외척(外戚)이기 때문이다.

326 이줄의 어머니는 이칙(李則, 1438~1496)의 아내 안동권씨(權氏)를 말한다. 호조좌랑(佐郎) 권온(權溫)의 딸인 안동권씨는 5남 3녀를 두었는데 이줄이 장남이다. 《중종실록》 중종 8년(1513) 11월 12일, 이를 뒤에 조정에서 대간 등이 이줄의 경기지역 양이는 안 된다고 했으나 중종이 이를 밀어붙여 16일 경기지역 고을에 살도록 명령했다. 소의 내용은 《중종실록》 중종 11년(1516) 2월 28일 기록의 부기에서 “늙고 병든 몸으로서 3자녀를 잃었고 아들 이줄(李苗)도 나이 70에 가까운데 중풍이 들어서 목숨이 조석에 달렸으니, 청컨대 생전에 서로 만나보게 하여 주소서”라고 간청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중종실록》 중종 15년(1520) 2월 15일 기록에 이줄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나이 80이 넘었다고 한다.

327 《중종실록》 중종 10년(1515) 3월 27일, 4월 1일, 4월 12일, 이줄은 왕의 사면을 받아 경기지역에 와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여러 물의를 일으키자 대간 등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아는 큰 간적이므로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종은 1520년 1월 이줄이 귀양 간 지 13년이나 되었다면서 방면하라 했다. 그러나 사관은 《중종실록》에 덧붙이기를 이줄은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을 빙자하여 소를 올렸는데 그가 올라와서는 몰래 궐내로 들어가 사림(士林)을 해치는 일을 모의하였고, 그 일을 이루려는 마음이 사특하여 그 죄가 조정에 관계된 것이었다고 하였다.³²⁸

이 일은 1527년까지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줄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는 건의와 탄핵을 했지만 중종의 비호로 목숨을 잃지는 않아 나이 70이 넘도록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29. 이세정(李世貞, 1461~1522), 재임 : 1507~?

이세정(李世貞)은 47세 때인 1507년 여름에 모친이 나이가 들어 모친 봉양을 위해 외직으로 나가 광주목사가 되었다. 임기가 다 되어 장례 원판결서로 내직으로 들어왔다가 형조와 병조 그리고 예조참의를 두루 거쳤다.³²⁹

이세정의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자는 중권(仲權)이다. 보문각 직제학 이지직(李之直)의 증손이며, 조부는 우의정 이인손(李仁孫), 부친은 의정부 좌찬성 이극돈(李克墩)이다.

1490년 음직으로 관직에 나아가 와서별제, 1496년 내자시주부, 방악원주부, 사헌부감찰, 충흥부경력 등을 지냈다. 1501년(연산군7) 식년 문과에 14등으로 급제하여 사헌부장령에 올랐고, 군기시청정, 승문원참교, 세자시강원보덕에 제수되었다. 1503년 통정대부 병조참지에 제수되었다가 이듬해 남해로 유배를 갔으나 중종반정으로 다시 조정에 복귀하여 예조참의와 병조참지로 있었다.

328 《중종실록》 중종 15년(1520) 1월 8일.

329 성남문화원(2003), 《성남금석문대관》, 묘갈, 이세정.

다시 외직으로 나가 1512년 전주부윤, 1516년 해주목사, 1520년 전라도관찰사가 되는 등 모친 봉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1525년 호조참의에 제수되었다가 1526년 겨울에 병으로 사임하였다. 1528년 가을에 이조참의로 제수되었고, 겨울에 모친상을 당한 뒤 11월 26일에 졸하였다.

이세정 묘갈명은 ‘통정대부수전라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이공지묘 정부인전주이씨 병장(通政大夫守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李公之墓 貞夫人全州李氏 并葬)’이라는 비문이 있다. 1533년(중종28) 건립된 묘 같은 이사균(李思鈞)이 짓고, 아들 이수완(李秀莞)이 썼으며, 춘추관수찬관 윤안인(尹安仁)이 비에 전액을 썼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7호이다.

30. 남울(南慄, 1452~?), 재임 : 1510~?

남울(南慄)은 《광주읍지》에 광주목사 관련 기록이 없으나 《광주향교지》에는 올라 있다. 남울이 광주목사에 제수될 때 대간이 나서서 증중에게 이를 말렸다고 한다. 남울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증중은 대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510년(중종5) 남울을 광주목사에 제수한다.³³⁰

남울의 본관은 의령, 자는 자직(子直)이다. 남울의 고조부는 조선의 개국공신인 남재(南在)이며, 그의 외조부는 강희맹(姜希孟)의 아버지인 강석덕(姜碩德)이다.³³¹ 남울은 1472년(성종3) 생원시에 입격하고, 1489년(성종20) 식년시 을과 3위로 급제했다. 1493년 예조좌랑으로 있었는데 말 한 필을 하사받았다. 이어 통덕랑, 사헌부지평을 거쳐 1502년 군자감부정을 지냈다.

330 《중종실록》 중종 5년(1510) 1월 12일.

331 정두희, “朝鮮 成宗代 臺諫을 배출했던 主要家門에 관한 檢討”, 국사관논총 12, pp.57~7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2023.4.13. 인용)

남율은 1507년 중종 시절에 대사간에 올랐다. 정언 김정(金淨)이 나서 “대사간 남율은 본디 술병[酒病]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우리를 만하 명망이 부족하여 사간원의 책임자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한다.³³² 중종은 이런 간언을 받아 남율을 체직하였다.

영사(領事) 성희안(成希顔, 1461~1513)은 남율의 탄핵이 정당함을 잃었다고 변호하고 나섰지만, 대간은 남율이 술로 저지른 과실이 있으므로 사간원 장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³³³ 이런 일로 광주목사 제수 때 논란이 되었지만, 중종은 외직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추강집(秋江集)》에 ‘벗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모포(毛浦)를 건너 압구정(狎鷗亭)에 오르다’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숙부 보병처럼 어질고’³³⁴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숙부는 남율을 가리킨다. 아마도 두 살 터울의 숙부인 듯하다.

31. 이원성(李元成, ?~?), 재임 : ?~1511?

이원성(李元成)은 《광주읍지》나 《광주향교지》에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없다. 대신 1511년 이원성이 칠참찰방(七站察訪)³³⁵으로 있을 때 성희안(成希顔, 1461~1513)이 중국 문제를 논의하면서 “우리

332 《중종실록》 중종 3년(1508) 1월 28일. 김정(金淨)은 1507년 3월 25일 중종이 참석하여 책문을 낸 과거에서 급제하였고, 1508년 1월 26일 사간원정언에 제수되었는데 이를 뒤에 대사간 남율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333 《중종실록》 중종 3년(1508) 3월 1일.

334 남효온, 《추강집》, 吾宗步兵賢. 여기에서 보병은 군대의 사병이 아니라 진(晉)나라 보병교위(步兵校尉)를 역임한 완적(阮籍)을 말한다.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일원인 완함(阮咸)이 조카이기 때문에 완적은 숙부의 대명사, 완함은 조카의 대명사가 되었다.

335 칠참은 황해도 연변에 설치되어 외교사절의 접대를 담당하던 일곱 개의 역으로 중국 사신이 왕래할 뿐만 아니라 상시로 사신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다. 이곳의 찰방은 종6품의 외관직으로 군졸의 부역과 역마 관리 등의 일을 감당하므로 관직이 높고 이름 있는 조정 신하 중 명망 있는 문관 중에서 뽑아서 보내도록 하였다.

에게 사대(事大)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문관(文官)으로 파견하여 보내야 하는데, 광주목사(光州牧使)인 이원성이 건습병(蹇濕病, 일종의 고관절염) 때문에 갈리어 왔으나 칠참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바뀌었다는 기록이 있다.³³⁶

따라서 이원성은 1511년 이전에 광주목사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86년(성종17) 식년시 병과에 12위로 급제했다.

이원성은 본관이 장흥이며,³³⁷ 자는 성지(成之)이다. 선계 등 다른 가족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1494년 선무랑(宣務郎) 사간원정언, 1502년 헌납, 1507년 사헌부장령, 1509년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있다가 여기(女妓)의 입역(立役)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탄핵받았다.³³⁸

32. 정순(鄭洵, 1456~1527), 재임 : 1523~1524

정순(鄭洵)은 《조선왕조실록》이나 《광주읍지》, 《광주향교지》 기록에서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1523년 당상관으로 승격되어 광주목사에 제수된 내용이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이 쓴 정순의 묘표에 나온다.³³⁹

정순의 본관은 영일이며 자는 노천(老泉)이다. 지의정부사 정홍(鄭洪)의 증손으로 조부는 병조판서 정연(鄭淵), 부친은 김제군수 정자숙(鄭自淑)이다.

336 《증종실록》 증종 6년(1511) 12월 6일, 7참은 고려와 조선 때 서울에서 의주에 이르는 통로에 있던 7개의 중요한 역참(驛站)으로 우리나라의 사신과 중국의 사신이 묵고 가던 곳이다. 의주·정주·안주·평양·황주·개성·한양의 7개 역참을 말한다.

337 장흥이씨(長興李氏)의 시조는 이다조(李多祚, ?~707)라고도 한다. 《장흥이씨세보》.

338 《증종실록》 증종 4년(1509) 2월 2일.

339 김안국, 《모재집(慕齋集)》 권13, 통정대부장례원판결사정공묘표(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鄭公墓表), “嘉靖癸未, 陞堂上官, 拜光州牧使. 光近古阜, 民熟公政, 皆慶曰.”

김안국이 쓴 ‘통정대부장례원판결사정공묘표(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鄭公墓表)’를 보면 1523년(癸未), 68세 때에 광주목사로 부임했다. 이 기록을 요약하면 1477년 진사, 1482년 천거를 받아 중부참봉이 되었으며 사헌부감찰, 장예원사평(정6품), 사의, 사헌부지평, 제용감첨정을 지낸 뒤 1507년 고부군수가 되었다. 고부군수로 있을 때는 지역민들의 일을 능숙하고 공정하게 다루었다고 한다. 군수 재임 때인 1510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1512년(중종7) 간원이 “지난번 승지에 꺾원이 있어 이조(吏曹)에서 상의원정 정순을 임금에게 추천하였는데,³⁴⁰ 대저 승지는 물망과 경력이 있는 자를 택하여 올릴 것이거늘, 지금 정순으로 보면 처음 음직으로 고부군수가 되었고, 과거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 물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순을 추천하는 것은 반드시 (사사로운) 정리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했다.³⁴¹

이에 대해 중종이 전교하기를 “정순을 비록 승지의 물망으로 천거하였으나, 이조가 어찌 사의(私意)를 써서 그랬겠는가. 나머지도 모두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³⁴²

정순은 1515년 60세의 나이에 은계찰방(銀溪察訪)에 제수되었으나 사헌부가 예전의 일로 서용이 불가하다고 했다. 하지만 중종이 윤택하지 않았다.³⁴³ 그 뒤 정순은 사재감정, 사도시정, 통례원우통례, 원주목사와 승문원판교 겸 춘추관수찬관 등을 역임하였다.

1523년 통정대부에 오르면서 광주목사가 되었다고 하나 《중종실록》

340 이때는 이조판서 송일(宋軼)의 천거로 승지에 주의(注擬)되었다. 송일과 정순은 같은 나이였다.

341 여기서 사사로운 정리는 고부군수로 있을 때 송일의 청을 들어주어 관둔전의 사취를 방조하고, 관곡으로 파종시켜 준 것과 관련되어 천거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342 《중종실록》 중종 7년(1512) 5월 12일.

343 《중종실록》 중종 10년(1515) 3월 18일.

기록에서 볼 수 없다. 1524년에 장례원 판결사, 첨지중추부사(정3품)를 지내다가 1527년 병으로 졸하였다.

33. 송흙(宋欽, 1459~1547), 재임 : 1524~1525

송흙(宋欽)은 《광주읍지》에 광주목사에 부임한 기록이 없다. 하지만 《광주향교지》의 기록에는 올라 있다. 송흙은 1524년(중종19) 정3품 통정대부에 올라 전주부윤으로 나갔다가, 이어서 광주목사와 나주목사를 연임하였다. 광주목사로는 짧은 기간 재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 16세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문신 중의 한 명이다. 1524년 전라감사 이사균이 보고하기를 “나주목사 송흙은 광주목사로 있을 때부터 세금부과를 줄이고 형벌을 삼가서 청렴하고 근신한 것이 매우 뚜렷하였으므로 그가 떠난 뒤에도 백성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중종은 옷감 1습(襲)을 하사했다.³⁴⁴ 이로 미루어 보면 송흙은 1524년 이후 전주부윤, 광주목사, 나주목사에 이르는 등 호남의 가장 큰 지역을 도맡은 셈이 됐다.³⁴⁵

송흙의 본관은 신평, 자는 흙지(欽之), 호는 지지당(知止堂) 또는 관수정(觀水亭)이며³⁴⁶ 지금의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정각마을(당시는 영광)에서 태어났다. 참판 송구(宋龜)의 증손으로, 조부는 예조좌랑 송처은(宋處殷)이고, 부친은 경복궁 문소전 참봉 송가원(宋可元)이다. 모친

344 《중종실록》 중종 19년(1524) 9월 7일.

345 송흙은 제84대 나주목사로 1524년(중종19) 8월 임소에 도착하여 1525년(중종20)에 모친의 병으로 사직서를 관아에 제출했다.

346 지지당의 ‘지지(知止)’는 ‘그칠 줄을 안다’라는 것이다. 노자 《도덕경》에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춤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라고 하였다. 기묘사화 후 스스로 지지당이라고 호를 지었다. 관수정의 ‘관수(觀水)’는 “맑은 물을 보고 나쁜 마음을 씻는다”라는 뜻이다. 전라일보, <http://www.jeollailbo.com>, (2023.4.16. 인용)

은 생원 정필주(鄭弼周)의 딸이다.³⁴⁷ 부인 하음봉씨(河陰奉氏)는 감찰 봉인(奉寅)의 딸인데, 자녀는 4남 1녀를 두었다. 장남 송익침(宋益忱)은 병조참의에 추증되었고, 차남 송익경(宋益憬)은 낙안현령을 지냈으며 3남 송익순(宋益恂)은 참봉을 지냈다.

송흠은 1480년(성종11) 사마시에 합격하고, 1492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 정자에 보임되어 박사로 승진하였다. 이어 연산군 때에 홍문관수찬, 사간원정언으로 있다가 곧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버이를 봉양하였다.³⁴⁸ 1500년(연산군6) 대사헌 안침(安琛, 1445~1515)의 추천으로 사간원 헌납에 제수되었다.³⁴⁹

1502년(연산군8)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의 상례를 마치고 1504년에 남원교수에 임명되었다. 그때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짐작하여 연산군에게 간언을 올렸다가 장(杖) 1백 대를 맞고 벼슬에서 쫓겨났다.³⁵⁰ 고향 영광으로 돌아가서 후진들을 가르치고 경적(經籍)을 강론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였다. 이때 그의 문하에서 많은 제자가 배출되었다.³⁵¹

1506년 중종반정 직후에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연로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외직을 자청해서 보성군수로 나갔고, 옥천군수·

347 장성군민신문, “청백리 송흠 선생의 태생지 정각마을”, 2005.5.10. (2023.4.13. 인용)

348 송흠이 아버지가 늙었다 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봉양하겠다는 뜻을 정언이 된 지 보름만인 1497년 7월 2일 연산군에게 청하자 “아버이를 뵈고 오라”라는 특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송흠은 안 되겠는지 50여 일 뒤인 8월 22일 사직소를 내고 “근친하고 오라는 명보다는 충성과 효도는 한 가지이며 임금을 섬길 날은 길지만 부모를 섬길 날은 짧으니 정리가 절박하여 사직을 청한다”라는 뜻을 밝힌다.

349 안침이 연산군에게 송흠을 서임하라는 추천은 《연산군일기》 연산군 6년(1500) 1월 12일 기록에서 볼 수 있는데, 실제 헌납으로 임명된 것은 그로부터 8개월 뒤인 8월 21일이었다.

350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1504) 6월 10일, 이 사건은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의 복위 문제로 인해 발생한 갑자사화를 말한다. 연산군은 폐비 윤씨의 복위를 추진하면서 성종 때 폐비를 찬성한 훈구파 원로 세력을 대부분 숙청했다.

351 송흠의 대표적인 문하(門下)로는 면앙(旻仰) 송순(宋純, 1493~1583)과 학포(學圃) 양팽손(梁彭遜, 1488~1545) 등이 있다.

순천부사·여산군수를 연임했다. 1515년(중종10) 10월 충청도절도사 김연수(金延壽), 담양부사 박상(朴祥)과 함께 청백리로 선발되어 옷감 한 벌씩을 하사받았다.³⁵² 이어 사헌부장령, 전주부윤, 의정부 사인을 역임하였다.

1516년 홍문관정자, 1518년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뒤 체직되었다. 1519년 동부승지로 발탁되었으나 이 해 기묘사화³⁵³로 인해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식(金湜) 등 사림파의 젊은 선비들과 연산군 축출 이후 중앙 정계에 진출했던 진보적 사림파들이 다시 한번 정계에서 밀려 나간 사건이 벌어지자 벼슬에 회의를 품고 낙향했다.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시냇가에 관수정(觀水亭)을 지어놓고 임억령, 나세찬, 김인후, 양팽손, 그리고 조카인 송순 등과 교유한다. 송흠은 ‘물의 철인이요 물의 시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향리에 돌아와 지내다가 다시 1524년 65세에 광주목사가 되었고 나주목사를 거쳐 1528년(중종23) 승정원 도승지로 영전되었다. 이듬해 담양부사로 나갔다.³⁵⁴

1532년(중종27) 종2품 가선대부에 올라 장흥부사와 남원도호부사를 역임하였다. 노모의 봉양 외에는 처자와 노복이 굶주림과 추위를 겨우 면할 뿐, 관직에서 떠나 돌아오는 날에는 집에 한 섬의 곡식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청렴했다. 1534년 그의 나이 77세 때 전라감사에 임명되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연세가 99세였다. 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모친은 103세까지 장수하였다.

352 《중종실록》 중종 10년(1515) 2월 16일, 당시 여산군수였는데 1516년 1월 14일까지도 재임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353 1519년 11월 남근, 심정, 홍경주, 김전 등이 중종(中宗)을 설득하여 조광조, 김식, 기준, 김정, 한충 등이 극형을 당했고 나머지 사림들도 대부분 귀양 가거나 정계 진출이 좌절되었다.

354 《중종실록》 중종 24년(1529) 6월 9일과 중종 25년 3월 8일에 담양부사로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1538년 청백리에 녹선되고, 그 뒤 한성부좌윤이 되었으나 오래되지 않아 사직하였고,³⁵⁵ 이듬해인 1539년 공조판서, 1540년 의정부우찬 등을 역임했다. 103세를 산 노모로 인해 전후 7회에 걸쳐 효렴(孝廉)으로 상을 받았다.

송흠이 80세가 넘었다고 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 영광으로 돌아갈 때 증중이 경회루(慶會樓) 남문에 술자리를 베풀어 작별하고, 찬성 김안국(金安國, 1478~1543)과 참찬 권벌(權穰, 1478~1548), 형조판서 유인숙(柳仁淑, 1485~1545)과 사인(舍人) 송인수(宋麟壽, 1499~1547), 김노(金魯, 1498~1548) 등 삼공(三公) 이하 조정의 명신들이 모두 남대문 밖까지 나가서 그를 전송하였다고 한다.

그 뒤에도 1543년(중종38) 특별히 종1품 승정대부에 올리고 증추부판사에 임명하여 경연지사를 겸임하게 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듬해 전라감사 송인수(宋麟壽)가 영광군에 순찰 나가, 판증추부사 송흠을 위해 기영정(耆英亭)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사관이 쓴 송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⁵⁶

송흠은 이 고을 사람이고 정자는 곧 송인수가 조정에서 숭상하고 장려하는 뜻을 이어받아 세운 것인데, 이때 이르러 잔치를 베풀어 영광스럽게 해 준 것이다. 송흠은 청결한 지조를 스스로 지키면서 영달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걸군(乞郡)하여 10여 고을의 원을 지냈고 벼슬이 또한 높았지만, 일찍이 살림살이를 경영하지 않아 가족들이 먹을 식량이 자주 떨어졌었다.

355 《중종실록》 중종 33년(1538) 3월 28일, 한 달 뒤인 4월 28일 송흠이 사직을 청했으나 증중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9월 9일 재차 사직 상소를 올리자 그때는 받아들였다. 증중은 “지난번 경이 사직할 때에는 기력이 노쇠하지 않아서 직무를 수행할 만하였기 때문에 윤택하지 않았다. 지금 상소의 내용을 보니, 매우 애절하므로 윤택한다”라고 말했다.

356 《중종실록》 중종 39년(1544) 3월 22일.

육경(六卿)에서 은퇴하여 늙어간 사람으로는 근고(近古)에 오직 이 한 사람뿐이었는데, 시냇가에 정자를 지어 관수정이란 편액을 걸고 날마다 한가로이 만족하게 지내기를 일삼았으므로 먼 데서나 가까운 데서나 존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젊어서부터 집에 있을 적이면 종일토록 의관을 반듯하게 하고 조금도 몸을 기울이지 않고서 오직 서책만을 대하였고, 고을 안의 후진을 접할 때는 비록 나이가 젊은 사람이더라도 반드시 당에서 내려가 예절을 다했었다.

그의 어머니도 가법이 또한 엄격하여 감히 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고 나이가 1백 살이었다. 송흠 또한 90이 가까운데도 기력이 오히려 정정하였다. 특별히 조정에서 송품(崇品)을 총애하는 은전을 입게 되었으므로 논하는 사람들이 인자한 덕의 효과라고 했었다. 도내에서 재상이 된 사람 중에 소탈하고 담박한 사람으로는 송흠을 최고로 쳤고, 박수량(朴守良)을 그다음으로 친다고 하였다.

1547년(명종2) 11월 15일에 향리의 집에서 졸하니, 89세였다. 영광의 수강사(壽岡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송흠은 수학에 정통했다고 한다.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에 송흠과 관련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송흠이 홍문관에 있을 때 최부(崔溥)가 송흠이 역마를 사사로이 탄 것을 조정에 아뢰어 파면된 적이 있었다. 송흠은 최부의 경계를 받아들여 나중에 지방 수령으로 부임할 때 ‘신영(新迎)의 말(馬)’을 세 필로 제한하여 ‘삼마태수(三馬太守)’라고 불렀다 한다.³⁵⁷

남정중(南正重, 1653~1704)의 《기봉집(碁峯集)》 권2에 송흠을 영광 수강사에 봉안할 때 지은 제문이 있고, 이선(李選, 1631~1692)의 《지호집(芝湖集)》 권12에 송흠의 행장이 실려 있다. 기언정(奇彦鼎, 1716~1797)의 《나와집(懶窩集)》 권8에 송흠의 문집인 《지지당유고

357 이공익, 《연려실기술》 권6, 연산조 고사본말과 별집 제8권 관직전고(官職典故).

(知止堂遺稿)》의 발문이 있다.

특히 송순(宋純, 1493~1582)의 《면앙집(俛仰集)》에는 송흙의 문하 생을 기록한 ‘동문록’이 실려 있어³⁵⁸ 동문의 기록을 살펴본다면 더 많은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호산춘(壺山春) 이야기

송흙이 여산군수로 있을 때 특별한 방법으로 술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호산춘(壺山春)이라고 하였다.³⁵⁹ 송흙이 개발한 ‘호산춘’은 여산의 전통주로서 조선시대 4대 명주의 하나가 되었다.³⁶⁰ 경북 문경의 호산춘이 경북 무형문화재이고, 전북 여산의 호산춘도 전북 무형문화재이다.

송흙의 문집인 《지지당유고》에 호산춘의 제조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술의 특징은 밑술을 두 번 담그고 다시 덧술을 하여 세 번을 담그는 데 있다.³⁶¹ 조선 중엽 이후의 《산림경제》³⁶², 《주방문》³⁶³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청명주 부분을 보면 청명주는 금천(金遷)의 것이 유명한데, 평양 감홍로, 한산 소국주, 흥천 백주, 여산 호산춘도 온 나라에 명망이 높다고 나와 있다.³⁶⁴ 이밖에 윤원거의 《용서집》,³⁶⁵ 박미의 《분서집》,³⁶⁶ 남용익의 《호곡집》³⁶⁷ 등 다수의 시문집에 호산춘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익의 《성호전집》 가운데 중해(仲解)가 호산춘을 가지고 와서 함께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사려한 시를 보면, ‘호산춘 술 빛이 잔에 그득 담겼으니 그대의 깊은 정에 감사해 백 잔도 불사하리’³⁶⁸라는 글귀가 있다. 백 잔을 마신다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좋은 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58 송순, 《면앙집》 권6.

359 이공익,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9, 증중조 고사본말.

360 여산(礪山)의 옛 이름이 호산군(壺山郡)이다. 여산의 별호가 호산(壺山)이라는 데서 ‘호산춘’이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361 송흙, 《지지당유고(知止堂遺稿)》 권3.

362 홍만선, 《산림경제(山林經濟)》 권2, 치선(治膳).

363 《주방문(酒方文)》은 1700년대 초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 28종의 술 만드는 법으

34. 양계벽(梁季璧, ?~?), 재임 : ?~1530?

양계벽(梁季璧)은 《광주읍지》에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없으나 《광주향교지》 기록에는 올라 있다. 양계벽은 본관이 제주이며, 자는 가수(可售)이다. 1498년(연산군4) 식년시 3등 17위로 급제했다. 증조부는 양호(梁好)이며, 조부는 양한달(梁漢達), 부친은 양진손(梁震孫)이다.

양계벽이 1531년 중국으로 보내는 각종 직물류를 관장하는 정3품 제용감정(濟用監正)으로 있기 이전에 광주목사로 있으면서 잘못된 일이 많아 파직한 바 있으니 다시 같은 품계로 서용하는 안 된다며 이를 개정하라는 내용이 나온다.³⁶⁹ 하지만 증중은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530년에도 대간이 양계벽의 이러한 일을 증중에게 알렸으나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또 있다.³⁷⁰ 즉 이를 통해 양계벽은 1530년 이전에 광주목사로 재임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계벽은 연산군 때인 1504년(연산군10) 사간원 정언, 1505년 춘추관기사관이었는데 과거 경연에서 간쟁 사실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일로 의금부에 갇힌 적이 있다.³⁷¹ 1505년 사간원헌납이 되었고 연

에도 음식 조리와 가공법을 소개한 조리서이다.

364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淸明酒辨證說.

365 윤원거, 《용서집(龍西集)》 권5, 시.

366 박미, 《분서집(汾西集)》 권2, 오언율시.

367 남용익, 《호곡집(壺谷集)》 권8, 오언절구.

368 이익, 《성호전집(星湖全集)》 권2, 시, 壺山春色栝心凸 感子情深百不辭.

369 《증중실록》 증중 26년(1531) 1월 22일, 濟用監正梁季璧, 前爲光州牧使時, 多有誤事, 故見罷矣, 未久而還敍準品. 請改正.

370 《증중실록》 증중 25년(1530) 7월 20일, 21일.

371 《연산군일기》 연산군 11년(1505) 2월 8일, 1503년 2월 15일 대사헌 최한원(崔漢源)이 '한어(漢語)는 경연에서 진강(進講)하기에 마땅하지 못하니, 만약 폐지할 수 없다면 경연 뒤에 보시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정언 정침(鄭沈)이 '임금의 일은 본디 많으므로 전업(專業)하기는 못하실 듯합니다' 라고 말한 일이다. 당시의 기사관이 양계벽과 조계형(曹繼衡)이다.

산군의 '흥청망청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흥청(興淸)을 둔 데 대한 시비(是非)를 옳시로 지어 바치라는 명이 떨어졌을 때, 양계벽이 옳시를 올려 술과 과일을 하사받았다.³⁷²

이처럼 양계벽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자 곳곳에서 탄핵의 소리가 높았다. 이는 양계벽이 전에 경기도 광주목사(廣州牧使)에 있을 때도 병을 빌미로 사직했는데, 다시 전적(典籍)에 임명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다.³⁷³ 1525년(중종20) 파주목사(坡州牧使)일 때는 고을에 들어온 범법자의 가족이 도망가도록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유로 파직당하기도 했다.³⁷⁴

35. 남효의(南孝義, 1474~1551), 재임 : 1530

남효의(南孝義)는 《광주읍지》나 《광주향교지》에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없다. 다만 1530년(중종25) 송순(宋純, 1493~1583) 등 몇 명의 조정 대신들이 대간 출신인 남효의를 외방의 광주목사로 삼은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말한 부분이 있어 광주목사로 제수했다가 체직했다는 기사가 있다.³⁷⁵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송순(宋純)이 아뢰기를, “남효의가 전에 대사간이 되었을 때 자기와 관계없는 일을 망령되게 자기 의견인 양 고집하여 다른 대간과 서로 용납되지 못해서 이 때문에 파직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징계하기에 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명으로 광주목사로 삼은 것은 폄출(貶黜)하는 듯한 점이 있습니다. 좋고 나쁨에 대한 시비는 진실로 논할 일도 못 된다손 치더라도 대간을 대우하는 도리

372 《연산군일기》 연산군 11년(1505) 6월 22일.

373 《중종실록》 중종 10년(1515) 3월 30일.

374 《중종실록》 중종 20년(1525) 12월 10일.

375 《중종실록》 중종 25년(1530) 2월 28일.

에 어떻다고 여기십니까? 예부터 대간에게 비록 과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너그러운 은혜로 대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긴하지 않은 일로 이처럼 외방으로 축출한다면 뒷날 임금의 위엄 아래에서 떨쳐 일어날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즈음에는 목사에 꺾원이 있으면 전조(銓曹)에서 주의(注擬)에 어렵다 하여 육시칠감(六寺七監)³⁷⁶의 정(正)으로 의망(擬望)하는데, 그 정도 차임시키기가 곤란하다. 더구나 광주는 큰 곳이므로 마땅히 가려서 차임해야 할 자리이며, 남효의는 현재의 대간이 아니라 호군(護軍)으로 있다가 파직되었으니, 파직된 채 서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목사라도 삼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였다.

헌납 김언(金滙, 1495~1553)이 아뢰기를, “남효의가 고집하고 홀로 사직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야 어찌 사심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비록 인물이 모자란다고 하나 만약 이것 때문에 축출당하게 된다면 후일의 폐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양사(兩司)의 의논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지사 이항(李沆, 1474~1533)은 아뢰기를, “상(賞)과 벌(罰)이 정실(情實)과 맞아야 권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남효의가 파직될 때에 여론이 부당하다 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외임(外任)을 중대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당(唐)나라와 송(宋)나라 시대에는 대간(臺諫)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좌천(左遷)시켜 오래 외임으로 삼곤 하였으니, 이러한 고사(古事)로 관찰하면 이것은 바로 편출입입니다. 상께서 외임을 중히 여기시어 대간을 이렇게 외임에 제수하는 것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대간이 아뢴 말이 과연 합당합니다. 그를 조정에 둔다고 안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체직해야겠다” 하였다.

376 육조(六曹) 이외의 중앙의 중요한 관아의 총칭이다. 육시(六寺)는 태상시(太常寺)·종정시(宗正寺: 종부시(宗簿寺)·위위시(衛慰寺)·태복시(太僕寺)·사복시(司僕寺)·예빈시(禮賓寺)·사농시(司農寺: 전농시(典農寺))이고, 칠감(七監)은 대부감(大府監: 내부시(內府寺)·소부감(小府監: 소부시(小府寺))·장작감(將作監: 선공감(繕工監))·사재감(司宰監: 사재시(司宰寺))·군기감(軍器監: 군기시(軍器寺))·사천감(司天監: 서운관(書雲觀))·태의감(太醫監: 전의감(典醫監))을 말한다.

이 기록으로 보면 송흠이 광주목사를 지낸 것은 1524년까지이고, 후임으로 누가 왔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남효의는 1530년에 체직되었으므로 이 무렵 광주목사로 제수됐다.

남효의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중유(仲柔), 호는 지재(志齋) 또는 지소재(志素齋)이다. 조부는 남준(南俊)이고, 부친은 형조판서를 지낸 부호군 남회(南恢)이며, 어머니는 생원 박소정(朴蘇貞)의 딸이다. 생육신인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의 사촌 동생이다.³⁷⁷ 1511년 별시 문과에 등과했는데, 1513년 남효온이 신원되자 관직에 나아갔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남효의는 1514년 사간원정언, 1518년 병조정랑, 1519년 사간원헌납, 1520년 사헌부지평, 1521년 도감낭관, 봉상시첨정, 사헌부장령, 1522년 세자 시강원필선, 1523년 함경도군적경차관, 1524년 세자 시강원보덕, 사간원사간, 1527년 동부승지, 1528년 우부승지, 1529년 사간원대사간에 제수됐고 1530년에 대사간에서 체직되고 호군으로 있다가 파직되었다.

1532년 당시에는 전주부윤으로 있었다. 전주에서 선정(善政)을 베풀어 전라도 관찰사가 장계(狀啓)하기를, “전주부윤 남효의가 옥사를 공평하게 다스리고 성품이 너그럽고 몸가짐이 청렴하여 누명을 쓴 백성들이 없어서 온 고을이 편안합니다”라고 하니, 중종이 표리(表裏) 1벌을 상으로 하사하였다.³⁷⁸

1533년 지충부부사 겸 성절사, 1534년 한성부우윤, 경상감사, 1536년 공조참판, 강원감사, 1538년 함경감사, 1540년 사헌부대사헌, 호조참판, 1544년 형조판서를 지냈다. 1545년에는 사헌부에서 남효의가 늙고 병들었으며 재기(材器)도 모자라 육조(六曹)의 장관에 맞지 않는다

377 1511년(중종6)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는데 생육신인 남효온의 족친이라 하여 오래도록 현달한 관직에 오르지 못하였다. 1517년 함경도경차관에 임명되었다.

378 《중종실록》 중종 27년(1532) 2월 30일.

고 지적했다. 1548년에는 영의정 홍언필이 남효의가 70세가 넘었다며 기로소의 당상은 아니더라도 기영회(耆英會)에 참석하도록 요청했다.

36. 장세필(張世弼, 1447~1552), 재임 : 1530~1531

장세필(張世弼)은 《광주읍지》에 광주목사로 부임한 기록이 없지만 《광주향교지》 기록에는 올라 있다. 장세필은 1530년(중종25) 광주목사를 제수받았다. 그러나 사헌부에서 광주는 땅이 넓고 물산이 많은 곳이므로 장세필의 인품에는 목사직에 맞지 않는다고 건의했으나 중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³⁷⁹

장세필은 목사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531년 광주목사로 있을 때 나근내(羅斤乃)가 왕명을 사칭하고 의금부 나장인 척하며 쇠사슬을 갖고 목사 관아에 쳐들어와 장세필 목사를 뜰 아래로 끌어내린 뒤 죄목을 열거하며 질타한 일이 있었다. 뒤늦게 가짜임을 알게 된 장세필은 자신이 모욕당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태형만 때리고 풀어주었던 일이 있다.³⁸⁰

이 사실이 사헌부에 알려져 ‘식견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처사’라며 탄핵받아 파직되었다. 이로 보아 장세필은 1530~1531년을 전후해 광주목사로 재임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에서 이처럼 곤욕을 당한 사건은 그에게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1534년 강릉부사, 1538년 성주목사로 제수될 때도 체직당하는 빌미가 되었다. 강릉이나 성주가 광주보다 더 큰 곳이므로 목사로 적합하지 않다며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던 것이다. 1544년 사도시정(司隲寺正)을 지냈다.

379 《중종실록》 중종 25년(1530) 3월 8일.

380 《중종실록》 중종 26년(1531) 6월 16일.

장세필의 본관은 충북 진천, 자는 국보(國輔)이고 호는 만회재(晩悔齋)이다. 부친은 전 곡산부사(谷山府使) 장기손(張起孫)이다. 1507년(중종2) 증광시에 생원 3등 37위를 했다. 1513년(중종8) 좌랑으로 임명된 지 20개월도 안 되어 한 품 위인 함경도사에 임명되자, ‘승진 기한 30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라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결국 체직되었다.

조선 중기 호남 사림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하천(霞川) 고운(高雲, 1479~1530)의 무덤에서 출토된 만장과 옷을 비롯한 유물들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³⁸¹ 이 가운데 장세필이 광주목사 시절에 썼던 만장(輓章)이 들어 있었다. 하천 고운이 낙향해 있었지만 광주지역에서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증거이다. 당시 장세필이 지은 만시 ‘통훈대부 광주목사 장세필 삼가 아뢰며 운다[通訓大夫光州牧使張世弼拜哭]’는 다음과 같다.

茫茫宇宙幾豪英 넓고 넓은 이 우주에 영웅호걸 몇몇인고
塵土形骸獨有名 그의 몸은 죽었으나 이름은 높았다.
蜉蝣出沒同千古 하루살이 우리인생 예로부터 그러하니
不必悲歡死與生 죽고 사는 일에 어떤 슬픔과 기쁨 있을손가.

37. 신한(申瀚, 1482~1543), 재임 : 1531~1536

신한(申瀚)은 《광주읍지》에 기록이 없지만 《광주향교지》에는 올라 있다. 신한은 1531년부터 1536년까지 광주목사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보인다. 상당히 오랜 기간 재임하면서 불에 탄 희경루(喜慶

381 1986년 9월에 문중에서 묘지를 옮기다가 발견된 고운 묘 출토 유물 43점이 2001년 6월 26일 국가민속문화재 제239호로 지정되었다. 고운은 조선 중종 기묘사화 때 화를 입어 벼슬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중종 25년(1530)에 죽었다. 만장은 광주목사 장세필, 병조참판 황효현, 이조판서 홍언필 등 당시의 사대부들이 지었는데, 무덤 주인의 신분과 사회적 성향, 특징을 보여주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681563824026> (2023.4.15. 인용)

樓)를 복원했다. 1536년 무렵 광주에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심언광(沈彦光, 1487~1540)의 ‘희경루기(喜慶樓記)’를 보면 신한이 1531년(중종26) 가을 광주목사로 와서 업무처리가 더욱 엄격하고 명백하게 운영되었다고 했다. 2년이 지난 1533년 불의의 화재로 인해 희경루 누각이 소실되자 목사 신한과 읍민들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누각을 새롭게 짓기로 했다. 희경루에 쓰일 재목은 완도에서 좋은 나무를 별목하여 1년 뒤인 1534년(중종29) 봄에 완공했다고 전한다.³⁸²

신한이 1537년 사도시첨정으로 재임 중일 때 광주목사로 있었던 당시의 사건이 문제가 되어 체직된 적이 있다. 당시에 이웃 고을의 수령이 청탁한 일을 들어주어 법을 어긴 일이 있었다는 사헌부의 상소가 있었다.³⁸³ 이에 앞서 1536년 4월 4일 기사에 나주목사 봉사종(奉嗣宗)의 파직을 건의하는 내용³⁸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한은 이 무렵까지 광주목사로 재임했고, 이후에 사도시첨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의 본관은 고령이며 자는 증용(仲容), 증조부는 세종 때 훈민정음 창제에 공을 세운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조부는 함길감사 신면(申漣, 1438~1467), 부친은 좌의정 신용개(申用溉, 1463~1519), 모친은 정국공신 박건(朴健)의 딸이다. 부인은 풍천임씨 첨지중추부사 임맹영(任孟瑛)의 딸이며, 아들은 가평군수 신여주(申汝柱, 1502~1558), 재용감정 신여량(申汝樑, 1505~1580)이다.

신한은 중종반정 때 아버지 신용개와 같이 공을 세워 선전관이 되었고, 1507년(중종2)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1510년 장흥고주부(長興庫主簿)와 사헌부감찰이 되었고, 1513년(중종8)에 처음으로 벼슬한 지 7

382 심언광, 《어촌집(漁村集)》 권9, 희경루기. 심언광은 이 글에서 신한은 사마시에 합격한 동기이며, 고려 문충공 신숙주의 후손이라고 했다.(高靈申文忠公叔舟之後)

383 《중종실록》 중종 32년(1537) 7월 7일.

384 봉사종은 1531년 2월부터 1536년 4월까지 나주목사로 재임했다.

년 만에 호조정랑으로 승격되었는데, 대간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했으나 증중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15년 형조정랑, 낭청이 되어 장례준비위원이 되었다.

1526년 대간은 “제용감부정 신한이 1521년에 배천(白川)에 있을 적에 거중(居中)³⁸⁵을 했는데 품계와 함께 관직을 올린 것은 잘못됐다”며 개정을 요청해 증중은 이를 받아들였다. 신한은 일반 행정실무에 밝아서 평시서내자시, 군자감, 장례원, 사도시, 사شم시 등의 행정관료로 크게 활약하였다. 1528년 대동찰방으로 있으면서 사신들이 중국을 오갈 때 이를 수행한 이들의 비밀 매매 행위를 금단하기도 했다.

1540년 4월 성절사로 표문(表文)을 받들고 북경으로 갔다가 11월에 돌아왔다. 1543년에 상호군으로 있는 동안 졸하였다. 왕자사부(王子師傅)를 지낸 정극후(鄭克後, 1577~1658)가 신한을 위한 만사를 썼다.³⁸⁶ 윤근수(尹根壽, 1537~1616)가 신여주의 묘갈명을 썼다.³⁸⁷

38. 박우(朴祐, 1476~1547), 재임 : 1536~1537

박우(朴祐)는 《광주읍지》에 광주목사에 관한 기록이 없지만 《광주향교지》에는 올라 있다. 《증중실록》에 따르면 사헌부에서 광주목사로 있는 박우가 나주에 살고 있지만 그 본가의 논밭과 집, 그리고 첩과 자식들이 모두 광주에 있으므로 체직하라는 상소에 이어 그렇게 하라는 윤

385 거중(居中)은 관리의 성적 평가에서 상·중·하 3등급 가운데 중등이 되었다는 말이다. 열 번의 고사(考査)에서 열 번 상(上)을 받으면 상(賞)으로 한 품계를 제수하고, 두 번 중(中)을 받으면 무록관(無祿官)으로 서용하고, 세 번 중을 받으면 파직한다. 그리고 1, 2, 3번의 고사에서 한 번 중을 받으면 현직보다 높은 벼슬에 승진되지 못하고 두 번 중을 받으면 파직된다.

386 정극후, 《쌍봉집(雙峯集)》 권5(부록), 挽詞[郡守申瀚], 曾於丈席久逢迎。儒雅平生仰老成。懿行本來敦孝友。高明端合享尊榮。功名世上還無分。令聞人間永有聲。惆悵德淵前日淚。不堪重濕昔年纒。

387 윤근수, 《월정집(月汀集)》, 加平郡守申公墓碣銘。

허가 있었다.³⁸⁸ 따라서 박우는 그 이전부터 광주목사로 재임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박우는 당시 나주 선도면(지금의 광주 서구 서창동) 출신으로 본관은 충주, 자는 창방(昌邦), 호는 육봉(六峰)이다. 박광리(朴光理)의 증손으로, 조부는 박소(朴蘇)이고, 부친은 진사 박지흥(朴智興, 1411~1488)이며 모친은 서종하(徐宗夏)의 딸이다. 기묘명현인 눌재(訥齋) 박상(朴祥, 1474~1530)의 조카이고, 아들은 사암(思菴) 박순(朴淳, 1523~1589)이다.

1507년(중종2) 사마시에 진사 장원으로 입격했고, 1510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교서관 소속이 되었다가 1512년 예문관검열, 1513년 봉교와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그해 어머니가 연로한 관계로 외직을 요청하여 흥덕현감(지금의 전북 고창군 흥덕면)으로 나갔다가 얼마 뒤에 모친상을 당해 사직하였다. 삼년상이 끝나자 다시 전적으로 복직하고 이어서 호조정랑을 거쳐 홍문관교리가 되었다.

중종 때인 1524년 주강 경연에서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는 시독관으로 고금 제왕들의 ‘치란흥망(治亂興亡: 선정과 악정 및 부흥과 망함)’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니 모두 감탄하였다.³⁸⁹ 이어서 1525년 사헌부장령, 사헌부집의, 1527년 홍문관전한과 직제학, 1529년 동부승지, 1531년 우부승지, 1532년 강원감사, 1533년 승정원 우승지를 지냈다.

이 무렵 김안로(金安老, 1471~1532)가 권세를 부리면서 바른 선비들을 배척하자 스스로 외직을 원해 남원부사가 되었다. 그때 허확(許確, 1466~1537)이 전주부윤으로 내려왔는데 박우는 찾아가 인사하지 않았다. 허확과 그의 아들 허항(許沆, ?~1537) 등이 몇 번이나 박우를 초

388 《중종실록》 중종 32년(1537) 8월 5일, 光州牧使朴祐, 今雖移居羅州, 其本家田庄及妾與子息, 皆在本州, 決不可爲此邑之倅, 請遞.

389 《중종실록》 중종 19년(1524) 4월 18일.

청하자 마지못해 잠시 찾아갔다가 곧 돌아왔다. 이처럼 성품이 곧아 윗 사람에게 아침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세도가인 김안로나 허확 등으로부터 심한 박대를 받았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³⁹⁰

박우는 병을 이유로 벼슬을 사직하고 나주 옛집으로 내려가서 2년을 지냈다. 다시 도승지로 임명되었으나 사헌부 대사헌 허항 등의 탄핵을 받아 1536년 3월 공주목사로 좌천되었는데 그 이후 광주목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헌부의 일부 세력이 박우가 광주에 재산과 가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체직 상소를 올려 재임 기간은 1년 전후로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다.

박우는 1538년에 장성의 '삼마태수'라는 별칭을 얻은 청백리 송흠(宋欽, 1459~1547)이 말년에 낙향하여 지은 누정인 관수정에 들러 시를 남겼다.³⁹¹ 다시 해주목사, 대사성을 거쳐 1540년 병조참의, 1541년 한성부우윤, 1542년 개성부유수, 1545년 한성부좌윤, 1546년 동지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인종 때 한성부좌윤 겸 동지춘추관사가 되어 《중종실록(中宗實錄)》의 편찬을 감수했다.³⁹²

1547년(명종2) 전라감사가 박우에 대해 올린 장계문은 다음과 같다.³⁹³

전 전주부윤 박우는 늙고 병들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많아 백성의 원망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병으로 사임을 요청했으나 체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가난하고 청렴한 생활로 자신을 지키고 시문을 짓거나 서화를 그리는 일을 즐기면서 생업은 일삼지 않았습

390 《중종실록》 중종 31년(1536) 3월 3일.

391 송흠 《지지당유고》 권2. 관수정에 시를 남긴 인물로는 박우 외에도 소세양, 홍언필, 김안국, 함세창, 신광한, 김인후, 임억령, 나세찬, 양평손, 송순, 정사룡, 오겸, 유사 등 당대의 쟁쟁한 문인들이 많다.

392 《중종실록》 부록 편수관 명단.

393 《명종실록》 명종 2년(1547) 윤9월 5일.

니다. 비록 시골에 있으면서 아침저녁의 끼니를 잇기가 어려웠으나 마음가짐은 태연하였고 늙어서도 그 점은 줄지 않았습니다. 탐욕만을 추구하는 요즘 세상에 그러한 사람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를 소환하여 원로로 우대하고 녹식(祿食)으로 봉양하는 은혜를 내려 주소서.

이 말을 들은 명종은 박우가 청렴하고 지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서한 지급을 더 해주고 서울에 녹직(祿職)을 주어 녹봉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서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9. 이만손(李萬孫, ?~?), 재임 : 1537

이만손(李萬孫)은 《광주읍지》에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광주향교지》 기록에는 올라 있다. 이만손은 앞서 박우가 1537년 체직된 후 후임 광주목사로 제수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우가 8월 5일 체직된 후 10일이 지난 8월 15일에 이만손이 다시 체직되는 당시 상황으로 보아 실제 부임하지는 못했다고 하겠다.

이만손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증종실록》에 따르면 “이만손은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우며 용렬한 데다 나이도 많아 노쇠하여 전에 수령이 되었을 때 비루한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다.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에 제수해서는 안 된다는 상소에 따라 증종이 이를 받아들였다.³⁹⁴

이만손의 본관은 원주, 자는 홍윤(弘胤)이다. 증조는 이견(李肩), 조부는 이계효(李季孝), 부친은 이장보(李章甫)이다. 이만손은 1504년(연산군10)

394 《증종실록》 증종 32년(1537) 8월 15일, 이만손은 1537년 11월부터 1538년 12월까지 부평부사로 있었다.

식년시 병과 11위로 급제했다. 1512년 사헌부 지평, 1515년 형조정랑으로 낭청이 되었다.³⁹⁵ 1516년 삼척부사, 1518년 회양부사, 1519년 춘천부사, 1534년 청주목사를 지냈다.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이 춘천향교 중수상량문을 썼는데, 1520년(중종15) 춘천향교의 중건을 당시 부사이던 이만손의 공적으로 적고 있다.³⁹⁶ 그러나 춘천향교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또 이만손은 1534년과 1535년에 연달아 관아에 분속된 관비(官婢)를 날마다 사적인 일에 부렸다. 심지어는 아전의 무리[下吏輩]까지 각기 관아에 소속된 관비를 점유하는 등 폐단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전혀 살피지 못했다. 이로 인해 관에서 사역되는 사람들만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한 고을의 백성이 모두 피해 입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만손이 조정의 반열에 서게 되면 사리와 체면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상소해 중종이 이를 받아들였다.

40. 이홍간(李弘幹, 1486~1546), 재임 : 1540~1543

이홍간(李弘幹)은 《광주읍지》에는 1543년(중종38)에 광주목사로 부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1540년에 제수받아 1543년에 이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홍간은 광주목사 시절 김인후(金麟厚, 1510~1560)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후는 중종의 석강에서 고금의 미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광주목사 이홍간은 진흙에 각별히 힘써서, 소신이 올 적

395 1515년 3월 2일 중종이 좌의정 정광필(鄭光弼)을 3도감 총호사(三都監 總護使)로 삼았을 때 형조정랑이던 이만손(李萬孫)과 신한(申瀚)이 낭청이 되었다.

396 유몽인, 《어우집(於于集)》 권5, 문(文), ‘壽春鄉校重修上樑文’, 曰正德十五年庚辰歲八月之日。府使李萬孫, 教授文景熙建。

에 보니 굶주린 백성 중에 밥을 먹게 된 자가 많았습니다”라고 칭찬하는 기록이 있다.³⁹⁷ 김정국(金正國, 1485~1541)의 문집에 ‘광주목사로 부임하는 이대립을 송별하다’라는 전별시가 남아 있다.³⁹⁸

또 ‘판중추부사 양연의 즐기’³⁹⁹를 보면 이흥간이 집의로 일하고 있을 때 양연(梁淵, ?~1542)이 그에게 유감을 품고 광주목사로 내쫓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조판서이던 양연이 관리들의 임면에 관한 전형을 맡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당시 사관의 글이다.

이흥간의 본관은 용인, 자는 대립(大立), 호는 쌍괴(雙槐)이다. 증조부는 이승충(李升忠), 조부는 이봉손(李奉孫)이고, 부친은 사간원사간 이효독(李孝篤, 1451~1500)이며, 모친은 최명근(崔命根)의 딸이다. 이정귀(李廷龜, 1564~1635)의 ‘침지이공묘갈명’⁴⁰⁰을 보면 이흥간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다.

1507년(중종2) 생원시에 합격, 1513년 식년 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해 권지승문원정자로 벼슬길에 올랐다. 이후 1514년 기사관, 1515년 예문관봉교, 1516년 포쇄별감, 1517년 평안도평사로 파견되었다. 평안도평사로 파견될 때 처음에는 병조에서 양팽손, 이희, 이흥간을 후보자로 올렸으나 중종이 더 뛰어난 사람을 추천하라 하여 병조가 다시 문계창, 유여림, 이흥간을 추천하자 이흥간이 평안도평사로 낙점을 받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⁴⁰¹

이 무렵 이흥간은 조광조(趙光祖, 1482~1520)와 김정(金淨, 1486~

397 《중종실록》 중종 37년(1542) 3월 25일, 이 기록으로 보면 이흥간은 1942년에 이미 광주목사로 재임 중이었다.

398 김정국, 《사재집(思齋集)》 권2, ‘送李大立赴光州’ 世年同契摠成塵 在世唯餘四箇人 向日每愁離別苦 邇來方喜過從頻 君爲遠守如遷客 我乞閑官寄病身 漢北湖南雲杳杳 老衰分袂倍傷神.

399 《중종실록》 중종 37년(1542) 7월 27일.

400 이정귀, 《월사집(月沙集)》 권47, 墓碣銘下, ‘僉知李公墓碣銘 并序’.

401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11월 6일.

1521) 등과 교류하던 중이었는데, 김정과 시사를 논하면서 “시폐를 개혁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편협하고 과격함을 경계하였다.⁴⁰² 1519년 기묘사화 때에도 이홍간은 남곤(南袞)이 고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무랐다.⁴⁰³

1520년 사간원정언에 발탁되고 그 뒤 홍문관교리, 세자시강원사서, 호조·예조·병조의 좌랑, 정랑, 세자시강원필선, 수원군수, 곤양군수, 옥천군수 등을 역임했고, 1527년 사헌부장령이 되었다. 이때 이홍간은 ‘세종이 양녕대군을 방면한 고사’를 들어 1513년 박영문(朴永文)·신윤무(辛允武)의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로 쫓겨난 성종의 13남인 영산군 전(寧山君愴)의 사면을 청하여 방면하게 한 일이 있다.⁴⁰⁴ 이어 사옹원·군기시·종부시의 정(正)을 지냈다.

이홍간은 1534년 공주목사로 있을 때 충청감사 김양진, 부여현감 박몽우 등과 함께 이세영(李世榮)의 살인죄를 벗겨주기 위해 허위 문서를 증거로 삼아 풀어준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파직당했다.⁴⁰⁵ 또 1535년에 청주목사로 있으면서 관고(官庫)의 공물(公物)을 친한 사람에게 사사로이 주다가 파직당한 바 있다.⁴⁰⁶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큰 잘못이 아니었던지 다시 관직으로 복귀했다.

1540년 사헌부집의를 제수받았고 1540년 광주목사를 거쳐 3년여 재임하다가 1543년경 봉상시정, 1545년(명종 즉위년) 인종의 빈전도감사

4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2023.4.17. 인용); 성씨뉴스닷컴, <http://www.koreasurname.org/> (2023.4.17. 인용)

403 고전용어 시소러스, <http://thesaurus.itkc.or.kr/> 이홍간 (2023.4.17. 인용)

404 《증종실록》 증종 22년(1527) 11월 11일, 이때 이홍간은 《국조보감(國朝寶鑑)》 한 권을 꺼내 펴서 읽으면서 세종과 양녕대군의 사례를 인용하였다.

405 《증종실록》 증종 29년(1534) 3월 18일.

406 《증종실록》 증종 30년(1535) 9월 4일.

에 참여한 공로로 첨지중추원사에 올랐다. 1546년(명종1) 동지중추부사로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1월 북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리 멀지 않은 사류하(沙流河)⁴⁰⁷에 이르러 병들어 죽었다. 객지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에 명종은 “북경에 갔던 사신이 잇달아 병으로 죽으니 매우 슬픈 일이다. 별도로 부의를 보내도록 하라”라고 했다.⁴⁰⁸

기묘사화 때에 같이 화를 입었던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 1485~1541)이 편찬한 《기묘록(己卯錄)》에 누락된 내용을 보충했던 안로(安璐)의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에 ‘이홍간 전(李弘幹傳)’이 있어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다.⁴⁰⁹

■ 이홍간 전

이홍간은 병오생이며 자는 대립(大立)이다. 정묘년에 생원이 되고, 계유년에 급제하였다. 한림(翰林)으로 일찍이 충암(冲庵) 등 여러 공과 말이 시사에 미치면 언제나 말하기를, “남의 숨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과격한 행동은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때마침 평사(評事)를 뽑자는 의논이 있어, 공을 평안도평사에 임명하였다. 공이 서쪽 벽지에 있을 때, 화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생원 이선(李瑱)에게 말하기를, “지정(止亭) 남곤(南袞)은 오늘날 가장 명망이 높은 분인데, 고변하였다는 말을 두 번이나 듣는 것은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407 사류하(沙流河)는 오늘날 중국 하북성 당산시 풍운구 풍운진의 옛 고려포촌에서 북경 쪽으로 16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이다. 고려포촌은 고대 한중 육로 사행노선의 길목에 있다. 조선 사행들은 육로를 지날 때 늘 고려포를 지났다. 고려포는 한반도의 생활과 문화 풍속 등 동질적인 요소가 많았다. 1551년에 이 마을에 세워졌던 ‘고려포보(高麗鋪保)’라는 석비가 출토되어 풍운구유물관에 보관 중이다. 북경을 오가는 조선사절단이 주로 이곳을 지나쳤다고 할 수 있다. 박현규(2010), “풍운 고려포촌의 유래 고찰”, 한국실학연구 20, pp.177~211.

408 《명종실록》 명종 2년(1547) 1월 12일.

409 《대동야승》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권하(1519), 李弘幹傳.

이선은 남곤의 사위이므로 이 말을 남곤에게 전하니, 남곤이 마침내 반감을 품고 배척하여 지방관으로 쫓아내었다. 남곤이 죽자 장령이 되어 경석(經席)에서 임금을 모시게 되었다.

경연장에서 《통감(通鑑)》을 임금 앞에서 강론하면서, 서한 문제(文帝) 때의, “한 자 배도 오히려 옷을 기울 수 있다[一尺布尙可縫]”라는 노래에 이르러 공이 아뢰기를, “천륜이란 지극히 중한 것인데, 애매한 일로써 형제가 서로 보전하지 못한 것이 어찌 한 문제(漢文帝)뿐이겠습니까. 이제 견성군(甄城君)이 좋게 죽지 못하였고, 영산군(寧山君)도 또한 귀양으로 쫓겨났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한 나라 사람들의 노래를 거울삼아 조그마한 은사를 베푸소서” 하니, 임금이 얼굴빛이 달라지며 감동하고 깨달아 드디어 놓아주었다.

견성과 영산은 다 임금의 친아우인데, 국문을 당하여 정신없이 지껄이는 죄인들의 말에 오르내리니 당시 권세 있는 재상들이 실제로 죄를 만들고자 하여 함께 모함한 것이었다. 견성군은 정국원훈(靖國元勳)에게 살해되었고 영산군은 남곤에게 추방당하였는데, 공이 일찍부터 분하고 한스럽게 여겨 임금께 아뢴 것이다.

모사하는 자들은 공이 바른말 하는 것을 꺼려서 다시는 대간에 임명하지 아니하였다. 봉상시정이 되자 을사년의 변을 만났다. 홍문관 교리 곽순(郭琿)이 죽임을 당하자, 공이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조정에서는 법에 따라 벌을 준 것이니, 우리 봉상시에서 선생에 대한 예로써 부의를 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다” 하니, 여러 동료 가운데 대답하는 이가 없었는데, 오직 판서 박대립(朴大立)만이 참봉으로서 말석에 앉아 있다가 그 말을 따라 조상하고 부의하는 예의를 찬성하였다.

공이 시세에 굽히거나 동요하지 않음이 모두 이와 같았다. 뒤에 인종의 빈전도 감으로 당상에 올랐고, 얼마 후에 사신이 되어 연경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다.

41. 송순(宋純, 1493~1582), 재임 : 1543~1544

송순(宋純)은 《광주읍지》에 문과가선대부로서 부임했다고 기록했고, 《광주향교지》에도 올라 있다. 송순은 1543년(중종38) 한성부우윤이 되었다가 모친 봉양을 위하여 광주목사가 된다. 《중종실록》에 송순이 광주목사로 제수된 기록은 없으나 《면앙집》에는 50세 때인 1543년(중종38) 어머니가 연로하여 봉양하기 위해 광주목사로 있었다고 했다.⁴¹⁰

송순의 본관은 신평이며,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다. 자는 수초(遂初) 또는 성지(誠之), 호는 기촌(企村) 또는 면앙정(旻仰亭)이다. 증 이조판서 송태(宋泰)의 아들이다. 1513년(중종8) 진사시에 합격하고 1519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권지부정자를 제수받았다.

1520년 사가독서를 마친 뒤, 1521년 검열로 있었고, 1522년 승정원 주서가 되었으나 봄에 파직되어 귀향했다. 1523년 부친상을 당하고 1525년 세자시강원 설서, 1526년 홍문관 수찬, 1527년 사간원정언, 1528년 홍문관 교리, 1530년 예조좌랑과 봉상시첨정, 1531년 사간원으로 활동하다가, 1533년 김안로가 권세를 잡자, 귀향하여 면앙정을 짓고 시를 읊으며 지냈다.⁴¹¹

1537년 김안로가 사사된 후 1538년 사헌부 집의, 홍문관 직제학, 1539년 도승지, 1540년 경상감사와 사간원 대사간을 거쳐 1541년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으나 어머니의 병을 이유로 1542년 전라감사가 되었고,⁴¹² 1543년 광주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544년 12월 노

410 송순 《면앙집》 권5 부록, 癸卯嘉靖二十二年, 中宗三十八年 先生五十一歲. 引疾而歸. 授漢城府右尹. 以大夫人年高. 乞外便養. 授光州牧使.

411 송순 《면앙집》 권5 부록.

412 《중종실록》 중종 37년(1542) 5월 15일, 전라감사 계수에 앞서 4월 8일 중종은 “서울에 있다면 말미를 주어 구완하게 하겠으나, 이는 외방에 있다. 현관(憲官)의 장(長)을 오래 비워 둘 수 없으니 체직하라”라고 했고, 윤5월 13일 송순(宋純)을 만나 배고픈 백성을 구하고 농사를 권장하며, 학교를 일으키고 형벌을 삼가는 등의 일을 전교하였다.

모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는다.⁴¹³

1547년(명종2)에는 동지중추부사가 되어 《증중실록》을 찬수하는 데 참여했고, 이어 주문사로서 중국에 갔다. 1549년 개성부 유수가 되었고, 1550년 이조참판이 되었는데 이때 진복창(陳復昌), 이기(李芑) 등에게 논박당하여 충청도 서천으로 유배되었다가 곧이어 평안도 순천으로 이배되었다. 1551년 6월 사면을 받아 수원으로 이배되었다가 겨울에 방면되었다. 1553년 선산도호부사를 지냈는데 그해 면양정을 중건했고, 부인상을 당하는 큰 슬픔을 겪었다.⁴¹⁴

1558년 전주부윤이 되고 1560년 중국 사신을 접빈할 문사로 이항(李滉), 임억령(林億齡)과 함께 추천되었다.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1569년(선조2) 한성부판윤으로 특별 승진하고, 이어 의정부우참찬이 된 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가 벼슬을 사양하여 관직 생활 50년 만에 광주로 은퇴했다.⁴¹⁵

송순은 성격이 너그럽고 후했으며, 특히 음률에 밝아 가야금을 잘 탔고, 풍류를 아는 호기로운 재상으로 일컬어졌다. 송순은 벼슬에서 물러나 강호생활을 하면서 자연예찬을 주제로 한 작품을 지음으로써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송순은 담양에 면양정(旎仰亭)을 짓고 만년을 보냈다. 송순이 과거에 급제한 지 60년 되는 날에 이 정자에서 연회를 열었는데,⁴¹⁶ 그 자리에

413 송순 《면양집》 권5 부록.

414 송순 《면양집》 권5 부록.

415 《선조실록》 선조 13년(1580) 4월 28일, 선조는 이날 “재상인 오겸(吳謙)·송순(宋純)이 모두 고향으로 물러가 노년을 보내고 있다. 내 생각으로 비록 녹봉은 주지 못하더라도 해마다 본도로 하여금 쌀과 콩을 주도록 하여 노 재상을 우대하는 내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어땠겠는가. 옛 법에 그런 예가 있고 없는 것을 모르겠으나, 다만 우연히 생각이 나서 말하는 것이다. 이 뜻을 해조에 물어보고 또 먹을 것을 제급(題給)할 것도 본도에 하서하라”라고 말했다.

416 회방연(回房宴)은 과거 급제 6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다.

서 정철(鄭澈, 1536~1594)의 제안으로 모인 사람들이 송순을 태운 죽여(竹輿)를 메고 내려온 일이 있었다.⁴¹⁷

송순은 91년의 생애 동안 많은 사람과 폭넓은 교류를 했는데, 성품이 따뜻하고 인자하여 도의로써 친교를 맺고 살았다. 당시 뛰어난 석학들이며 조선을 대표했던 이름있는 선비들로는 정만중, 김운재, 오겸, 송인수, 김언거, 임형수, 유형춘, 최산두, 신광한, 임억령, 성수침, 양산보, 나세찬, 이황, 박우, 홍섬, 신잠, 윤구, 조사수, 주세붕, 소세양, 심수경, 원호섭, 정유길, 김인후, 정철, 기대승, 임제, 고경명 등 벗과 제자들이다.⁴¹⁸

송순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면앙집(俛仰集)》에 실린 연보⁴¹⁹와 송환기(宋煥箕)가 쓴 ‘정부우참찬송공행장’,⁴²⁰ 조종영(趙鐘永)이 쓴 ‘우참찬기촌송공시장’,⁴²¹ 〈부록〉 유사에 외손인 최기(崔棄)가 쓴 송순의 행적⁴²² 등이 있다.

송순의 《면앙집》은 1829년(순조29)에 송득칠(宋得七) 외 8인이 편찬하였다. 필사본은 7권 4책, 목판본은 4권 2책인데 《기촌집(企村集)》이라고도 한다. ‘면앙정삼언가’와 ‘면앙정제영’ 등 수많은 한시(총 505수, 부1편)와 국문시가인 ‘면앙정가’ 9수, ‘자상특사황국옥당가’와 ‘오륜가’ 등 단가(시조) 20여 수를 지어 조선 시가문학에 크게 기여했다.

417 이날 잔치가 끝날 무렵 정철과 고경명 등 당대 기라성같은 제자들이 대나무 가마(竹輿)를 직접 맨다. 당시 가마는 하인들, 노비인 종들이 메던 것이었는데 아마 양반이 맨 가마를 처음 탄 경우는 송순이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일보(2020), 노성태의 남도역사 이야기 “면앙정 송순, 제자들이 맨 가마를 타다” (2022.10.8. 인용)

418 최한선(2003), “송순의 생애와 시문학”, 열린시학 8(4), pp.408~419.

419 송순, 《면앙집(俛仰集)》 권5 부록, 연보.

420 송순, 《면앙집(俛仰集)》 권5 부록, 議政府右參贊宋公行狀.

421 송순, 《면앙집(俛仰集)》 권4, 右參贊企村宋公諡狀.

422 송순, 《면앙집(俛仰集)》 권4, 俛仰集附錄遺事.

42. 박수량(朴守良, 1491~1554), 재임 : ?~1545

박수량(朴守良)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 기록에는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내용이 없다. 광주목사로 언급이 된 기록은 《인종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1545년 “광주목사 박수량은 2품인 사람으로서 혈뜬으며 반박받은 허물이 없는데도 목사로 낮추어 제수하였으니 국가에서 재상을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또 듣건대 병이 아직 낫지 않아서 제때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니 체직시키소서”라고 하여 인종이 이를 받아들였다.⁴²³ 따라서 제수를 받았으나 바로 체직되어 안수량이 계속 광주목사로 재임하는 상황이 되었다.

같은 해 이조판서 최보한(崔輔漢)이 “박수량은 전에 광주목사가 되었다가 병으로 체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상인 사람을 서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송서(送西)⁴²⁴하여 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하니 그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⁴²⁵

따라서 이 기록으로 보면 박수량은 광주목사로 제수되었으나 직급이 낮은 곳으로 보낸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벼슬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광주목사로 제수받았으나 대개 출발하기까지 한 달여 지체하는 동

423 《인종실록》 인종 1년(1545) 2월 23일, 이때의 기록으로 보면 먼저 안수량이 광주목사로 있던 중에 박수량에 제수되었으나 이를 체직시키고 안수량을 다시 연장했다는 내용이 있다. “군기시 정(軍器寺正) 안수량(安秀良)은 경전(經傳)의 구두 정도는 대강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표(師表)의 명망은 없으니, 학직(學職)에 제수한다면 오히려 괜찮겠으나 가려서 차출하는 반열에 들 수는 없습니다. 사유(師儒)로서 광주목사에서 체직된 것도 이미 옳지 않는데 이제 또 곧 다른 벼슬에 주의하였으니 전조(銓曹)도 잘못입니다. 안수량을 광주목사에 임임(仍任)시키소서”

424 송서(送西)는 서반(西班牙)으로 보내는 인사 조치로 일종의 한직(閒職)으로 보내지는 일이다. 본래 정1품 영의정에서 정3품 문무 당상관까지 문관(文官)인 사람을 우대하여 무관(武官)인 중추부나 오위의 벼슬을 주는 것을 말한다.

425 《명종실록》 명종 즉위년(1545) 12월 19일.

안 그사이에 체직되어 부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수량의 본관은 태인이며 자는 군수(君遂), 호는 아곡(莪谷)이다. 전남 장성 출신이다. 박문아(朴文雅)의 증손으로, 조부는 박현손(朴賢孫)이고, 부친은 박종원(朴宗元)이며, 모친은 이씨(李氏)이다. 김개(金漑, 1405~1484)의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담양부사로 나갔다가 1542년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다. 강한(江漢)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이 쓴 박수량의 행장에 그의 지극한 효성이 묘사되었다.⁴²⁶

1550년(명종5)에 《증종실록》과 《인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해 의정부 우참찬에 임명되어 지경연의금춘추관사와 오위도총부도총관을 겸하였다. 이어 1551년 8월에 전라감사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영의정 이기(李芑, 1476~1552)의 오른팔인 광주목사 임구령을 파직 시켰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던 박수량,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명종, 조선왕조 시대는 이렇게 부패 척결에 엄정했던 시절이 많았다. 이 사건을 실록에 적은 사관은 권력에 추종하지 않은 박수량을 명신이라고 극찬했다.⁴²⁷

1554년에 지증추부사로 있다가 졸했다. 관직을 역임한 기간이 무려 38년간이나 되었음에도 뇌물과 부정은 조금도 없었다. 박수량은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과의 교유가 깊었으며, 사람됨이

426 박수량(1985), 《清白吏莪谷朴先生實記》, 回想社.

427 《명종실록》 명종 7년(1552) 2월 29일, 사관은 다음과 같이 덧붙여 적었다. 박수량의 서장(書狀)에, “이기(李芑)의 사반인(私伴人)을 추쇄(推刷)할 때 광주목사 임구령(林九齡)이 권문(權門)을 비호하여 조정을 기만하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차사원(差使員)이 색리(色吏)를 온갖 방법으로 힐책해도 임구령이 항상 헐박하여 사실대로 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그대로 직에 두게 되면 끝내 검색하기 어려울 것이니 속히 파출시키소서”라고 하였다. 임구령은 임백령(林白齡)의 아우로 을사정난의 공(功)에 참여한 사람이다.

곧으면서 신중하고[簡重慎密] 예법을 잘 지키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오랜 관리 생활에서도 집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청렴결백하여 청백리에 뽑혔다. 시호는 정혜(貞惠)이다.

43. 안수량(安秀良, 1486~?), 재임 : 1545~?

안수량(安秀良)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는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올라 있지 않다. 그러나 실록에는 1545년(인종1) 사간원의 건의로 안수량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기보다는 광주목사로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⁴²⁸

다만 이전 광주목사였던 송순이 1544년 12월 모친상으로 삼년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안수량이 제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달 뒤 안수량이 군기시정(軍器寺正)⁴²⁹으로 임명되고 박수량이 광주목사로 제수되자 사간원에서 “박수량은 2품 관리이므로 목사로 낮춰 제수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안수량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광주목사로 재임 중 군기시정으로 제수되자 사간원에서 이를 반대했다. 사간원은 안수량을 사유(師儒)로서 광주목사에서 체직하여 다른 벼슬에 주의(注擬)한 것은 관리 전형을 담당할 전조(銓曹)의 잘못이므로 광주목사에 영임(仍任)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결국 인종이 이를 받아들였다.⁴³⁰

안수량의 본관은 순흥, 자는 경온(景溫)이다. 증조부는 안호문(安好

428 《인종실록》 인종 1년(1545) 2월 23일, 以師儒遞光州牧使, 已爲不可, 今又旋擬於他職, 銓曹亦爲非矣. 請以秀良, 因任光州牧使.

429 군기시정은 병기(兵器)나 기치(旗幟)·용장(戎仗) 등의 제조를 담당하던 군기시(軍器寺) 부서의 정3품(正三品) 관직이다. 이 부서에는 정1품 도제조 1인, 종1품이나 종2품의 제조 2인, 종3품의 부정(副正) 1인이 있다. 도제조·제조를 타관에서 겸직하기 때문에 정이 실질적인 으뜸 벼슬이라고 할 수 있다.

430 김난상(金鸞祥, 1507~1570)의 《병산선생문집(甁山先生文集)》 권1에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請遞光州牧使朴守良軍器寺正安秀良忠清水使池世芳永興府使梁允英啓 乙巳二月.

問), 조부는 안회석(安回石), 부친은 별제를 지낸 안계로(安繼老)이다. 부인은 여흥민씨 민휘(閔暉)의 딸이다. 안수량은 1507년 증광시에서 2등 12위로 진사가 되고, 1513년(중종8) 식년시 병과 15위, 1526년(중종21) 증시에서 을과 1위로 급제했다.

1523년 영의정 남곤과 좌의정 이유청이 중종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안수량은 문신으로 있다가 지난날 조정의 일부 무리에게 배척받았고, 교수로 차임(差任)해도 연고를 핑계로 부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직되고 직첩을 회수한 적이 있다. 그 뒤 안수량과 죄가 같았던 사람은 모두 이미 서용되어 승품(陞品)에 이르렀는데⁴³¹ 안수량 등만 은덕을 입지 못했다. 이는 임금이 매우 공평하고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은 있지만, 어쩌다 보니 이를 살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중종은 비슷한 사례대로 고찰하여 전교하겠다고 했다.

안수량은 1523년(중종18) 사간원정언, 1524년 병조좌랑, 1528년 개성부경력을 맡아 직무 수행 중이었다. 이때 중종이 조강에 나아가서 “학교(學校)가 닦아지지 않아 학관(學官)들이 항시 학교를 비우고 전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려[教誨]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영사 정광필이 사학(四學)의 전적(典籍)이 빈 데가 많은데 실직한 사람이 또한 많이 있으니, 차임하여 보충해야 한다면서 안수량 같은 이는 비록 경학(經學)에 정명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현재로 봐서는 또한 대등한 사람이 적으므로 사장(師長)으로 삼아 후학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고 했다.

1534년 사섬시정을 맡았고 이후 사성(司成), 병조좌랑, 군기시정, 광주목사, 예조정랑 등을 거쳤다.

431 윤사익(尹思翼, 1478~?)을 말한다. 조선 중종(中宗)~명종(明宗)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무송(茂松)이며 윤징(尹澂)의 아들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등을 지냈다.

44. 조안국(趙安國, 1501~1573), 재임 : ?~1548

조안국(趙安國)은 《광주읍지》에 무관 통정대부로 왔다는 기록이 있지만, 언제 광주목사로 부임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1548년 회령부사로 떠난 기록이 실록에 있어 그때까지 광주목사를 지냈다고 볼 수 있다.⁴³²

조안국이 광주목사로 있는 동안 직무는 다스리지 않고 함부로 음탕한 짓을 하거나 놀고먹는 잔치만 하여 백성들을 곤궁하고 피폐하게 하였다. 사간원에서는 조안국은 하루도 목민(牧民)의 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를 파직해야 한다고 하자 명종은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명한다. 이 정도면 조안국이 광주목사로 재임하면서 선정은 베풀지 못한 것 같다.

조안국의 본관은 풍양, 자는 국경(國卿)이다. 부친은 수군절도사 조현범(趙賢範)이며, 모친은 파성군(坡城君) 윤찬(尹贊)의 딸이다. 1524년(중종19) 24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 이듬해 선전관이 되고, 여러 차례 시사대회 또는 격구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무인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만큼 무예 능력은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1535년 문관으로 발탁되어 동부승지,⁴³³ 1540년 순장(巡將), 1548년 광주목사에서 가선대부 회령도호부사로 자리를 옮겼다. 1551년 경상우도병사, 단안부사, 1553년 경상좌도병마절도사를 지냈다.

1555년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전라병마절도사 겸 방어사로 순변사 남치근과 함께 나주와 흥양, 영암 일대에 침구한 왜구들에 대항했어야 하나, 공격이나 추격하지 못하는 등 겁먹고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432 《명종실록》 명종 3년(1548) 1월 11일, 조안국이 다음 부임지로 간 곳은 지금의 함경북도 회령으로 두만강 연안에 위치하여 당시 중국 만주지역과 인접한 국경 지역이었다. 조안국이 무과 출신이므로 국경 지역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433 승지의 자리는 문신에게도 청선(淸選)인 경우인데, 무신에게는 극선(極選)이었다. 중종은 대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조안국을 최측근의 자리에 발탁하였다. 조선시대에 무신으로서 승지에 임명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중종 말엽에 정권을 잡은 김안로(金安老)가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

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는 등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명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⁴³⁴

이 무렵 어떤 사람이 전라도 장흥부(長興府)의 원벽(院壁)에 시를 써 붙였다. 이 시에서 절도사는 조안국 전라병마절도사를 말하는 등 당시 관리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⁴³⁵

조안국은 이어 1561년 함경남도병마절도사, 1567년 경기수군절도사가 되었다.

45. 이거(李璵, ?~?), 재임 : ?~1549?

이거(李璵)는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는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없다. 명종은 이거가 광주목사로 있을 때 성균관의 사유(師儒)로 적임이라 하여 임기 전에 체직시켜 올라오게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다시 상주목사에 제수하자 간원이 이를 반대하였고, 명종은 이를 받아들였다.⁴³⁶ 그러나 다음 달에 사간원 사간으로 제수된다.

434 명종은 조안국을 두둔하였으나 결국 대간들의 주청에 따라 장 100대를 맞고 귀양을 가게 된다. 조안국의 사위 윤근수의 《월정만필(月汀漫筆)》에 따르면, 처음에는 평안도로 귀양을 갔다가 곧바로 공로를 세운 덕에 속죄하겠다고 맹세하고 전라도 흥양현(興陽縣)의 녹도로 옮겨서 귀양살이하였다. 그런데 마침 녹도에 정박한 왜구의 배 한 척을 그가 통째로 사로잡게 되었고, 그 공으로 석방되었다고 전한다. 윤근수, 《월정집(月汀集)》 별집 권4, 만록(漫錄).

435 《명종실록》 명종 10년(1555) 12월 2일, 한공(韓公)은 한운(韓纘)을 지칭한 것이고, 광목(光牧)은 이희손(李希孫)이다. 수사(水使)는 김빈(金寶)이며, 원수(元帥)는 이준경(李浚慶)이고, 절도사(節度使)는 조안국(趙安國)이며, 감사(監司)는 김주(金澍)이고, 방어사(防禦使)는 남치근(南致勤)이며, 이윤(李尹)은 전주 부윤(全州府尹)인 이윤경(李潤慶)이다. 변협(邊協)은 해남(海南)을 보전했기에 장흥부사(長興府使)에 초수(超授)되었으나 그의 공이 아니었으며, 양달사(梁達泗)는 영암을 지킨 공이 있는데 발탁하여 기용하지 않았으며, 유충정(柳忠貞)은 본래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였기 때문에 그 평이 이와 같은 것이다.

436 《명종실록》 명종 7년(1552) 4월 12일, 諫院啓曰 尙州牧使李璵曾爲光州牧使, 以師儒可當, 前期遞來. 今者又授尙州. 請遞. 答曰 如啓.

이거의 본관은 예안, 자는 광보(光寶), 호는 송주(松州)이다. 이영배(李永培)의 증손이며, 조부는 이서주(李叙疇), 부친은 이로(李櫓)이다. 처의 부친은 윤언창(尹彦昌)이다. 이거는 1522년(중종17) 식년시 진사 1등 1위로 장원을 했다.

《대동야승》에 이런 일화가 있다. 채무일(蔡無逸)이 생원의 장원이 되고, 이거가 진사의 장원이 된다는 예언에 관한 이야기이다.⁴³⁷

임오년 봄 감시(監試, 생원과 진사를 뽑는 과거)의 방(榜)을 내걸려 할 때 점장이 김효명(金孝明)이 점을 쳐보고 말하기를, “올해 생원 장원에는 초두성(草頭姓)을 가진 사람이 되고, 진사 장원에는 목성(木姓)을 가진 사람이 되리라.”

이거는 1536년(중종31) 별시에 2등 1위로 급제하여, 전적, 역례병 좌정랑, 정언, 문학헌납, 지평, 필선, 장령, 검상사인, 보덕, 사간, 집의, 홍문수찬, 교리, 선지제교겸춘추기사, 기주, 편수관, 태상, 태복량시정을 지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임금이 문신 정2품 이하에게 ‘희우(喜雨)’로 부(賦)를 짓게 하는 정시(庭試)를 보았다. 시관 윤은보 등이 제술을 마친 걸 과차하여, 입격한 이거(李璫) 등에게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원하는 책 1질을 부표(付標)하여 아뢰라 했는데, 이거는 이때 아마(兒馬) 1필을 하사받은 일이 있다.⁴³⁸

437 《대동야승》 ‘패관잡기’ 권2.

438 《중종실록》 중종 33년(1538) 4월 22일, 당시에 임형수(林亨秀)·이순형(李純亨)·나세찬(羅世瓚)·이약빙(李若氷)·홍섭(洪漣)·이준경(李浚慶)·김안국(金安國)·조사수(趙士秀)·이거(李璫)·이택(李澤) 등이 입격하였다. 예조정랑 이순형에게는 가자하고,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 임형수,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나세찬, 예조정랑 이약빙,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홍섭에게는 각각 반숙마(半熟馬) 1필을 하사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안국, 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 조사수,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이거에게는

그리고 1546년 7월 명종이 이거를 경성(鏡城) 판관으로 삼았는데, 삼공(三公)이 그는 본디 여러 사람이 우러르는 명망이 없으니 체임하라고 주장하여 이를 허락했다. 외직으로 안주목사, 광주목사를 거쳐 의정부 사인 등을 지냈다.

황해도와 경상감사를 지낸 이서우(李瑞雨, 1633~1709)가 이거의 묘지문을 쓴 바 있다.⁴³⁹

46. 김응두(金應斗, 1492~1552), 재임 : ?~1550

김응두(金應斗)는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 따르면 1550년 광주목사로 있었다. 그의 본관은 울산이고, 자는 자추(子樞), 호는 서수헌(逝水軒)이다. 김온(金穩)의 고손으로 조부는 성균 생원 도암공(韜庵公) 김처리(金處離)이고, 부친은 김준(金俊)이다. 아들은 김백균(金百勻)이다.

그는 1513년(중종8) 식년시에 생원 2등 18위로 입격했고, 1522년 문과에 급제하여 순천부사, 홍문관응교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했다. 또 문장이 뛰어나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등 국제적 경험도 가진 인물이었다. 1530년 호조좌랑, 1534년 병조정랑을 지냈다.⁴⁴⁰

1548년 전라감사 김광철(金光轍)은 김응두가 고부군수로 재직 중 요역(徭役)과 부세를 경감해 민폐를 줄이는데 크게 힘썼다고 평가했다. 또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 구제에 더욱 힘써 그 실적이 여러 고을 중 가장 뛰어났다고 했다. 이러한 공로로 인해 한 자급을 올려 당상으로 승진되

각각 아마(兒馬) 1필을 하사하였다.

439 이서우, 《송파집(松坡集)》 권13, ‘通訓大夫議政府舍人松洲李公後誌文’.

440 실록에는 기록이 없으나 《관북읍지(關北邑誌)》(1872)에는 1532년 6월 19일 파직된 이만균(李萬鈞)에 이어 함경도도사를 지냈다고 한다.

었다.⁴⁴¹ 그 후 밀양부사와 부응교를 역임하였다.

그의 성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을 도와 민생을 개선했다. 그는 또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광주목사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장성의 수촌(水村)에 집을 짓고 유유자적하였다고 한다.

강재(剛齋) 송치규(宋穉圭, 1759~1835)가 상당히 긴 문장으로 김응두의 묘표를 지었다.⁴⁴² 그런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은 “대체로 서수헌공의 표갈(表碣)은 맥구(麥丘) 김 장령(金掌令)에게서 이루어졌으니, 강재 송 문간공(宋文簡公)이 늦게 내었다. 그러므로 실사(實事)가 많이 빠졌다”면서 이 글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⁴⁴³

장성 학림서원(鶴林書院)에 김은(金穩)과 김응두(金應斗)가 배향되어 있다.⁴⁴⁴

47. 임구령(林九齡, 1501~1562), 재임 : 1550~1552

임구령(林九齡)은 1550년(명종5) 광주목사로 제수되었는데,⁴⁴⁵ 《광주읍지》에는 1559년(己未)에 부임했다고 하여 잘못된 기록으로 보인다. 《광주향교지》에도 기록이 있다.

전라감사 박수량은 임구령이 권문을 비호하여 조정을 기만하고 사실

441 《명종실록》 명종 3년(1548) 5월 15일, 下全羅道觀察使金光輶書狀于政院曰金應斗申潛盡心救荒各加一資以示褒獎之意.

442 송치규, 《강재집(剛齋集)》 권9, 묘표, 逝水軒金公墓表.

443 기정진, 《노사집》 권18, ‘鶴城世蹟’ 서문.

444 학림서원에는 이 밖에 김영렬(金英烈)·박희중(朴熙中)·박준철(朴濬哲)도 있다. 《연려실기술》 별집 권4, 사전전고.; 학림서원은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83년에 전라남도 유림 및 본손들에 의하여 유허비(遺墟碑)와 신실(神室)·내삼문(內三門) 등을 건립하는 등 1998년 복원되었다.

445 《명종실록》 명종 5년(1550) 2월 11일.

대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특수임무를 띠고 파견된 차사원(差使員)이 감영에서 잡무를 담당하는 색리(色吏)를 온갖 방법으로 힐책해도 임구령이 항상 협박하여 사실대로 고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광주목사의 파직을 청했다.⁴⁴⁶

임구령의 본관은 선산, 자는 연수(年樹), 대년(大年), 호는 월당(月堂)이다. 임우형(林遇亨)의 다섯째 아들로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의 동생이며, 아들은 평안도사를 지낸 임훈(林渾), 사위는 대사헌 박응복(朴應福)이다. 정난위사(靖亂衛社) 공신 2등에 책록되었고 정6품에 서용되었다.⁴⁴⁷

《대동야승》에 임구령에 대하여 이런 글이 있다.⁴⁴⁸

을사사화 때에 밀계가 내려지니, 양사(兩司)가 중학(中學)에서 회의하였다. 임구령은 임백령(林百齡)의 아우였는데, 윤돈인(尹敦仁)과 함께 누각 아래에 잠복하고 있었다. 장령 정희등(鄭希登), 사간 박광우(朴光祐), 정언 김난상(金鸞詳), 지평 김저(金儲), 집의 송희규(宋希奎), 정언 유희춘(柳希春), 장령 이언침(李彦忱), 헌납 백인걸(白仁傑) 등이 크게 그 잘못을 말하고 있었다. 임구령이 즉시 궁궐에 나아가 고변하니, 옥사가 드디어 일어났다. 옥사가 일어나서 임구령은 위사공신(衛社功臣)으로 녹훈되었다. 선조가 그 녹훈을 삭제하였다.

임구령은 1545년 공신도감낭청, 추성협익 정난위사 공신 장흥고령(長興庫令), 1546년 형조정랑, 1547년 추성협익 정난위사 공신 중직대부 제용감 첨정에 제수되었다. 이어 내섬시첨정, 절충장군 행 의흥위 부호군, 남양도호부사를 지내고 1550년 광주목사, 1552년 홍주목사로

446 《명종실록》 명종 7년(1552) 2월 29일.

447 《명종실록》 명종 즉위년(1545) 9월 1일.

448 《대동야승》, 涪溪記聞.

제수받았다. 이때 사관이 임구령을 평가하길 임백령의 아우라는 이유로 벼슬이 뛰어넘으며, 백성을 괴롭히는 폐단이 있었다고 기록했다.⁴⁴⁹

임구령의 관련 유적으로 전남 영암군 서호면 청용리에 월당 영당⁴⁵⁰과 선산임씨 재실인 영모재가 있다. 묘지는 영당 뒤편 50m 거리에 있는데 묘비 앞면에는 ‘유명조선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 행 통덕랑 수성금화사 별제 임공 휘 구령지묘/증 숙부인 난포박씨 부좌 (有明朝鮮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贊贊官行通德郎修城禁火司別提林公諱九齡之墓/贈淑夫人蘭浦朴氏附左)’라고 세로로 음각한 글씨 4행이 새겨져 있다.

48. 임봉(林鵬, 1486~1553), 재임 : 1552~1553

임봉(林鵬)은 《광주읍지》에 1552년(명종7)에 광주목사로 부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주향교지》에도 올라 있다. 임봉이 광주목사에서 언제 떠났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그의 후임 오겸이 1553년 6월 16일에 광주목사로 제수받았기 때문에 임봉도 이 시기에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임봉이 광주목사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은 ‘충거 임목사의 광주 떠남을 전송하며’⁴⁵¹라는 송별시로 지었고,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1486~1562)도 마찬가지로 송별시⁴⁵²를 지었다.

449 《명종실록》 명종 2년(1547) 2월 6일.

450 월당 영당 내에 있는 ‘임구령 영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전해지며, 규모는 가로 80cm, 세로 100cm이다.

451 임억령, 《석천시집(石川詩集)》 권5, 送沖舉出牧光州.

452 소세양, 《양곡집(陽谷集)》 권5, 林光牧鵬. 乞郡而去. 將有永休之志. 錦城營山之側於舊居. 構歸來亭. 求詩於縉紳. 將申二相鄭禮判詩邀和. 次其韻.

또 호음(湖陰) 정사용(鄭士龍, 1491~1570)의 글에 ‘귀래당(歸來堂)’⁴⁵³이 등장하는데, 이는 앞의 소세양의 글에서 ‘귀래정을 지었다[構歸來亭]’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임 중 귀래정이라는 정자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임봉의 본관은 나주이며, 자는 충거(沖舉), 호는 귀래당(歸來堂)이다. 그의 증조부는 임석주(林碩柱), 조부는 임귀연(林貴椽)이고, 부친은 호남병마우후를 역임한 임평(林枰, 1462~1522)이다. 그의 모친은 김옥(金沃)의 딸, 부인은 분의정국공신(奮義靖國功臣) 이종의(李宗義)의 딸이다. 임봉의 아들로는 승문원정자를 지낸 임복(林復, 1521~1576)과 평안도병마절도사 임진(林晉, 1526~1587)이 있으며, 손자로는 선조 때 정랑을 지낸 백호(白湖) 임제(林悌, 1549~1587)가 있다.

임봉은 1510년(중종5) 생원이 되었다. 1519년(중종14) 성균관 태학의 생원인 임봉 등 240여 명이 상소하여 조광조(趙光祖, 1482~1519)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옥에 가겠다고 청했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⁴⁵⁴ 이 사건은 기묘사화로 인해 조광조 일파가 화를 입게 되자, 그를 구하기 위해 상소하고 생원의 신분으로 대궐 문 밖에서 임금의 대답을 기다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기묘당적(己卯黨籍)에 올라 있다.⁴⁵⁵

1520년 과거시험 때, 임봉은 시관이 간사한 집권자한테는 아부하며 조광조 등 기묘명현의 명사들을 무시하는 것에 분노해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 어찌 차마 이 시(試)에 글을 지으랴!”하고 붓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521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1525년 예문관대

453 정사용, 《호음잡고(湖陰雜稿)》 권4, ‘남궁일록(南宮日錄)’에 ‘題光牧林沖舉歸來堂’이란 짤막한 글이 있다.

454 《중종실록》 중종 14년(1519) 11월 17일.

455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 1488~1545), 《학포집(學圃集)》 권9, 己卯黨禁錄에 실려 있다.

교, 1528년 사간원정언, 1533년 사헌부지평, 1535년 사헌부장령 등 여러 공직을 역임했다. 1536년 의주목사로 승진했으나, 허항(許沆, ?~1537)이 7자급을 뛰어넘었다며 이 인사를 비판했다.

1538년 동지사가 되어 표문을 갖고 북경을 방문한 뒤 돌아왔다.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은 임봉이 북경으로 떠날 무렵 송별시 ‘임봉 장관이 연경으로 가는 길을 전송하며’⁴⁵⁶를 썼다.

1539년 강원감사로 제수되었으나, 다음날 체직되었다. 이는 임봉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감사 제수 건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다. 간원이 임봉은 인물이 조잡하고 또 여러 사람이 이번 감사 제수 건에 대해 좋지 않게 평가하며, 그가 감사에 천거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므로 지방의 중한 책임을 맡길 수 없으니, 체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⁴⁵⁷ 중종은 이를 받아들였다. 1547년부터 장례원 판결사에 제수되었고 이후 호조 참의와 승지, 경주 부윤 등을 역임하였다.

임봉과 관련된 유적 ‘귀래정나주임공봉유허비(歸來亭羅州林公鵬遺墟碑)’는 전남 나주시에 있다. 백호임제기념관 부근인 전남 나주시 다시면 회진길 14-22 영모정 바로 아래 구릉에 있다. 처음 건립 때는 귀래정이라 불렀으나, 1555년 아들들이 증건하여 영모정이라 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이 유적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임봉의 삶은 과거시험에서의 반항적 태도로 시작하였으나 다양한 공직을 역임했다. 이러한 임봉의 삶은 우리에게 시대를 뛰어넘어 그의 업적을 기억하게 하며, 그의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높이게 한다.

456 신광한, 《기재집(企齋集)》 권3, 送林鵬令公赴燕京.

457 《중종실록》 중종 34년(1539) 8월 3일, 이날 사신이 부기하기를 “임봉의 무리가 삼흥(三凶)에 붙어서 그때 일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삼흥(三凶)은 정유삼흥(丁酉三兇)이라 하는데 중종 32년(1537)에 왕의 외척 윤원로 등이 흉물(凶物)이라고 하여 살해한 김안로(金安老), 허항(許沆), 채무택(蔡無擇) 등 세 사람을 말한다.

49. 오겸(吳謙, 1496~1582), 재임 : 1553~1555

오겸(吳謙)은 《광주읍지》에는 문과 가선대부로서 광주목사로 부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주향교지》에도 올라 있다. 오겸은 1553년(명종8) 광주목사를 제수받았다.⁴⁵⁸ 나이 80세 된 노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임명되었다.

오겸의 본관은 나주, 자는 경부(敬夫), 호는知足암(知足庵) 또는 국재(菊齋)이고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오신중(吳愼中)의 증손으로, 조부는 오자치(吳自治, 1426~?)로 무관 출신이다.⁴⁵⁹ 오겸의 부친은 부사 오세훈(吳世勳)이고 모친은 개성부경력 신말평(申末平)의 딸이다. 오겸은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수학한 유우(柳藕, 1473~1537)의 문인이다.

오겸은 1522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문음으로 관직에 올라 별좌가 되었다. 1528년(중종23) 5월 3일 남행(南行) 관원들이 ‘언행은 군자의 추기[言行君子之樞機]’라는 제목으로 부(賦)를 짓는 시험을 보았는데 수석을 차지하여 임금으로부터 서책 1권을 하사받았다.

1532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의령현감으로 나갔다. 1539년 12월 정언으로 제수받았으나 바로 체직되었다. 체직 이유는 사간원에서 “정언 오겸은 문음으로 벼슬길에 나와 관직이 현감에 이르렀는데, 벼슬길에 나선 뒤에 중요한 직위를 거치지 못하고 도로 외직에 보임되었다가 일이 있어 파직되었습니다. 그런데 벼슬을 내려 준 명이 내리던 날 즉시 본직에 제수하였으니, 사리와 체면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

458 《명종실록》 명종 8년(1553) 6월 16일.

459 1467년(세조13)에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 토벌에 공을 세운 적개공신으로 책봉되어 1476년(성종7)에 공훈의 일환으로 공신상(보물)이 제작되었다. 오자치는 당시 사도병마도총사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의 휘하에서 공을 세워 적개공신 2등 나성군(羅城君)에 책록되었다. 활을 아주 잘 쏘았고, 아버지가 연로하시게 되자 나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라 언관(言官) 또한 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며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기 때문이다.⁴⁶⁰

1540년 5월 사간원 헌납, 1541년 3월 사헌부 지평에 오르고 홍문록에 뽑히기도 했다. 1541년 11월 사헌부 장령, 1542년 12월 사헌부 집의가 되었고 1544년 남원부사로 있을 때 전라감사 송인수(宋麟壽)가 그의 선정을 치계하니 증증이 한 자급을 올려주었다.⁴⁶¹

1547년 전라감사로 제수되었으나 사헌부에서 호남지역의 폐습을 지적하면서 오겸이 나주 출신이므로 체임해야 한다고 상소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1547년 순천도호부사, 전주부윤, 1550년 김해부사에 금양군으로 삼았다가 담양부사로 제수됐다.

1553년 2월 명종은 파직 중이던 오겸을 경주지역의 도적을 구휼할 수 있는 인자한 사람이라며 송순에게 차견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따라 경주부윤에 임명되었는데 며칠 후 간원이 “경주에 도적이 일어난 것은 기한(飢寒) 때문에 생긴 것이니, 지금의 수습책으로는 그들을 어루만져 안정시키는데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겸은 80이 된 노모가 있어 기한 안에 부임하기가 어려우니 오겸을 체직하고 다시 임명해야 합니다”라고 했다.⁴⁶²

그리고 오겸은 1553년 6월에 광주목사를 제수받았고, 1556년 호조 참판, 1557년 병조참판, 이어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다. 1558년 1월 경상감사로 있을 때는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의 문집인 《동주집(東洲集)》을 간행했다.

460 《증종실록》 증종 34년(1539) 12월 2일.

461 《증종실록》 증종 39년(1544) 2월 27일, 송인수가 사헌부 대사헌이던 시절인 1541년(증종36) 11월 28일 하늘에서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민생의 폐단과 인재를 잘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상소를 올렸는데, 오겸이 송인수의 뜻을 헤아려 무려 4,253자에 달하는 이 상소문을 썼다고 한다. 그만큼 송인수가 오겸을 믿었다는 것이다.

462 《명종실록》 명종 8년(1553) 2월 28일.

1559년 3월 예조판서, 1559년 8월 호조판서, 1561년 6월 병조판서, 1562년 7월 예조판서, 1563년 2월 호조판서, 1564년 1월 판증추부사, 1565년 1월에는 병조판서의 직을 맡은 지 6개월이 되었는데 “나이가 70이 되었고 질병이 번갈아 침범하니” 체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명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65년 2월 이조판서로 임명되자 이때 사관은 오겸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했다.⁴⁶³ 오겸은 이조의 당상으로 있던 참판 이탁(李鐸), 참의 진식(陳寔)과 색 낭청(色郎廳)으로 있던 정랑 기대승(奇大升), 좌랑 윤두수(尹斗壽)와 함께 사헌부로 추고를 당했다.⁴⁶⁴ 기록에는 영릉 참봉(英陵參奉)의 결원이 있었을 때 낭청에서 효행이 있는 사람을 주의할 것을 청했는데, 오겸이 강제로 김명윤(金明胤)의 생질 심인기(沈仁祺)를 1등으로 추천했기 때문이다.

오겸은 지관사(知館事)로 《명종실록》 편수관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1571년(선조4)에 오겸(吳謙)과 이탁(李鐸)이 우상(右相)에 의망(擬望) 되었는데 오겸이 낙점(落點)받았다.⁴⁶⁵ 3년 뒤인 1574년에 송순, 백인걸 등과 함께 은퇴하였고, 1580년(선조13)에 선조는 오겸과 송순 등에게 쌀과 콩 등을 주어 노재상을 대접하였다.⁴⁶⁶

50. 이희손(李希孫, 1497~1566), 재임 : 1555~1557

이희손(李希孫)은 《광주읍지》에 무과 당하관으로 부임했다고 기록되

463 《명종실록》 명종 20년(1565) 2월 30일.

464 《명종실록》 명종 20년(1565) 11월 7일.

465 《선조실록》 선조 4년(1571) 5월 20일.

466 《선조실록》 선조 13년(1580) 4월 28일, 傳曰: “吳謙, 宋純俱以宰相, 退老于鄉, 雖不受祿俸, 予意斟酌磨鍊, 令本道歲賜米太, 以示予厚待老宰之意, 如何? 其舊規之有無, 則予未知, 但予偶思之, 故言之. 此意問于該曹, 且食物題給事, 下書于本道.”

어 있다. 《명종실록》에는 1555년 무렵 광주목사로 재임 중이었던 것으로 나온다.⁴⁶⁷

왜놈들이 강진현 달량진에 들어왔을 때 당시 감사 김주(金澍)가 광주목사 이희손을 임시 장수로 삼고 강진현감 홍언성(洪彦誠), 나주판관 김기(金錡) 및 전 부사 박민제(朴敏齊), 마량첨사 홍수양(洪守讓)과 함께 강진현을 지키도록 했다.⁴⁶⁸ 그러나 5월 30일 광주목사 이희손 등이 모두 성을 버리고 도망가자 적들이 성으로 들어와 병영의 군량을 모두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남주역(南州驛)의 벽에 당시의 여러 관리의 패악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었는데 그중에 “구출하지 않은 광주목사(이희손) 잡아먹고 싶고[不救欲食光牧肉]”라는 내용도 있었다.⁴⁶⁹ 이희손은 강진 달량진 왜구 침입 사건이 문제가 되어 제주에 유배되었다. 이는 당시에 이희손이 광주목사로 재임 중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희손의 본관은 전주, 자는 공망(公望)이다. 양녕대군의 증손인 보안정(保安正) 이수남(李壽男)의 아들이며, 모친은 노공저(盧公著)의 딸이다. 종실의 아들인 셈이다. 이희손은 1531년(중종26) 생원이 되고, 1533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을 지냈다.

1536년 1월 주서, 1537년 7월 사간원 정언을 지냈다. 1538년 병조정랑으로 있을 때는 사헌부에서 이희손이 지난날 빌붙으며 비루한 짓을 많이 하였으므로 정조(政曹)에는 합당치 않다며 체직해야 한다고 상소했으나 중종은 이희손이 종실의 지친(양녕대군의 현손)이라는 이유로 녹을 잃게 할 수 없다며 예전에 파직했던 일로 충분하며 고치지 말라

467 《명종실록》 명종 10년(1555) 5월 28일.

468 《명종실록》 명종 10년(1555) 5월 28일, 5월 30일.

469 《연려실기술》 권11에서는 ‘李希孫’을 ‘李希孝’로 잘못 적고 있다.

고 했다.⁴⁷⁰

1540년 10월 영광현령, 1543년 호조정랑, 그리고 같은 해 6월 곤양 군수로 있을 때는 노비를 데리고 있었던 것 때문에 죄를 받았는 데도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율에 따라 또 죄를 받았다.⁴⁷¹ 1549년 1월 장령, 1551년 11월 통정대부 경원부사로 삼았다. 경원부사로 제수되었을 때에 사관의 부기에 좋지 않은 평가가 있다.⁴⁷²

《대동야승》에 이제신(李濟臣, 1536~1583)이 찬한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鯁鯖瑣語)’라는 글의 청강선생시화(淸江先生詩話)에 왜구 침입으로 강진에서 도망친 관리들의 행태에 대해 적은 글이 있다.⁴⁷³

을묘년 호남의 왜변에 나라가 태평한지 오래여서 여러 장수 중에 군율을 잃은 이가 많았는데, 남주역(南州驛) 벽에 다음과 같은 시가 쓰여 있다.

長興民若喪考妣 장흥 고을 백성들이 부모상 당한 것 같았으니
知公韓公政術仁 한운(蘊) 공의 정사가 인자한 줄 알았네
不救欲食光牧肉 구출 않은 광주목사(이희손) 잡아먹고 싶고
却走當裂水使身 퇴각하여 도망친 수사(김빈) 몸뚱이를 찢어야지
超資李尹眞丈夫 초자한 이(潤慶) 부운은 참다운 장부인데
遷職邊倖乃詐臣 전직된 변협(協)은 간사한 신하이리라
監司奈何昧圖策 감사(金澍)는 어찌하여 대책에 어두웠는가
防禦胡爲嗜殺人 방어사(南致勤)는 어찌해 사람 죽이기를 즐길까

470 《중종실록》 중종 33년(1538) 7월 17일.

471 《중종실록》 중종 38년(1543) 6월 22일.

472 《명종실록》 명종 6년(1551) 11월 2일, 이희손은 28세로 젊었을 때인 1525년에도 아내 송씨의 종 칠금(七今)과 간음하며 지내 송씨가 고통을 받았고, 다른 관리의 종 금이(金尹)도 첩으로 삼아 아들을 낳았는데 송씨는 마침 아들이 없어 독심을 갖게 만들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중종 20년(1525) 2월 27일.

473 《대동야승》, 이제신(李濟臣), 淸江先生鯁鯖瑣語.

元帥錦城堅退坐 원수(李浚慶)는 나주로 물러서 굳게 앉았고
 節度中路故逡巡 절도사(趙安國)는 일부러 중로에서 머뭇거리네
 有功達泗歸何處 공 있는 양달사는 어디로 갔을까
 無意忠貞任康津 뜻 없는 충정(柳)은 강진으로 갔다네
 棄城彥誠宜先斬 강진성 버린 홍언성은 마땅히 먼저 베어야 하고
 空鎮崔滌罪唯均 진도진을 비운 최린도 죄가 똑같다
 食祿當時俱尸位 녹만 먹던 그 당시 모두 시위 소찬하였기에
 臨危此日各見眞 위태로운 오늘 각기 그 본색이 나타났네
 德堅乞降何須責 영암군수 이덕견의 항복 문책하여 무엇하랴
 元績輕躁不足嘖 원적(兵使陷沒)의 경솔함을 꾸짖을 것 없네
 橫行倭賊誰能敵 횡행하는 왜적 뉘 능히 당하랴
 邑里焚燒困民生 고을과 마을 다 타버려 민생이 곤궁하네
 賞罰不明公道滅 상벌이 불분명하면 공도가 소멸하니
 惆悵君羞雪無因 슬프고 걱정스럽긴 인군의 수치를 씻을 수 없네

이 글이 어떤 사람이 지은 시이며 논평 또한 모두 지당하게 되었는지 않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또한 하나의 시사(詩史)라고 생각된다.

이 글을 보면 달량진 일대에 왜구가 침입했을 때 이희손이 제대로 공
 격하지 않아 관군을 구원하지 못했고, 오히려 도망하기까지 했다는 상
 황을 보여준다.

이희손은 제주에 유배된 후 1556년 왜구가 제주를 침략했을 때 종군
 하여 공을 세우고 풀려 돌아와 무관직인 오위장에 다시 등용되었다. 뒤
 에 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하지만 1557년 11월 사헌부가 이희손에
 대해 고신(告身)을 도로 거두어야 한다고 해 명종이 이를 받아들였다.

국역 《국조인물고》 권24에 이희손의 인물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영중 추부사를 지낸 홍섬(洪暹, 1504~1585)의 《인재집(忍齋集)》에 ‘유명조선국정출장군첨지중추부사이희손묘갈명(有明朝鮮國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李公墓碣銘)’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51. 박자방(朴自芳, ?~?), 재임 : 1557~?

박자방(朴自芳)은 《광주읍지》에 1557년(명종12) 무과 당하관으로 광주목사에 부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명종실록》 등 다른 기록에서는 광주목사 제수와 관련된 그의 행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의 기록으로는 박자방(朴自芳)의 본관은 고령이며, 자는 희실(希實)이다. 조부는 홍문관 교리(校理)를 지낸 박문간(朴文幹), 부친은 봉정대부 성균관전적 박진(朴稹, 1466~1520)이다. 모친은 영인 성주이씨이다. 형은 박자훈(朴自薰), 박자영(朴自英), 박자위(朴自葦)이고 동생은 박자구(朴自堯)이다. 부친 박진은 1513년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여 병조정랑을 지냈고, 형 박자영은 1534년 식년시 병과 1위, 1538년 탁영시(擢英試) 병과 5위였고 정랑을 지냈다.

박자방은 1532년(중종27) 임진년 별시에 무과로 급제했고 1541년 강진현감, 1546년(명종1) 증시 병과에 26위로 급제했다. 다대포첨사(多大浦僉使)를 지냈다.

강진현감으로 있을 때 재상어사(災傷御史)가 현지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 결복수(結卜數)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둘째로 많다고 보고하여 인의(引儀)로 체임되었다. 이에 따라 어떤 지방의 주민에게 불명확하게 세(稅)를 거두어 원망을 사고 있다며 파직해야 한다고 했다. 중종이 이를 받아들였다.⁴⁷⁴

474 《중종실록》 중종 36년(1541) 9월 16일.

52. 황윤건(黃允審, ?~?), 재임 : 1559

황윤건(黃允審)은 《광주읍지》에 1559년(명종14)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광주를 제외한 다른 기록에서는 그 이름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다른 기록에서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국 《광주읍지》의 기록에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이름으로는 1562년에 남원부사로 부임한 ‘황윤관(黃允寬)’이 있다.⁴⁷⁵ 황윤관은 실록에 1540년 제용감판관(濟用監判官), 1541년 충익부도사(忠翊府都事), 1542년 제주판관, 1551년 위원군수(渭原郡守), 1553년에 만포첨사(滿浦僉使), 1563년 남원부사 등의 기록이 보인다.

또한 1472년 광주목사로 제수된 이영구는 1452년에 남원부사를 지낸 기록⁴⁷⁶이 있고, 1550년 광주목사였던 임구령은 1561년 남원부사를 지냈으며,⁴⁷⁷ 1553년 광주목사로 제수된 오겸은 1544년 남원부사로 부임했던⁴⁷⁸ 사례를 볼 때, 황윤관도 광주목사로 왔을 개연성을 두고 차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53. 이증영(李增榮, ?~1563), 재임 : 1559~1560

이증영(李增榮)은 《광주읍지》에는 올라 있지 않고 《광주향교지》 기

475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에 증직된 황균비(黃均比)의 손자가 황희(黃喜, 1363~1452) 정승이며, 6대손이 황윤관이다. 1542년 무과에 급제했고, 1562년 남원부사로 부임, 1564년까지 있었다.

476 문종 2년(1452) 3월 28일.

477 명종 16년(1561) 4월 29일, 1562년 11월 26일, 남원부사 재임 중 사망했다.

478 중종 39년(1544) 2월 27일.

록에는 있다. 이증영은 광주목사로 있다가 유잠(柳潛)이 1560년 5월 성절사로 중국 연경에 가게 되자, 7월에 침지중추부사로 그 자리를 대신했다.

명종 때에 “침지중추부사 이증영이 전에 비록 특명으로 본직에 제수되었지만, 일찍이 광주목사로 있었을 때 유잠(성절사로 연경에 갔다)을 대신해, 그 직에 제수되었으니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증영이 광주에서 체직되자 줄 만한 직책이 없지 않았을 텐데도 그 자리가 비었다고 전조가 계품하였으므로, 유잠이 이미 침지에 제수되었는데 이증영을 임임(仍任)시켰습니다”⁴⁷⁹라는 기록이 있다.

이증영의 본관은 덕산이고, 음직으로 벼슬에 올랐다. 영의정을 지낸 노수신(盧守愼)과 돈녕부첨정을 지낸 노극신(盧克愼, 1524~1598)은 그의 외손이다.

이증영은 1534년 황기로(黃耆老, 1521~1575)와 함께 사마시에 합격했고 이후 명종이 대군으로 있을 당시 그의 사부로 있었다. 명종이 즉위한 뒤 벼슬길에 올라 1546년(명종1) 활인서 별좌에서 주부가 되었고, 1552년(명종7) 공조정랑 등 여러 벼슬을 거친 뒤 1554년에서 1557년까지 합천군수를 지냈다.

1554년의 극심한 흉년에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여 구휼하고, 청렴하게 관직 생활을 했던 내용이 1559년에 세운 ‘합천군수 이증영 유애비(陝川郡守李增榮遺愛碑)’에 있다. 이 비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경남 합천군 죽죽길 80에 있다. 비문을 지은 이는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이고, 글씨는 고산(孤山) 황기로(黃耆老)가 썼다.

황기로는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초서를 잘 써서 ‘초성(草聖)’이라 불렸다. 그의 글씨 가운데 초서는 여러 점 있지만, 해

479 《명종실록》 명종 15년(1560) 7월 10일.

서의 경우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 완성된 작품은 이 비석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글을 지은 조식은 경의사상(敬義思想)에 따라 살았던 사람으로, 비문의 내용 또한 신빙할 만하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높다.

또한 《대동야승》에 이증영이 합천군수로 있으면서 가장 잘 다스렸다면 합천사람 사문 주이(周怡)가 그에게 송별시를 지어주기를, “만 사람의 입이 바로 비(碑)인데 하필이면 돌을 쓸까 / 한마디 말로 노자 싹짓 돈을 줄 것 무어랴”라고 썼다.⁴⁸⁰

1559년 9월 첨지중추부사가 되었으며 1563년 청주목사 재임 중 사망했다.⁴⁸¹ 청주목사로 있을 때 서원향약(西原鄉約)을 창안했는데 뒤이어 율곡 이이가 1571년 청주목사로 있으면서 완성하였다.

54. 유경심(柳景深, 1516~1571), 재임 : 1560~1562

유경심(柳景深)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 기록에는 1560년 문과 통정대부로 부임했다. “향교를 중수하고 넓히니 흥학비를 세우고 선정비를 세웠다”라고 적고 있다. 《광주읍지》에 선정비가 있다는 기록은 모두 14명인데, 유경심도 그중의 한 명인 셈이다.

이황(李滉, 1501~1570)과 기대승(奇大升, 1527~1572) 간에 사단칠정 논쟁을 편지로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때로는 광주목사가 그 편지를 배달도 했던 것 같다. 1561년 이황이 기대승에게 답장을 보낸 글의 첫머리에 ‘광주목사가 편지를 갖고 왔다’라고 할 때의 목사는 유경심이었다.⁴⁸²

480 《대동야승》, 권응인(權應仁), 송계만록(松溪漫錄), ‘萬口是碑安用石 一言爲驢不須金’.

481 《명종실록》 명종 18년(1563) 7월 14일 기록을 보면 이증영은 명종이 대군 시절 사부로 지낸 인연으로 이증영이 출하자 상가에 치제와 함께 2품직을 추증하였다.

482 이황, 《퇴계집(退溪集)》 권17 / 書, 答奇明彦 辛酉 ‘光牧來寄惠札’이라고 하여 1561년에 전달된 편지에 대한 답장을 말한다.

유경심의 본관은 풍산, 자는 태호(太浩), 호는 구촌(龜村)이다. 호군 유소(柳沼)의 증손으로, 조부는 진사 유자온(柳子溫), 부친은 정랑 유공권(柳公權)이며, 모친은 영양남씨로 진사 남팔준(南八俊)의 딸이다. 유성룡(柳成龍)은 집안의 족질이다.

1537년(중종32) 사마시에 합격했고, 1544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문관검열과 홍문관정자를 지냈다. 1546년 승정원주서로 문과증시에 장원하고 사간원정언이 되었으며, 1547년 예조좌랑과 홍문관수찬이 되었다. 이 해에 정미사화(丁未士禍)⁴⁸³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1551년 다시 기용되어 (보은군 지역의) 회인현감, 1553년 (충주 지역의) 유신현감 등을 거쳐 1558년 7월에 종성부사가 되었다가 다음 달인 윤7월에 다시 정주목사가 되었다.⁴⁸⁴ 명종은 이에 대해 “성(城) 쌓는 일은 유경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가? 급급하게 승진시켜 서용한 뜻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했다.

1560년 광주목사, 1563년 의주목사, 1565년 회령부사, 함경북도 절도사를 지내고, 1568년(선조1) 9월에 호조참판으로 성절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예조참판과 대사헌을 거쳐 1571년 병조참판과 평안감사를 지냈다.⁴⁸⁵ 평안감사 재직 중에 병이 있어, “신은 병이 심하여

483 1547년 문정왕후와 이기 등을 비방한 벽서를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서 부제학 정언각(鄭彦愨)이 발견하였다. 이에 이기 등은 이것이 을사사화의 뿌리가 남는 것이라 하여 대윤의 잔당으로 지목된 송인수(宋隣壽)와 이약수(李若水) 등을 죽이고 권별·이언적·정자(鄭滋)·노수신(盧守愼)·유희춘(柳希春)·백인걸 등 20여 명을 유배 보냈다.

484 실제 내용은 백성을 부역시켜 언전(堰田, 제방을 쌓아 만든 밭)을 개간하려는 윤원형(尹元衡)에 반대하다가 종성부사로 전출됐다고 한다.

485 이 무렵 유경심과 미암 유희춘(1513~1577)과의 바둑 일화가 《대동야승》에 김시양(金時讓, 1581~1643)이 쓴 ‘부계기문(涪溪記聞)’에 실려 있다. “미암은 바둑을 잘 두었다. 참판 유경심(柳景深) 또한 바둑을 잘 둔다고 자부하였다. 미암이 종성에서 귀양살이할 때, 유경심은 원수(元帥)로서 행영(行營)에 주둔하고 있었다. 매번 빈객을 물리치고 사잇길로 달려와서 승부 내기를 하였으며, 간간이 글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한 달에 3~4회 씩 오기만 하면 이를 밤을 묵었는데, 북쪽 사람들은 지금까지 훌륭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직무를 볼 수가 없으니, 돌아가 서울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가련하게 여기고 허락하여 동지중추부사로 고쳐 제수하였는데 상경도중 장단에서 죽었다.

유경심(柳景深)과 장문보(張文輔, 1516~1566), 변영청(邊永淸)을 화산삼걸(花山三傑)이라 했고, 저서로는 《구촌집(龜村集)》이 있다. 《구촌집》에서는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신은 극기에서 이룩되는 것인데, 극기하는 방법은 바로 경에 있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원리가 임금의 마음이 진실함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왕도와 패도의 이치를 논하고 역대 성왕의 치정을 열거하여, 위민정치와 애민정치를 강조하였다.

경북 안동의 일직면 소호리에 장문보와 유경심이 함께 구담서당(龜潭書堂)을 짓고 후진을 양성하며,⁴⁸⁶ 구봉(龜峰) 김수일(金守一, 1528~1583), 구계(龜溪) 이중립(李中立, 1533~1581) 등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던 장소가 있었다.

《대동야승》을사전문록(乙巳傳聞錄)에 아주 짧은 ‘유경심 전(柳景深傳)’이 실려 있다.⁴⁸⁷ 고봉 기대승은 유경심이 감사일 때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은 시가 있는데, 이는 《고봉집》에 실려 있다.⁴⁸⁸

다”, 부계(涪溪)는 종성(鐘城)을 말한다. 유희춘은 1547년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곧 함경도 종성에 유배되어 19년을 보냈고, 김시양도 1612년 종성에 유배되어 유희춘의 일화를 쓰게 된 것이다.

486 이상정(李象靖, 1711~1781) 《대산집》 권43 서/《남주일록》 서문[南州日錄序]에 “와룡산(臥龍山) 남쪽에 구담서당(龜潭書堂)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고(故) 사헌부 장령 순천(順天) 장공(張公 張文輔)과 구촌(龜村) 유공(柳公 柳景深)이 창건하여 한 지방의 학문을 계도하였는데, 그 유풍(遺風)과 여교(餘教)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487 柳景深字太浩。文化人。登甲辰科。爲承政院注書。又登丙午重試壯元。爲弘文館修撰。丁未爲鄭彥愨所告。臺諫請罷其職。後復敘。歷敷清顯。官至禮曹參判卒。

488 기대승 《고봉집(高峯集)》 권1, 시편, 陪柳觀察使飲代侍兒作。

유희춘의 《미암집》에 ‘만유태호경심(輓柳太浩景深)’, 노수신의 《소재집》에 ‘류감사경심만(柳監司景深挽)’, 기대승의 《고봉집》에 ‘제류경심문(祭柳景深文)’ 등이 있고, 권응인(權應仁, 1517~?)이 유경심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시를 지었다. 오건(吳健, 1521~1574)의 《덕계집(德溪集)》에 ‘만유참판(輓柳參判)’, 정구(鄭述, 1543~1620)의 《한강집(寒岡集)》 별집 권2 제문 편에 ‘제유대헌묘문(祭柳大憲墓文)’, 《구촌집(龜村集)》에 류중영(柳仲郢)이 쓴 ‘고가선대부사헌부대사헌류공행장(故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柳公行狀)’이 있다. 예조판서 유성룡(柳成龍)이 묘갈명⁴⁸⁹을 썼다.

55. 윤복(尹復, 1512~1577), 재임 : 1562~?

윤복(尹復)은 《광주읍지》에 문관 당하관으로 왔다는 기록이 있다. 《광주향교지》에도 올라 있다. 1562년(명종17) 광주목사가 되었는데 병으로 사임하였다.

윤복의 본관은 해남, 자는 원례(元禮), 호는 석문(石門) 또는 행당(杏堂)이다. 조부는 윤경(尹耕)이며, 부친은 생원 윤효정(尹孝貞)이다. 형인 윤구(尹衢)와 윤행(尹行)과 함께 3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문명을 날리던 고관들이었다. 그 후손으로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1587~1671),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로 이어지는 명문의 학문가를 이룩했다.

윤복은 1534년 생원이 되고, 1538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1547년 부안현감으로 부임하여 백성들의 굶주림을 보고 구휼에 진력했

489 묘갈명에 ‘庚申爲光州牧使。愛養小民。斷制豪右。一境肅然。亦有清德碑。期滿且還也’이라고 쓰여 있다. 경신년에 목사가 되었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였으며 토호(土豪)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했다. 청덕비가 있고 임기가 다 되어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다. 그 뒤 전라도사를 거쳐 1553년 낙안군수가 되었다. 이때 사관은 윤복에 대해 “성품이 정직하고 절개가 굳었다”라는 좋은 평가를 했다.⁴⁹⁰

윤복이 낙안군수일 때 왜구가 쳐들어와 인근 여러 성을 함락하고 노략질하자, 성과 무기들을 보수하여 방비를 철저히 했다. 1565년 안동 대도호부사로 부임하였는데, 60리 넘게 떨어진 예안에 거주하던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과 교류하였고,⁴⁹¹ 유희춘은 그를 꿈에서 보았다고 일기에 적었다.⁴⁹² 1571년 사성에 제수되었고, 1572년 수찬과 장령이 되었으며 1573년 집의와 승정원 좌·우부승지를 거쳐 충청감사, 나주목사를 지냈다.⁴⁹³

윤복은 학문이 깊었고 곧은 성품으로 선정을 베풀었으며, 호남사람의 한 축을 형성한 인물이다. 관인의 생활사 자료를 기록한 <전라도도사시일록(全羅道都事時日錄)>과 <은대일록(銀臺日錄)>⁴⁹⁴을 남겼는데,

490 《명종실록》 명종 8년(1553) 9월 19일.

491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사계전서(沙溪全書)》 권42 ‘부(附) 상제례담 문변의(喪祭禮答問辨疑)’에 실린 글이 있다. 이때 퇴계 이황이 안동부사 윤복에게 준 편지에 이르기를, “전에도 간혹 기일을 만나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을 때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기(忌) 때문에 손님을 소찬(素饌)으로 대접하는 것은 이미 미안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님이 주는 고기를 받아 두었다가 뒷날 먹는다고 하면, 이는 더욱더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으레 감히 고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저께 단자(單子)를 받았을 적에 미처 살펴보지 못하였다가 날이 저문 뒤에야 그 속에 노루고기와 전복 등의 물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이미 받은 것이라고 하여 그냥 둔다면 전에 했던 것이 헛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재차 사양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삼가 사람을 보내어 두 가지 물품을 하인에게 돌려 드립니다. 삼가 미약한 정성을 굽어살피시고 괴이하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한 데 대하여 비록 상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육(魚肉)을 줄 때 받아서 제전(祭饗)으로 올리거나 노친을 봉양하면 될 것이다. 기일(忌日)에 고기를 사양하여 받지 않는 것은 상정(常情)에서는 구속되어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의(用意)의 세밀함은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는 바이다.

492 유희춘, 《미암집》 권7 일기, 1570년 6월 25일, 夢見尹元禮.

493 《선조실록》 선조 6년(1573) 9월 19일에 충청감사에 제수되었으나 다음 달인 10월 28일 곧바로 나주목사에 제수된 것을 보면 충청감사는 부임하지 못한 채 자리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494 《전라도도사시일록》과 《은대일록》은 윤복이 전라도사와 승정원에서 근무하던 때에 쓴

1930년에 5권 3책으로 간행된 《행당유고(杏堂遺稿)》에 실려 있다.

전남 강진군 도암면 용흥리 산23-23번지에 ‘강진 윤복신도비’가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 신도비는 원래 1698년경에 세워졌는데, 그의 현손인 윤주미(1641~1698)가 안동에까지 가서 예조판서를 지낸 하계(霞溪) 권유(權愈, 1633~1704)⁴⁹⁵에게 비문을 받아왔으며, 전서는 사헌부 대사헌 권규(權珪, 1648~1722), 비문은 이조판서를 지낸 오시복(吳始復, 1637~1716)이 썼다.

현재의 비문은 원래 비문에 내용을 추가하여 1822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이때 비문은 윤복의 10대손인 윤종겸(尹宗謙, 1793~1853)이 쓰고, 9대손인 윤규로(尹圭魯, 1769~1837)가 전서를 써서 세웠다. 신도비문 외에 새로 세우게 된 연유와 원 비문 이후의 후손록을 윤종겸이 추가하였다.

56. 김적(金適, 1507~1579), 재임 : 1563~1564

김적(金適)은 《광주읍지》에 1563년 문과 당하관으로 부임했다. 《광주향교지》에도 올라 있다. 김적은 명종 때에 광주목사로 있다가 다른 직위로 옮겨갈 때 사헌부에서 아래와 같이 반대하는 상소 의견을 낸 기록이 있다.⁴⁹⁶

헌부가 아뢰기를, “요사이 학교가 해이해져서 사풍(士風)이 아름답지 못한 까닭에, 상께서 학풍을 일으키려고 사유를 골라 뽑아서 가르치는 것을 전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광주목사 김적은 성품이

업무일기로 《행당집(杏堂集)》 권3에 실려 있다.

495 하지영(2018), “하계(霞溪) 권유(權愈) 산문 소고”, 한국고전연구 42, pp.175~214. 이 논문은 권유의 생애가 정리되어 있다.

496 《명종실록》 명종 19년(1564) 윤2월 11일.

본디 탐욕스럽고 간사스러워 오직 권력에 아부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습니다. 전에 유신현감(惟新縣監, 지금의 충주지역)이 되었을 때는 관고(官庫)의 재물을 배로 실어다가 뇌물로 바쳐 출세하는 밀천으로 삼았고, 광주목사가 되었을 때도 비루한 일을 많이 행하여서 사류(士類)에 용납되지 못한 지가 오래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관직일지라도 다시 임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어찌 사유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김적을 삭제하여 사유의 선발을 중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뢰는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김적의 본관은 나주, 자는 희정(希正), 호는 취암(鷲巖)이다. 부친은 승사랑 전 흥양훈도 김수남(金粹南)이다. 무안 몽탄에서 거주하며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김충수(金忠秀, 1538~?), 김효수(金孝秀), 김덕수(金德秀), 김재수(金載秀), 김진수(金振秀)이다. 임진왜란 때에는 김충수 등이 의병을 일으켜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적의 동생 김원(金遠) 역시 5남을 두었는데 그들은 김인수(金仁秀), 김의수(金義秀), 김예수(金禮秀), 김지수(金智秀), 김신수(金信秀)다.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최경희 장군이 김원의 사위다. 김적에게는 최경희 장군이 조카사위다.

김적은 1537년 진사가 된 후 1543년(중종38) 식년시 문과 병과 19위로 급제하였다. 1546년 성균관 학유로 있을 때 차지관(次知官)의 직책으로 주서(朱書)로 평점을 매겨둔 과거시험의 시지(試紙)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신여음(申汝暉)과 함께 추국당한 일이 있다.

김적은 을묘왜변 때 김제군수로 있으면서 전라도도순찰사 이준경(李浚慶)의 중군이 되어, 전라우도방어사 김경석(金景錫), 전라좌도방어사 남치근(南致勤) 등과 함께 영암·남평 등지에서 왜구를 격퇴한 공적을 세웠다. 을묘왜변은 1555년 5월 11일 왜구 6천여 명이 70여 척의 배에

나뉘 타고 와 해남의 달량진(達梁津, 지금의 해남군 북평면 남창)과 진포(梨津浦, 해남군 북평면 이진)에 상륙해 노략질한 사건이다.

김적은 고성군수 시절에도 간원이 “유신현감(維新縣監)으로 있을 때 권문(權門)으로 곡식을 배로 실어 보냈고 또 백성들에게 못을 메우고 논을 만들게 하여 권문에게 주었기 때문에 충주(忠州) 백성들은 아직도 원망이 뼈에 사무쳐 있고 사론(士論)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한 지 오래입니다”라고 탄핵하면서 수령에 제수하지 말 것을 상소하여 선조의 허락을 받은 바 있다.⁴⁹⁷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의 《호음잡고(湖陰雜稿)》⁴⁹⁸에 그에게 주는 시가 남아 있다. 1582년 호남 유림은 조정의 허락을 받아 취암서원을 세웠다.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1315-5번지 소재 우산사(牛山祠)에 제향되었다. 예조판서에 추증되었다.

57. 신륵(辛崙, 1504~1565), 재임 : 1564~1565

신륵(辛崙)은 《광주읍지》에 1564년에 문과 당하관으로 부임했다. 《광주향교지》 기록에도 있다. 《광주읍지》에 그의 이름이 ‘신륵(申崙)’으로 잘못 적혀 있다.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이 쓴 신륵의 묘비명에는 1563년 가을에 광주목사로 부임했다고 적혀 있다.⁴⁹⁹ 어머니의 봉양을 위하여 광주목사로 온 신륵은 어머니가 연로해 여정에 나설 수 없어 관직을 포기하고 돌아와 직접 음식을 장만해 봉양하는 등 효도를 다하였다.⁵⁰⁰

497 《선조실록》 선조 4년(1571) 10월 19일.

498 정사룡의 《호음잡고》는 1573년에 8권 8책으로 간행했다.

499 조식, 《남명집(南冥集)》 권4 보유, 通訓大夫光州牧使辛公墓銘, ‘癸亥秋。又乞爲光州牧使’ 따라서 《광주읍지》 기록과 다르기 때문에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500 癸亥秋。又乞爲光州牧使。母夫人以年老不任登道。遂棄官歸養。

본관은 영산(靈山), 자는 경립(景立), 절도사 신숙청(辛叔淸)의 증손으로, 조부는 황주판관(黃州判官) 신수무(辛秀武)이고, 부친은 통례원 좌통례를 지낸 신필주(辛弼周, 1478~1550)이며, 모친은 창원황씨(昌原黃氏)이다. 부인은 선무랑 남정소(南廷召)의 딸 의령남씨(1510~1556)이고 2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신여근(辛汝謹)과 신여성(辛汝誠)이고 딸은 사성(司成) 진관(陳瓘)의 아들 진유경(陳裕慶)에게 시집갔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조식(曹植, 1501~1572)과 교유하였다. 1516년에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 1546년(명종1)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 성균관학정과 박사를 거쳐 전적에 오르고 다시 형조좌랑에 임용되었다. 1550년 경상도도사와 춘추관기주관을 역임하고, 이해 10월에 부친상을 당했다. 1552년에는 함경도사로 임명되었으나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야 하므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부임하지 않았고 예조·공조·형조의 정랑을 지냈다.

1560년 성주목사로 제수받았고, 어머니 봉양을 위해 지방 고을을 요청하여 예천군으로 나갔다가 영해부사를 거쳐 1563년 광주목사가 되었다. 1565년 5월에 병환이 나 향년 62세로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경남 창원군 도천면의 향양사(向陽祠)에 제향되었다.

주세붕(周世鵬)도 신륵과 가까운 사이였는지 ‘차신륵운(次辛崐韻)’과 ‘기달산고사자희증신륵(悵怛山姑射子戲贈辛崐)’이라는 시를 남겼다.⁵⁰¹ 또 조식이 ‘통훈대부광주목사신공묘명(通訓大夫光州牧使辛公墓銘)’ 외에 신륵의 부인 묘지인 ‘숙인남씨묘표(淑人南氏墓表)’⁵⁰²를 쓰는 등 오랫동안 조식과 신륵은 우의를 가진 관계였다. 《국조인물고》에 조식(曹植)이 쓴 묘갈명이 있다.

501 주세붕(周世鵬), 《무릉잡고(武陵雜稿)》 권2 별집에 시가 있다.

502 조식, 《남명집(南冥集)》 권2, 淑人南氏墓表.

58. 최응룡(崔應龍, 1514~1580), 재임 : 1566~1567

최응룡(崔應龍)은 《광주읍지》에 1566년(명종21) 문과 통정대부로서 광주목사로 부임했다. 《광주향교지》에도 올라 있다.

최응룡은 1546년의 과거시험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들을 20년 후인 1567년 6월 광주의 희경루에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그때의 장면을 담고 있는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⁵⁰³가 전해오고 있다.

당시 참석자는 통정대부 행광주목사 최응룡, 자헌대부 겸 전라감사 강섬(姜暹, 1516~?), 전 승문원부정자 임복(林復, 1521~1576), 어모장군 전라도병마우후 유극공(劉克恭), 통훈대부 행낙안군수 남효용(南效容) 등이다.

방회도의 하단에 좌목과 발문이 있는데 최응룡이 방회를 열게 된 연유와 소회는 다음과 같다.

1546년의 과거시험에서 입격의 기쁨을 함께 누린 동기생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광주에서 우연히 만나 방회를 열게 되었으며, 전국으로 흩어져 20여 년간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광주에서 모여서 교류하게 되니 정말 기쁜 일이다. 다만 가까운 읍의 수령으로 있는 두 사람이 병으로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최응룡은 발문에서 참석자들이 앉았던 자리의 위치도 밝혀 두었는데, 품계가 전라감사 강섬보다 낮은 광주목사 최응룡이 중앙의 상석에 앉았다. 동쪽에는 강섬이 앉았고, 서쪽에는 나머지 세 사람이 앉은 것으로 보아 최응룡을 장원급제자⁵⁰⁴로 대우를 했거나 연장자순으로 자리 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⁵⁰⁵

503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보물 제1879호이다.

504 문과 별시에서 최응룡 등 33인을 뽑았다. 《명종실록》 명종 1년(1546) 4월 25일.

이 그림에 묘사된 바에 따르면, 희경루 2층의 넓은 마루에서 벌어진 연회에는 주인공인 동기생 5명 외에 무려 36명이나 되는 기녀들이 참가했다. 기녀들은 모임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악 연주와 가무를 담당하고, 참석자들 옆에 앉아 시중을 들고 있다.

1451년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쓴 글에 따르면 희경루는 남북 5칸, 동서로 4칸인 2층 누각 형태 건물이었다. 동쪽으로는 큰길과 만나고 서쪽에는 대숲이 내려다보이며, 북쪽에 연못을, 동쪽에는 활터를 두었다고 적고 있다.⁵⁰⁶

1879년 간행된 《광주읍지》에 희경루는 “객사의 북쪽에 있었으니 지금의 관덕정(觀德亭)이다”라고 나온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희경루는 광주 충장로2가의 옛 광주우체국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희경루의 이름에는 기쁘고 축하할 일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광주가 겪은 오랜 시련이 암시돼 있다. 1430년 광주목사 신보안이 지역의 양반이었던 노홍준의 첩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 이에 격분한 노홍준이 신보안을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고, 공교롭게도 신보안은 크게 부상을 당했는데 석 달 뒤 이질 등이 겹쳐 사망하고 만다.

전라감영의 조사를 거쳐 중앙에 보고된 이 사건은 당시 시행 중이던 부민고소금지법을 적용, 광주는 무진군으로 강등된다. 광주는 이러한 읍호 강등이 굉장한 충격이었다. 그동안 누리고 있던 계수관의 지위마저 장흥에 넘어갔다. 이후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조정에서는 광주의 사례가 언급되었다.

최응룡의 본관은 전주, 자는 현숙(見叔), 호는 송정(松亭)이다. 최자

505 배진희·이은주(2018),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 속 인물들의 복식 고찰”, 文化財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51(4), pp.44~65.

506 신숙주(申叔舟), 《보한재집(保閑齋集)》 권14, 기문 / ‘희경루기(喜慶樓記) 南北五. 東西四. 宏敞壯麗. 甲於東方. 東臨大路. 西俯脩篁. 鑿池其北. 種以芰荷. 又作射場於東.

경(崔自溼)의 증손으로, 조부는 최수지(崔水智), 부친은 형조참판을 지낸 최이한(崔以漢), 모친은 문이신(文以信)의 딸이다.

최응룡은 학문에 힘써 문장에 능하였다. 양녕대군의 외손자인 박영(朴英, 1471~1540)의 송당정사(松堂精舍)와 퇴계 이황을 찾아가 글을 배웠다. 《퇴계집》 권12에 〈답최견숙문목(答崔見叔問目)〉 등 편지가 실려 있다.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대산집(大山集)》과 창계(滄溪) 임영(林泳, 1649~1696)의 《창계집(滄溪集)》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 박운(朴雲)·김취문(金就文) 등과 더불어 교분이 두터웠다.

1546년(명종1) 문과 별시에 장원으로 급제, 사관이 되었다. 1556년 사헌부 지평, 1561년 시강원 필선과 의주목사, 1563년 공조참의와 승정원 동부승지, 1564년 우부승지에 올랐다. 그런데 다음날 사헌부에서 최응룡이 의주목사 시절 행동을 잘못하여 질타받았고, 경관(京官)으로 와서도 일을 잘못하여 모두 온당치 않게 여기니 파직을 요청했는데 명종이 체직하라 하였다. 재차 파직을 요청하자 결국 명종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다.⁵⁰⁷

1566년 광주목사, 1568년 진주목사, 1569년 나주목사, 1570년 안동부사를 지냈다. 1573년 충청감사와 밀양부사를 거쳐 전라감사가 되었는데 끊임없이 사헌부의 견제가 있었다.

1576년 8월 “굶주린 백성이 길에 잇달았는데도 힘써 진구하지 않았고, 조처하는 가운데 전도되고 어긋난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발탁하여 위임한 뜻이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한 데 이어 “(전라)감사 최응

507 《명종실록》 명종 19년(1564) 6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사관이 덧붙이길 “최응룡이 의주목사가 되었을 때, 마침 유중영(柳仲郢, 1515~1573)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좋은 말을 얻어서 돌아왔다. 자신이 그 말을 타는 것이 꺼림칙하여 최응룡의 말과 서로 바꾸었는데, 최응룡은 유중영의 말을 또 우윤(右尹) 심뇌(沈鏞, 1527~?)의 말과 서로 바꾸었다. 그래서 남들이 모두 비웃었다. 그러나 최응룡의 잘못은 곧 유중영이 그르친 것이다”라고 적었다.

룡(崔應龍)의 추고를 명하소서”라고 하였다.⁵⁰⁸ 1577년(선조10) 뇌물을 강요한 죄로 한때 삭탈관직이 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최응룡은 도량이 크고 정사를 처리하는 데 여유가 있었다고 하며, 여러 번 큰 고을을 맡아 다스렸고 세 번이나 방백이 되어 치적을 남겼다. 관직에 있으면서도 학문을 잊지 않았으며 스스로 끊임없이 면학에 소홀할까 책하였다 한다. 재주와 뜻이 매우 굳고 강직하여 이황도 그를 매우 가상히 여겼으며, 당시 사람들도 장상의 재주가 있다고 칭찬하였다.

최응룡은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1513~1577)과는 동년배로 매우 돈독했던 사이로 보인다. 유희춘의 《미암집》에는 “나는 서문(西門)으로 향하다가 승지 최응룡을 대궐 안에서 만났다. 서로 보고 매우 기뻐하며 잠시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⁵⁰⁹는 등 10여 곳에서 최응룡과 함께 했던 내용들을 기록했다. 최응룡은 안동부사 시절에 유희춘의 《속몽구(續蒙求)》를 인쇄하여 보냈고,⁵¹⁰ 충청감사일 때 《두시(杜詩)》 25책을 보내기도 했다.⁵¹¹

최응룡은 경북 구미시 해평면에 있었던 송산서원(松山書院)에 제향되었다. 1647년(인조25) 지방 유림의 공의로 최응룡과 최현(崔暉)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구미시 선산읍에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56년(효종7)에 창림리로 옮겨 세우고 사액을 받았으며, 김응기

508 《선조실록》 선조 9년(1576) 8월 27일.

509 유희춘, 《미암집(眉巖集)》 권12, 1574년 윤12월 8일.

510 유희춘, 《미암집(眉巖集)》 권8, 1570년 8월 29일, 《속몽구》는 유희춘이 유배지에서 저술한 것으로 당나라 이한(李瀚)이 지은 《몽구(蒙求)》에 대해 잇는다(續)는 뜻으로 쓰여, 총 4권에 592명의 인물에 관한 일화와 언론을 담고 있는 방대한 분량이다.

511 유희춘, 《미암집(眉巖集)》 권13, 1576년 4월 29일, 이에 대해 유희춘은 “《두시》는 내가 아끼는데 집에 있는 책질(冊帙)이 완전하지 못하여 항상 한하다가 이제 이 책을 얻었으니, 어찌 지극한 보배가 아니겠는가”라는 기쁨을 나타내기도 했다.

(金應箕)·김진중(金振宗)·강유선(康惟善)·노경임(盧景任)을 추가 배향하여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다. 1868년(고종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어 서원은 복원하지 못하고, 송산서당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572년에 최응룡이 ‘금오서원봉안문(金烏書院奉安文)’을 지어 길재의 위패를 모셨고, 1575년에는 사액 현판과 서책이 하사되었다.⁵¹² 임진왜란 때 건물이 전소되면서 1602년에 금오산은 외진 곳이라 서원을 지킴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의에 따라 1609년 지금의 선산을 남산(藍山)에 복원하게 되었다.

59. 양응정(梁應鼎, 1519~1581), 재임 : 1568~1570

양응정(梁應鼎)은 《광주읍지》에 1568년(선조1)에 문과 통정대부로서 광주목사에 부임하였다. 《광주향교지》 기록에도 있다. 그의 행장에는 1567년 광주목사였다고 적혀 있다.

1568년 광주목사로 있으면서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왕명에 따라 편찬에 나섰던 《국조유선록(國朝儒先錄)》을 집필하는데 참여했다. 광주에 그의 선정비가 있다.

광주시 남구 칠석동 광주시 문화재 자료인 부용정에 양응정의 쓴 ‘부용정운(芙蓉亭韻)’이 있다. 양응정의 문집인 《송천집(松川集)》에는 ‘제 칠석모정(題漆石茅亭)’이라 하였다. 제목 옆에 세주로 “정자는 광주에 있는데 선생은 이때 광주목사가 되었다”⁵¹³라 하여 양응정이 광주목사

512 금오서원(金烏書院)은 1567년 지역의 사림에서 길재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뜬 금오산에 서원과 사당을 건립하기를 청하여, 1570년(선조3) 금오산 아래 지금의 금오지 자리에 서원을 건립하였다. 금오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 훼손 때에도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길재 이외에도 김종직, 정봉, 박영, 장현광 등 5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513 亭在光州先生時爲牧使.

때 방문하여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朝來雨意欲絲絲 이른 아침 실날같은 가는 비 내리더니
向晚晴光盪綠池 석양 무렵 맑은 빛이 푸른 못에 넘실거리네
佳會豈非天所借 아름다운 이 모임은 하늘이 준 기회이니
使君行色自應遲 사군의 나들이 행색 절로 느리네

이 시에 고경명(高敬命)이 양응정 목사의 참석에 고마움을 나타내며 차운하여 시 한 수를 읊는다.

官裡文書綴亂絲 관청의 쌓인 문서 실처럼 엮혔는데
行春又到習家池 관내를 행춘하다 습가지⁵¹⁴ 들렀도다
非關泥酒停騶御 도중에 술 마시러 멈춤이 아니오라
問柳尋花故作遲 꽃향기 즐기다가 이처럼 더뎠도다

목사의 소임을 다하느라 할 일이 많은 바쁜 와중에도 모임에 늦게라도 참석한 것은 술 때문이 아니라 지천에 피어있는 꽃향기 때문이라고 살짝 둘러댄 시문이 아름답다. 여기서 ‘습가지(習家池)’는 진(晉)나라의 산간(山簡)이 습씨(習氏)의 못에서 놀다가 문득 취하였는데, 그때 어린 아이가 노래를 불러 지은 오언절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⁵¹⁵

양응정의 본관은 제주, 자는 공섭(公燮), 호는 송천(松川)이다.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월곡리에서 태어났다. 양담(梁澗)의 증손으로 조부는 양

514 습가지는 진(晉) 나라의 산간(山簡)이 습씨(習氏)의 못에서 놀다가 문득 취하였는데, 그때 어린아이가 ‘날 저물어 말을 거꾸로 타고 돌아오는데[日夕倒載歸]’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515 날 저물어 말을 거꾸로 타고 돌아오는데, 백접리(白接罹)를 거꾸로 썼다. 채찍 들고 장강(將疆)에게 향하니, 병주의 아이를 어이할런가.[日夕倒載歸 倒著白接罹 舉鞭向葛疆 何如并州兒]

이하(梁以河), 부친은 1523년 기묘사화 때 조광조와 함께 화를 당한 기묘명현(己卯名賢) 중 한 사람인 교리 양팽손(梁彭孫, 1488~1545)이며 동래부사 양응태(梁應台)의 동생이다. 모친은 금산김씨(錦山金氏) 김섬(金銛)의 딸이다. 아들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나선 양산룡(1552~1597), 양산숙(1561~1592), 양산축(1571~1597)이 있다.

양팽손이 1519년(중종14)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에 내려와 화순 중조산 아래 쌍봉리에 학포당(學圃堂)을 짓고 은둔하였고, 그의 아들 양응정은 지금의 광주시 광산구 박호동 박산마을 조양대(朝陽臺)에서 수학했다.

1540년(중종35) 생원시에 장원으로 입격하고, 1552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되었다. 공조좌랑으로 1556년 증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조좌랑이 되고 호당(湖堂)에 들어갔다.⁵¹⁶ 곧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다.

1557년 공조정랑으로 있을 때 당시 권신이었던 윤원형(尹元衡)에 의하여 김홍도(金弘度)와 함께 “인물이 경망하고 진취(進取)에 조급해서 오로지 추세만을 일삼아서 비루한 잘못이 물론에 발론되었으니 육조의 낭관에 합당치 않다”면서 “몸가짐을 삼가지 않아서 빌붙은 잘못이 현저하다”라는 이유로 탄핵받고 파직당하였다가, 1560년에 복직되었다. 이때 김홍도는 갑산으로 귀양을 갔다.⁵¹⁷

516 《대동야승》에 실린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의 ‘견한잡록(遣閑雜錄)’에 보면 정인지, 남계영, 이석형, 김수은, 김훈, 신중호, 배맹후, 김천령, 김극성, 김구, 김홍도, 이이, 정윤희강신과 함께 양응정이 거둬 장원한 인물이라고 나열하였다.

517 《명종실록》 명종 12년(1557) 5월 26일과 6월 10일, 사관이 부기하길 “윤원형(尹元衡, 1503~1565)이 흉특한 노간(老奸)으로 공의(公議)에 용납되지 않는 줄을 알고 자기를 배척함을 분하게 여겨 허물을 주워 모아 죄를 얹어서 그들을 죽을 곳에 밀어 넣으려 하였으므로 마침내 귀양과 파출을 면치 못하였으니 참혹하다고 할 만하다. 대간은 그의 뜻에 아부하고 순종해서 어기거나 거스르기는커녕 도리어 지시하는 대로 따라 그의 성세를 도왔고 위에서도 원형에게 속임을 당해서 이목(耳目)의 논의에 대해 시비를 모른 채

1562년(명종17) 명종은 빈자리가 나는 대로 양응정을 외직에 보임 하라고 했다. 이때 사관이 부기하길 “애초에 김여부(金汝孚)가 김홍도(金弘度)와 틈이 생겨서 각각 봉당을 만들어 서로 모함하였는데, 김여부의 편에서 고경허·양응정·윤주·김계휘 네 사람이 김홍도와 체결했다 하여 모두 배척하였다”라고 기록했다.⁵¹⁸

그 뒤 1563년 순창군수, 1565년 홍문관수찬을 지냈고 1567년 광주 목사로 부임했다가 3년간 선정을 베풀고, 1570년 진주목사로 옮겼다. 이 무렵 임진왜란 때 명장 신립(申瑬, 1546~1592) 장군을 만난다. 양응정이 당시 판관이던 신립을 훌륭한 재목으로 여겨 장차 국가에 크게 쓰일 인물이라면서 자기에게 학문을 배우도록 해 양성하였다. 그 후 신립은 대사간, 성균관대사성, 경주부윤 등을 역임했다.

1571년 경주부윤이 되어 1574년(선조7)에 진주목사로 있을 때 청렴하지 못했다는 대간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미암 유희춘의 《미암집(眉巖集)》에는 1575년, 이 무렵 양응정에게 ‘여양첨지응정서(與梁僉知應鼎書)’라는 편지를 보내 《사서토석(四書吐釋)》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어 유희춘과 교유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응정은 1576년 의주부윤, 1577년 이조참의로 임명되어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공조참판으로 기용되었고, 성균관 대사성에 다시 임명되었다. 이후 벼슬에 나가지 않고 광주 박산마을에 내려와 조양대와 임류정을 짓고 강학하며 후학을 길렀다. 이때 정철, 백광훈, 최경창, 최경희와 같은 석학을 배출했으며, 고경명과 김천일도 종유했다. 시문에 능하여 선조 때 8문장의 한 사람으로 뽑혔다.

모두 원형을 위해 보복하여 귀양 보내거나 파출시키기도 애석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또한 매우 통분한 일이다”라고 했다.

518 《명종실록》 명종 17년(1562) 9월 16일.

양응정의 묘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호동에 있으며,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었다. 묘소 입구엔 양응정이 성절사로 중국을 다녀오면서 가져와 심었다고 전해지는 이팝나무가 450여 년 자란 모습으로 정자처럼 굽직하게 서 있다. 이와 함께 사당 가까이 있는 동백나무는 양응정의 아들 양산축의 부인이 유복자인 아들 양만용(梁曼容, 1598~1651)을 낳자 심은 것으로 전해져 수령이 430여 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응정의 효행으로 정문이 세워졌다. 1631년(인조9) 아들 양산축이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자 추은을 입어 예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양응정의 저서로는 《송천집(松川集)》⁵¹⁹과 《용성창수록(龍城唱酬錄)》이 있다.

60. 이순형(李純亨, 1498~?), 재임 : 1570~1571

이순형(李純亨)은 《광주읍지》에 1570년(선조3)에 문과 가선대부로서 광주목사로 부임했다. 《광주향교지》 기록에도 있다. 그러나 이순형은 이듬해 탄핵받았다. 상소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자신의 공로를 기술하여 은밀히 자신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죄목이다.⁵²⁰ 그러나 즉시 윤택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후 파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순형의 본관은 덕수, 자는 중가(仲嘉). 이추(李抽)의 증손으로 조부는 이의영(李宜榮), 부친은 이란(李蘭, ?~1428)이며, 모친은 이씨(李

519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 1597~1673)의 《동명집(東溟集)》 권11에 《송천집》 서문이 있다. 그 내용 중에 “내가 일찍이 공이 중시(重試)에서 장원할 때 지은 시문(詩文)을 보니 기이하고 장대하며 웅대하고 드넓어서 서한(西漢) 시대의 글과 자웅을 겨룰 만하였다. 보는 자들이 이 한 편만 보고서도 한 수레에 가득 찰 만큼 많은 글의 뼈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520 《선조실록》 선조 4년(1571) 3월 6일.

氏)이다. 1522년 진사 2등 7위로 입격하였고, 1525년(중종20) 식년시 문과에 병과 13등으로 급제하였다.

1532년 형조좌랑으로 있던 이순형은 사간원에서 “어리석고 신병까지 있으므로, 사무가 많은 형관(刑官)을 감당할 수 없다”라며 체직을 주장해 중종이 받아들였다.⁵²¹ 그러나 1534년 동지사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는 증책을 주었다.

1538년 예조정랑으로 별시 문과의 시관을 역임했고, 1539년 헌납, 성균관 직강과 김해부사, 1542년 청주목사로 충청우도 감시(監試)에 상시관(上試官)으로 있었는데, 시관인 단양군수 이이(李頤), 온양군수 임수(林洙) 등이 부정을 저지를 때 이를 보기만 하고 아래 관리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며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⁵²²

1543년 장령, 1544년 대동찰방, 1546년 증시 병과에 급제하였고, 1548년 효열황후(孝烈皇后)가 사망하였을 당시에 진위사로서 명에 다녀왔다. 1550년 형조참의를 거쳐 이듬해 병조참지가 되었다.

1552년 경주부윤에 임명되었는데 지역이 피폐하고 도적이 날뛰는 등 백성들의 곤란이 말이 아닌 데다가 관사(館舍)가 불타는 일까지 있었지만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해 11월부터 임지(任地)를 비워 놓고 금천(衿川)⁵²³에 있는 농사(農舍)로 옮겨와서 6개월여 동안 돌아가지 않고 경주의 피폐함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파직되었다.⁵²⁴ 이 해에 원주목사로 나갔으나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다시 파직되었다.

1563년 장례원판결사에 임명되고, 이듬해 권철(權轍)의 도움으로 오

521 《중종실록》 중종 27년(1532) 8월 16일.

522 《중종실록》 중종 37년(1542) 12월 8일.

523 지금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광명시 일부 지역.

524 《명종실록》 명종 8년(1553) 윤3월 1일.

늘날 충청도인 청홍감사가 되었다. 이때 사관이 부기하길 “인물이 추잡하며 탐욕스럽고 근신하지 못한 까닭에 선비들에게 천대를 당하였으나, 권철과 한동네에 사는 친분으로 과분하게 방백(方伯)의 직을 받았다”라고 적었다.⁵²⁵

1565년 안동부사로 재직할 당시 유생이 승려에게 구타당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승려의 편을 들어 재판했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566년 5월 한성부우윤에 임명되고, 1567년 5월 한성부좌윤이 되었다.

1570년 광주목사, 1573년(선조6) 특진관(特進官)으로 입시(入侍)하였으며, 경회루에서 국왕이 친시(親試)와 관사(觀射)를 할 때 10명의 시관(試官)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61. 윤행(尹行, 1508~1592), 재임 : 1571~?

윤행(尹行)은 《광주읍지》에 문과 통정대부로서 광주목사에 부임했다. 《광주향교지》 기록에도 있다. 《선조실록》에도 광주목사 제수 기록이 있다.⁵²⁶ 임기를 끝나치고 고향 해남으로 돌아갔다.

윤행의 본관은 해남이고 자는 대용(大用)이며 호는 졸재(拙齋)이다. 조부는 사간원사간을 지낸 윤경(尹耕)이고, 부친은 생원 윤희정(尹孝貞)이다. 모친은 초계정씨(草溪鄭氏) 정호장(鄭戶長)의 딸이다. 부친은 연산군 때 사화(士禍)를 피하여 전라도 해남의 바닷가로 이사하여 은거하면서 스스로 ‘어초은(魚樵隱)’이라고 일컬었다. 윤행은 홍문관 수찬 굴정(橘亭) 윤구(尹衢)의 동생이며, 1562년 광주목사를 지낸 행당(杏

525 《명종실록》 명종 19년(1564) 2월 1일.

526 1571년(선조4) 8월 24일 제수받았다.

堂) 윤복(尹復)의 형이다. 형제간에 광주목사를 지냈다.

1531년(중종26) 식년시 문과에 병과 15위로 급제했다. 여러 관직을 거쳐서 1553년(명종8) 해주목사일 때 왜구의 배 한 척이 서해에 나타났으나, 제때에 나가 싸워서 포획하지 못하였다고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⁵²⁷

1558년 3월 명나라에서 사자를 보내어 윤행이 순회세자(順懷世子)를 책봉할 때 도감 낭청에 임명되어 수고했다면서 명나라에서 벼슬 줄 것을 청하는 소첩(小帖)과 단자(單子)를 보냈다. 명종은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세자를 책봉하였으니 황제의 은혜가 가뻐지 않고 나라의 경사가 막대하니, 은전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 원접사(遠接使) 권철(權轍), 도승지 이탁(李鐸), 도감 낭청 윤행·이언경(李彦憬)·유종선(柳從善)·이중호(李仲虎) 등에게 각각 한 자급씩을 올려주라”라고 하여 가자되었다.⁵²⁸ 이때 윤행은 정3품 통정대부로 승품되었다.⁵²⁹

1560년(명종15) 나주목사로 나갔다. 나주 읍내 사거리에서 대낮에 참혹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여러 달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하자 죽은 자의 친척들이 의금부에 고발하기 위하여 소장을 내려 하였다. 그러자 윤행이 포졸을 보내어 이를 막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서 이듬해 7월 파직되었다.⁵³⁰

527 《명종실록》 명종 8년(1553) 7월 6일, 사관은 “윤행은 성품이 간사하고 음흉하며 말을 잘하여 군자(君子)들을 모함하였다”라고 부기했다.

528 《명종실록》 명종 13년(1558) 3월 17일.

529 당시 조정은 윤원형이 실권을 잡고 있던 때였다. 《명종실록》 명종 15년(1560) 7월 7일 기록에 사관이 부기하길 나주목사 윤행은 “인물이 용렬하고 비루하여 해주목사(海州牧使)로 있을 때 윤원형을 잘 섬기고 그를 위해 바다에 제방을 쌓고 크게 개간을 하여 해마다 종자를 공급하였고, 또 이웃 가까운 곳에 사는 백성들을 시켜 봄에 갈고 가을에 거둬들이게 하였으므로 서해(西海)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욕한다. 그런데 갑자기 당상에 승직되었으니 이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530 《명종실록》 명종 16년(1561) 7월 26일.

1563년 동래부사에 임명되었다. 왜구들이 바닷길을 통하여 중국에서 노략질한 명주 및 보패(寶貝)와 비단, 금은 등을 부산포에 가지고 와서 조선의 장사치들과 쌀과 포목으로 바꾸어 갔다. 윤행은 동래첩사 유충정(柳忠貞)을 독려하여 이를 막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⁵³¹

유희춘의 《미암집(眉巖集)》 권3에 1568년(선조1)에 쓴 ‘첨지 윤행에게 답한 편지[答尹僉知行書]’에는 윤행의 동생 윤복이 “20여 년간 세상의 변고(變故)를 많이 겪었지만 탁월하게 정도(正道)를 지키어 세속에 물들지 않았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미암집》 일기를 보면 윤복의 경우 백성들을 생각하는 가련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⁵³²

그런데 윤행의 성품과 일화에 대해서는 실록에는 별반 좋은 기록이 없다. 이는 윤행이 사림파(士林派)를 죽인 윤원형과 같은 소윤 일파이었으므로, 윤원형이 실각한 뒤에 사림파가 《명종실록》을 편찬하면서 그의 행실을 과장하여 악평했을 수도 있다.

62. 임희(林蓄, 1508~1573), 재임 : 1572~?

임희(林蓄)는 《광주읍지》에 1572년(선조5) 문과 당하관으로 광주목

531 《명종실록》 명종 19년(1564) 10월 23일.

532 《미암집》 권9, 1571년 2월 25일, 유희춘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전 정주목사(定州牧使) 윤행대용(尹行大用)이 서울에서 내려와 곧장 내 방으로 들어오므로 서로 반갑게 만나보았다. 그에게 들어 보니, 해남의 농경지는 대강 1,208결(結)인데 7근(斤)의 백지(白楮)를 내던 값을 기관(記官) 정함(鄭咸) 때부터 목면(木綿) 10동(同)을 내도록 청하여 정해졌으나, 이제는 지나쳐 7, 8승(升)을 내게 하니 백성에게 큰 해가 된다고 하였다. 나도 말하기를, “녹미(鹿尾)와 녹설(鹿舌)처럼 산에서 구해 바쳐야 하는 공물의 폐단은 마땅히 제주(濟州)로 옮겨야 하오”라고 하였다. 윤공이 말하기를, “나주는 1결에 대해 1년에 내는 것이 쌀 2두(斗)에 불과한데 해남은 조(租)를 5석(石)이나 내게 하니 백성들이 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오. 영암의 부역이 가장 무겁고 해남이 다음이고 강진이 그다음인데 지금은 강진도 해남과 다름이 없어 참고에 양곡이 2만 석일 뿐이니 더욱 가련하오. 낙안(樂安)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오”라고 했다.

사에 부임하였다. 《광주향교지》 기록에도 있다. 광주목사로 오기 전에는 1568년부터 1569년까지 나주목사로 있었다.

유희춘(柳希春)은 “나는 광주목사 임희 헌가와 시를 잘 짓는 진사 백광훈(白光勳, 1537~1582)을 초대하여 잠시 술을 주고받았다”⁵³³라는 글을 썼다. 이로 미루어 유희춘은 임희, 백광훈 등과 교유했던 사이로 보인다.

임희의 본관은 부안이지만 장흥 출신이며,⁵³⁴ 자는 헌가(獻可), 초명은 임희(林誨), 호는 죽곡(竹谷)이다. 형인 서곡(書谷) 임분(林賁, 1501~1556)과 함께 장흥의 기산팔현(岐山八賢)에 들어간다.⁵³⁵ 부친은 임경손(林景孫)이다.

1534년 진사 시험에 1등 3위로 합격하고 1540년(중종35) 별시 병과에 급제했다. 순창군수로 있을 때 순창 환취당(環翠堂)에서 같이 진사 시험에 합격한 소재 노수신, 하서 김인후 등과 시주를 즐겼다. 백광훈의 연보에 보면 1550년 금릉 박산의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1520~1578) 문하에서 수학하며, 최경창(崔慶昌, 1539~1583), 윤기(尹箕, 1535~1607), 임희 등과 교유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은 ‘은명을 받고 이배되어 우거하면서 예전 일에 느껴워 감회를 여섯 수 지어서 헌가 성주의 안석 아래 받들어 올리고 화답하기를 요구하다’⁵³⁶라는 시를 썼다. 임희에게 여러 가지로

533 유희춘(柳希春), 《미암집(眉巖集)》 권9, 1572년 11월 5일, 余邀見光牧林誨獻可及製詩。進士白光勳。暫爲酬酢。

534 장흥군 안양면 기산마을에는 서당 봉명재(鳳鳴齋)가 있었다. 여기에서 임희는 백광훈(1522~1556), 백광훈, 김윤(金胤, 1506~1571), 임분(林賁, 1501~1556), 백광성(白光城, 1527~1593), 백광안(白光顔), 김공희(金公喜, 1540~1604) 등 기산팔현이 당대에 문명을 날리기도 했다. 김선욱(2020), “사설-‘장흥 고문학 선구자 천방 유희인’에 대한 재론”, 장흥투데이, <http://www.jhtoday.net> (2023.6.13. 인용)

535 옥봉 백광훈, 기봉 백광훈, 남계 김윤, 서곡 임분, 죽곡 임희, 동계 백광성, 풍잠 백광안, 지천 김공희 등을 ‘기산팔현’이라 하며 ‘기산팔문장’으로도 부른다.

고마움을 나타낸 시이다.

이 시에는 노수신이 진도에 유배 중일 때 임회가 서신을 보냈는가 하면, 1555년 을묘왜변을 당하여 진도를 떠나 피난길에 담양을 거쳐 순창에 이르렀을 때 당시 순창군수 임회가 나와서 자신을 위로해 주고 주식(酒食)을 대접하였고, 그의 주선으로 강천사(剛泉寺)로 들어가서 수일 동안 편안히 지낼 수가 있었다고 한다.⁵³⁷

또 임회가 상주목사일 때도 상주의 속현인 화령현(化寧縣)에 거주하는 노수신의 부모를 여러 가지로 보살피 드린 일에 대하여 몹시 감사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수신이 괴산으로 이배되고 나서는 고향인 상주 화령(化寧)으로 가 채복을 입고 부모님을 뵈고 싶어 당시 상주목사인 임회에게 허락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그 일을 허락하고 아울러 채복 입은 노수신을 직접 데리고 화령에 가서 부모님을 함께 뵈었던 일도 있을 만큼 돈독한 관계였다.

임회는 상주, 순창, 나주 등 7개 주 목사를 거쳐 부임하는 곳마다 아전들이 그리워하고 백성들을 편안히 여겨 모두 거사비(去思碑)를 세웠다. 옥배(玉盃)와 화개(華蓋)를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았다.

위백규(魏伯珪)가 임회를 기리는 ‘죽곡임공묘표(竹谷林公墓表)’⁵³⁸를 썼다. 묘표의 내용 가운데 “백성에게 끼친 치적을 말하자면, 일찍이 담양은 두 번 부임하였고, 순창과 남원은 한 번씩 부임했고, 나주·광주·파주·상주·양주를 두루 맡아 다스렸다. 부임하는 곳마다 아전들이 그리워하고 백성들이 편안히 여겨 모두 거사비(去思碑)가 있었다. 이분의 재주와 덕으로는 조정에서 임금의 일을 도와야 하는데 하읍(下邑)에서 나

536 노수신(盧守愼), 《소재집(蘇齋集)》 권5, ‘恩移寓居感舊書懷六首奉呈獻可城主几下乞和’.

537 노수신(盧守愼), 《소재집(蘇齋集)》 권4, ‘次淳昌郡’에 같은 내용이 있다.

538 위백규(魏伯珪), 《존재집(存齋集)》 권22. 竹谷林公墓表,

그네인 양 돌아다녔으니, 공을 진정 아는 사람들은 공을 위해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다.

임희의 시 ‘수영풍토를 읊다[詠水營風土]’ 2절이 2011년에 김규정(金圭鎭)이 편찬한 《장녕시문(長寧詩文)》에 실려 있다. 장흥 기양사(岐陽祠)에 조선 8대 문장가 중 한 사람으로 가사문학의 효시인 ‘관서별곡(關西別曲)’을 남긴 기봉(岐峰) 백광홍(白光弘, 1522~1556)과 함께 배향되어 있을 만큼 문장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강진향토문화유산 제4호인 박산서원(博山書院)⁵³⁹에 이후백, 백광훈, 최경창, 김순(金淳, 1509~1578) 등과 함께 배향되었다.

63. 민철명(閔哲命, ?~?), 재임 : 1573?

민철명(閔哲命)의 《광주읍지》 기록은 광주판관이다. 그런데 기대승(1527~1572)의 《고봉전서》에는 1573년(계유년) 2월 고봉 영전에 올리는 민철명의 제문이 실려 있는데 여기엔 광주목사로 기록되어 있다.⁵⁴⁰ 그렇다면 광주판관으로 있다가 광주목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철명을 비롯하여 이후에 설명하는 광규, 홍보, 임훈까지, 1573년 한 해에만 광주목사인 셈이 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공안공(恭安公) 월봉(月峰) 정옥형(丁玉亨, 1486~1549)은 1남 1녀

539 서봉서원(瑞峯書院)은 1590년 이후백을 추모하기 위해 위패를 모셨다가 1712년 최경창을 추가 배향했고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1924년 현 위치(전남 강진군 작천면 박산죽현길 107-56)에 복설되면서 박산서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임희와 김순을 추가 배향했다.

540 《고봉전서》 별집 부록 권1 제문 15, 維歲次癸酉二月壬子朔初八日己未。光州牧使閔哲命。謹以清酌庶羞。

가 있는데 딸이 예빈시 참봉 민난형(閔蘭馨)에게 시집갔다. 민난형은 4남을 두었는데 장남이 바로 민철명(閔哲命)이다. 민철명의 조부는 황해 감사를 지낸 민수천(閔壽千, ?~1530)이다.

1584년에 세워진 정옥형신도비 내용으로는 민철명이 판관으로 나오고 있다. 기대승의 《고봉전서》 내용과 정옥형신도비가 다른 내용이기 는 하나 여기서는 광주목사로 분류했다.

64. 곽규(郭趯, 1521~1584), 재임 : 1573?

곽규(郭趯)는 《광주읍지》에 1573년(선조6)에 문과 당하관으로서 광주목사에 부임하였다가 장령에 임명되었다. 《광주향교지》 기록에도 있다. 그러나 다른 문헌에서는 그의 광주목사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곽규의 본관은 현풍, 자는 극정(克靜), 호는 만주재(晩籌齋)이다. 조부는 현감 곽위(郭瑋), 부친은 증승지 곽지번(郭之藩)이다. 모친은 동지 증추부사를 지낸 허인(許璘)의 딸 양천허씨(陽川許氏)이다. 부인은 청주한씨와 현감을 지낸 홍서린(洪瑞麟)의 딸 남양홍씨(南陽洪氏)이다.

곽규의 아들 노탄(蘆灘) 곽삼길(郭三吉, ?~?)은 사촌인 곽재우(郭再祐, 1552~1617)를 비롯한 인근의 지역 선비들과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했다. 따라서 곽규는 곽재우의 숙부이다. 곽규는 1565년 곽재우가 열네 살 되던 해에 《춘추(春秋)》를 가르치는 등 그의 학문과 사상의 바탕을 형성해 주었다.

1546년 식년시 1등으로 생원에 입격하고, 1555년 식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1563년(명종18) 사헌부 지평, 1571년(선조4) 사헌부장령, 1575년 사간원 사간 등 삼사(三司)의 내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외직으로 진주·순천·광주·안동·안변의 수령과 1581년에 동래부사로 재임하는 등 여섯 고을의 수령을 지낸 뒤 호조참의와 승정원 좌부승지

를 지냈다.

윤근수(尹根壽, 1537~1616)는 “하루는 어떤 사람이 광규가 언관을 맡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자 안자유(安自裕)가 말하기를, 광규는 참으로 선량하지만 언관이 되는 데는 가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였다.⁵⁴¹

광규는 고향 일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1552년 현풍 유향소 일과 관련하여 김부륜(金富倫, 1531~1598)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현풍 유향소의 향임과 여러 다른 일과 관련하여 의논하기 위해 상대방이 속히 올 것을 부탁하는 편지이다. 덕계(德溪) 오건(吳健, 1521~1574)과는 동갑내기로 교유관계가 깊었던지 그를 위한 만사와 제문을 썼다.⁵⁴²

1707년(숙종33) 건립된 청백사(清白祠)에 1786~1871년 사이에 배향되면서 지금의 이양서원(尼陽書院)⁵⁴³으로 개칭되었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복설되어 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대리에 있다. 묘가 있는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에 재실인 신당재(新塘齋)가 있다.

65. 홍보(洪溥, 1521~?), 재임 : ?~1573

홍보(洪溥)⁵⁴⁴는 《광주읍지》에 1574년에 문과 당하관으로 부임한 것으로 기록했다. 《광주향교지》 기록에도 있다. 그러나 1573년 사헌부에서 광주목사 홍보가 부임한 뒤로 계획대로 제대로 하는 일이 많지 않아 민심이 이반되었다며 파직을 청하여 이에 윤택한 기록이 있다.⁵⁴⁵

541 윤근수(尹根壽), 《월정집(月汀集)》 별집 권4, 만록.

542 오건, 《덕계집(德溪集)》 권8, 만사(輓詞); 《덕계집》 연보 권2, 제(祭文).

543 대구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32호.

544 홍溥는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 ‘홍보’ 또는 ‘홍부’로 읽을 수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자료에도 ‘홍보’와 ‘홍부’가 겹쳐 나온다. 여기에서는 ‘홍보’로 통일했다.

홍보의 본관은 남양, 자는 덕굉(德宏), 조부는 이천도호부사 홍경창(洪慶昌), 부친은 강원감사(江原道觀察使) 홍신(洪愼)이다. 형제는 홍윤(洪潤)과 홍연(洪淵)이 있다. 1549년(명종4) 8월에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였다.

홍보는 1559년(명종14) 사간원에서 “호조정랑 홍보가 전번 황해도사로 있을 때 감사 신희복(愼希復)과 사사로운 감정으로 말미암아 문득 그를 무시하는 마음을 품고 병을 핑계로 공무를 돌보지 않으면서 술과 풍악으로 기탄없이 굴었고, 체직되어 돌아오는 날 감사가 전별연에 나와서 기다렸으나 눈을 흘기며 그냥 달려 지나쳤으니, 도리에 어긋남이 심하다”라며 파직을 주장하여 명종이 이를 윤허하였다.⁵⁴⁶

홍보는 1572년 사재정(司宰正), 1573년 광주목사 등을 지냈다. 서유구(徐有榘)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권5의 부록에 ‘동국금석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금석문을 정리했는데, 홍보의 비석이 목록에 있다.

구사맹(具思孟, 1531~1604)은 목사로 떠나는 홍보와 성환도찰방 윤안성(尹安性)에게 준 시가 있다.⁵⁴⁷ 그는 홍보와 같은 해에 진사시에 합격했다. 또 《여지도서》에 홍보의 시가 실려 있다.⁵⁴⁸ 황해도사로 있을 때 남긴 것으로 보인다.

66. 임훈(林薰, 1500~1584), 재임 : 1573~1574

임훈(林薰)은 《광주읍지》에 1580년에 숨은 학자로서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주어 부임하였다고 했다. 《광주향교지》 기록에도 있다. 《선조실

545 《선조실록》 선조 6년(1573) 10월 6일.

546 《명종실록》 명종 14년(1559) 1월 18일.

547 구사맹, 《팔곡집(八谷集)》 권1, 次公州凝碧堂韻。呈牧伯道契。兼要察訪同和。

548 《여지도서》 함경도 편, 勝迹邊山上, 悠悠經幾春 石頑題字畫, 城說號童巾。風致留前古, 遊觀屬後人。白雲生座下, 自怪半天身。

록》과는 크게 다르다. 실록에 따르면 임훈은 1573년(선조6) 광주목사에 제수되었다.⁵⁴⁹

임훈은 1574년 고경명 등 광주지역 선비들과 서석산(무등산)을 4박 5일간 유람한 적이 있는데 고경명의 ‘유서석록(遊瑞石錄)’에 나온다.⁵⁵⁰ 이 해에 전라감사 박민헌(朴民獻)이 서장을 올려 “광주목사 임훈은 공렴(公廉)하고 결백하므로 백성들이 빙호(氷壺)라고 지목하면서 오직 오래 유임하지 않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고할 정도로 일을 잘했다.⁵⁵¹

《연려실기술》에도 “광주목사가 되었을 때에 선조가 수령으로 맑은 덕이 있는 이를 가리라” 명하니, 감사가 공을 천거하고 “공이 청렴결백하여 백성들이 그를 지목하기를 ‘빙호(氷壺)’라고 말한다고 하였다”⁵⁵² 라는 내용이 있다.

임훈의 본관은 은진이고, 자는 중성(仲成), 호는 자이당(自怡堂), 또는 고사옹(枯查翁)·갈천(葛川)이다. 부친은 진사 석천(石泉) 임득번(林得蕃)이며, 모친은 진주강씨로 강득구(姜得求)의 딸이다. 안음현 갈천동(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에서 태어났다.

임훈은 1523년 ‘영각사중창기’(靈覺寺重創記)를 짓고, 1552년 ‘등덕유산향적봉기(登德裕山香積峯記)’를 짓는 등 문장이 뛰어났다. 1540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53년 사직서 참봉(社稷署參奉), 1554년 집경전 참봉(集慶殿參奉)에 제수되었다.

1564년(명종19) 윤2월 명종이 효행으로 정문(旌門)을 내렸다. 사관이 기록한 부기는 다음과 같다.

549 《선조실록》 선조 6년(1573) 10월 11일, 1574년 겨울에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550 고경명의 ‘유서석록(遊瑞石錄)’은 선조 7년(1574) 4월 20일부터 24일까지의 기록이다.

551 《선조실록》 선조 7년(1574) 7월 21일.

552 《연려실기술》 권11, 明宗朝故事本末. 빙호(氷壺)는 빙심옥호(氷心玉壺)의 준말로 얼음 같이 맑은 마음이 옥항아리에 있다는 뜻이며, 마음이 맑고 티 없이 깨끗함을 이르는 말이다.

품성이 고결하고 덕망이 높으며 학문이 깊고 폭넓어서 참봉으로 추천되어 임용되었지만 늙은 아버이를 돌보기 위해 곧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아버이의 봉양에 충실하고 아버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다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60세가 되었는데도 집상(執喪)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1566년 처음으로 외직인 언양현감에 제수됐다.⁵⁵³ 1569년 군자감주부, 1570년 비안현감, 1573년 광주목사, 1578년 장악원정, 1582년 장례원 판결사가 되었다. 1584년 85세로 졸하니 선조가 부의를 하사하고, 용문서원에 배향되었다. 1665년에는 송시열의 도움으로 문집이 간행되고 1861년에는 이조판서에 추증, 1871년에 ‘효간공(孝簡公)’ 시호가 내려졌다.

임훈의 문집 《갈천집》은 1665년(현종6) 그의 증손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송시열의 서문이 있다. 경남 거창 북삼면에 임훈을 추모하여 만든 갈천서당(葛川書堂)을 ‘갈숙(葛塾)’이라 한다. 거창 수승대 암각시(搜勝臺巖刻詩)로 ‘갈천 임훈의 해수송시(解愁送詩)’가 있고 ‘임훈신도비’가 있다.

김부의(金富儀, 1525~1582)의 《읍청정유고(挹淸亭遺稿)》에 ‘갈천 임훈 선생을 뵈다’⁵⁵⁴라는 글이 실려 있다. 정운(鄭蘊, 1569~1641)이

553 《국조보감(國朝寶鑑)》 권23 명종조2에 보면 1566년 5월에 이조와 예조에 생원과 진사 가운데 경명행수(經明行修) 등이 뛰어난 이를 추천토록 하여 임훈 등 6명이 추천됐고, 9월에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와 학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 물을 때 언양현감 임훈이 “임금의 정치와 교화가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합니다. 《대학》의 팔조목(八條目)과 《중용》의 구경(九經)이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554 《오천세고(烏川世稿)》 권1은 김부의(金富儀), 〈읍청정유고(挹淸亭遺稿)〉, 謁林葛川先生薰. 김연(金緣, 1487~1544), 김부필(金富弼, 1516~1577), 김부의(金富儀, 1525~1582), 김해(金垓, 1555~1593), 김광계(金光繼, 1580~1646), 김순의(金純義, 1645~1714) 등 5대(五代) 6인의 저술을 모아 놓은 시문집이다.

쓴 ‘갈천임선생갈명’에 실린 내용 중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⁵⁵⁵

임훈은 1573년 10월에 광주목사로 임명되었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사양하고 거절하다가 상이 허락하지 않자 부득이하게 부임했다. 고을의 백성들이 부역의 불균형을 불평하자 전부(田簿)를 새로 작성하여 부역을 공평하게 배분했다. 백성들은 이에 매우 감사했다. 또한 부역을 줄이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 처리했다. 목사로 있을 때는 관대를 갖추고 관아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돌아오곤 했다. 만일 출근하지 않는 날이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갑술년(1574)에 사직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67. 성수익(成壽益, 1528~1598), 재임 : 1575~1577

성수익(成壽益)은 《광주읍지》 기록에 1575년 문과 당하관으로 부임했다. 《광주향교지》 기록에도 있다.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미암집(眉巖集)》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1575년(선조8)에 광주목사에 부임하여 1577년까지 재임했다.

유희춘(柳希春, 1513~1577)과의 교유관계는 《미암집(眉巖集)》을 통해 알 수 있다. 유희춘은 광주목사 성수익이 편지로 “《어류(語類)》의 의심나고 어려운 곳 네 곳을 묻기에 내가 곧 답해 주었다”⁵⁵⁶라고 했고, 또 성수익이 백력(白曆)을 보내오고 편지로 묻기를 “측천무후(則天武后)를 죽이고 종실을 바꿔 세울 것을 논한 조목에서 ‘후세에서 말한다면 중중은 불료(不了)했다’라고 했는데 이른바 ‘불료(不了)’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또 ‘담판한(擔板漢)’이란 것이 판을 짚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555 정온(鄭溫), 《동계집(桐溪集)》 권4, 묘갈, 葛川林先生碣銘.

556 유희춘, 《미암집》 권13, 1575년 11월 21일.

데 그 뜻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⁵⁵⁷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희춘은 대답하기를 “요(了)란 일을 아는 것이니 중중이 무삼사(武三思)가 왕후(王后)와 사통하는 것을 방치하고 그의 참소를 들어 다섯 왕을 죽이고 대란(大亂)을 초래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담판한의 한은 사내를 칭합니다. 호인(胡人)이 중화인을 한(漢)이라고 부르니 변한(蕃漢)의 한 또한 한의 사내를 이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성수익이 편지로 <월식시(月蝕詩)>의 ‘지로적벌하재흥(支盧謫罰何災匈)’의 글 뜻을 물었다. 유희춘이 답장하기를 “지로(支盧)는 ‘지루하다’는 뜻으로 이는 토성(土星)이 해마다 10월이면 상제(上帝)에게 고하여 하민(下民)에게 죄화(罪禍)를 내리기 때문에 ‘어찌 줄곧 재앙을 내리는가’ 한 것이니, 마치 잘못을 들추어내서 화를 즐긴다고 사람을 나무라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⁵⁵⁸ 또 성수익이 《성상국집(成相國集)》과 《삼현주옥(三賢珠玉)》 각 1책을 유희춘에게 보여주면서 발문을 요청하기도 했다.⁵⁵⁹

또 유희춘은 “광주목사 성수익이 편지로 <월식시(月蝕詩)>의 의심난 곳과 《송감(宋鑑)》의 이종(理宗) 시의(諡議)에 나오는 황모(黃茅)·백위(白葦)의 설명을 물었다. 나는 곧 설명하여 답해 주었다”라고 했다.⁵⁶⁰

광주에 있을 때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 1533~1592)과 교유하며 지냈는데 광주 서창나루를 오가면서 함께 극락정에 자주 올랐다. 이때 고경명이 성수익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 시 한 편을 적기도 했다.⁵⁶¹

557 유희춘, 《미암집》 권13, 1575년 11월 24일.

558 유희춘, 《미암집》 권14, 1576년 11월 7일(선조9).

559 유희춘, 《미암집》 권14, 1576년 11월 13일.

560 유희춘, 《미암집》 권14, 1576년 12월 2일.

561 고경명(高敬命), 《제봉집(霽峯集)》 권3, 聞地主成德久在極樂亭. 皂蓋行春到野亭. 鶯花遲

구봉령(具鳳齡, 1526~1586)도 ‘봉교 성덕구 수익에게 주다’⁵⁶²라는 시를 썼다. 구봉령은 기대승(奇大升)과 쌍벽을 이룰 만큼 이름난 문학가이며 1,100여 수가 넘는 많은 시를 남긴 시인이다.

生情幾憶子安公 정이 일어 몇 번이나 자안공을 생각했던가
 夢裏相隨覺已空 꿈속에 서로 따르다가 깨니 이미 헛된 일
 山影滿庭人寂寂 산 그림자 정원에 가득하고 인적은 드문데
 隔簾風送落花紅 주렴 너머엔 바람 불어 붉은 꽃 떨어지네

성수익의 본관은 창녕, 자는 덕구(德久), 호는 칠봉(七峯)이다. 홍문관교리 성담연(成聃年)의 증손으로 조부는 대사헌 성몽정(成夢井), 부친은 장흥고령 성예원(成禮元)이며, 모친은 진사 이수량(李守諫)의 딸이다. 부인은 별제 최세신(崔世臣)의 딸이다.

1552년에 생원이 되고 경릉참봉·돈녕부봉사를 역임했다. 1559년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권지에 부임했다가 홍문관저작으로 옮겼다. 1562년 예문관검열·대교를 거쳐 1563년 성균관전직·형조좌랑·사헌부감찰로 전직되었다. 1564년 강원도도사, 1565년 형조정랑 겸 춘추관기주관과 호조정랑 등을 지냈다.

1566년에는 어천도찰방으로 나갔다.⁵⁶³ 어천(魚川)은 영(營)과 진(鎭) 사이에 있어서 장졸들의 침해가 심하고 우졸(郵卒)들이 부역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국가에 목은 빛이 있으면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에 절반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도망쳤다. 공이 그 문서

日闌林坰。和風颺幙關三面。好雨隨車擁百靈。繡畛滿添陂水白。螺鬟齊矗海山青。遙知嘯傲登臨處。闕遍三農喜色形。

562 구봉령(具鳳齡),《백담집(栢潭集)》 권1, 贈成奉教德久(壽益)

563 《명종실록》 명종 21년(1566) 2월 23일, 사관이 부기하길 “기국(器局)이 경솔하고 천박하여 처사에 질서가 없다”라고 했다.

를 불태워 책임을 따지지 않으니 모두 감격하여 공을 부모처럼 섬겼다. 그해 겨울에 평안도도사 겸 춘추관기주관으로 옮겨 제수되었다가 체직되어 다시 호조정랑에 제수되었다.

1568년 5월에 개성경력으로 옮겼다. 개성은 옛 도읍으로 산수가 매우 수려한 지방이다. 그는 이를 즐겨, 퇴근하면 여러 곳을 구경하며 시문으로 감상을 드러냈다. 개성부에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옛 집터가 있는데, 정몽주와 개성부 송도 태수를 지낸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을 배향하는 문충당(文忠堂)을 창건하였고, 1575년에 ‘송양(崧陽)’이라는 사액을 받아 서원으로 승격됐다.

1570년 성균관의 직강과 사예가 되었으며 1571년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부평부사로 나갔는데, 그곳의 불공평한 부역을 바로잡으니 가난한 백성[下戶]들이 편안하게 되었다. 1572년 부친상을 당하고 1574년 사옹원정에 제수되었으며, 1575년 광주목사로 나갔다가 1577년 체직되어 돌아왔다.

1580년 경기좌도 경차관, 1581년 회양부사,⁵⁶⁴ 1586년 하지사,⁵⁶⁵ 1587년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갔을 때는 예부(禮部)를 통해 종계변무(宗系辨誣)를 했고,⁵⁶⁶ 1590년에 성천부사로 있다가 광국원종공신(光國原從功臣)에 책록되고 창산군(昌山君)에 책봉되었다.

564 《선조실록》 선조 16년(1583) 8월 4일, 선정(善政)을 한 공으로 통정(通政)을 가자 받았다. 善政淮陽府使成壽益加通政.

565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19년(1586) 1월 1일, “하절사 윤자신(尹自新), 하지사 성수의 등이 회동관(會同館)에 머물다가 실화하여 건물이 타버렸으므로 사신들이 모두 잡혀가 국문을 당하고 논죄함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사죄하니, 황제가 칙서를 내려서 치하하여 하유하기를 ‘왕의 충신(忠愼)스러움을 가삼히 여긴다’ 하고 망의(蟒衣)와 채단(彩緞)을 하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566 《선조실록》 선조 20년(1587) 1월 1일, 동지사의 진헌 방물(進獻方物) 중 나전함(螺鈿函) 안의 소합(小合) 네 개를 도둑맞자, 사헌부가 논계하여 정사(正使) 성수익과 서장관(書狀官) 유영순(柳永詢)이 경기(京畿)에 유배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였는데, 이듬해 임금이 영유(永柔)에 머물 때 형조참판 겸 오위도총부부총관에 제수되었다. 왜적이 물러가자 왕비를 해주에 호종하기도 하였다. 1593년 분호조참판⁵⁶⁷과 예조참판, 1595년 분예조참판을 지냈다.

1595년 개성유수가 되어⁵⁶⁸ 백성을 안정시키고 향교를 증건하여 학풍을 진작시켰다. 왜란을 치른 뒤라서 백성들이 피난을 가고 거의 없었는데, 온 힘을 다해 백성들을 돌보고 또 흩어진 자들을 불러들이는 등 1년 사이에 다시 모여든 백성이 1천여 호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학교가 부서지고 선생과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겨 문묘(文廟)를 증건하고 학생들을 모았으며, 조정에 청하여 교수(教授)를 다시 설치하니, 비로소 길거리에 책을 끼고 다니는 자들이 생겼다고 했다.⁵⁶⁹

1596년에는 정몽주(1337~1392)의 선죽교 인근 20미터 거리에 ‘창녕부원군문정공성여완유허(昌寧府院君文靖公成汝完遺墟)’라고 쓴 비를 세웠다. 성여완(成汝完, 1309~1397)은 정몽주가 존경하고 따랐던 이로 선죽교 근처에 살고 있었다. 성수익은 그의 7대손으로 이 비를 세웠고, 이 비가 부러지자 외손인 개성유수 권상유(權尙游, 1656~1724)가 다시 세웠다고 한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부총관으로 왕비를 수안(遂安)으로 호종하다가 과로로 병을 얻어 이듬해 해주에서 죽었다.⁵⁷⁰ 이 소식을 들은 오음(梧

567 선조의 명을 받아 전장에 나아가 사망한 명나라 군인들을 위해 제물을 정성스럽게 갖추고 제사를 지냈다.

568 《선조실록》 선조 28년(1595) 12월 7일.

569 《선조실록》 선조 30년(1597) 4월 20일, 헌납 김신국(金愼國)이 “개성유수 성수익은 나이가 많아 이처럼 대군(중국군)이 지경을 지날 적에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체차시 키소서”라는 상소에 따라 체차되었다.

570 황정욱(黃廷彧, 1532~1607), 《지천집(芝川集)》 권4, 嘉善大夫禮曹參判成公墓誌銘并序, 한국문집총간 41집.

陰) 윤두수(尹斗壽, 1533~1601)는 ‘창산군성수익만사(昌山君成壽益挽詞)’를 지었다.⁵⁷¹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 1537~1616)는 ‘예조참판성공수익묘비명(禮曹參判成公壽益墓碑銘)’을 썼는데 이 기록에 보면 1574년 사옹원 정에 제수되었다가 광주목사로 나갔고, 1577년에 체직되어 돌아왔는데 이듬해 성균관 사예에 제수되었다고 했다.⁵⁷² 황정욱(黃廷彥, 1532~1607)은 ‘만성덕구(挽成德久)’와 ‘가선대부례조참판성공묘지명병서(嘉善大夫禮曹參判成公墓誌銘并序)’를 썼다.⁵⁷³ 성수익(成壽益)의 부인에 대한 만사는 오산(五山) 차천로(車天輅, 1556~1615)가 지었다.⁵⁷⁴

68. 윤희길(尹希吉, 1534~?), 재임 : 1577~1580

윤희길(尹希吉)은 《광주읍지》에 1577년(선조10)에 문과 당하관으로서 광주목사에 부임하였다. 《광주향교지》 기록에도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등 다른 기록에는 광주목사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윤희길의 본관은 파평, 자는 군선(君善), 호는 추애(秋岬)이다. 조부는 윤백령(尹伯齡), 부친은 돈용교위 충의위 윤희(尹沆), 모친은 송은석(宋殷碩)의 딸이다. 부인은 신종(辛琮)의 딸이다. 아들 윤근(尹根, 1574~?)은 사헌부 지평 등을 지냈으나, 광해군 때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죽었다.

1561년 식년시에서 생원 2등 8위, 진사 2등 7위로 합격했고, 1564

571 윤두수, 《오음유고(梧陰遺稿)》 권2.

572 윤근수, 《월정집(月汀集)》 권6, 禮曹參判成公壽益墓碑銘. ‘甲戌. 拜司饗院正. 出牧光州. 丁丑遞還. 戊寅. 拜司藝.’

573 황정욱, 《지천집(芝川集)》 권2, 칠언율시; 《지천집(芝川集)》 권4, 嘉善大夫禮曹參判成公墓誌銘并序, ‘辛未. 以親老乞補富平府. 陞司饗院正, 光州牧使.’

574 차천로, 《오산집(五山集)》 속집 권2.

년 식년시 문과에서 병과 17위로 급제했다. 1567년(명종22)에는 김우평(金宇宏) 등과 함께 예문관검열, 1571년에는 이증(李增) 등과 함께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었다.⁵⁷⁵ 그러나 병 때문에 출사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아뢰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

1573년에는 사간원헌납, 1577년 광주목사, 1584년 사헌부장령, 사성 등을 역임하고 1589년 선산부사와 강원감사를 지냈다. 선산부사로 있을 때 객사(客使) 중에 왜인(倭人)과 함께 수로(水路)를 따라 물품을 가지고 올라온 자가 선산에 도착하여 영접하는 과정에 군졸이 말을 달려 왜인들을 놀라게 하였고, 이들을 달래야 하나 애걸하여 약함을 보이고 나라를 욕되게 하였다는 죄로 파직되었다.⁵⁷⁶

1582년(선조15) 서산군수로 부임한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 1533~1592)과 교유관계인 우재(愚齋) 한영희(韓永禧, 1518~?)가 고경명, 윤희길, 죽재(竹齋) 윤인함(尹仁涵, 1531~1597) 등과 서로 주고받으며 지은 시를 묶은 《서산록(瑞山錄)》⁵⁷⁷이 있었고, ‘용문도(龍紋圖)’를 지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는다.

69. 김우홍(金宇弘, 1522~1590), 재임 : 1580?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 읍선생 조에 문과 당하관으로 광주목사에 부임했다는 김수홍(金守弘)의 기록이 있다. 그동안 김수홍의 행적으로 알만한 내용을 어느 기록에서도 찾기 어려웠다. 이름을 잘못 적었을

575 선조 4년(1571) 4월 20일에 수공조정랑(守工曹正郎)으로 《명종실록》 편수관으로 참여했다. 이후 10월 15일 사헌부지평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2주 뒤인 29일 지평에서 체직되었다.

576 《선조실록》 선조 22년(1589) 7월 29일.

577 《여지도서》 권상, 충청도, 서산, 인물, 한영희의 기록이 있다. 韓永禧字希中號愚齋西原人三韓壁上功臣韓藺之後與高霽峯尹秋岬尹竹齋諸賢有唱和瑞山錄行于世又著龍紋圖.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던 중 같은 시기에 나주목사를 지낸 ‘김우홍(金宇弘)’을 찾았다.

김우홍은 1572년 5월부터 1573년 9월까지 나주목사로 있었다.⁵⁷⁸ ‘우(宇)’자와 ‘수(守)’자는 자주 오기하는 글자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김우홍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김우홍(金宇弘, 1522~1590)의 기록을 찾으니 1573년(계유년) 정월에 고봉 기대승 영전에 올리는 제문을 ‘나주목사 김우홍’으로 썼고,⁵⁷⁹ 1574년 10월에 덕계(德溪) 오건(吳健)의 제문에서는 전 나주목사라 하였다.⁵⁸⁰ 박영(朴英)의 문인이며 김인후(金麟厚)와 기대승(奇大升) 등과 교유했던 이항(李恒, 1499~1576)의 《일재선생집(一齋先生集)》에 김우홍이 쓴 제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광주목사(光州牧使)’라는 기록을 찾아냈다.⁵⁸¹

김우홍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본관은 의성(義城)이고 자는 면부(勉夫), 호는 이계(伊溪) 또는 지족당(知足堂)이다. 조부는 김치정, 부친은 삼척부사(三陟府使) 김희삼(金希參)이다. 부제학을 지낸 개암(開巖) 김우굉(金宇宏, 1524~1590)과 이조참판을 지낸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顛, 1540~1603)이 동생이다.

1546년(명종1) 생원시와 진사시에 동시 급제할 정도로 문사(文詞)를 일찍 성취하였고, 특히 생원시는 100명 중 3등으로 합격하였다. 1552

578 재해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파직을 당했다.

579 기대승(1527.11.18.~1572.11.1.)의 제문을 썼다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고봉집》 별집 부록 권1, 癸酉正月壬午朔二十七日戊申. 友人羅州牧使金宇弘. 敢昭告于奇高峯明彦之靈.

580 오건, 《덕계집(德溪集)》 제8권 / 외집(外集), 제문(祭文), 이 글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지 3개월 만에 제문을 올린다고 하였다.

581 이항, 《일재선생집(一齋先生集)》 부록 34, 光州牧使金宇弘, 일재 이항은 1576년 6월 22일에 전북 태인현에서 즐겼다. 따라서 그 이후 김우홍은 광주목사가 되었는데 제문을 언제 썼는지는 간지 기록이 없다.

년에 일두(一蠹)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을 위한 서원(書院)의 창건을 위해 노력했다.⁵⁸² 1553년 별시(別試) 병과(丙科)에서 11위로 급제했다.

승정원 주서와 병조좌랑, 예빈시정(禮賓寺正)을 역임하고, 함양부사(1564~1568), 나주목사(1572~1573), 영흥목사 등을 지냈다. 경남 밀양의 용산서원(龍山書院)에 제향되어 있다. 영흥과 나주에 김우홍을 기리는 유애비(遺愛碑)가 있다.

1994년에 간행된 《이계선생실기(伊溪先生實紀)》가 있다.

70. 신응기(辛應基, 1530?~?), 재임 : 1580

신응기(辛應基)는 《광주읍지》에는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없으나, 《광주향교지》 기록에는 올라 있다. 선조 때인 1580년 광주목사 신응기는 내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사간원이 체직을 원하는 상소를 올리고 이를 선조가 윤허해 체직되었다.⁵⁸³ 이 기록으로 보면 광주목사로 제수되자 사간원의 반대로 체직되어 김해부사로 새로 제수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신응기의 본관은 영산(靈山, 창녕)이며, 신석(辛奭)의 증손으로 조부는 신윤형(辛尹衡), 부친은 괴산군수를 지낸 신보상(辛輔商)이다. 형제는 8명으로 신응기가 둘째이며, 1581년 광주목사로 부임했던 신응시(辛應時, 1532~1585)가 셋째이다. 형제가 잇달아 광주목사를 지낸 셈이 됐다.

신응기가 1569년 진주판관으로 지낼 때 유희춘은 당시 관각당상(館

582 정운(鄭蘊), 《동계집(桐溪集)》, 행장, 介庵姜先生行狀.

583 《선조실록》, 선조 13년(1580) 10월 12일, ‘光州牧使辛應基, 不合內地’.

閣堂上) 박순(朴淳)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신응기의 현명함이 동류 중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그에게 추천했고, 박순도 동의했다⁵⁸⁴는 기록이 있다.

1573년 형조정랑, 1574년 1월 경원부사로 임명했으나 2월에 백성들이 유입하기를 바라는 민심을 얻어서 천안군수로 그대로 두었다. 당시 실록을 보면 윤근수(尹根壽)가 진달하기를, “천안군수 신응기는 민심을 얻었습니다. 지금 군적(軍籍)을 만들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가로막고 만류하여 호소함이 형언할 수 없다고 합니다”라고 했고 이어서, 유희춘이 “신응기가 민심을 얻었기에 진실로 유입하기 바란 일은, 비록 옛사람들이 하더라도 이보다 낮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유희춘이 신응기가 숙배할 때 신고 갈 흑화(黑靴)를 구해서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⁵⁸⁵ 그리고 ‘유희춘이 얼마 전 도시(都試)에서 신응기와 이경(李暉)을 이조참판 박근원에게 천거하였고, 오늘은 또 신응기와 양대수를 병조판서 정종영에게 천거하였다’⁵⁸⁶고 한 것으로 보아 유희춘이 신응기에 대한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74년 7월에 삭주부사가 되었고 1580년(선조13) 광주목사에서 체직되어 김해부사가 되었다. 1582년 경상좌도병마절도사를 지냈는데 이 기록은 1585년 12월 울산 병영성에 세워진 신응기의 선정을 기리는 비석에서 찾았다. 선정비 전면에는 ‘절도사신공응기선정비(節度使辛公應基善政碑)’, 후면에는 ‘만력십삼년 을유십이월(萬曆十三年 乙酉十二月)’이라고 새겨져 있다.⁵⁸⁷

584 유희춘, 《미암집》 권7, 1569년 7월 4일.

585 유희춘, 《미암집》 권11, 1574년 6월 22일.

586 유희춘, 《미암집》 권12, 1574년 8월 14일.

587 배은경(2015), “배은경의 유물이야기(38) 정황이 증거가 되어서 돌아왔다”, 경상일보 (2015.8.5.), (2022.10.15. 인용).

이 비석은 2015년 울산왜성에서 출토될 당시 둥근 구멍이 파여 있었는데, 이는 성문의 문짝(門扉)을 여닫기 위해 받치던 문둔테석[확돌]의 구멍으로 전쟁에 임하는 왜군들이 병마절도사의 상징물을 딛고 조선군을 철저히 유린하려 했던 행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이 신응기를 위해 ‘신 침지(응기)에 대한 만사’를 쓰기도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⁸⁸

將壇詩禮早聞名 장단에 올라 시례로 진즉에 이름나고
 報國平戎自一生 보국하여 응적 평정에 일생을 바쳤네
 兩路威風重制閫 양로에서 위풍당당 곤외 거듭 제어하고
 九州恩愛幾專城 구주에선 몇 고을에나 은덕을 베풀었나
 廉頗已老身猶健 염파는 늙어서도 신체 외려 강건했고
 李廣無成疾遽嬰 이광은 보람 없이 병만 덜컥 걸렸다오
 邊塞卽今思猛士 변방에선 오늘날 용맹한 용사를 그리니
 傷心淚盡伏波營 복파영을 두고 상심하여 눈물이 마르네

71. 신응시(辛應時, 1532~1585), 재임 : 1580~1582

신응시(辛應時)는 《광주읍지》에 1581년 문과 통정대부로 부임하였다. 《광주향교지》 기록에도 있다. 신응시의 《백록유고(白麓遺稿)》 연보에는 1580년(선조13)에 광주목사가 된 것으로 적혀 있다. 2년 뒤 1582년 선조는 광주목사 신응시를 도사영위사에 차임하여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했다.⁵⁸⁹

이날 성절사 이해수(李海壽)는 황태자가 한 달 전(8월 11일)에 탄생

588 이수광(李睟光), 《지봉집(芝峯集)》 권4, ‘挽辛僉知(應基)’.

589 《선조실록》 선조 15년(1582) 9월 7일.

하여 천하에 조서를 반사(頒賜)하기 위해 한림 편수 황홍헌(黃洪憲)과 급사중 왕경민(王敬民) 등을 차송하기로 하고 9월 보름경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조는 대신들에게 전례에 따라 모든 일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대신이, 지대(支待)에 관한 모든 일은 해사가 관례에 따라 처리할 것인데 도사영위사는 반드시 문장에 능한 사람을 임용해야 하므로 광주목사 신응시를 차임할 것을 밝혔다. 신응시의 문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다.

신응시의 본관은 영산(靈山, 창녕), 자는 군망(君望), 호는 백록(白麓),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신석(辛奭)의 증손으로 조부는 신윤형(辛尹衡), 부친은 괴산군수를 지낸 신보상(辛輔商), 어머니 여흥민씨(驪興閔氏)는 호분순위사 부위 민거(閔居)의 딸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 휴암(休菴) 백인걸(白仁傑)의 문하에서 배웠다.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우계(牛溪) 성혼(成渾), 울곡(栗谷) 이이(李珥)와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 송시열이 신응시를 ‘이이와 성혼과 백중의 형제’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1547년 16세 때 알성시에 합격할 만큼 문장이 출중했다. 당시 좌상 안현(安炫)은 신응시가 지은 것임을 알아보고 즉시 붓으로 끌어당겨 소매 속에 넣으면서, “이 사람은 큰 그릇이니 소년 때 등과하는 일은 불행하다”라고 할 정도였다. 즉 문장력이 성인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박필주(朴弼周)의 ‘부제학증이조판서백록신공묘지명(副提學贈吏曹判書白麓辛公墓誌銘)’⁵⁹⁰과 박세채(朴世采)의 ‘홍문관부제학증이조판서신공신도비명(弘文館副提學贈吏曹判書辛公神道碑銘)’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⁵⁹¹

590 박필주(朴弼周), 《여호집(黎湖集)》 권28, 묘지.

591 박세채(朴世采), 《남계집(南溪集)》 속집 권21, 신도비명.

1552년(명종7) 진사가 되고 1559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처음에 승문원 권지부정자에 보임되었다가, 참하관의 여러 관직을 거쳐서 성균관 박사가 되었다.

1563년(명종18) 세자시강원 설서(說書)에 임명되어 순회세자(順懷世子)를 가르쳤는데, 세자는 명종과 인순왕후(仁順王后) 심씨(沈氏) 사이에 태어난 유일한 혈육이었다. 당시 세자는 병약하여 서연(書筵)에서 사부들의 가르침을 받고 글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⁵⁹² 설서 신응시는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세자의 사부를 사양하여, 사간원정언으로 전직되었다. 순회세자를 보호하던 이조판서 이량(李樑)도 인순왕후의 형제인 심의겸(沈義謙)의 공격을 받고 실각되었다.

1563년(명종18) 12월 신응시는 홍문록에 선발되었는데, 명종이 앞서 뽑힌 박순(朴淳)·정윤희(丁胤禧)·유전(柳璵)·최옹(崔顛) 등 4명과 뒤에 뽑힌 기대승·이산해(李山海)·신응시·이후백(李後白) 등 4명을 궁궐 뜰에 모아서 시험을 보고, 수석을 차지한 신응시와 나머지 7명에게 차등 있게 상품을 하사했다.⁵⁹³ 당시 홍문록에 선발된 8명은 나중에 모두 정승·판서를 지낸 유명한 인재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신응시가 시문을 짓는 일에 가장 뛰어났다.

1565년 홍문관 수찬, 지제교를 거쳐 1566년 문과 증시에 병과로 급제, 사헌부 지평과 홍문관 부수찬을 번갈아 맡았다. 1567년 사간원헌납, 예조·병조의 정랑, 교리 등을 거쳐 선조 즉위 초에 경연관이 되었다. 그는 정시(庭試)에서 무려 7번이나 장원할 정도로 문재(文才)를 인정받았다.

1568년 우의정 박순(朴淳)이 원접사와 반송사에 임명되어 신응시와

592 《명종실록》 명종 18년(1563) 3월 18일.

593 《명종실록》 명종 18년(1563) 12월 2일.

이산해를 증사관으로 삼아서, 평안도 의주에 가서 사신을 영접하고, 또 전송하였다.⁵⁹⁴ 신응시는 시문을 잘 지었으므로, 접반사가 중국 사신들과 대작할 때 그가 즉석에서 시를 지어서 화답하였다. 이후 박순은 선조 때 신응시를 중요한 자리에 천거하였다.

1570년 어머니상을 입고 있을 때 《주자대전(朱子大全)》 중에서 예(禮)에 관한 부분을 발취하여 《주문문례(朱門問禮)》를 간행했다. 후에 1572년 호남지역 어사, 1573년 이조정랑, 1574년 우부승지, 1575년 전라감사, 1577년 연안부사, 1580년 광주목사, 1582년 조사 황흥헌과 왕경민이 나올 때 의주 영위사가 되었다.

경연에 임할 때면 고금의 사례들을 적절히 인용하여 막힘이 없었으며, 지방수령으로 재직 때에는 풍속을 바로잡고 교육을 진흥시켰으며, 사사로운 일에는 청렴하여 집안에 가재도구가 거의 없었다. 1590년 졸한 뒤 그해에 광국원종대신으로 추록되어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남계집》에는 신응시의 성품에 대해 “그는 풍채가 빼어났는데, 키가 커서 장신(長身)이고 피부가 옥과 같이 희었으며 성품이 명랑하여 좁고 막힌 병통이 없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⁵⁹⁵

《수정선조실록》의 ‘신응시졸기’에 따르면 “행동이 과묵하고 남에게 관대하였으나, 성격이 강직한데다가 뜻이 매우 높았다. 그의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지성에서 우러나왔고 임금의 앞에서 위엄을 무릅쓰고 간쟁(諫爭)하고 남김없이 말을 다하고 마음의 동요하는 바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정시(庭試)에서 일곱 번이나 장원할 만큼 문장에도 뛰어났다. 사람들은 신응시를 임금을 보필할 만한 동량의 재목으로 생각하여 재상이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신응시는 청백

594 《선조실록》 선조 1년(1568) 2월 26일.

595 박세채(朴世采), 《남계집(南溪集)》 속집 권21.

리로서 정직한 신조를 지키면서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고 권세와 이득을 멀리하여 위아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기록했다.⁵⁹⁶

저서로 《백록유고(白麓遺稿)》가 있다. 광주목사로 있으면서 지은 시가 여러 편 있다. 4권 3책의 목판본으로 1660년(현종1) 후손 신희계(辛喜季)가 편집·간행했고, 1741년 후손 신치복(辛致復)이 보완하여 다시 펴냈다. 송시열이 서문을 썼다. 서인의 입장에서 당시의 정치적 대립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밝힌 글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의 정치적 동향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성리학 사상에 대한 글도 실려 있다.

황해도 배천의 문회서원(文會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72. 이장영(李長榮, 1521~1589), 재임 : 1582~?

이장영(李長榮)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 기록에 1583년(선조 16)에 문과 당하관으로서 62세에 광주목사에 부임하였다. 그러나 유교 집인 《죽곡집(竹谷集)》 기록에는 1582년 10월 9일에 제수받았다. 이때 나주진의 군사책임자로 함께 제수되었다.⁵⁹⁷

광주목사로 재임하는 동안 송천 양응정의 제문을 쓰고, 고봉 기대승의 사우에 제를 올렸는가 하면, 서석산(현 무등산)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등 많은 활동을 했다. 이장영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약을 먹고 세상을 떠난 조광조(1482~1519)의 신원을 요구하는 소를 3번이나 올렸다고 한다.⁵⁹⁸ 이때가 1545년(嘉靖乙巳)으로 이장영이 24세 때의 일이다.

596 《선조(수정실록)》 선조 18년(1585) 1월 1일.

597 이장영, 《죽곡집》 부록 권1, 연보, 宣祖十五年壬午 先生六十二歲, 十月九日授光州牧使 同日授羅州鎭管兵馬同 僉節制使.

이장영(李長榮)의 본관은 함평, 자는 수경(壽卿), 호는 죽곡(竹谷)이다. 이안(李岸)의 증손으로 조부는 이계형(李桂亨), 부친은 생원 이석(李碩)이며, 모친은 나빈(羅贇)의 딸이다. 나주 문평면 죽곡리 장원봉 아래에서 출생했다.

1540년 진사가 되었고, 1546년(명종1) 성균관유생으로 있으면서 성균관 주변에서 관노(館奴)와 소란을 벌이는 군졸을 구타하였다가 의금부에 하옥당한 적이 있다. 이 일은 사기(士氣)를 억누르는 일이라 하여 조정에 파문을 일으켰다.⁵⁹⁹

1558년 식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1568년 예조의 계목(啓目)에, 중국 사신이 왔을 때는 가관관(假館官) 12명 중 한 사람이 되었다. 1569년 함양군수를 지냈는데 이때 소작농을 하려는 사람이 논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을 고발하는 사건을 해결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⁶⁰⁰

이장영(李長榮)이 함양군수로 있을 때, 노진(盧稹) 감사가 순시하러 왔고, 이 후백(李後白)이 판서로서 휴가를 얻어 고을에 모이게 되었다.

한 백성이 감사에게 호소하기를, “가난한 백성이 못자리할 논이 없어 이웃에 사는 아무개에게 빌려주기를 청하였더니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빌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지경이니, 속히 아무개를 관청에서 잡아들여 백성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니, 노 감사가 이르기를, “그가 자기 논을 가지고 너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니, 그가 이웃과 친목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관(官)으로서 어떻게 빼앗아 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 판서가 이르기를, “관이 나쁜 사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가난한 백성은 누구를 믿으며, 소장(訴狀)을 방치하고 처리하지 아니하면 장차 누가 호

598 조광조, 《정암집》 속집 부록 권2, 疏·劄·啓/ 신원소(伸冤疏).

599 뿌리를 찾아서, www.rootsinfo.co.kr, 李長榮. (2023.5.17. 인용)

600 《대동야승》 권34, 윤기헌(尹耆獻), 〈장빈거사호찬(長貧居士胡撰)〉.

소를 하겠소?”라고 하여 두 사람의 논쟁이 결말을 보지 못하였다.

노 감사가 이르기를, “군수는 노련한 관리이니, 사건을 이 군수에게 맡겨야겠 습니다”라고 하니, 이 군수는 논의 소유자를 치죄하고자 하였다. 노 감사가 이 상하게 여기자 이 군수는 말하기를, “선성(先聖)의 교훈이 있으니 감히 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노 감사가 괴이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으니 이 군수는 말하기를, “그러지 말 라. 이웃과 향당에게 주어라[毋以與隣里鄉黨] 한 것이 공자의 말씀이 아닙니 까? 무(毋)와 묘(苗)는 음이 서로 비슷합니다”라고 하니, 온 좌중이 탄복을 하 였다.

정해년 가을에 나는 송강의 집에 있었는데, 이장영이 마침 중시에 수석으로 함 격하여 송강 정철을 보러 왔었다. 술이 반이나 되어 이 이야기를 하니, 송강 역 시 무릎을 치며 탄복하였다.

1578년 통훈대부 담양부사가 되어 1580년 4월까지 있었다. 1586 년 선조가 문사들에게 중시(重試)를 보였는데 장원으로 급제하였다.⁶⁰¹ 1587년 대사간에 오르고, 1582년 광주목사, 1585년 성주목사로 이동 했으며 상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가 되었다. 1588년 양양부사로 나아 갔다. 품계는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영광 수강사(壽岡祠)에 배향(配享)되었다.⁶⁰² 지금은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수각마을에 1869년에 세운 수강서원 유허지 표지석만 남아있 다.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은 이장영의 《죽곡집(竹谷集)》 발문을 써주었고,⁶⁰³ 양득중(梁得中, 1665~1742)은 이장영의 ‘죽곡묘지명(竹

601 《선조(수정실록)》 선조 19년(1586) 9월 1일, 모두 6명이 뽑혔다.

602 《연려실기술》 별집 권4, 《사전전고(祀典典故)》.

603 기우만 ‘《송사집(松沙集)》 권22.

谷墓誌銘’을,⁶⁰⁴ 윤동수(尹東洙, 1674~1739)는 ‘성주목사이공묘갈(星州牧使李公墓碣)’을⁶⁰⁵ 썼다.

《죽곡집(竹谷集)》이 남아있다.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유고(頤齋遺藁)》에 이장영의 연보에 대한 후론이 들어 있다.⁶⁰⁶

73. 정염(丁焯, 1524~1609), 재임 : 1584~?

정염(丁焯)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 기록에는 문과 당하관으로 부임하였다. 1584년(선조17) 겨울 63세 때에 광주목사가 되었다.⁶⁰⁷

정염은 본관이 창원, 자는 군회(君晦), 호는 만현(晩軒)이다. 부친은 정종석(丁終碩)이며, 모친은 영광주씨 주만귀(周萬貴)의 딸이다. 7세에 마을 서당에 입학하여 학문을 닦다가 23세 때 재종형 정황(丁橫)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했다.

1543년 무장현감 유희춘(柳希春)이 연소자를 뽑아 《소학》, 《근사록》, 《주자대전(朱子大全)》을 가르치는 데에 선발되었다. 1549년(명종 4)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해 정황의 유배지인 거제도도로 찾아가 학문을 깊이 있게 배웠다.⁶⁰⁸ 이때 활계(活溪)李大耆(李大耆, 1540~1609)는

604 양득중, 《덕촌집(德村集)》 권10, 비장(碑狀).

605 윤동수, 《경암유고(敬庵遺稿)》 권10, 묘갈명.

606 황윤석, 《이재유고(頤齋遺藁)》 권12, 題跋.

607 김은정(2006), 《만현집(晩軒集)》 해제, 연보.

608 고영화(高永和), “거제향교(巨濟鄉校)의 역사와 교육 2편”, https://story.kakao.com/_7VJmR7/gRYvWQVTRAA (2023.5.17. 인용), 정황(丁橫)은 1548년 거제 고현동으로 유배 온 이후 지역 교육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 이곳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13년 동안 거제향교에서 후학에 전념하였다. 경남 전 지역에서 학생들이 몰려와 거제향교는 처음으로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이때 향교에서 수학한 인물로 구암(龜巖) 이정(李楨, 1512~1571), 이준민(李俊民), 이로(李魯), 정염(丁焯), 김급희(金汲希), 박오(朴畝) 등은 널리 알려진 학자들이다. 이처럼 정황은 당시 불모지였던 거제 민초에게 유교와 학문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어려서부터 정염을 종유(從遊)하며 조광조의 학문에 대해서 상당히 얻어듣게 되었다.⁶⁰⁹

1560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교서관에 들어갔다. 이때 정황이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는 큰 슬픔이었다. 1565년에는 모친상을 당했다. 1567년 사헌부감찰에 임명되었으며, 형조좌랑을 거쳐 1569년(선조2) 능성현령이 되었다.

1570년 능성(화순 능주)에 죽수서원을 건립하여 정암 조광조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1572년(선조5) 능성현령으로 고봉 기대승의 제문을 지었다. 1573년 부인의 병으로 사직하고 4년 동안 병간호를 했다. 1576년 부친상을 당했다. 이해 영광군수가 되었다. 그때 주민 가운데 임씨(林氏)와 나씨(羅氏) 사이에 소송사건이 있었는데, 명석한 재판을 진행하여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1582년 성균관직강이 되었다가 안성군수를 역임한 뒤 1584년 63세 때에 광주목사, 1588년 67세 때에 고부군수를 지냈다. 그 뒤 1590년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을 평정한 공로로 통정대부의 가자를 받고 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하지만 고부군수 때인 1591년 70세 무렵이 되자 노쇠하여 일 처리가 느리고, 사건 사고가 많은 연해의 고을에 합당하지 않다며 체차되었다.⁶¹⁰

고부군수를 물러나 옥산에 집을 짓고 우거하면서 만년에는 후진 교육에 힘썼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남원에서 창의하였는데 장수로 추대되었다.⁶¹¹ 남원의 향병장(鄉兵將)이 되어 남정(南亭)에 머물고 양사형, 양주, 변사정 등과 남원을 지켰다. 1603년 80세에 가선대부

609 장유(張維 1587~1638), 《계곡집(谿谷集)》 권12, 묘갈(墓碣), ‘고 형조 좌랑 활계 이공묘갈명(故刑曹佐郎活溪李公墓碣銘)’.

610 《선조실록》 선조 24년(1591) 2월 18일.

611 《대동야승》 권34, <난중잡록> 1592년 6월 23일.

에 올랐다.

저서로는 《만헌집(晩軒集)》 4권 2책이 있다. 《주자대전》,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손수 베껴 그중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을 취하여 《만헌보완(晩軒寶玩)》이라는 책을 엮었으나 전하지는 않는다. 1702년에 남원 현계서원(玄谿書院), 1704년 임실 현주서원(玄洲書院)에 배향되었다.

유희춘의 《미암집》에 ‘제문 양응정송천’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는 정염이 유희춘에게 올린 제문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⁶¹² 정염이 유희춘을 기리는 제문이 문집 《만헌집(晩軒集)》 권3에 ‘제유미암문(祭柳眉巖文)’으로 실려 있는데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⁶¹³ 유희춘은 1577년 5월에 세상을 떠났다.

제문을 읽어보면 첫째 ‘사도(沙島)의 강설’은 정염이 20세 때에 무장현감 유희춘이 연소자를 뽑아 《소학(小學)》과 《근사록(近思錄)》·《주자대전(朱子大全)》을 가르치는 데에 선발되었다는 말이다. 둘째 ‘구임(舊任)의 안찰’은 정염이 능주현감으로 있을 때에 유희춘이 1571년 전라감사로서 순행 길에 업무보고를 들었다는 뜻이다.⁶¹⁴ 셋째 ‘아버이를 잃었다’는 것은 바로 정염이 1576년 9월에 아버지 상을 당했다는 설명이다.

74. 권덕여(權德輿, 1518~1591), 재임 : ?~1585

권덕여(權德輿)는 《광주읍지》에는 ‘권덕흥(權德興)’으로 이름을 적고

612 유희춘(柳希春), 《미암집》 부록 권19. ‘祭文 梁應鼎松川’ 각주-D001에서 안동교와 김세중은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613 정염(丁焰), 《만헌집(晩軒集)》 권3, ‘祭柳眉巖文’. 少蒙沙島之講說. 晚承舊任之按察. 平生義分. 已成契闊. 逮先生有退休之志. 而愚者亦自放於樽散. 業未卒於當日. 悔前行之不諫. 地相便於往從. 心竊擬其扣鐘. 我創巨兮我痛深. 方抱樹於邱壠. 何夫子之不待. 奄一夕而長終. 麻纏桐扶. 西徠而嗚咽. 言不文兮情無因. 崇一壺之清酌. 遙奠獻於倩人.

614 유희춘, 《미암집》 권9, 일기, 선조 4년(1571) 6월 20일, 능성 현감(綾城縣監) 정염(丁焰)은 강단과 현명함이 있다고 했다.

있는데 오류인 듯하다. 문과 통정대부로서 부임하였다고 기록했다. 《광주향교지》 기록에도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권덕여(權德與)’라고 일부 적기도 했다.

1585년 광주목사 권덕여는 병이 심해 일을 보지 못할 정도인데도 병이 있음을 고하지 않는다며 체직하라는 윤허가 있었다. 이때 대사헌 정탁(鄭琢)이 권덕여 목사가 병이 심하다고 했고, 김우옹(金宇顒)도 권덕여를 직접 만났는데 증풍이 심해 죽을 지경에 있다고 했다.⁶¹⁵

권덕여의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치원(致遠), 규암(圭菴)이다. 권실(權實)의 증손으로, 조부는 권영(權齡)이고, 부친은 상주목사 권박(權博)이다. 송인수(宋麟壽, 1499~1547)의 문인으로 1562년에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1591년에 70세로 졸하였다. 이는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⁶¹⁶ 권29 송문충(宋文忠) 문인조에 올라 있다.

권덕여는 1537년(중종32) 사마시에 입격하고 태학(太學)에서 추천하여 처음에 의금부 도사에 임명되었다가 관례에 따라 직장(直長)으로 옮겼다. 1563년 2월 사간원 정언, 11월 병조좌랑이 되었다.⁶¹⁷ 1564년 사간원 헌납을 거쳐, 1566년 병조정랑, 사헌부 장령, 1567년 의정부 검상, 의정부 사인, 홍문관 부교리, 1568년 사간에 올랐다. 이해 유희춘이 검상(檢詳) 후보에 들었는데, 검상의 추천은 권덕여(權德與)와 윤근수(尹根壽) 두 사인(舍人)이 한 것이었다.⁶¹⁸

615 《선조실록》 선조 18년(1585) 2월 20일, 이 기록으로 보면 광주목사에 제수된 이후 병으로 부임하지 못할 상황이라 체직된 것으로 여겨진다.

616 《동유사우록》은 박세채(朴世采)가 신라에서 조선 선조 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도학사우(道學師友)의 연원을 모아 편집한 책으로 박세채 생전에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다가 그의 제자인 이세환(李世煥, 1721~?)의 추보(追補)를 거쳐 완성되었다.

617 《명종실록》 명종 18년(1563) 11월 11일, 사관이 부기하길 “성격이 조용하여 분경을 일삼지 않았다”라고 했다.

618 유희춘, 《미암집》 권5, 1568년 2월 25일.

1570년 집의, 1571년 승지, 1573년(선조6) 대사간이 되었고 명나라에 성절사 사신단으로 갔다. 1574년 좌부승지, 동부승지를 거쳐 1575년 황해도 감사, 1579년 대사간, 1583년 홍문관 부제학, 성주목사,⁶¹⁹ 1585년 광주목사, 1589년 춘천부사 등을 지냈다.

이정귀(李廷龜)가 쓴 권덕여의 비명⁶²⁰에는 출생년이 없이 1591년 74세에 죽은 것으로 기록했다.⁶²¹ 이로 보아 1518년 생으로 보인다.

75. 안용(安容, 1522~1586), 재임 : 1585~?

안용(安容)은 《광주읍지》에 문과 통정대부로서 광주목사에 부임하였다고 한다. 《광주향교지》 기록에도 있다.

안용은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의 제문⁶²²과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제문⁶²³을 썼다. 안용과 기대승은 1558년(명종13) 같은 해에 과거 급제한 사이이다.⁶²⁴ 이때 실시한 식년시에서 기대승은 을과 7인 중 장원으로, 안용은 병과 25인 중 16인으로 입격하였다.

안용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사묵(士默), 호는 송파(松坡)이다. 조부는 안식(安湜)이고, 부친은 현감 안승명(安承命)이다. 모친은 강영수(姜永壽)의 딸이다.

619 권덕여는 1579년 대사간으로서 백인걸(白仁傑)의 상소를 이이(李珣)가 대신 지은 것이 문제 되었을 때, 이이를 옹호하다 대사간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1583년 부제학으로서 이이의 처벌을 주창하는 박근원(朴謹元)·송응개(宋應澗)·허봉(許篈) 등에 동조하면서 성주목사로 좌천되었다.

620 이정귀, 《월사집(月沙集)》 권42, 신도비명, ‘황해감사권공신도비명(黃海道觀察使權公神道碑銘)’.

621 위의 책, 辛卯七月。卒于第。距公生戊寅。得年七十四。訃聞。

622 고경명, 《제봉집》 속집.

623 기대승, 《고봉전서》 부록 권1, 제문, 안용이 영광군수로 있을 때인 1572년 12월 25일이다.

624 《國朝文科榜目》 권7, 명종 13년 10월 29일.

1552년(명종7) 진사시에 합격하고, 1558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566년 예문관대교가 되었다. 형조좌랑·지평을 거쳐, 1569년에는 직강(直講)으로 있으면서 미암 유희춘과 함께 근무했고, 1571년에는 영광군수로 부임하여 마음이 굳세고 두뇌가 명석한 수령으로 이름을 떨쳤다.⁶²⁵

그러나 1573년 전라감사 유흥(兪泓, 1524~1594)은 “영광군수 안용은 궁마(弓馬)를 익히지 못하였으니 무재(武才)가 있는 다른 문관 중에서 차출하라”라고 하는 서장(書狀)을 선조에게 올렸다.⁶²⁶

안용은 1575년에 장령, 1578년 사간원사간을 역임한 뒤, 1581년 황해도감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 직전에 안동부사(1581~1584)로 바뀌었고⁶²⁷ 이후 1585년(선조18) 광주목사로 부임했다. 같은 해에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를 다녀왔다. 1586년 9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묘는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산79에 있다.

625 유희춘, 《미암집》 권9 / 일기, 1571년 6월 20일 영광군수 안용은 나주목사(羅州牧使) 권순(權純), 능성현감(綾城縣監) 정염(丁焰), 순천부사(順天府使) 이선(李選) 등과 함께 강단과 현명함이 뛰어난 사람으로 능히 옥사나 송사를 판결한 관리라 했다.

626 《선조실록》 선조 6년(1573) 2월 19일.

627 《선조실록》 선조 14년(1581) 4월 17일 황해감사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선조(수정실록)》 선조 14년(1581) 5월 1일 부임 전에 체직되었다. 이 과정에 대한 일화가 율곡 이이의 《경연일기》 권3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황해도의 한재(旱災)가 지난 해와 다름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 굶주렸다. 신임 감사 안용(安容)이 부임하려고 하는데, 상이 대신에게 물기를, “황해도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안용은 최잔한 것을 소생시키고 백성을 어루만질 인재가 아니다. 나는 그를 바꾸어 감당할 만한 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땠겠는가?” 하니, 대신이 아뢰기를, “주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이어서 안용을 바꾸게 하고 이조에 명하여 가까운 시종(侍從)을 막론하고 의망하게 하여 죄부승지 최황(崔滉)을 황해감사로 삼았다. 최황은 약간의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상이 황정(荒政: 흉년을 구제하는 정사)을 맡기려 한 것이다.

76. 김행(金行, 1532~1588), 재임 : 1586~1587

김행(金行)은 《광주읍지》 기록에 1586년(선조19)에 문과 당하관으로서 광주목사에 부임하였다. 《광주향교지》에도 올라 있다.

광주목사로 재임 중에 광주(光州)의 적승(賊僧) 청운(靑雲)이 그 주인덕에 도적질을 하면서 칼로 주인 부처를 상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 일당을 포고(捕告)하여 공을 세울 것을 마치 서림(徐林)의 예와 같이 하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그의 지시를 따라 큰 도적 무리들을 많이 포획했는데, 치죄(治罪)하기가 곤란하자 그 주인에게 보내 그의 처치에 맡겨 버렸다. 뒤에 감사 윤두수가 그 사건을 아뢰자, 임금은 당시 전라감사 한준의 공사(公事)가 매우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하여 정원(政院)에 하교하였는데, 양사가 한준과 광주목사(光州牧使) 김행(金行)을 탄핵하여 파직시켰다.⁶²⁸

김행의 본관은 강릉, 자는 주도(周道), 호는 장포(長浦)이다. 사간원 정언을 지낸 김상(金湘)의 증손으로 조부는 군수를 지낸 김사희(金士熙), 부친은 김국평(金國桴), 모친은 거창신씨로 신극효(愼克孝)의 딸이다. 첫째 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는 종실(宗室) 순평령(順平令) 이수진(李壽進)의 딸인데, 1남 2녀를 낳았다. 둘째 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는 병조판서에 추증된 윤원룡(尹元龍)의 딸인데, 2남 1녀를 낳았다. 장남 김효엄(金孝淹)은 목릉(穆陵) 참봉을 지냈고, 차남 김충엄(金忠淹, 1581~?)은 연산현감을 지냈으며, 3남 김우엄(金友淹)은 황신(黃愼)의 문인으로 진산군수를 지냈다.

김행은 어려서 백인傑(白仁傑)과 성수침(成守琛)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성수침의 아들 성혼(成渾, 1535~1598)이 3살 아래이지만 동문 수학하고 평생 형제처럼 지냈다.⁶²⁹ 조선 중기 대표적인 청백리였던 청

628 《선조실록》 선조 20년(1587) 9월 7일, 이때 한준은 호조참판이었다.

629 윤拯(尹拯, 1629~1714)의 《명재유고(明齋遺稿)》 권2, 시, 양홍렬, ‘김부정(金副正) 우엄(友淹) 어른에 대한 만사(金副正友淹丈挽)’.

강(淸江) 이제신(李濟臣, 1536~1583)⁶³⁰과도 친교가 두터웠다.⁶³¹

김행은 19세 때 감시(監試)의 초시에 장원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시 문장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글씨를 잘 썼기 때문이었다.⁶³² 그 뒤에 알성 문과에 입격하였으나 천재(天災)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1558년 생원·진사 양시에 입격하고, 1566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했다. 벼슬은 내직으로 전적·형조좌랑·호조좌랑·예조정랑·한성부 서윤·사성·사도시정을 지냈고, 외직으로는 무장현감·고양군수·서천군수·양주목사·광주목사를 지냈다.

1574년(선조7) 김행이 무장현감으로 있을 때 가뭄이 발생하자 별창(別倉)의 콩 1천 5백여 석을 민간에 나누어주어 흉년을 구제한 일이 있다. 당시 전라감사 박민헌(朴民獻, 1516~1586)이 서장을 올려 “한결 같은 마음으로 봉공(奉公)하는 사람”⁶³³이라고 했다. 그런데 1580년(선조13) 김행이 고양군수로 있을 때 손식(孫軾) 전라감사가 서계(書啓)하기를 “고양군수 김행이 전날 무장현감으로 있을 때 별창의 콩을 민간에 분급한 것처럼 반작(反作)하였다”라고 보고하여 선조가 화를 내면서, “김행을 먼저 파직하고, 그 뒤에 죄를 추고하라”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김행은 1580년 9월 파직당하고 체포되어 혹독한 심문을 받은 후 귀양을 갔다.⁶³⁴ 반작은 허위 문서를 꾸며서 관가의 곡식을 착

630 조선시대 중기 대표적인 청백리인 이제신(李濟臣) 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청강기념관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 조성됐다. 일간투데이, 2012.10.19.

631 이제신(李濟臣), 김행(金行), 김덕연(金德淵)은 과거시험 공부를 같이 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서로 친하게 지냈다. 이들은 특히 책문(策問)을 짓는 데에 능하여, 각자 지은 책문을 모아 《분주탐시책(焚舟榻試策)》이란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유몽인(柳夢寅), 《어우야담》 자라탕.

632 1575년(선조8) 무장현감으로 있을 때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쓴 ‘증도가(證道歌)’를 간행할 당시 원본이 반이나 훼손되었는데 김행이 나머지 부분을 써서 보충한 후 판각하여 출간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서체가 다른 줄을 알지 못하였다.

633 《선조실록》 선조 7년(1574) 7월 21일.

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실 모함이었다. 동인이 서인의 영수 성훈과 절친한 김행을 쫓아내기 위한 조치였다고 전한다.

김행이 세상을 떠난 후 조익(趙翼, 1579~1655)이 ‘목사김공묘갈명(牧使金公墓碣銘)’⁶³⁵을 썼고, 성훈(成渾, 1535~1598)은 ‘제김정문(祭金正(行)文(戊子四月))’⁶³⁶이라는 제문을 지었다.

77. 김우굉(金宇宏, 1524~1590), 재임 : 1587~1589

김우굉(金宇宏)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 그가 광주목사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선조 때의 문신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가 되었다. 10년 전에 광주목사를 지낸 김우홍(金宇弘, 1522~1590)이 그의 형으로 형제간에 광주목사를 맡았다.

《개암집(開巖集)》에 있는 연보⁶³⁷와 이준(李俊)이 쓴 ‘묘갈명’⁶³⁸에 따르면, 그는 1587년 가을에 광주목사로 부임하였고 1589년 봄에 사직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문헌인 이산해(李山海, 1538~1609)의 김우굉 연보와 이정형(李廷馨, 1549~1607)의 글에는 그가 1583년에 광주목사가 되었다고 적혀있는데,⁶³⁹ 이는 잘못된 기록으로 보인다.

김우굉의 본관은 의성, 자는 경부(敬夫), 호는 개암(開巖)이다. 김종

634 《선조실록》 선조 20년(1587) 9월 7일.

635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권32.

636 성훈(成渾), 《우계집(牛溪集)》 권6.

637 김은정, 《개암집(開巖集)》 연보.

638 김우굉, 《개암집(開巖集)》, 권4 부록, 이준, 墓碣銘 并序, “丁亥夏差聖節使。上憐其老病遞之。秋除光州牧使。己丑春辭還。”

639 이산해(李山海), 《아계유고(鵝溪遺稿)》 연보; 이정형(李廷馨), 《지퇴당집(知退堂集)》 권 11 ‘동각잡기곤(東閣雜記坤)’.

혁(金從革)의 증손으로 조부는 증 도승지 김치정(金致精), 부친은 부사 김희삼(金希參), 모친은 청주곽씨이다.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문인이다.

김우굉은 1542년 향시에 수석 합격하고, 1552년 진사시에도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1565년 경상도 유생을 대표해 여덟 차례에 걸쳐 승려 보우(普雨)의 주살을 22번이나 매일같이 상소하였다. 국상 중에 사치가 넘치는 무차대회를 열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명종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⁶⁴⁰

1566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1567년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예문관 봉교로 《명종실록》 편수관으로 참여했고, 그 뒤 승정원주서·성균관전적, 예조와 병조의 좌랑·정랑·헌납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지내다가 1573년 정언, 지평이 되었다. 이 해 유희춘 등이 홍문록(弘文錄)에 들 인물로 김우굉 등 9인을 뽑았고 몇 달 뒤 의정부에서 김우굉 등 14인을 다시 뽑았다. 1575년 수찬, 1578년 동부승지, 우부승지로 승진했는데 이수(李銖)의 옥사로 곧 파직되었다. 1579년(선조12)에는 대사간·대사성·병조참의·예조참의, 1581년 대사성에 임명되었다.

1582년 외방으로 충청감사였을 때는 송계(松溪) 권응인(權應仁, 1517~1587)을 만나 수창(酬唱)하였고, 겨울에 병이 들어 체직되었다. 1583년 형조참의·장례원판결사·홍문관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1583년 유생 박제(朴濟)로부터 탄핵을 받아 외직으로 물러나 청송부사에 이어 1587년 광주목사로 임명되었다가 1589년 사직하고 고향 성주로 돌아갔다.

그 해에 동생 김우옹(金宇顛)이 정여립(鄭汝立)의 옥사에 연좌되어

640 《명종실록》 명종 20년(1565) 8월 4일, 이후 8월 25일까지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다. 명종이 원자가 태어났으나 일찍 죽자 보우의 청을 받아들여 무차대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안동의 임지에서 회령으로 귀양 가자, 영천으로 달려가 동생을 만나 것과 옷을 벗어주고 시 한 수를 지어주며 이별했다 한다.⁶⁴¹

김우평이 지었다는 연시조 ‘개암십이곡(開巖十二曲)’ 가운데 8수가 전한다. 자리에서 물러나 낙동강 창응봉(蒼鷹峰) 아래(상주시 중동면 회상리)에 터 잡고 이곳 강변에 가로로 터져 마치 입을 벌린 바위의 형상을 보고 스스로 호를 개암(開巖)이라 하고 이곳에 개암정을 지었다.

조해숙(2003)은 ‘개암십이곡’이 김우평의 인생관을 바탕으로 은유적 현실비판과 선비의 강호지락(江湖之樂)을 읊음으로써 문학적 완성도를 높였고 향촌문화로서의 시조 전승 과정 및 창작시기와 그 발전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특히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연시조라는 점에서 국문학사상 중요한 의의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⁶⁴² 작품마다 지명으로 제목을 삼고, 위치를 설명했는데 ‘허주(虛舟)’라는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나루터 작은 배는 몇 사람을 건넜는기
가자마자 오자마자 쉬지 않고 다니다가
빈 배에 밝은 달 싣고 자기 홀로 두둥실 하노라.

조해숙(2003)은 비 갠 후 불어난 강물을 때 놓칠세라 태울 사람 없이도 부지런히 오가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면서 머물러 있는 듯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느껴지는 시라고 했다. ‘가는 듯 오는 듯’과 같은 시어에서 마음을 비우고 안정감 찾은 만년의 모습을 그렸다고 생각된다.

641 김우평, 《개암집(開巖集)》, 권4 부록, 이준, 墓碣銘 并序, 鄭汝立獄起。公之弟東岡公坐收司之律。自安東任所謫會寧。公達夜馳往。相遇於榮川。關塞之別。肝肺之戚。雖勉以順處逆境。而亦不得自制。臨別解裘以衣之。占一句語以贈曰。唐公淮水舟何泊。韓子潮州馬不前。

642 조해숙(2003), “전승과 향유를 통해 본 <개암십이곡>의 성격과 의미”, 국어국문학회, 133, pp.253~283.

김우평의 문집으로는 《개암집(開巖集)》⁶⁴³이 있다.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의 《소재집(穌齋集)》 내집 하편의 '문답록'은 예(禮)에 대하여 김우평 등과 문답한 글을 모은 것이다. 이준(李垵)이 지은 김우평의 묘갈명(墓碣銘)이 있고⁶⁴⁴ 《국조인물고》 권22에도 실려 있다. 이밖에 권문해(權文海), 고상안(高尚顔), 정경세(鄭經世), 오운(吳漣) 등의 만사와 권상일(權相一)이 쓴 행장 등이 있다.

78. 오운(吳漣, 1540~1617), 재임 : 1589~1590

오운(吳漣)은 조선 선조시대의 문신으로서 《광주읍지》에는 1588년에 문과 당하관으로 광주목사로 임명되었다고 했다. 《광주향교지》에도 그의 이름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에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전임자인 김우평 광주목사가 1589년 봄에 사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운은 1589년(선조22) 50세 때 광주목사에 부임하였다. 1590년 6월 복날 성산계곡에서 탁열시회를 했는데 '성산계류[사]탁열도(星山溪流[榭]濯熱圖)' 목판화가 김성원의 《서하당유고(棲霞堂遺稿)》와 정암수의 《창랑집(滄浪集)》에 실려 있다.

이 시회에는 오운을 포함하여 김복억(金福億, 1542~1600, 창평현령), 김부륜(金富倫, 1531~1598, 동북현감), 최경회(崔慶會, 1532~1593, 담

643 《개암집(開巖集)》은 4권 2책 목판본으로 1729년(영조5) 그의 5세손인 김여용(金汝鎬)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이광정(李光庭)의 서문과 권말에 김여용의 발문이 있다. 잡저 중 '서행일기(西行日記)'는 배불상소(排佛上疏)를 계속 올려 보우의 참형을 적극 주장하고, 유신들과 함께 개경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양주지방과 연락을 취해 활동한 내용의 전말을 일기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을사사화 이후의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644 이준, 《창석집(蒼石集)》 권16, 비갈, 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金公墓碣銘.

양부사), 양자정(梁子淳, 1527~1597?), 김성원(金成遠, 1525~1597, 현감), 정암수(丁巖壽, 1534~?, 진사), 정대휴(鄭大休), 김사로(金師魯), 김영휘(金永暉), 임회(林檜, 1562~1624, 좌윤) 등의 유명한 시인들이 참석하였다. 이때 지은 시 2수가 오운의 《죽유집(竹牖集)》에 실려 있다.

첫 번째 시는 김부륵이, 두 번째 시는 오운이 서로 운을 맞춰 지었다.⁶⁴⁵

(一)

抽身簿領擺塵緣 하던 일도 팽개치고 세상 인연도 털고
 要洗炎蒸六月天 한여름 불볕더위 씻어보고자 하네
 少八長沙會時宰 장사보다 적어도 모두 재상이고
 多三杜曲飲中仙 두목보다 많아도 모두 신선이라네
 淸川抱石搖朱檻 맑은 물에 돌 던지고 붉은 난간 흔드는데
 密草連松蔭彩筵 백백한 풀숲에 이어 소나무 그늘자리 곱도다
 密草連松蔭彩筵 꿈으로 사라질까 덜컥 겁나는데
 終教勝事付龍眠 마침내 좋은 경치 용이 잠을 청하네

(二)

溪橋舍馬費攀緣 시냇가 다리에서 말 내려 힘들게 올라오니
 翠竹蒼松小洞天 푸른 대나무 우거진 소나무가 조그마한 별천지라
 皓首黃冠採芝老 머리 희끗한 도사가 지초를 캐니
 靑編丹竈飲霞仙 책 속에 전하는 단약을 자하선인이 먹었도다
 雲移夕照明歌扇 석양에 구름 흘러가 부채 쥐며 노래하는데
 風送秋香襲舞筵 바람이 가을 향기 보내 춤추는 자리에 젖어 드네
 笑殺村兒齊拍手 우습도다 마을 꼬마들 나란히 손뼉 치는데
 不會驚罷醉翁眠 술 취한 늙은이는 놀라서 깨지도 않네

645 임준성(2011), “옛사람들의 여름풍류”, 문화나무 4, 광주문화재단.

오운의 이름은 저본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는 ‘오운(吳灑)’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록 등 다른 문헌에는 오운(吳浚)이라고 되어 있다.

오운의 본관은 고창, 자는 태원(太源), 호는 죽유(竹淵)⁶⁴⁶·율계(栗溪)이다. 의령현감 오석복(吳碩福)의 증손으로 조부는 전의현감 오언의(吳彦毅)이며, 부친은 오수정(吳守貞)이고 어머니는 순흥안씨이다.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문인이다. 김해 산해정(山海亭)으로 조식을 찾아 제자가 되었다.⁶⁴⁷

1566년 별시 문과에 김우굉 등과 함께 입격하였고, 김우굉(金宇宏, 1524~1590), 문익성(文益成, 1526~1584), 류성룡(柳成龍, 1542~1607) 등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었다. 성균관의 학유·학정·박사·전적·직강 등을 역임했다. 1583년 (慶原府) 아산보(阿山堡)의 추장 우을지(迺乙知)가 주도하여 난을 일으켜 변호(藩胡)의 침입했을 때 북도조전장(北道助戰將)으로 나가 공을 세웠다. 충주목사 겸 편수관을 거쳐 성균관사성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곽재우의 의병을 도와 군량과 전마를 대고 자신의 가노 여러 명을 데리고 참전해 소모관과 수병장으로 활약했다. 오운은 곽재우와 함께 분전한 17명 장수의 한 사람으로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고,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조경남(趙慶男, 1570~1641)의 《난중잡록(亂中雜錄)》에 오운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다.

646 ‘죽유(竹淵)’를 자신의 호로 삼은 것은 회암(晦庵)의 “죽유는 남쪽을 향해 열려 있다(행장)”라는 시구에서 따온 것이다. 남명학연구원, 연원가탐구, 58. 오운, <http://www.nammyung.org/> (2023.5.19. 인용)

647 오운은 19세(1558)에 김해 또는 합천의 삼가로 남명선생을 찾아가 수학하였다. 《南冥集》, 〈編年〉 58歲條; 《德川師友淵源錄》, 卷3, 門人. 吳灑.

1593년 상주목사가 되고, 이듬해 합천군수를 지냈다. 1597년 정유 재란에 공을 세워 도원수 권율의 추천으로 통정대부에 올랐고, 명나라 장수 진린(陳璘)의 접반사로 활약하였다. 1599년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장례원판결사에 승진했으나 병으로 사직했다.

1600년에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상(喪)에 나아갔다가, 1601년에 대구부사(大丘府使)로 제수되었으나 쉴 것을 청원하여 영천으로 돌아와서는 7년 동안 유유자적하였다. 1608년에는 조정으로 들어가 선조(宣祖)의 상에 임하였다.

1608년에 경주부윤으로 있으면서,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수록하여 편찬한 《동사찬요(東史纂要)》 8권 8책을 1609년(광해군1)에 경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⁶⁴⁸ 이 책은 1614년에 한백겸(韓百謙)의 충고로 지리지를 첨가하고, 고려 말의 은자들도 추가하여 개찬했다.

1616년(광해군8)년 공조참의까지 올랐으나 사직하였고 이듬해 졸하였다. 영주의 산천서원(山泉書院)에 제향되었다. 광해군이 그의 죽음을 기리며 내린 제문이 있으며, 김응조(金應祖)가 찬한 ‘경주부윤죽유오공묘갈명(慶州府尹竹牖吳公墓碣銘)’ 등이 있다.

《동사찬요(東史纂要)》, 《주자문록(朱子文錄)》 등의 저술이 있으며, 저서로는 《죽유집(竹牖集)》과 초서로 쓴 ‘하한정십절(夏寒亭十節)’을 목각하여 발행한 《죽유유적(竹牖遺蹟)》 목판서첩 1책이 있다. 미간행 가장본 시문집 《울계난고(栗溪亂稿)》⁶⁴⁹가 있다.

648 이 무렵 지평 임장(任章)이 “경주부(慶州府)는 사람이 많고 땅이 넓어 본래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윤 오운(吳濤)은 나이가 이미 노쇠하여 관사를 게을리하여 내버려두고서 전혀 관아에 앉아 있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를 파직하고, 명망이 있는 사람을 각별하게 골라 그 대신으로 보내소서”라고 건의하여 그대로 시행되었다. 《광해군실록》 광해군 1년(1609) 2월 12일.

649 21.2×39.8cm 크기의 목서필사 원고본 단책이 ‘한 옥션’ 현장경매 제112회에 나온 바 있다. <https://hanauction.com/l2022.10.17>. 인용)

79. 정윤우(丁允祐, 1539~1605), 재임 : 1591~1592

정윤우(丁允祐)는 선조 때의 문신으로 《광주읍지》에는 1591년(선조 24)에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가 되고, 광주목사로 제수되었다고 기록했다. 또한 《광주향교지》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정윤우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회재(懷齋) 박광옥(朴光玉, 1526~1593)의 조언을 듣고 전라감사 이광(李洸)에게 왜군의 움직임을 보고하고 왕을 구출하기 위해 근왕(勤王)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이광과 정윤우는 감사와 목사라는 관직의 상하관계를 넘어서 문과에서 같이 급제하고 공부한 동방이었다. 그래서 정윤우는 상사이자 벗인 이광을 찾아갔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광은 그의 의견에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

허목(許穆, 1595~1682)이 쓴 '나주목사 박광옥 묘표'⁶⁵⁰에 “임진년(1592) 여름에 왜적이 침략해 와 군현(郡縣)들이 모두 무너졌다. 왜적이 상주를 함락하자, 선생이 광주목사 정윤우를 만나 말하기를, ‘적이 만약 새재를 넘으면 한양이 위급하게 될 것입니다. 공은 어찌 방백(方伯, 이광)을 설득하여 서둘러 군사를 이끌고 곧 기전(畿田)으로 달려가 한양을 호위하지 않습니까?’ 하니, 정윤우가 옳게 여겨 즉시 선생의 계책을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신흠(申欽, 1566~1628)이 쓴 ‘여러 장사가 왜란 초에 무너져 패한 기록’⁶⁵¹를 보면 “광주목사 정윤우가 이광을 찾아가서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의지를 적극 말했어도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대를 동원하는 명이 내려오고 나서야(이광이) 비로소 급히 서둘러 군사를 모은 뒤 공주까지 갔다가 한양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는 곧바

650 허목(許穆), 《기언별집(記言別集)》 권25, ‘나주목사 박광옥 묘표’.

651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권56, 諸將士難初陷敗志.

로 군대를 해산시켰는데, 이때 이르러 재차 기병했다가 다시 무너졌으므로 조야(朝野)가 모두 이광을 죄인으로 여겼다”라는 내용이 있다.

정윤우의 본관은 나주, 자는 천석(天錫), 호는 초암(草庵)이다. 정수강(丁壽崗)의 증손으로, 조부는 정옥형(丁玉亨)이다. 부친 충정공(忠靖公) 정응두(丁應斗)와 은진송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중형 고암공(顧庵公) 정유희(丁胤禧)를 따라 퇴계 이황을 도산(陶山)에서 뵈고 학문하며 성현의 중요한 말씀을 듣고 신봉하였다.⁶⁵²

김학수(2020)는 정윤우가 이황의 문인록인 《도산문현록(陶山門賢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이황을 만나 사제관계에 준하는 학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⁶⁵³ 연령상으로 볼 때 정윤우는 퇴계학파의 뛰어난 제자로 일컬어지는 김성일(金誠一, 1538~1593),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정구(鄭逵, 1543~1620) 등과는 동년배를 이루고 있다.

정윤우는 1567년 생원·진사 양시에 입격했는데 그것도 아우 정윤복(丁胤福)과 동방으로 입격했다. 이후 1570년 문과에 합격하여 당당히 문신의 반열에 들어섰다. 동방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장원을 한 김대명(金大鳴, 1536~1593)을 비롯하여 황섬(黃暻)·정여립(鄭汝立)·김홍민(金弘敏)·이성중(李誠中)·이민중(李敬中)·김복일(金復一) 등이다.

1574년 정자, 1583년 지평, 1586년 헌납, 1589년 경상도 독포어사, 1591년 광주목사 겸 독포어사, 1593년 호조참판, 병조참의, 1596년 동부승지, 1597년(선조30) 충청감사를 지냈다.

이 당시 선조가 ‘충청감사 정윤우에게 내리는 교서’에 보면 “여주의 수령을 맡겼더니 여주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은덕을 잊지 않고 있으며,

652 정약용(丁若鏞)이 편찬한 《압해정씨가승(押海丁氏家乘)》에 금백공 정윤우 사적과 가승 외 편이 실려 있다.

653 김학수(2020), “초암(草庵) 정윤우(丁允祐) 연구 - 16세기 지식인의 관료의식과 그 실천”, 한국계보연구회 10, pp.279~347.

발탁하여 근신(近臣)의 자리에 두었더니 왕명의 출납이 윤당(允當)하였다. 그리고 호조의 직임을 섭행(攝行)하여 호서(湖西)에서 식량을 관리할 때는 유능하다는 평판이 조정에 알려졌다. 내가 이로써 가상하게 여겨 이에 경에게 본도(本道)의 감사를 제수하는 한편 병마수군절도사를 겸임하고 또 순찰사를 겸임하게 하니, 경은 가서 공경히 직무를 수행하라”⁶⁵⁴라고 그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1598년 병조참의, 1599년 강원감사, 1600년 병조참의로 제수되었다. 1605년(선조38)에 정윤우가 세상을 떠나자 선조가 상당히 슬퍼한 대목이 나온다. 선조는 “정윤우가 죽었는가?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낸 사람인데 해사(該司)는 어찌하여 그의 죽음을 아뢰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정윤우는 경북 예천에서 졸하였는데, 감사의 장계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⁶⁵⁵

정윤우는 문장이 뛰어나 명나라 신종(神宗)으로부터 하사품인 버들잎처럼 생긴 유엽배(柳葉盃) 5잔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보기 드문 술잔으로 예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유엽배는 구리에 황금(黃金)을 혼합한 오금(烏金)으로 만들어졌고 잔(盞)의 크기는 각기 다르고, 가장 큰 것 안에 차례로 담으면 한 개의 술잔처럼 보인다.

정윤우의 문집으로 《초암실기(草庵實紀)》⁶⁵⁶가 있다.

80. 권율(權慄, 1537~1599), 재임 : 1592

권율(權慄)은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가 되었고, 광주목사로 재임했다는 기록이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 남아있다. 1592년 임진

654 이정귀(李廷龜), 《월사집(月沙集)》 권58.

655 《선조실록》 선조 38년(1605) 7월 16일.

656 1999년 서울의 나주정씨월헌공파종회(羅州丁氏月軒公派宗會)에서 간행했다.

왜란이 일어나자 왜군에게 한양을 빼앗긴 뒤, 전라감사 이광(李洸)과 방어사 곽영(郭嶸)은 광주와 그 인근에서 4만여 명의 병력을 모았다. 권울은 광주목사로서 이들의 부하가 되어 군사를 지휘했고, 곽영의 휘하에서 중위장으로서 한양을 되찾기 위해 함께 북쪽으로 나갔다.⁶⁵⁷

권울의 본관은 안동,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晩翠堂)·모악(暮嶽)이다. 조부는 강화부사 권적(權勣), 부친은 영의정 권철(權轍), 모친은 적순부위 조승현(曹承暎)의 딸이다. 이항복(李恒福)의 장인이다. 광흥창수를 지낸 권항, 호조좌랑 권개, 증추부동지사 권순 등이 그의 친형들이다.

권울은 1582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정자가 되었다. 이어 전적·감찰·예조좌랑·호조정랑·전라도도사·경성판관을 지냈다. 1591년에 다시 호조정랑이 되었다가 바로 의주목사로 발탁되어 당상관으로 승진했지만 1592년(선조25) 해직되었다.

1592년 광주목사에 제수되었고, 이후 나주목사, 전라감사 겸 순찰사, 도원수(1593~1598)를 역임하는 등 임진왜란 내내 선봉에 서서 왜적과 싸웠다.⁶⁵⁸

창의사 김천일(金千鎰)이 그의 막하 군사 양산숙(梁山燾)·곽현(郭賢) 등에 장계를 주어 행재소로 보냈다. 그런데 권울이 이를 전 전라감사로 제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서 곽현이 말하길 “이광(李洸)은 죽어도 남은 죄가 있고, 권울은 수령의 재주는 있으나 방백(方伯)의 지

657 《대동야승》〈난중잡록〉 임진년 상, 1592년 6월 5일 기록에 ‘광주목사(光州牧使) 권울(權慄)이 방어사의 중위장으로 군중(軍中)에 있었다’라고 했다. 또 이광이 7월 9일에 ‘광주목사(光州牧使) 권울(權慄)을 남원(南原)의 수성장(守城將)으로 임명하였다’라고 했다.

658 《선조실록》 선조 25년(1592) 7월 13일, 7월 22일, 7월 24일, 권울은 7월 13일 나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용인전투에서 패한 이광 전라감사의 후임으로 7월 22일 전라감사 겸 순찰사가 되었다. 권울이 광주목사로 있었던 때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 정윤우 후임으로 부임하여 전투에 참여했다가 곧바로 전라감사가 되어 그 기간은 매우 짧았다고 할 수 있다.

략은 없습니다”라고 하여 권율을 헐뜯은 발언을 했다.

그런가 하면 사간원에서 권율이 군사 통솔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추고해야 한다고 하자, 선조가 비변사에 이러한 문책이 옳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했다. 다음날 비변사는 권율이 군사 1만을 이끌고 근왕을 하기 위해 엄동설한에 이동했는데 이를 체직시켜 병권을 박탈하게 되면 병력이 해산할 위험이 있으니 상황에 어울리지 않다고 했다.⁶⁵⁹

임진왜란 초기에 이광이 권율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수원과 용인으로 들어가 왜적과 싸우다 대패하자 권율은 의병들을 다시 모집하여 금산에서 전주로 진격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진산 인근 전주 이치(梨峙, 배고개)에 진을 쳤다. 임시 도절제사 권율과 동복현감 황진이 이끄는 1천여 명의 조선군이 왜장 고바야시 와다카카게(小早川隆景)가 이끄는 2천여 명의 대군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어 일본의 전라도 진격 작전을 좌절시켰다. 이 승리로 왜군은 전라도를 넘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권율은 전라감사로 승진하였다.⁶⁶⁰

권율은 임진왜란 중반부터 종전까지 조선군 총사령관인 도원수로서 조선의 군대를 총지휘하며 왜군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데 이바지했으며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인 해주대첩을 이끌었다.⁶⁶¹

그러나 권율이 “변란의 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진격하여 왜적의 예봉을 꺾었지만, 도성의 경계 밖[關外]의 지휘를 전담하는 데는 겁을 먹고 물러나 위축되어 왜적을 토벌할 뜻이 없었다. 많은 사람의 기대를 크게 낙심시켰다”라는 평가도 있었다.⁶⁶²

659 《선조실록》 선조 26년(1593) 2월 10일, 2월 11일.

660 권율의 전라감사 재임 기간은 선조 25년(1592)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이다.

661 《선조실록》 선조 26년(1593) 2월 24일, 1593년 2월 13일 해주산성 전투에서 3천8백 병력으로 3만 군을 상대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662 《선조실록》 선조 26년(1593) 10월 19일, 이날 의금부가 도원수 권율이 충청감사 허옥(許瑬)에 대한 장계를 올린 가운데 사관이 쓴 권율에 대한 기록이다.

또한 사간원에서 권율이 거제에 주둔하던 날 진영에 나가지 않고 전라도로 몸을 숨겼다 하여 추고하는 일도 있었다.⁶⁶³ 더욱이 “본디 재주와 지혜가 없고 군사 거느리는 장수로서의 도에 어두웠다. 술을 탐닉했으며 옛사람들의 술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을 떨시켰다. 사졸들이 친애하지 않았고 수령들이 모두 경멸했다. 군 통솔자[專闡]가 이려했으므로 식자들은 한심스럽게 여겼다”라고 사관은 혹평했다.⁶⁶⁴

권율이 한성부판윤에 제수될 때는 “사람됨이 소탈하여 중국 병서인 도략(韜略)에는 본디 어두웠는데 논공으로 병마를 다스리는 자리에 올랐으나 계책을 낸 것이 없었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지 여러 해 되었으나 위세와 명망이 도리어 꺾이었으니, 적을 헤아리고 승리를 취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다. 행주에서의 한 번 승첩은 천행이 아니라면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평을 달 정도로⁶⁶⁵ 권율의 행주대첩을 깎아내렸다.

그런가 하면 “사람됨이 침착 진중하고 도량이 넓으며 용모에 위엄이 있었다. 아랫사람을 부리는데 너그럽고 어질어 사졸들이 진심으로 복종하였다. 독왕산성(禿旺山城)에 군사를 주둔하여 지키게 되자 경기지역 백성들이 기대를 모았고 행주대첩으로 중국까지 이름이 났으니 선비 출신의 장수다운 기풍이 있었다. 그러나 거칠고 방탕하여 술에 빠져 장군의 책무를 버렸으니, 이는 대개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⁶⁶⁶라고 하는 평가도 있다.

권율은 임진왜란을 겪는 등 무려 7년여 동안 전장을 누비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원수로서 온 힘을 쏟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피로가 쌓이고 병이 누적되다 보니 고향으로 돌아가 몸을 요양할 수 있기를 청했

663 《선조실록》 선조 27년(1594) 11월 6일.

664 《선조실록》 선조 28년(1595) 3월 1일.

665 《선조실록》 선조 28년(1595) 10월 9일.

666 《선조실록》 선조 30년(1597) 3월 30일.

다.⁶⁶⁷ 석 달 뒤에는 얼마나 병이 심했는지 선조는 권율에게 특별히 부의(賻儀)를 내리고 의원과 약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으로 추봉되었다. 1604년 선무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묘비문과 묘표 음기는 사위 이항복이 짓고 썼으며, 행주대첩의 승리를 기념하여 최립(崔嵬)은 고양 행주에 권원수행주비(權元帥幸州碑)를 세웠다.

권율이 세상을 떠나자 윤두수(尹斗壽), 윤근수(尹根壽), 신희(申欽) 등이 쓴 만사, 제문, 신도비명 등이 있다.⁶⁶⁸ 1903년 광주에 도원수총장 권공창의비(都元帥忠莊權公倡義碑)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광주공원 사적비 군에 있다. 광주목사 권재윤(權在允)의 지원으로 1902년 10월 송병순(宋秉珣, 1839~1912)이 음기 비문을 지었다.

81. 장의현(張義賢, 1530~?), 재임 : 1593

장의현(張義賢)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 1593년(선조26)에 무과 통정대부로서 광주목사에 부임했다고 기록했다. 1593년 6월에는 전라병사 최원(崔遠)이 광주목사 장의현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운봉 지역에 매복할 것을 지시했고, 장의현은 다음날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와 함양(咸陽)에 주둔했다는 기록이 있다.⁶⁶⁹ 이로 보아 이 무렵 광주목사로 활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의현의 본관은 구례, 자는 의숙(宜叔), 호는 오류정(五柳亭)이며 다른 이름은 장응현(張應賢)이다. 무주 출신으로 부친은 청백리인 경상좌

667 《선조실록》 선조 32년(1599) 윤4월 8일.

668 윤두수(尹斗壽), 《오음유고(梧陰遺稿)》, ‘都元帥權彥愼懷挽詞’; 윤근수(尹根壽), 《월정집(月汀集)》, ‘祭都元帥文 權慄’; 신희(申欽), 《상촌고(象村稿)》, ‘都元帥權公神道碑銘’

669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 1593년 6월 22일; 6월 23일.

도병마절도사 장필무(張弼武, 1510~1574)이다. 동생은 장지현(張智賢, 1536~1593)으로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순절하였다.

1573년에 대신(大臣)과 비변사에 의하여 무장으로 천거되어⁶⁷⁰ 1577년 해남현감을 지냈다. 1583년 부령부사로 있을 때 여진족(賊胡)의 울보리(栗甫里)와 니탕개(尼湯介)가 1만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길을 나눠 증성(鍾城)으로 들어왔을 때 판관 윤담(尹澣) 등과 함께 이들의 침입을 막아 명성을 떨쳤다.⁶⁷¹ 정약용(丁若鏞)도 이 일에 대하여 “충용(忠勇)을 분발하여 그 나약하고 피폐한 군사를 거느리고 날로 강성해져 가는 적과 싸워 날카로운 기세를 꺾음으로 인해 성이 함락되지 않았다”⁶⁷²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1589년 하삼도 병수사의 부적격자 중 하나로 지목되어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 1591년 장흥부사가 된 뒤 임진왜란 때는 전라도방어사 이시언(李時言)의 조방장으로 무주군 무풍면 부항령(釜項嶺)에 주둔하여 거제도 공략 등에 참여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장의현은 1596년 경기도 수군절도사를 지내고 1600년 호군(護軍)이 된 뒤 70세에 노병으로 사직하였다. 고향인 무주군 부내면 당산리로 돌아와 문 앞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고, 백전령(栢田嶺) 아래 오류정(五柳亭)을 지었는가 하면 이를 호로 삼았다. 충청북도 영동 화암서원(花巖書院)과 전라북도 무주 죽계서원(竹溪書院)⁶⁷³에서 부친 장필무와 함께 제향되고 있다.

670 《선조실록》 선조 6년(1573) 6월 17일, 대신(大臣)·비변사·병조가 쓸 만한 무신(武臣)으로 79인을 추천하고 이 중에서 서열에 따르지 않고 발탁하여 쓸 만한 7인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었다.

671 《선조(수정)실록》 선조 16년(1583) 5월 1일.

672 정약용(丁若鏞), 《목민심서》 병전(兵典) 6조.

673 죽계서원은 1713년(숙종39)에 창건 후 1868년(고종5)에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1967년 복설하였다. 김신(金旻), 장필무(張弼武), 장의현(張義賢), 장지현(張智賢)을 모신다.

82. 최철견(崔鐵堅, 1548~1618), 재임 : 1593~1596

최철견(崔鐵堅)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 기록에 1593년(선조 26)에 문과 당하관으로서 광주목사에 부임하였다.

1595년에 안창국(安昌國, 1542~1595)⁶⁷⁴이 영사정(永思亭)⁶⁷⁵을 증수하고 세상을 떠나자 ‘영사정기(永思亭記)’를 지었다. ‘영사정기’ 마지막에 ‘을미년(1595) 봄 무등 몽은 최철견 서’라고 한 것으로 보아 광주에서 이 글을 지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광주목사로 재직했다. 《난중일기》에 1596년에 광주목사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⁶⁷⁶

최철견의 본관은 전주, 자는 응구(應久), 호는 몽은(夢隱)·수은(睡隱)이다. 이조참의 최해(崔灌)의 증손으로, 조부는 형조참의에 추증된 최희증(崔希曾)이고, 부친은 증 호조참판 최역(崔櫟)이며, 모친은 희릉령(熙陵令) 이석(李晳)의 딸이다.

1576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85년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전적과 감찰·형조좌랑·사간원정언을 역임하였다. 1590년에는 병조정랑이 되어 동지사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가서 책력(冊曆)을 받아서, 이듬해 돌아와 그 책력을 서운관(書雲觀)에 전해 주었다.

그런데 이 일로 추고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1591년(선조24) 2월 선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책력을 주는 것은 곧 옛날의 정조(正朝)에 반사

674 윤근수(尹根壽)의 《월정집(月汀集)》 권3에 1595년(선조28) 7월 16일 세상을 떠난 ‘안창국에 대한 만사(挽安昌國)’가 있다. 안창국은 안처순(安處順, 1492~1534)의 손자라는 이유로 금천도찰방(金泉道察訪)에 임명되었으나 곧 파직되었다.

675 영사정은 순흥안씨 참찬공파 사제당 가문의 조상에 대한 효심과 임진왜란 당시의 국난극복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유서 깊은 누정으로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영사정길 35-13)에 있다.

676 이순신은 1596년 8~9월 사이 도체찰사 이원익과 함께 전라도 지방을 순시하였는데, 광주에 들러 광주목사 최철견을 만난 일이 있었다. 1596년 9월 19일 이날 이순신과 최철견이 아침식사 때 밥은 먹지 않고 술에 취했으며, 낮에 능성현령이 와서 도체찰사 이원익이 최철견을 파직했다는 내용이 있다. 是朝 光牧來 同朝飯 因作酒不食而醉. 入光牧別室處 大醉終日. 午 綾城入來 封庫 光牧體相罷黜云. 崔女貴之來宿.

(頒賜)하던 것과 같은 것이니, 그 의의가 매우 중요하다. 동지사 정사위와 서장관 최철견이 그 책력을 받아다가 곧바로 하인들에게 전해 주고, 빈손으로 와서 임금에게 복명하였으니, 두 사람을 아울러 추고하라”라고 했던 것이다. 중국은 책력을 해마다 반포하고 그 책력을 이웃 나라에 보내 사용하게 하는 등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하려고 했다.

1592년 전라도사가 되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감사 이광이 패주하자, 이정란(李廷鸞, 1529~1600)과 함께 전주성을 지키고 힘껏 싸워 수호하였다.⁶⁷⁷ 이어 군사를 거느리고 남원을 지켜서, 전라도를 보호하라는 요청으로 전라감사 권율이 명나라 참장(參將) 락상지(駱尙志)와 함께 남원을 끝까지 지켰을 뿐만 아니라, 후퇴하는 왜적을 추격하고, 크게 소탕하여 전라도 지방을 보전할 수 있었다.

또 최철견은 광주 등 전라도 지방에서 군량미를 많이 모아서 원수 권율의 진영으로 보내어,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대첩을 거두도록 도왔다. 그 뒤에 권율은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사람들을 거론할 때마다 반드시 ‘최철견’을 말하고, 그의 공을 첫 번째로 꼽았다고 한다.

최철견은 1597년 수원부사, 1599년 내자시정,⁶⁷⁸ 사간원 정언, 사헌부 장령, 1600년 1월 세자시강원 필선, 동부승지가 되고 우부승지, 대사헌이 되었다.⁶⁷⁹

677 1592년 8월에 통정대부가 되었다가 9월에 비변사에서 최철견의 공로가 크지 않다며 통정대부를 취소하고 직만 높이도록 하자고 해 선조가 이를 따랐다.

678 《선조실록》 선조 32년(1599) 7월 15일, 사관은 최철견이 “누차 큰 고을을 맡았으나 형정이 청렴하고 조심스럽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679 《선조실록》 선조 33년(1600) 3월 24일, 승지로 있던 최철견에 대해 사관은 “위인이 간사하고 음험하며 행실이 비루하였다. 이산해를 아첨하여 섬겨 갑자기 임금과 친근한 신하의 자리에 올랐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었다”라고 했고 8월 26일에는 “사람됨이 용렬하고 어리석어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임무는 합당치가 않다. 지난번에 임금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여 갑자기 청현직(淸顯職)에 올랐으므로 비루하게 여기는 자가 많았다”라고 평가했다. 청현직은 청직(淸職)과 현직(顯職)을 합친 말로 청직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고, 현직은 문관과 무관의 정직(正職), 특히 높고 중요한 고위 관직을 말한다.

1601년에 황해감사, 1602년 호조참의로 전임되었다. 1604년에 춘천부사에 제수된 뒤 1606년 강원도 암행어사 박안현(朴顔賢)의 보고로 파직당하여 고향에 돌아왔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풍수지리설로 산릉(山陵)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소를 올려 의논을 정하게 한 바 있다.⁶⁸⁰

그의 성품과 일화는 1600년 동부승지 이후 여러 번 사관으로부터 악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신흠(申欽, 1548~1618)이 쓴 그의 비명에 따르면 “키가 8척에 호걸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어서, 누구나 그를 한번 보면 세상의 호장부(好丈夫)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활기차고 씩씩한 최철건을 보고 묘당(廟堂)에 들어가서 일국의 재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 방백(方伯)이 되어서 만 리 밖에서 공을 세울 것이라고 여겼다. 문장(文章)이 매우 풍부하여 붓을 잡으면 거침없이 수백 마디의 글을 즉시 써서 내려갔다. 일찍이 승지로 있을 때 선조가 그 문장을 특이하게 여겨서, 그가 누구의 문장을 숭상하는지 묻기까지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⁶⁸¹

저서로는 《몽은집(夢隱集)》이 있지만,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권29에 전기가 있다.

83. 이정신(李廷臣, 1559~1627), 재임 : 1596~1598

이정신(李廷臣)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 기록에 1596년(선조 26) 당하관으로 광주목사가 되었다가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민심을 수습하고 선정하였다 하여 1598년 전주부윤으로 영전했다.

680 《광해군일기》 광해군 즉위년(1608) 3월 29일, 4월 22일.

681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권27, 신도비명, ‘감사최공신도비명(觀察使崔公神道碑銘)’.

《고대일록》에는 “우의정 이덕형(李德馨)이 장계를 올려 전주부윤 김협(金車+夾)을 파직하고, 익산군수 이상길(李尙吉)의 품계를 올려 제수할 것을 청했다. 광주목사 이정신은 품계와 사람됨이 서로 걸맞은 듯하지만, 결국 이상길이 전라도의 일에 익숙한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한다”⁶⁸²라고 했다. 그 이후 “익산군수(이상길)가 광주목사를 제수받고, 이정신이 전주부윤을 제수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⁶⁸³라는 기록이 있다.

이정신의 본관은 전주, 자는 공보(公輔)이다. 종실 오성수(烏城守) 이신손(李神孫)의 증손으로, 조부는 풍양령 이춘(李春), 부친은 이몽상(李夢祥)⁶⁸⁴이며, 모친은 남상덕(南尙德)의 딸이다.

이정신은 158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1591년 사간원정언, 이듬해 헌납이 되었고,⁶⁸⁵ 1594년 선천군수, 1596년 광주목사, 1598년 전주부윤이 되었다. 1600년에는 홍여순(洪汝諄)이 탄핵받을 때⁶⁸⁶ 이정신이 무부(武夫)⁶⁸⁷들을 거느리고 상소를 올려 홍여순을 공격하였는데,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잡아다가 국문하고 함경도로 귀양을 보냈다.

682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 권3, 1598년 10월 8일.

683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 권3, 1598년 11월 3일, 이정신이 전주부윤을 제수받은 날은 선조 31년(1598) 10월 13일이다.

684 《선조실록》 선조 25년(1592) 5월 24일, 이몽상은 임실현감(任實縣監)으로서 전라도 감사 이광(李洸)의 전후장(殿後將)이 되어 임진왜란에 참여했다. 이때 이정신은 평양에 있으면서 부친을 찾아뵙길 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85 《선조실록》 선조 25년(1592) 6월 21일, 《대동야승》, 박동량(朴東亮, 1569~1635), 《기재사초(寄齋史草)》 하 1592년 6월 21일, 기록에 따르면 헌납 이정신(李廷臣)은 평양에 있을 적에 상소하여 부모님 뵙기를 청원했으나 승낙을 받지 못하자 대가를 따라가다가 영변에 이르렀을 때 달아났다.

686 1599년 홍여순의 대사헌 임명을 남이공(南以恭, 1565~1640) 대하자 북인에게서 다시 분당하여 대북이라 부르고, 이이철(李爾瞻) 등과 함께 남이공 등의 소복과 당쟁을 벌이다가 1600년 병조판서에서 삭탈관직 되었다.

687 무예와 전투에 관한 일을 익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601년 동부승지, 나주목사가 되었다. 이에 대해 사관이 덧붙인 글에는 “이정신은 이전에 광주목사로 있을 적에 선정했으므로 전주목사로 승진되었다. 그런데 전주에 와서는 방사하고 탐학하여 명예가 광주에 있을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라고 했다.

1604년 경기도 광주목사(廣州牧使)를 역임하고, 1610년 경상감사⁶⁸⁸가 되었다. 1612년 충흥감사(忠興監司), 1613년 공홍감사(公洪監司)에 제수되고, 1615년(광해군7) 사은 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때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이 이정신에게 ‘연경으로 가는 사은사 해창군과 부사 이동지를 전송하며’⁶⁸⁹라는 시를 지어 주었다.

이밖에도 김상헌(金尙憲)이 ‘길주(吉州)에서 이정신(李廷臣)이 경성(鏡城)의 적소(謫所)로 돌아가는 데 남겨주다’라는 시⁶⁹⁰와 이식(李植)이 ‘영장(營將) 이정신(李廷臣)을 전송하며’라는 시 두 수를 남겨주었다.⁶⁹¹

1624년 김해부사, 원주목사를 지냈다. 이정신이 원주목사일 때 세상을 떠나자 이정귀(李廷龜, 1564~1635)가 다음과 같이 만사를 썼다.⁶⁹²

辭陞朱幡過病扉 大궐을 떠난 행차가 병든 내 집에 들러서
暫將杯酒說睽違 잠시 술잔을 나누며 이별의 아쉬움 얘기했지
纔分別袂言猶在 막 헤어진 뒤라 그때의 말 아직도 생생한데

688 《동국여지》에 이정신은 “광해군이 일찍이 이정신에게 경기감사를 맡겼는데 명망이 있었다. 특별히 죽산부사에 제수하니 산성을 수축하고 백성을 보살피며 은혜로운 정사가 백성에게 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광해군일기》 광해군 2년(1610) 3월 16일, 경상감사로 제수될 때 특별히 가선(嘉善)을 더해주었다. 하지만 임진년에 정언으로서 호종(扈從)하다가 중도에 도망했다는 기록이 덧붙여졌다.

689 이수광(李睟光), 《지봉집》 권4, ‘送謝恩使海昌君·副使李同知赴京’.

690 김상헌, 《청음집(淸陰集)》 권5, 吉州留贈李廷臣還鏡城謫所.

691 이식, 《택당집(澤堂集)》 속집 권3, 이식이 일찍이 북평사(北評事)로 있을 적에는 이정신이 단천(端天)의 수령으로 있었고, 이식이 충주(忠州)를 맡고 있는데 그가 영장(營將)으로 나가게 되었다며 시를 썼다. 留別營將李廷臣.

692 이정귀(李廷龜), 《월사집(月沙集)》 권18. 倦應錄下.

忽報凶音夢也非 홀연 흉한 부음이 들려오니 꿈인가 아닌가
 卿月聲名留省署 경월의 그 명성은 조정에 남아있고
 棠陰惠澤遍湖畿 당음의 은택은 기호에 두루 퍼졌어라
 那堪漢水逢迎地 어이 볼 거나 그대 맞이하던 저 한강 물에
 只見孤舟旅櫂歸 단지 외로운 배가 널을 신고 돌아오는 것을

84. 이상길(李尙吉, 1555~1637), 재임 : 1598~1602

이상길(李尙吉)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 기록에 1598년(선조 31) 당하관으로서 광주목사에 부임하였다. 이상길은 재임 중에 선정의 치적이 뚜렷해 1599년 통정대부에 올랐다.⁶⁹³

전라감사 한효순(韓孝純)이 보고하기를 “광주목사 이상길은 일 처리가 강단 있고 분명하여 행정에 조리가 있어 간사한 관리가 그 위엄을 두려워하고 서민들이 그 은택을 생각합니다. 비록 탕패한 때에도 부고(府庫)가 충실하고 온 경내가 안정하여 도내의 어진 관리 중 이 사람이 제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당연히 파격적으로 포상하여 그 훌륭함을 표창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1600년(선조33) 전라도 병마절도사 겸 장흥도호부사 이광악(李光岳, 1557~1608)이 병영의 실태와 포도 대책에 관한 문서에서 “광주목사 이상길은 포도책(捕盜策)을 날로 새롭게 자세히 검사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도적의 체포에 진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올렸다.⁶⁹⁴

그해 또 사도도체찰사 겸 도원수 의정부 좌의정 이항복(李恒福)이 전라·충청 두 도를 순시하고 그 결과를 선조에게 보고했다. 선조가 “광주목사 이상길은 어떻게 정사를 다스리기에 봉명 사신(奉命使臣)들이 한

693 《선조실록》 선조 32년(1599) 9월 25일.

694 《선조실록》 선조 33년(1600) 1월 12일.

결같이 그의 선정을 일컫는가?”라고 물으니 “이상길은 처사가 상세하고 부역(賦役)이 균등하고 공평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선조가 말하기를, “옛사람 가운데 작은 것에는 능하지만 큰 것에는 능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아직 이상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가 감사(監司)에 적합한 사람인가?”라고 물으니 “그 사람을 살펴보면 말은 않지만, 일을 당하면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평가했다.⁶⁹⁵

1601년 3월 전라도 암행어사 홍문관 부교리 이정협(李廷謙, 1562~?)이 선조에게 “광주목사 이상길은 자상하게 다스려 백성들을 매우 아끼므로 온 고을이 태평하다”라고 보고했다. 선조는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여 “이상길은 전후의 사신(使臣)이 모두 칭찬하여 그의 위인이 매우 성품이 곧고 두뇌가 명석하다 하였다. 방백에 적합하니 후일 처리하라”라고 명했다.⁶⁹⁶

이처럼 이상길은 지역민은 물론 순시하러 온 모든 관리로부터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선정을 베풀었다는 증거이다.

이상길의 본관은 벽진(碧珍), 자는 사우(士祐), 호는 동천(東川)이고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이유번(李有蕃)의 증손으로, 조부는 이석명(李碩明)이다. 부친은 동몽교관 이희선(李喜善)이며, 모친은 경상도군사 정환(丁煥)의 딸이다. 이항복(李恒福) 등과 교유했다.

1579년 진사, 1585년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했다. 1588년 감찰·호조좌랑, 1590년 병조좌랑, 사간원정언, 지제교 등을 역임했다. 1592년 사헌부지평, 1598년 광주목사가 되었고, 1602년(선조35)에는 정인홍(鄭仁弘)·최영경(崔永慶) 등을 정여립(鄭汝立)의 일당으로 몰아 추론한 죄로 유배됐다.

695 《선조실록》 선조 33년(1600) 6월 15일.

696 《선조실록》 선조 34년(1601) 3월 21일.

1615년 호조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옛일로 다시 탄핵받아 파직되었다. 1618년 서도독운사(西道督運使), 1621년 용천부사, 1623년 접반사,⁶⁹⁷ 1624년 평안도감사, 1625년 호조참판, 1626년 중국 모문룡(毛文龍) 도독의 문안사, 1631년 대사간, 1632년 대사헌, 1635년 공조판서,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조정의 명을 받아 영위사가 되어, 80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묘사(廟社)를 받들고 강화도에 들어갔다.

1637년 1월 ‘강화도 함락 때, 전 의정부 우의정 김상용과 전 우승지 흥명형 등의 줄기’에 따르면 “전 공조판서 이상길은 변란이 일어난 초기에 강화도에 들어가 시골집에 있었는데, 적병이 강을 건넜다는 말을 듣고 말을 달려 성으로 들어갔다가 마침내 적에게 해를 당하였다. 이상길은 선조(先朝)의 옛 신하[耆舊]로서 양사의 장관을 역임하였고, 뒤에 나이 80이 넘었다 하여 품계를 건너뛰었는데, 이때 이르러 죽으니, 예조가 정표하도록 계청하였다”⁶⁹⁸는 내용으로 보아 마지막까지 충정을 바쳐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온(鄭蘊, 1569~1641)은 1637년 “공조판서 이상길은 성 밖에 있다가 또한 부(府)로 달려 들어와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라고 했다.⁶⁹⁹ 강화도에서 순절한 이들을 위해 사당을 세웠는데 이상길이 이 중의 한 사람이다.⁷⁰⁰

697 《인조실록》 인조 1년(1623) 3월 25일, 김류(金鑾)가 아뢰기를 “이상길(李尙吉)이 나이는 많으나 아직 근력이 있으며, 또 모장(毛將)과 서로 정의가 깊어 모장이 자주 사신(私信)을 보내 성신(誠臣)이라 일컫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상길을 접반사(接伴使)로 차임하여 보내면 의당 그의 환심을 살 것입니다. 단 지위가 낮은 것이 흠입니다만, 이는 성상의 처리에 달렸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접반사에 적합하다면 품계를 올려서 보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라고 하였다.

698 《인조실록》 인조 15년(1637) 1월 22일.

699 정온, 《동계집(桐溪集)》, ‘文簡公桐溪先生年譜’, 1637년 1월 27일.

700 《인조실록》 인조 18년(1640) 8월 13일, “강도의 사민(士民)들이 병자년에 순절한 김상용(金尙容)·이상길(李尙吉)·심현(沈顯)·이시직(李時稷)·송시영(宋時榮)·구원일(具元一)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이 쓴 이상길의 행장에 1617년(광해군 9)에 하지사(賀至使)로 북경에 갔을 때 이상길이 일행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이익을 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중국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는 내용이 있다.⁷⁰¹

저서로는 《동천집(東川集)》이 있다. 4권 2책의 필사본으로 1911년 9대손 이두화와 10대손 이상서 등이 유고를 모아 편집하였다. 권두에 김학진(金鶴鎭)의 서문과 이두화(李斗和)의 발문이 있다. 특히 ‘조천일기(朝天日記)’는 1617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1년간 동지상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일을 적은 것으로 당시의 견문을 전한 귀중한 자료이다.

1726년 남원 유학(南原幼學) 김협(金筵) 등이 상소하여 이상길을 영천서원(寧川書院)에 추향하였다.⁷⁰²

85. 조익(趙翊, 1556~1613), 재임 : 1602

조익(趙翊)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 광주목사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선조실록》에는 짧은 기간 동안 광주목사였던 기록이 있다. 1602년 초에 광주목사로 제수되어 얼마 되지 않아 파직당했다.⁷⁰³

조익은 사헌부 장령이 되어⁷⁰⁴ 사류(士流)를 모함한 일로 출사(出仕)

一) 및 남양부사(南陽府使) 윤계(尹槩) 등의 사당을 세워 제사 지냈는데, 윤계는 강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다” 효종 8년(1657) 11월 28일에 사당에 ‘충렬(忠烈)’이라는 사액을 내렸다.

701 황경원, 《강한집(江漢集)》 권28, 明陪臣傳二, 에서 《國朝人物考》 권62 李尙吉碑銘을 인용하여 행장을 적었다.

702 《영조실록》 영조 2년(1726) 4월 23일.

703 《선조실록》 선조 35년(1602) 윤2월 12일, ‘光州牧使趙翊 …命罷職不敍’, 조익은 선조 34년(1601) 12월 26일 기록에 사헌부장령이다.

704 《선조실록》 선조 33년(1600) 11월 23일.

당한 바 있다.⁷⁰⁵ 이듬해 지평 조정견은 영남 유생 문경호(文景虎) 등의 상소로 인하여 혐의를 피할 때 광주목사 조익 등이 많은 사설을 늘어놓아 대사헌 황신(黃愼)을 적극 구제하려 했고, 정철이 최영경에게 절교당하자 분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축옥사(1589)가 일어나자 유언비어를 전파했다며 광주목사 조익 등을 파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⁰⁶ 이 실록의 내용으로 미루어 조익은 광주목사로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익의 본관은 풍양이고 자는 비중(裴仲)이며, 호는 가휴(可畦)·죽봉(竹峯)이다. 정구(鄭述)의 문인이다. 1582년(선조15) 생원·진사사에서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은 20세 때 진사시에, 조익은 27세 때 생원시에 장원하면서 동방 입격하였다.

1588년(선조21)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좌랑, 이조정랑 등을 역임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호남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킨 일이 있다. 1599년 병조좌랑으로 8월에 난후진주겸하지사서장관(亂後陳奏兼賀至使書狀官)으로 북경에 갔다.

이수광이 ‘동지사 서장관으로 연경에 가는 조 장원(익)을 송별하며’라는 시를 써주었다.⁷⁰⁷ 조익은 서장관으로 다녀올 때 신력(新曆)을 받아온 뒤 이를 바로 조정에 보고하여 정삭(正朔)을 반포해야 하는데 달이 넘은 1600년 2월까지 복명하지 않는 등 동지사(冬至使) 한덕원(韓德遠)과 함께 태만한 이유로 추고를 받았다.

1600년 사헌부 장령, 1601년 시강원 필선, 기축옥사 건으로 1602년 광주목사로 좌천되었다가 그해 5월 공주에 유배되었다. 1607년 5월 품

705 《선조실록》 선조 34년(1601) 12월 26일.

706 《선조실록》 선조 35년(1602) 윤2월 12일, ‘光州牧使趙翊 … 罷職不敘.’; 같은 내용이 《대동야승》의 윤선거(尹宣擧)가 편저한 〈혼정편록(混定編錄)〉 권6, 1602년 윤2월 11일 기록에 상세하게 적혀있다.

707 이수광, 《지봉집(芝峰集)》 권4, ‘別趙狀元(翊)以冬至使書狀赴京’.

계가 회복된 뒤로 1610년 경상도도사에 제수되었다. 이수광은 이때도 ‘영남도사로 부임하는 조 장원(익)을 진송하며’라는 시를 쓴 바 있다.⁷⁰⁸

김상헌(金尙憲, 1570~?)도 ‘옥당(玉堂)의 숙직실에서 옛일을 서술하여 조비중(趙斐仲)이 영막(嶺幕)으로 부임하는 데 주다. 이름은 조익이다’라는 시를 써주었다.⁷⁰⁹ 이외에도 윤근수(尹根壽)⁷¹⁰와 차천로(車天輅)⁷¹¹도 조익이 영남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시로 남겼다.

조익은 이듬해인 1611년 병을 핑계로 삼아 고향에 있으면서 폐해를 끼쳤다고 사헌부가 파직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⁷¹²

86. 여우길(呂祐吉, 1567~1632), 재임 : 1602~1603

여우길(呂祐吉)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 1602년(선조35) 문과 당하관으로서 광주목사에 부임했다고 기록했다. 《선조실록》에서는 제수 기록을 찾을 수 없다.⁷¹³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은 여우길이 1602년 1월 10일 사간원 사간에 제수되었으나 이틀 뒤 간원이 여우길의 출사를 요청해 선조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이다. 이 무렵 조익(趙翊)이 체직되고, 여우길은 광주목사로 부임한 뒤 1603년 7월 밀양부사로 옮겼다.⁷¹⁴

여우길의 본관은 함양, 자는 상부(尙夫), 호는 치계(稚溪 혹은 痴溪)

708 이수광, 《지봉집(芝峰集)》 권4, ‘送趙狀元(翊)赴嶺南都事’.

709 김상헌, 《청음집(淸陰集)》 권5, ‘玉堂直廬敘舊贈趙斐仲赴嶺幕名翊’.

710 윤근수, 《월정집(月汀集)》 권2, ‘趙斐仲有嶺南佐幕之行詩以敘別’.

711 차천로, 《오산집(五山集)》 권2, ‘贈趙斐仲赴嶺南佐幕’.

712 《광해군일기》 광해군 3년(1611) 2월 2일.

713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권4, 1606년 10월 19일, 원문에는 ‘呂惟吉’로 되어 있으나 여우길(呂祐吉)을 잘못 적은 듯하다.

714 《선조실록》 선조 36년(1603) 7월 4일.

이다. 첨정 여세침(呂世琛)의 증손으로, 조부는 증 승지 여숙(呂淑)이고, 부친은 증 영의정 여순원(呂順元)이다. 모친은 사인 이영(李瑛)의 딸이다.

동방 급제한 이홀(李屹)을 비롯하여 김상헌(金尙憲), 정운호(鄭雲湖) 등과 교유했다. 1591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1596년 사신의 일행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병조정랑, 1597년 평안도사⁷¹⁵와 사간원정언, 1598년 지평과 장령, 1599년 교서 교리, 사복시 첨정, 사헌부 장령, 1600년 사예, 1601년 성균관 직강, 사헌부 집의, 사헌부 직강, 시강원 필선 등을 역임했다. 사관은 덧붙이기를 “여우길은 천성이 부드럽고 노남이 없으므로 늘 좋은 벼슬을 얻었다”라고 했다.⁷¹⁶

1606년 일본이 사신을 보내어 임진년(壬辰年)에 성종(成宗)과 중종(中宗)의 능을 파헤친 무리를 잡아 보내와 화친을 요청하여 10월 일본의 정황을 정탐할 회답사가 되어 1607년 2월에 파견되어 국교를 다시 열었다.⁷¹⁷ 이때 김상헌은 여우길이 일본에 간다고 하여 전송하는 시를 써주었다.⁷¹⁸ 1607년 7월에 돌아올 때는 잡혀갔던 포로 1,340명을 데리고 돌아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⁷¹⁹

한편 왜인들이 강항(姜沆, 1567~1618)의 충의와 절개를 칭송한다

715 여우길은 선조 29년(1596) 10월 20일 사신의 명을 받들고 한양으로 올 때 가족을 모두 데리고 다니며 쇠마(刷馬)를 남용하여 추고를 받은 바 있다. 선조 30년(1597) 5월 7일 그 일로 평안도사 당시 체직되었다.

716 《선조실록》 선조 34년(1601) 11월 6일.

717 예조 전객사(禮曹典客司), 《변례집요(邊例集要)》 권1, 별차왜(別差倭), 회답사의 정식 명칭은 ‘회답 겸 쇠환사(回答兼刷還使)’였다. 통신사(通信使)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적의 정세를 상세히 알 수 없었고 전쟁 책임에 관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회유사(回諭使)’, ‘회답사(回答使)’ 등의 명칭이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피로인(被擄人)의 쇠환(刷還)이라는 파견 임무가 반영되었다.

718 김상헌, 《청음집(淸陰集)》 권2, ‘送呂參議尙夫奉使日本名祐吉’.

719 《선조(수정)실록》 선조 40년(1607) 8월 1일.

며 《동사록(東槎錄)》에 기록하여 밝혔으나, 복인들이 꺼리어 등용하지 않았다. 이후 동지증추부사가 되었고 1608년 연안부사, 1610년 평안도안무사, 1612년 헌납이 되었고, 1614년 5월 진위사로 표문(表文)을 받들고 연경(燕京)으로 갔다. 이어 1615년 강원감사,⁷²⁰ 1618년 공홍감사가 되었다. 1623년 경주부윤이 되었다.

경주읍지인 《동경지(東京志)》에 따르면 1561년 경주에 서악정사(西岳精舍)가 세워졌는데⁷²¹ 임진왜란 때 불타고, 1602년 사우 증건을 시작으로 1610년에 전체 모습을 갖췄다. 여우길이 부윤으로 있을 때 진사 최동언(崔東彦) 등이 상소하여 사액을 내려달라고 청하여, 1623년 서악서원(西岳書院)이라는 사액을 받았다.⁷²²

여우길은 탁월한 외교가로서 임진왜란 이후의 처리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관으로서도 선정을 베풀어 칭송받았다. 경기도 광주시 광동리 산19에 첨지증추부사를 지낸 그의 형인 여여길(呂與吉)과 그의 묘가 있다.

87. 한수민(韓壽民, 1547~?), 재임 : 1604

한수민(韓壽民)은 광주목사로 제수되었으나 곧바로 체직되었다. 한수민의 본관은 청주, 자는 인제(仁濟)이고, 증조부는 한증(韓曾)이고, 조부는 한효원(韓效元)이다.

720 《임영관족회첩(臨瀛館族會帖)》에 따르면 1615년(乙卯)에 강원감사 여우길이 강릉지역을 순행하던 중 강릉지역 유지 100여 명과 강릉부 객사 임영관(臨瀛館)에 모여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성리학적 질서를 재구축하기 위해 결성한 것이 임영족회(臨瀛族會)이다.

721 설총(薛聰), 김유신(金庾信), 최치원(崔致遠)을 제향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퇴계 이황이 현판 글씨를 썼다.

722 송정숙(2016), “퇴계 이황의 서원론 : 서원기(書院記)와 <서원십영(書院十詠)>을 중심으로”, 퇴계학부산연구원 주최 2008년도 전통문화강좌, 2008.7.4.

한효원(韓效元, 1468~1534)의 자는 원지(元之), 호는 오계(梧溪), 영의정 겸 세자사(世子師)로 있던 중 졸하였다. 시호는 장성(章成)이다. 부인은 참봉 김자숙(金自淑)의 딸 상주김씨(尙州 金氏)이다. 첫째 아들은 감찰을 지낸 한유(韓維)이고, 둘째 아들은 정랑을 지낸 한관(韓緝)이다. 한관의 차남이 한수민이다.

한수민은 선조 즉위년(1567) 생원 3등 50위로 입격했고, 1579년(선조12) 식년시 문과에서 을과 4위로 급제하였다. 1599년(선조32) 동지사(冬至使)로 제수되었다.⁷²³ 그러나 사신으로 행차 중 황해도 부근에서 이질로 인하여 상소하여 체차되었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 임금의 명령을 지체하였다고 사헌부로부터 탄핵당하였다.

1601년(선조34) 회양부사(淮陽府使)에 임명되었고, 이후 광주목사(光州牧使)에 제수되었으나⁷²⁴ 또 병으로 부임하지 않았다. 1604년(선조37)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재차 중국을 다녀왔다. 이듬해 공조참의에 제수되었다.

88. 이집(李堦, 1565~?), 재임 : 1604

이집(李堦)은 1604년 광주목사로 제수되었으나 곧바로 체직되었다.⁷²⁵ 이집의 자는 사원(士源)이고 호는 뇌진재(懶進齋)이다. 이계(李繼)의 증손으로, 조부는 이집(李城)이고, 부친은 부사 이준도(李遵道)이며, 어머니는 송희빈(宋希贇)의 딸이다.

1583년(선조16)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93년 차지분급 종사관(次知分給從事官)으로서 전담 및 춘추종자(春秋種子)의 분급을

723 《선조실록》, 선조 32년(1599) 8월 7일.

724 《선조실록》, 선조 37년(1604) 1월 18일.

725 《선조실록》, 선조 37년(1604) 1월 24일.

균일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대로 전답을 매점하였다고 하여 의금부의 옥에 갇혔다.⁷²⁶

1597년 금교찰방(金郊察訪)으로서 가속을 역리(驛吏)의 집에 두고 개인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의 책임을 역리에게 덮어씌움으로 인하여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⁷²⁷ 1599년 부사직으로서 검찰사 유근(柳根)의 종사관이 되어 황해도에 있으면서, 많은 가솔과 비속을 거느리고 민폐를 끼치며 사사로운 일을 관의 권위에 의지하여 촌민들을 억눌러 또다시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다.⁷²⁸ 그 뒤 고산찰방, 세자시강원의 문학, 정언(正言)을 거쳐 지평(持平)이 되었다.

이후 1602년 종성부사,⁷²⁹ 1604년 광주목사(光州牧使)에 제수되었으나 사헌부에서 그가 사람됨이 거칠고 비속하여 종성과 같은 북방의 거진(巨鎭) 부사로서 직분을 다할 수 없고, 광주에는 인자하고 근실한 수령이 요구되므로 그는 합당하지 않다고 아뢰어서 계속 교체되었다. 이후에도 상주목사·장흥부사 등의 외관을 전전하였다.

89. 이경함(李慶涵, 1553~1627), 재임 : 1604~1606

이경함(李慶涵)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 기록에 통정대부로서 광주목사에 부임하였다. 여우길(呂祐吉)이 1603년 7월 밀양부사로 떠난 뒤 광주목사 자리는 비어있다가, 한수민(韓壽民)이 제수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체직되었고, 이어서 이집(李堦)이 제수되었으나 사헌부에서 반대하여 또 체직되었으며, 결국 이경함이 부임하였다.⁷³⁰ 이경함이 선

726 《선조실록》 선조 26년(1593) 10월 2일.

727 《선조실록》 선조 30년(1597) 2월 12일.

728 《선조실록》 선조 32년(1599) 3월 20일.

729 《선조실록》 선조 35년(1602) 3월 4일.

정을 베풀어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이경함의 본관은 한산, 자는 양원(養源), 호는 만사(晩沙)이다. 한성군 이질(李秩)의 증손으로, 조부는 종묘서영 이지숙(李之菽)이다. 부친은 참찬 이증(李增)이며, 모친은 경주이씨는 사직 이몽원(李夢黿)의 딸이다.

1579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85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뽑혀 들어가고, 1593년 사간원 정언·지평·세자시강원 필선을 역임하고, 이듬해부터 사예·장령·지평·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1598년 동부승지,⁷³¹ 1603년 우부승지, 성주목사를 비롯하여 1604년 광주목사에 제수됐다. 두 번이나 표리를 하사받았다.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이 이경함에 대해 ‘광주목사로 부임하는 이양원(경함)을 전송하는 절구시의 서문’을 쓰고 “작은 시를 전별의 선물로 준다”라고 했다.⁷³²

光山朱墨積如陵 광주에는 공문서가 언덕처럼 쌓였을 것인데
昨夢銀臺渺九層 어제는 아득한 구층의 은대에서 잠을 잤네
猶勝將軍盡日睡 그래도 종일토록 잠자는 장군보다 나으니
世間勞逸能無能 세상의 힘들고 편안함은 능력에 달려있다네

730 《선조실록》 선조 37년(1604) 1월 28일, 이에 앞서 한수민(韓壽民, 1547~?)이 1604년 1월 18일, 이질(李堧, 1565~?)이 1월 23일 광주목사로 제수받았으나 체직되고, 1월 28일 이경함이 제수받아 부임하였다.

731 《선조실록》 선조 31년(1598) 7월 2일, 사간원에서 “동부승지 이경함(李慶涵)은 비록 고을을 잘 다스린 공적이 있다고는 하나 인물이 거칠고 교활하여 공의(公議)에 인정받지 못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후설(喉舌)의 막중한 직임을 어찌 합당치 않은 인물에게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개정하도록 명하소서”라고 논했다. 그러나 선조는 윤허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조 33년 10월에도 역시 동부승지로 제수했다.

732 유몽인, 《어우집(於于集)》 권3, ‘送光州牧使李養源(慶涵)絕句序’; 이외에 이수광의 《지봉집(芝峯集)》 권4에 ‘광산으로 가는 이양원을 전송하며[送李養源赴光山]’라는 시도 있다.

1608년 승정원 좌부승지, 황해감사였고, 1609년 동지중추부사, 1610년 경기감사, 호조참판, 1614년 경주부윤 이후 경상감사에 제수했으나 본인이 체직을 청하였다. 1615년 부총관으로, 동지의금부사로 삼았다. 1619년 좌윤, 1621년 지의금, 1622년 금부당상이었다.

광해군 때 병조참판으로 있던 중 폐모론에 반대하다가 탄핵받고 사직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한성부우윤을 제수받고 도총부총관과 의금부를 겸하였다. 1624년 이괄(李适)의 역변(逆變)에 공주의 대가를 호종하였으며, 호조참판⁷³³으로 옮기고 봉상시제조가 되었다. 1625년 나이가 70이 넘었다 하여 물러날 것을 청하자 중추부의 직임에 임명하였다. 대단한 호주가였다. 한창군(韓昌君)에 봉해졌다.

이경함이 세상을 떠난 후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병조참판이공신도비명(兵曹參判李公神道碑銘)’,⁷³⁴ 김진규(金鎭圭, 1658~1716)의 ‘병조참판이공묘지명(兵曹參判李公墓誌銘)’,⁷³⁵ 김덕겸(金德謙, 1552~1633)의 ‘이참판(경함)만사(李參判(慶涵)挽詞)’⁷³⁶가 남아있다.

90. 정구(鄭述, 1543~1620), 재임 : 1606

정구(鄭述)는 《광주읍지》에 기록이 없으나 《광주향교지》에는 올라가 있다. 정구는 광주목사로 제수되긴⁷³⁷ 했지만 병을 이유로 부임을 사절하여 한 달여 뒤에 조희보(趙希輔)가 광주목사로 제수되었다.⁷³⁸

733 《인조실록》 인조 3년(1625) 2월 4일, “천성이 공손하고 근실했으며 도량이 있었으나 다만 쓰기에 적합한 재능이 없었다”라고 평가받았다.

734 남구만, 《약천집(藥泉集)》 권18.

735 김진규, 《죽천집(竹泉集)》 권33.

736 김덕겸, 《청록집(靑陸集)》 권4.

737 《선조실록》 선조 39년(1606) 8월 25일, 광주목사를 제수받았으나 병으로 사양하는 글을 올리고 부임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구의 본관은 청주, 자는 도가(道可), 호는 한강(寒岡),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철산군수를 지낸 정윤증(鄭胤曾)의 증손으로, 조부는 사헌부감찰 정응상(鄭應祥)이고, 부친은 김굉필(金宏弼)의 외손으로 충좌위 부사맹 정사중(鄭思中)이며, 모친은 성주이씨 이환(李煥)의 딸이다.

정구는 성주향교 교수인 5촌 이모부 오건(吳健)에게 수학하고, 1563년 퇴계 이황, 1566년 남명 조식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뒤에 대곡(大谷) 성운(成運, 1497~1579)을 찾아가 또 수학하였다. 영남 학파의 거두로부터 학문의 정통을 모두 배운 셈이다. 1573년 김우옹(金宇顛)이 추천해 예빈시참봉에 임명된 이후 여러 번 관직에 임명되어도 사양했다. 1576년 팔락정(八樂亭)을 짓고⁷³⁹ 마을 학동을 가르치고 유유자적했다.

1580년 비로소 창녕현감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창녕현감으로 선정을 베풀어 마을 사람들이 생사당(生祠堂)⁷⁴⁰을 지어 참배할 정도였다. 창녕에서 ‘흥학교민(興學教民)’의 기치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학당을 설립했는데 이를 정구의 팔재(八齊)라고 부른다. 옥천정(玉泉亭), 술정(述亭), 관산정(冠山亭), 백암정(白巖亭), 물계정(勿溪亭), 부용정(芙蓉亭), 팔락정(八樂亭), 만진정(曼津亭)을 말한다.

1581년 사헌부지평, 1584년 동북현감⁷⁴¹을 거쳐, 이듬해 교정청낭청으로 《소학언해》와 《사서언해》 등의 교정에 참여하였다. 1587년 함안군수, 1591년 통천군수로 나갔다.

738 《선조실록》 선조 39년(1606) 9월 28일.

739 경남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491-2.

740 생사당(生祠堂)은 감사나 수령의 선정을 찬양하는 표시로 그가 살아 있을 때부터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사당을 말한다.

741 《선조(수정)실록》 선조 17년(1584) 3월 1일, “정구는 몸단속을 매우 엄하게 하였으며 예학(禮學)에 힘써 명성이 날로 드러났다. 여러 차례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나오지 않다가 이때 비로소 소명을 받고 현으로 부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수로 재직하면서 창의문을 돌려 의병을 거병하여 통천 지역과 강원도 북부지역까지 쳐들어온 일본군을 상대하여 일본군이 개마고원 이북으로 상륙하는 것을 막아냈다. 또한 선조의 서왕자들이 피난 올 때 다른 수령들은 백성들의 습격과 반발을 우려하여 왕자들을 꺼렸으나, 그는 왕자들을 왕자의 예로써 대접하고 그들의 피신을 도왔다.

1594년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되어 피난 중인 조정에 합류하였다. 1595년 우부승지, 좌부승지, 경연참찬관, 장례원판결사를 지냈다. 1596년 강원감사, 형조참의, 1597년 우부승지, 성천부사가 되었고, 종 2품으로 특별 가자되었다.

1598년 전란이 끝난 후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에 내려가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뜻을 펼쳤다. 1600년 행부호군, 행충무위사직, 관상감 제조로 의인왕후의 능지 선정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승정원우승지·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601년(선조34) 영월군수⁷⁴²를 거쳐 1602년 충주목사로 부임하여 교육시설 확장을 원하는 지역 유림의 건의로 기존의 백운서당을 중수, 지원하여 운곡서원으로 개편하였다. 1603년 홍주목사, 동지(同知)로 전임되었다.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치중하였다.

1604년 공조참판을 지낸 뒤 1606년 광주목사를 제수받았으나 병으로 사양하는 글을 올리고 부임하지 않았다. 1607년 안동부사로 부임하

742 《선조실록》 선조 34년(1601) 9월 18일, “유생(儒生) 출신으로서 당시 명성이 꽤 있었는데, 지난번 성천부사로 있을 때 후궁(後宮)이 그 지방에 머물게 되자 백성들에게 너무 많이 거두어 후궁을 섬겼으므로 사람들이 비평하였다”라고 했다. 그러나 《선조(수정)실록》 선조 34년(1601) 9월 1일에는 “정구는 초야에서 자신을 수양한 선비이다. 궁인을 잘 섬기는 것은 비록 세상의 용렬하고 비루한 자라도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아는데, 어찌 정구의 어짊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겠는가. 이는 정구가 정인홍(鄭人弘)의 사람됨을 미워하여 이웃 고을에 살면서도 서로 왕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홍의 무리가 멋대로 무함하고 비방한 것이니, 괴이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

였다.⁷⁴³ 선조가 승하하자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1608년 광해군 즉위 후 사헌부 대사헌, 세자보양원, 형조참판 등 여러 번 출사를 요구받았으나 관직에 더 이상 뜻을 두지 않았다. 향리로 돌아가 백매원(百梅園)을 설립하고 유생들을 가르쳤다. 《한강문인록(寒岡門人錄)》에는 모두 342명의 문인이 기록되어 있다.⁷⁴⁴

정구는 평생 저술 및 편찬 활동을 활발히 하여 무흘정사(武屹精舍)를 지어 서책을 보관하였다. 《수사언인록》과 《치란제요(治亂提要)》를 편찬했다. 예학 지식에도 탁월했던 정구는 《가례집람보주(家禮輯覽補註)》를 시작으로 《오복연혁도(五福沿革圖)》, 예기와 관혼상제를 설명한 《예기상례분류(禮記喪禮分類)》, 사마광, 장재, 정호, 정이, 주자의 예설을 종합한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를 종합 편찬하였고, 이후 유학자들의 복장인 심의 제조 방법을 기술한 《심의제조법(深衣製造法)》 등을 저술하였다.

그 밖에도 많은 예서를 편찬했으며, 이황이 전수한 예학과 이황과 예학에 관해 주고받은 서신들을 모은 《퇴계상제례문답(退溪喪祭禮問答)》을 간행하여 퇴계 이황의 예학을 소개하였다. 저서로는 《한강문집》, 《태극문변》, 《갯장록》 등이 있다.

문목(文穆)의 시호가 내려졌고 증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이 가증되었다. 성주의 회연서원(檜淵書院)과 천곡서원(川谷書院), 평북 성천의 학령서원(學翎書院), 강원도 통천의 경덕사(景德祠), 대구 현풍의 도동서원(道東書院), 충북 충주의 운곡서원(雲谷書院), 전남 화순

743 정구의 《한강집(寒岡集)》 권2에 보면 선조 40년(1607) 1월 14일에 안동대도호부사로 제수되자 65세가 되면 지방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과 병을 이유로 '안동부사(安東府使)를 사양하는 상소(정미년)[辭安東府使疏 丁未]'를 올린 글이 있다. 하지만 이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44 《광해군일기》 광해군 12년(1620) 1월 5일.

의 도원서원, 경북 칠곡의 사양서원(泗陽書院), 경남 창녕의 관산서원(冠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91. 조희보(趙希輔, 1553~1622), 재임 : 1606~1611

조희보(趙希輔)는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에 1606년(선조36) 문과 당하관으로 광주목사로 부임하였다. 정사를 엄하게 하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온 경내가 잘 다스려졌다고 했다.

암행어사와 감사에 의하여 광주목사 조희보의 선정이 중앙에 보고되어 표리를 하사받고 통정대부 당상관으로 가자될 정도였다. 광주목사에서 물러난 뒤 고을 백성들이 비를 세워 공적을 기렸다는 기록이 《광주읍지》에 있다.

조희보는 광주목사로 있을 때 광산구 비아에서 아들 조형(趙珩, 1606~1679)을 낳았다. 관아는 광주읍성 내에 있었지만, 당시 법도에 고을 수령이라고 해도 관아에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관아에서 한참 떨어진 광산현 비아 천곡의 칠拙齋 박창우(朴昌禹, 1600~1643)의 집을 산실로 부탁해 낳았다는 것이다. 호남 선비들에게 추앙받았던 박창우는 이 무렵 7살 무렵의 어린 나이였다.⁷⁴⁵

조희보의 본관은 풍양, 자는 백익(伯益)이다. 장령을 지낸 조익상(趙益祥)의 증손으로 정국공신 자헌대부 풍양군으로 추증된 조부는 조세찬(趙世贊)이고, 부친은 증 참판 조기(趙磯)이며, 모친은 이숙(李淑)의 딸이다. 부인은 교하노씨(交河盧氏)이다. 형은 조희철(趙希轍)과 조희식(趙希軾)이다.

745 박창우의 손자가 안촌(安村) 박광후(朴光後, 1637~1678)로 자는 사술(士述)이다. 문곡 김수항은 우암 송시열에게 보낸 글에서 “사술이 죽으니 남주에 다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1582년(선조15) 사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고, 158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예문관검열이 되었다가 대교·봉교를 거쳤다. 1591년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상복을 벗자마자 또다시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다.

1595년 이후 예조·형조·호조의 낭관 등에 있다가 예문관봉교에 제수되었고 1596년 병조좌랑이 되었다. 이때 사관은 덧붙이는 글에 “국가에 일이 많은 이때 병사(兵事)를 맡는 관원은 기무(機務)가 번다한데, 조희보처럼 가냘프고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좋지 않은 평가를 했다.

1597년 충청도사가 되어서는 감사 유근(柳根)을 도와 임진왜란의 뒷바라지에 힘썼다. 당시에는 군사를 일으키는 일이 있어 사무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공은 순찰사를 보좌하면서 잘 조처하니, 순찰사 유근이 매우 칭찬하였다.

1599년 평양서윤이 되었고 이듬해 시강원필선에 임명되었으며, 당시 권력을 집중시키던 정인홍(鄭仁弘)에게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하였다. 1601년 사헌부지평이 되었고⁷⁴⁶ 이어서 장령·집의, 사간원 사간, 사예가 되었다. 1602년 북방에 흉년이 들자 함경도 구황어사로 파견되어 진휼 활동에 공을 세웠다.⁷⁴⁷ 이어 성균관 사성⁷⁴⁸이 되었다.

1603년 조정에 분란이 격화되면서 대동찰방으로 나갔다가 1606년 사도시정을 거쳐서 광주목사, 1611년(광해군3) 삼척부사에 이어 성주목사로 임명되었고 이듬해는 관내 정인홍의 세력을 믿고 횡포를 자행하는 토호(土豪)를 엄벌하였다가 탄핵받아 파직되었다. 1615년 분승

746 《선조실록》 선조 34년(1601) 4월 24일, 이때 사관은 “위인이 못나고 처사가 망령된 것이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747 《선조실록》 선조 35년(1602) 5월 9일.

748 《선조실록》 선조 35년(1602) 8월 27일, 사관은 그를 “망령되고 독할 뿐 다른 것은 볼 만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지·분병조 등의 업무를 맡았으나 길게 재임하지 못하였고, 1622년 광해군과 대북 세력이 이끄는 중앙 정국을 피하여 원주로 물러났다.

세상을 떠난 뒤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에 녹훈되었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의 묘갈명,⁷⁴⁹ 박홍미(朴弘美, 1571~1642)의 만사,⁷⁵⁰ 김세렴(金世濂, 1593~1646)의 묘지⁷⁵¹ 등이 있다.

92. 서경천(徐擎天, ?~?)

서경천(徐擎天)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 기록에는 있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광주읍지》에 서경천은 무과 통정대부로 부임하였다는 기록만 있다.

조사할 수 있는 많은 기록을 들여다보았으나 전혀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서경천의 이름을 잘못 적은 오류 사례로 보인다.

다만 《광주읍지》에 1552년 재임했던 임봉(林鵬, 1486~1553) 다음으로, 그리고 1543년 재임한 송순(宋純, 1493~1582)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어 1540~50년대 무렵 부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93. 윤시형(尹時亨, ?~?)

윤시형(尹時亨)은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 기록에는 있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광주읍지》에서 윤시형은 문과 가선대부로 부임하였다는 기록만 있다.

749 이경석, 《백헌집(白軒集)》 권46, '分承旨贈吏曹判書趙公墓碣'.

750 박홍미, 《관포집(灌圃集)》 권상, '代趙承旨(希輔)爲南公濟作挽'.

751 김세렴, 《동명집(東溟集)》 권18, '分承旨贈吏曹判書趙公墓誌'.

조사할 수 있는 많은 기록을 들여다보았으나 전혀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윤시형의 이름을 잘못 적은 오류 사례로 보인다.

다만 《광주읍지》에 1553년 재임했던 오겸(吳謙, 1496~1582)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 1550년대 무렵 부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광주민속박물관(2003), 《국역 광주읍지》(1924)
광주직할시(1990), 《광주읍지》(1879)
광주향교(1964), 《광주지》
광주향교(2021), 《광주향교지》
박종현(1986), 《청백리아곡박선생실기(清白吏菴谷朴先生實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2013), 《광주읍성》

[논문]

- 권기중(2020), “조선시대 전라도 수령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4, pp.7~46.
권혁명(2012), “白麓 辛應時의 삶과 詩世界”, 우리어문연구 42, pp.191~211.
김덕진(2019), “15세기 光州牧 邑號陞降과 喜慶樓”, 조선시대사학보 91, pp.7~32.
김덕진(2021), “광주목의 복호와 희경루의 건립”, 필문이전제선생기념사업회, pp.31~46.
김순남(1996), “조선초기의 당상관”, 사충 45, pp.99~133.
김창현(1997), “조선초기 문과급제자의 출신 배경”, 역사학보 155, pp.25~60.
김창현(1998), “조선초기 문과급제자의 진출”, 조선시대사학보 7, pp.1~37.
김학수(2020), “초암(草庵) 정윤우(丁允祐) 연구 - 16세기 지식인의 관료의식과 그 실천”, 한국계보연구 10권, pp.279~347.
노중국(1991), “한성시대 백제의 담로제 실시와 편제기준”, 계명사학 2, pp.1~31.
박정혜(2002), “16·17세기의 사마방회도”, 미술사연구 16, pp.297~332.
박현순(2014), “조선의 과거제도 속으로… 문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시험 보는가?”, 한국역사연구회, www.koreanhistory.org/
소순규(2020), “조선전기 座目の 운영과 당상관 인사 관행”, 조선시대사학보 94, pp.81~119.
손계영(2018), “1434년 辛保安 妻 鄭氏 分財記 연구”, 영남학 66, pp.181~215.
송기호(2011), “수령과 선정비”, 대한토목학회지 59(5), pp.74~81.

- 송양섭(2016),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수령 인식과 지방행정의 방향”, 다산학 28, pp.65~106.
- 양승천(2017), “송천 양응정의 국방의식과 남북제승대책”, 호남문화연구 61, pp.193~222.
- 오선주(2008), “李愼儀 시조에 나타난 ‘벗’ 인식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67, pp.247~272.
- 원재영(2018), “18세기 지방행정과 수령의 역할”, 한국사연구 182, pp.297~337.
- 이선희(2005), “18세기 수령과 감사의 행정마찰과 처리방식 -《嘉林報草》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7, pp.85~111.
- 이태준(2014), “조선의 박수량(朴守良)과 명나라 해서(海瑞)의 반부패 행적 및 청렴성 비교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36, pp.149~177.
- 이태진(1972), “사립파의 유향소 복립운동(상)”, 진단학보 34, pp.5~34.
- 임선빈(2018), “16세기 杏堂 尹復의 관직생활”, 역사민속학 54, pp.183~216.
- 임승표(1990), “조선시대 읍호승강에 관한 연구(상)”, 민족문화 13, pp.205~227.
- 전경목(2015),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연구”, 조선시대사학보 7, pp.71~113.
- 조해숙(2003), “전승과 향유를 통해 본 ‘開巖十二曲’의 성격과 의미”, 국어국문학 133, pp.253~283.
- 최한선(2003), “송순의 생애와 시문학”, 열린시학 8(4), pp.408~419.

[누리집]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국사편찬위원회 www.history.go.kr/

국역 국조인물고 <https://terms.naver.com/>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snu.ac.kr/

조선왕조실록사전 encysillok.aks.ac.kr/

한국고전번역원 www.itkc.or.kr/

- 동국여지지
- 승정원일기
- 신증동국여지승람
- 연려실기술

- 일성록

- 조선왕조실록

- 해제 한국문집총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people.aks.ac.kr/

한국학종합DB db.mkstudy.com/ko-kr/

한국학중앙연구원 www.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www.grandculture.net/

* 이밖에 전국의 각 지역문화원과 각 문중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일부 인용했으나 일일이 표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부 록

부록 : 《광주선생안》의 광주 수령

《광주선생안》에서 정리한 수령들의 기록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는 상권에 수록된 수령들의 기록이지만 아직 미완성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중·하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광주 수령들의 기록을 더 찾아내길 기대한다. 최종적으로 하권의 마지막에 부록으로 광주 수령의 전체적인 표를 만들어 완성할 예정이다.

〈표〉 광주선생안(상권)의 광주 수령

성명	읍지	향교지	생몰연도	제수/부임	직위
천훈(天訓)	○		650?~?	678.4.~?	무진주도독
김한창(金憲昌)			780?~822	813.1.-814.8.	무진주도독
김양(金陽)	○		808-857	828~?	무주도독
김일(金鎰)			900?~?	930?~?	무주도독
탁이위(卓理位)			1230?~?	1250?~?	지해양현사
이성(李晟)			1251~1325	1320?~?	화평부사
김연(金暉)			1300?~1360?	1345?~?	화평부사
이운길(李云吉)			1300?~1370?	1362?~?	무진부사
김상(金賞)			?~1389	1370?~?	무진부사
황가중(黃居中)			?	1380?~?	광주목사
김준(金準)			?	1384~?	광주목사
이서(李舒)	○		1332~1410	1390~1392	광주목사
유호(柳灝)		○	?	1392?~1396?	광주목사
이민(李岷)			1360?~1420?	1400?~?	광주목사
이숙야(李叔野)			1377~?	1410?~?	광주목사
이각(李愨)		○	?	?~1415.9.12.	광주목사
최부(崔府)		○	1370~1452	?~1417.6.16.	광주목사
권담(權澗)	○	○	?~1423.	1420?~1421.8.17.	광주목사
김포(金苞)		○	?	1421.8.17.~?	판광주목사
전구생(全俱生)			?	1422?~?	광주목사
신보안(辛保安)	○	○	?~1428.7.22.	?~1428	광주목사

성명	읍지	향교지	생몰연도	제수/부임	직위
최종리(崔宗理)			?	1433.윤8.3.~?	지무진군사
양기(梁岐)			?	1435.2.10.~1439.2.19.	지무진군사
오치선(吳致善)			?	1442.7.27.~?	지무진군사
안철석(安哲石)	o	o	?	1450.2.14.~?	무진군사 광주목사
이다림(李多林)		o	1394~1468	1453~1455.8.21.	광주목사
송휴명(宋休明)		o	?	1456~1457	광주목사
유곡(柳囑)			1415~?	?~1461.10.20.	광주목사
김수(金脩)		o	?	~1465.7.4.	廣州散使
성순조(成順祖)		o	1418~1473	1466.8.17.~1469.8.6.	행광주목사
이영구(李英奇)	o	o	?	1472.2.1.~?	행광주목사
문수덕(文修德)		o	?	1475~1476	광주목사
김순보(金舜輔)		o	?	1479.7.4.~1480	행광주목사
설순조(薛順祖)	o	o	1427~1496	1480~?	광주목사
윤탄(尹坦)		o	?	?~1482.2.7.	광주목사
박미(朴楣)		o	1433~1491	1482~1485?	광주목사
유양(柳襄)		o	?	?~1487.11.14.	광주목사
권정(權廷)		o	?	1488.11.11.	廣州散使
권수평(權守平)	o	o	1461~1524	1488~?	광주목사 광산현감
김석(金碩)			?	1490?~?	광산현감
신한(申漢)			?	1500?~?	광산현감 광주목사
이죽(李茁)		o	1448~1528	?~1507.5.15.	광주목사
이세정(李世貞)			1461~1522	1507夏~?	광주목사
남윤(南潤)		o	1452~?	1510.1.12.~?	광주목사
이원성(李元成)			?	?~1511?	광주목사
정순(鄭詢)			1456~1527	1523~1524	광주목사
송흥(宋興)		o	1459~1547	1524.8.~1525	광주목사
양계벽(梁季璧)		o	?	?~1530?	광주목사
남효의(南孝義)			1474~1551	1530.2.28.	부임없음
장세필(張世弼)		o	1447~1552	1530.3.8.~1531.윤6.13.	광주목사
신한(申翰)	o	o	1482~1543	1531秋~1536	광주목사

성명	읍지	향교지	생몰연도	제수/부임	직위
박우(朴祐)		o	1476~1547	1536~1537.8.5.	광주목사
이만손(李萬孫)		o	?	1537.8.15.	광주목사
이홍간(李弘幹)	o	o	1486~1546	1540~1543	광주목사
송순(宋純)	o	o	1493~1582	1543~1544	광주목사
박수량(朴守良)			1491~1554	?~1545.2.23.	광주목사
안수량(安秀良)			1486~?	1545.2.23.~?	광주목사
조안국(趙安國)	o	o	1501~1573	?~1548.1.11.	광주목사
이개(李瑬)			?	?~1549?	광주목사
김응두(金應斗)	o	o	1492~1552	?~1550	광주목사
임구령(林九齡)	o	o	1501~1562	1550.2.11.~1552.2.29.	광주목사
임봉(林鵬)	o	o	1486~1553	1552~1553.6.16.	광주목사
오겸(吳謙)	o	o	1496~1582	1553.6.16.~1555?	광주목사
이희손(李希孫)	o	o	1497~1566	1555~1557.11.20.	광주목사
박자방(朴自芳)	o	o	?	1557~?	광주목사
황윤건(黃允奮)	o	o	?	1559	광주목사
이증영(李增榮)		o	?~1563	1559~1560	광주목사
유경심(柳景深)	o	o	1516~1571	1560~1562	광주목사
윤복(尹復)	o	o	1512~1577	1562.9.18.~?	광주목사
김적(金適)	o	o	1507~1579	1563~1564	광주목사
신륵(辛穡)	o	o	1504~1565	1564~1565.5.	광주목사
최응룡(崔應龍)	o	o	1514~1580	1566~1567	광주목사
양응정(梁應鼎)	o	o	1519~1581	1568~1570	광주목사
이순형(李純亨)	o	o	1498~?	1570~1571.3.6.?	광주목사
윤행(尹行)	o	o	1508~1592	1571.8.24.~?	광주목사
임회(林薈)	o	o	1508~1573	1572~?	광주목사
민철명(閔哲命)			?	1573?	광주목사
곽규(郭圭)	o	o	1521~1584	1573?	광주목사
홍보(洪溥)	o	o	1521~?	?~1573.10.6.	광주목사
임훈(林薰)	o	o	1500~1584	1573.10.11.~1574冬	광주목사
성수익(成壽益)	o	o	1528~1598	1575~1577	광주목사
윤희길(尹希吉)	o	o	1534~?	1577~1580	광주목사
김우홍(金宇弘)	o	o	1522~1590	1580?	광주목사

성명	읍지	향교지	생몰연도	제수/부임	직위
신응기(辛應基)		o	1530?~?	1580.10.12.	광주목사
신응시(辛應時)	o	o	1532~1585	1580~1582.9.7.	광주목사
이장영(李長榮)	o	o	1521~1589	1582.10.9.~?	광주목사
정염(丁焰)	o	o	1524~1609	1584冬~?	광주목사
권덕여(權德興)	o	o	1518~1591	?~1585.2.20.	광주목사
안용(安容)	o	o	1522~1586.9.30.?	1585~?	광주목사
김행(金行)	o	o	1532~1588	1586~1587.9.7.	광주목사
김우광(金宇宏)	o	o	1524~1590	1587秋-1589春	광주목사
오윤(吳潤)	o	o	1540~1617	1589-1590	광주목사
정윤우(丁允祐)	o	o	1539~1605	1591~1592.4.	광주목사
권율(權栗)	o	o	1537~1599	1592.4.	광주목사
장의현(張義賢)	o	o	1530~?	1593	광주목사
최철견(崔鐵堅)	o	o	1548~1618	1593~1596	광주목사
이정신(李廷臣)	o	o	1559~1627	1596~1598	광주목사
이상길(李尙吉)	o	o	1555~1637	1598~1602	광주목사
조익(趙翊)			1556~1613	1602	광주목사
여우길(呂佑吉)	o	o	1567~1632	1602~1603	광주목사
한수민(韓壽民)			1547~?	1604.1.18.	광주목사
이집(李埴)			1565~?	1604.1.23.	광주목사
이경환(李慶澗)	o	o	1553~1627	1604.1.28.~1606	광주목사
정구(鄭逵)		o	1543~1620	1606.8.25.	광주목사
조희보(趙希輔)	o	o	1553~1622	1606.9.28.~1611	광주목사
서경천(徐擎天)	o	o	?	1540년대	광주목사
윤시형(尹時亨)	o	o	?	1550년대	광주목사

* 《광주읍지》와 《광주향교지》의 '선생안'에 이름이 있는 경우 해당 칸에 o 표시를 하였다.

찾아보기

[ㄱ]			
가정집(稼亭集)	66	권수평(權守平)	124
갈천서당(葛川書堂)	213	권율(權慄)	248
갈천집	213	권흥(權興)	72
강재집(剛齋集)	74	금성일기(錦城日記)	84
강항(姜沆)	265	기대승(奇大升)	184
강희맹(姜希孟)	124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157
개암집(開巖集)	239	김광철(金光轍)	169
견훤(甄萱)	17	김균정(金均貞)	58
고경명(高敬命)	198, 215	김문발(金文發)	100
고려시대	62	김부대왕동(金傅大王洞)	60
고운집(孤雲集)	59	김상(金賞)	69
곤의서원(昆義書院)	68	김석(金錫)	127
곽규(郭趯)	209	김세우(金世愚)	128
관수정(觀水亭)	139	김순보(金舜輔)	112
광주객사동헌기(光州客舍東軒記)	113	김양(金陽)	56
광주읍지	48	김연(金暉)	65
광주자사(光州刺史)	18	김우굉(金宇宏)	239
광주향교지	48	김우옹(金宇顛)	221
괴정집(槐亭集)	89	김우징(金祐徵)	58
구봉령(具鳳齡)	216	김우홍(金宇弘)	220
구암서원(龜巖書院)	75	김응두(金應斗)	169
구촌집(龜村集)	186	김인준(金仁俊)	18
권근(權近)	74	김인후(金麟厚)	154
권담(權湛)	88	김일(金鎰)	59
권덕여(權德輿)	233	김적(金適)	189
		김종직(金宗直)	111, 120

김준(金準)	76	문수덕(文修德)	110
김포(金苞)	90	미암집(眉巖集)	35, 187, 205
김행(金行)	237	민철명(閔哲命)	208
김헌창(金憲昌)	54		

[ㅂ]

[ㄴ]		박광옥(朴光玉)	246
남울(南慄)	133	박미(朴楣)	118
남행록(南行錄)	34	박수량(朴守良)	38, 162
남효온(南孝溫)	134	박우(朴祐)	150
남효의(南孝義)	144	박은(朴闇)	90
노극신(盧克愼)	183	박자방(朴自芳)	181
노상추일기	44	백록유고(白麓遺稿)	228
노수신(盧守愼)	206, 242		
노지(奴只)	15, 16		
노진(盧稹)	229		
노흥준(盧興俊)	18, 91		

[ㄷ]

		삼마태수	152
		서경천(徐擎天)	276
		서하당유고(棲霞堂遺稿)	242
		석서정(石犀亭)	73
		석서정기(石犀亭記)	70
		석탄집(石灘集)	36
		설순조(薛順祖)	113
		설천용(契天用)	71
		설향(雪香)	19
		성수익(成壽益)	214
		성순조(成順祖)	107
		성현(成僼)	108, 113
		소재집(蘇齋集)	242
		속몽구(續蒙求)	35
		송순(宋純)	35, 159
		송진집(松川集)	197

[ㄹ]

당상관(堂上官)	39
동천집(東川集)	35

[ㄴ]

만헌집(晩軒集)	233
면양정(俛仰亭)	160
면양집(俛仰集)	35, 161
모계집(茅溪集)	68
목민관(牧民官)	25
목은집(牧隱集)	83
무진부(茂珍府)	18
무진주(武珍州)	14

송치규(宋耨圭)	74, 170	오치선(吳致善)	95
송휴명(宋休明)	104	오횡묵(吳宥默)	43
송흠(宋欽)	137	용검	18
수령(守令)	23	용성창수록(龍城唱酬錄)	201
수령칠사(守令七事)	24, 29	원숙(元肅)	90
신륜(辛崧)	191	위계서원(葦溪書院)	69
신보안(辛保安)	91	위백규(魏伯珪)	207
신숙주(申叔舟)	100	유경심(柳景深)	184
신응기(辛應基)	222	유곡(柳穀)	105
신응시(辛應時)	224	유몽인(柳夢寅)	154
신한(申漢)	130	유서석록(遊瑞石錄)	212
신한(申瀚)	148	유양(柳壤)	121
신흠(申欽)	246	유종(柳宗)	76
심언광(沈彦光)	149	유척기(兪拓基)	79
		유호(柳灑)	79
		유희춘(柳希春)	214
		윤근수(尹根壽)	210
		윤복(尹復)	187
		윤시형(尹時亨)	276
		윤유린(尹有麟)	76
		윤탄(尹坦)	116
		윤행(尹行)	203
		윤희길(尹希吉)	219
		이각(李愨)	84
		이거(李堦)	167
		이경함(李慶涵)	268
		이곡(李穀)	66
		이다림(李多林)	102
		이달충(李達衷)	67
		이대유(李大叟)	231
[○]			
아찬(阿澹)	52		
안선(安璿)	129		
안수량(安秀良)	164		
안용(安容)	235		
안철석(安哲石)	98		
양계벽(梁季璧)	143		
양기(梁岐)	94		
양응정(梁應鼎)	33, 197		
양촌집(陽村集)	74		
여우길(呂祐吉)	264		
역대병요(歷代兵要)	104		
오겸(吳謙)	175		
오운(吳漚)	242		
오자치(吳自治)	175		

이만손(李萬孫)	153	임봉(林鵬)	172
이민(李岷)	81	임억령(林億齡)	171
이상길(李尙吉)	35, 259	임계(林梯)	173
이서(李舒)	76	임희(林薈)	205
이선제(李先齊)	50	임훈(林薰)	211
이성(李晟)	64		
이세정(李世貞)	132		
		[ㄱ]	
이수광(李睟光)	33	장세필(張世弼)	147
이숙야(李叔野)	83	장안국(長安國)	54
이순형(李純亨)	201	장의현(張義賢)	252
이신의(李愼儀)	35	전구생(全俱生)	90
이영구(李英耇)	108	점필재집	111
이운길(李云吉)	68	정곤수(鄭峴壽)	124
이원성(李元成)	134	정구(鄭述)	270
이장영(李長榮)	228	정사용(鄭士龍)	173, 191
이정란(李廷鸞)	255	정순(鄭洵)	135
이정신(李廷臣)	256	정약용(丁若鏞)	34, 253
이정흠(李廷讜)	260	정염(丁焰)	231
이제신(李濟臣)	179	정옥형(丁玉亨)	208
이종학(李種學)	34	정윤우(丁允祐)	34, 246
이茁(李茁)	130	정황(丁煥)	231
이증영(李增榮)	182	조선시대	78
이집(李埶)	267	조식(曹植)	191
이천(李蒨)	67	조안국(趙安國)	166
이초의 옥	89	조익(趙翊)	262
이홍간(李弘幹)	154	조희보(趙希輔)	274
이황(李滉)	184	주세붕(周世鵬)	192
이희손(李希孫)	178	죽곡집(竹谷集)	231
인재유고(麟齋遺稿)	34	지수재집(知守齋集)	79
임구령(林九齡)	170	지익주사(知翼州事)	18

지지당유고(知止堂遺稿)	142	호음잡고(湖陰雜稿)	191
		홍보(洪溥)	210
[ㄸ]			
창랑집(滄浪集)	242	화평부(化平府)	18
천훈(天訓)	52	환연(宦緣)	32
최부(崔府)	86	황거중(黃居中)	73
최부(崔溥)	58	황윤건(黃允審)	182
최응룡(崔應龍)	35, 193	희경루(喜慶樓)	49, 102
최종리(崔宗理)	93	희경루기(喜慶樓記)	102, 149
최철견(崔鐵堅)	254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	193
추강집(秋江集)	134		
[ㅐ]			
탁이위(卓理位)	62		
탁지엽(卓之葉)	63		
통일신라시대	51		
[ㅑ]			
표해록(漂海錄)	58		
[ㅎ]			
학림서원(鶴林書院)	170		
한수민(韓壽民)	266		
해양현령관(海陽縣令官)	18		
허목(許穆)	246		
허백당문집	108		
허항(許沆)	152		
허확(許確)	151		
호산춘(壺山春)	142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20

광주선생안

무진주도독에서 광주광역시까지(上)

인쇄 2024년 11월 20일

발행 2024년 11월 30일

발행인 홍영기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정인서

편집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979-11-90608-99-2 (94910)

979-11-90608-28-2 (세트)

이 책은 무진주도독에서 광주광역시장까지 역대 광주의 행정책임자인 수령에 대한 기록이다. 각종 자료를 근간으로 광주에서의 활동과 치적을 정리했으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인물 중심의 행장을 정리하였다. 기존 자료의 인명이나 근무기간 등 오류를 수정하고, 상권에서만 105명 가운데 통일신라 2명, 고려 7명, 조선 18명 등 그동안 소개되지 않은 27명의 수령을 발굴하였다.



값 20,000원

ISBN 979-11-90608-99-2
ISBN 979-11-90608-28-2 (세트)